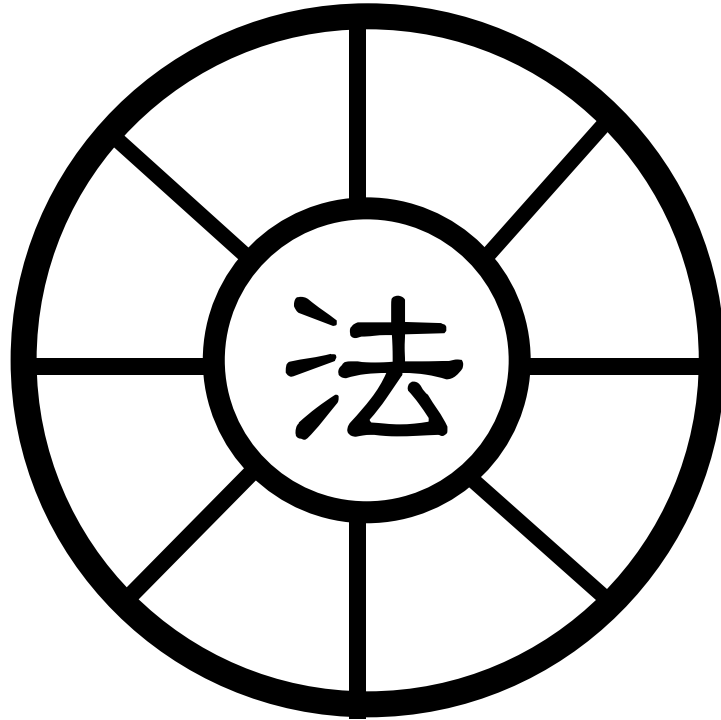


법화삼부경 한글본

무량의경 . 정법화경 . 관보현보살행법경



21세기 佛敎 최고지도자 양성기관

法華經敎育院

<http://www.saddhama.info> ☎ 0502-353-9121

57057 전남 영광군 묘량면 황량로 369-12

법화삼부경 목차

法華三部經目次

무량의경 無量義經

제일 덕행품 ----- 6

제이 설법품 ----- 17

제삼 십공덕품 ----- 29

정법화경 正法華經

정법화경 권제일 正法華經卷第一

제일 광서품 ----- 48

제이 선권품 ----- 95

정법화경 권제이 正法華經卷第二

제삼 응시품 -----150

정법화경 권 제삼
正法華經卷第三

제사신락품
第四信樂品

-----220

제오약초품
第五藥草品

-----255

제륙수성문결품
第六授聲聞決品

-----287

정법화경 권 제사
正法華經卷第四

제칠왕고품
第七往古品

-----305

정법화경 권 제오
正法華經卷第五

제팔수오백제자결품
第八授五百弟子決品

-----364

제구수아난라운결품
第九授阿難羅雲決品

-----400

정법화경 권 제륙
正法華經卷第六

제십약왕여래품
第十藥王如來品

-----412

제십일칠보탑품
第十一七寶塔品

-----441

제십이권설품
第十二勸說品

-----464

정법화경 권 제 칠
正法華經 卷 第七

제 십삼 안행품
第十 三 安 行 品 -----474

제 십사 보살종지응출품
第十 四 菩 薩 從 地 踊 出 品 -----507

제 십오 여래현수품
第十 五 如 來 現 壽 品 -----533

정법화경 권 제 팔
正法華經 卷 第八

제 십륙 어복사품
第十 六 御 福 事 品 -----554

제 십칠 권조품
第十 七 勸 助 品 -----578

제 십팔 탄법사품
第十 八 歎 法 師 品 -----590

정법화경 권 제 구
正法華經 卷 第九

제 십구 상피경만품
第十 九 常 被 輕 慢 品 -----628

제 이십 여래신족행품
第二 十 如 來 神 足 行 品 -----640

제 이십일 약왕보살품
第二 十 一 藥 王 菩 薩 品 -----650

제 이십이 묘후보살품
第二 十 二 妙 吼 菩 薩 品 -----665

정법화경 권 제십
正法華經 卷第十

제이십삼 광세음보문품 -----677
第二十三 光世音普門品

제이십사 총지품 -----685
第二十四 總持品

제이십오 정부정왕품 -----693
第二十五 淨復淨王品

제이십륙 락보현품 -----707
第二十六 樂普賢品

제이십칠 축루품 -----716
第二十七 勸累品

제이십팔 범지품 -----719
第二十八 梵志品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 ----- 728
佛說觀普賢菩薩行法經

법화삼부경 목차 종
法華三部經 目次 終

무량의경

1. 덕행품(德行品)

이와 같이 나는 들었느니라.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중에 계시여 큰 비구 대중(大衆) 1만2천과 함께 계셨으며, 보살마가살(菩薩摩訶薩) 8만인과 천(天) 룡(龍) 야차(夜叉) 건달파(乾闥婆) 아수라(阿修羅) 가루라(迦樓羅) 긴나라(緊那羅) 마후라가(摩睺羅伽)와 모든 비구(比丘) 비구니(比丘尼) 우파새(優婆塞) 우파이(優婆夷)도 함께 하였으니, 대전륜왕(大轉輪王) 소전륜왕(小轉輪王) 금륜(金輪) 은륜(銀輪)의 모든 륜왕(輪王)등과 국왕(國王) 왕자(王子) 국신(國臣) 국민(國民) 국사(國士) 녀인(女人) 대장자(大長者)와 그의 각각 권속 백천만의 수가 스스로 위요(圍遶)해서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와 얼굴로 발에 례배(禮拜)하고 백천번을 돌며 향을 피우고 꽃을 흩어 가지가지로 공양을 마치고 물러서 한쪽에 앉자 있었느니라.

그 보살들의 이름은 문수사리법왕자 대위덕장법왕자 무우장법왕자 대변장법왕자 미륵보살 도수보살 약왕보살 약상보살 화당보살 화광당보살 타라니자재왕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상정진보살 보인수보살 보적보살 보장보살 월삼계보살 비마발라보살 향상보

살 대향살보살 사자후왕보살 사자유희세보살 사자분신보살 사자
정진보살 용예력보살 사자위맹복보살 장엄보살 대장엄보살 등이
니, 이와 같은 보살마가살 8만 인이 함께하셨다.

이 모든 보살은 다 법신대사(法身大士)이니 계(戒) 정(定) 혜(慧)
해탈(解脫)과 해탈지견(解脫知見)을 성취하였느니라. 그 마음이
선적(禪寂)하고 항상 삼매(三昧)에 있어 편안하고 담박(澹泊)해서
무위무욕(無爲無欲)함이라. 전도(顛倒)되는 어지러운 생각이 다
시 들지 못하며 고요하고도 맑고 뜻이 심오해서 항상 넓고 편안
함이라.

억백천 겁을 지키되 동(動)하지 아니하며 한량없는 법문(法門)이
모두 앞에 나타나 있음이라. 큰 지혜를 얻어 모든 법을 통달하고
성(性)과 상(相)의 진실을 밝히어 분별하되 있고 없음과 길고 짧
음을 밝게 나타내시니라.

또는 모든 근(根)과 성(性)과 욕(欲)을 잘 알며, 타라니(陀羅尼)
와 걸림이 없는 변재(辯才)로써 모든 부처님의 법륜 전하심을 순
히 좃아 능히 전함이라.

작은 물방울을 먼저 떨어뜨리어 욕망의 먼지를 씻어 주며, 널반
(涅槃)의 문을 열고 해탈의 바람을 부채질하여 세상의 괴로운 열
풍(熱風)을 제(除)하고 청정한 법에 이르도록 하신다.

다음에는 심히 깊은 십이 인연(十二因緣)의 법을 내려 무병(無

明) 로(老) 병(病) 사(死) 등의 맹렬히타는 고(苦)의 모임(聚)을 해의 광명으로 씻고, 이에 크고도 넓은 위없는 대승(大乘)을 기울여 중생이 가진 모든 선근을 윤택하게 적시고 선(善)의 종자(種子)를 뿌려 공덕(功德)의 밭에 두루 퍼서 널리 일체로 하여금 보제(菩提)의 싹을 트게하신다. 지혜(智慧)는 일월(日月)이요, 방편(方便)은 시절(時節)이라. 대승의 사업을 북돋아 더하고 길러 중생으로 하여금 아늑다라삼막삼보제(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속히 이룩하여 항상 쾌락에 머무르게 하며, 미묘한 진실과 한량 없는 대비(大悲)로 괴로운 중생을 구원하신다.

이는 모든 중생들의 크고도 좋은 복전(福田)이라.

이는 모든 중생들의 청하지 않은 스승이며, 이는 모든 중생들의 안온하고도 즐거운 처소이며, 구원하는 곳이며, 보호하는 곳이며, 크게 의지할 곳이다.

곳곳마다 중생들을 위하는 크고 어진 도사(導師)가 되며 크게 인도하는 스승이라. 능히 눈먼 중생들을 위하여는 눈이 되고, 귀머거리, 코머거리, 병어리에게는 귀가 되고, 코가 되고, 혀가 되며, 모든 근(根)이 허물어지면 그들로 하여금 구족(具足)하게 하며, 전도(顛倒)되어 미치광이처럼 거칠고 어지러울지라도 크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리라. 배의 스승이며 큰 배의 스승(大

船師)이시라. 모든 증생들을 싣고 생사의 물결을 건너게 하여
 널반(涅槃)의 언덕에 덤이랴.

의왕(醫王)이며, 대의왕(大醫王)이시라. 병(病)의 상(相)을 분별
 하고 약(藥)의 성품을 밝게 알아서 병에 따라 약을 주어 증생들
 로 하여금 약을 먹게 함이랴.

조어(調御)시며 큰 조어(大調御)이시라. 모든 것에 방일(放逸)된
 행이 없음이랴. 코끼리나 말의 스승이 능히 길들여, 길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음과 같으며, 사자의 용맹한 위엄이 모든 짐승
 들을 조복시켜서 꺾이지 않는 것이 없음과 같음이랴.

보살의 모든 파라밀(波羅蜜)에 유희(遊戲)하고 여래의 경지에서
 견고하여 동(動)하지 아니하며, 원력(願力)에 편안히 머물러 널리
 부처님 나라를 깨끗이 하여 오래지 않아서 아녹다라삼막삼보제
 (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이룩하여 얻으리랴. 이 모든 보살마가
 살(菩薩摩訶薩)은 다 이와 같은 불사의(不思議)의 덕(德)이 있느
 니라.

그 비구의 이름은 큰 지혜의 사리불, 신통 목건련, 혜명 수보제
 (須菩提), 마가(摩訶) 가전연, 미다라니의 아들 부루나, 아야교진
 여, 천안(天眼) 아나를, 지를(持律) 우파리, 시자(侍者) 아난, 부
 처님의 아들 라운, 우파난타, 리파다, 겁빈다, 박구라, 아주라, 사
 가타, 두타(頭陀) 대가섭, 우루빈라 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등

이와 같은 비구 1만2천 인은 다 아라한(阿羅漢)으로서 모든 루(漏)를 다 하여 다시 착(著)이나 얽힘이 없는 진정한 해탈(解脫)이라.

그때 대장엄보살마가살이 대중(大衆)이 자리에 앉자 각각 뜻의 정함이 있음을 두루 살피고, 대중 가운데의 8만의 보살마가살과 함께 자리로부터 일어나, 부처님 앞으로 와서 머리와 얼굴로 발에 례배(禮拜)하고 백천번을 돌며 하늘의 꽃을 흘리고 하늘의 향을 피우고, 하늘의 옷과 하늘의 영락(瓔珞)이며 하늘의 값이 없는 보배구슬이 공중에서 빙빙 돌면서 내려오되 4면에서 구름같이 모여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며, 천주(天廚)의 하늘 그릇에다 하늘의 100가지 음식을 가득히 채워 넘치게 하니라.

빛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 저절로 배부르고 족함이라. 하늘 깃대에 하늘 깃발을 날리고 하늘의 헌개(軒蓋)와 하늘의 묘한 악기를 곳곳에 두고 하늘의 기악을 지어 부처님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곧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일심으로 같은 소리로 함께 게송(偈頌)으로 찬탄하여 말하되,

크신이여, 크게 깨달으신 대성주(大聖主)시여,

더러움도 없고 물 들음도 없고 집착하는 바도 없음이라.

하늘이나 사람이나, 코끼리나 말을 길들여 거느리시는 스승이시

여,

도덕(道德)의 바람과 향기가 일체를 감돌며,

지혜는 밝고 정(情)은 맑고 생각은 고요하여 뜻도 멸(滅)하고 식(識)도 없고 마음 또한 적멸(寂滅)하니, 꿈 같은 망상의 생각을 영원히 끊어 다시 모든 대음입계(大陰入界)가 없음이라.

그 몸이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없지도 아니하며,

인(因)도 아니고 연(緣)도 아니며,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며,

모나지도 안고 등글지도 않고,

짧거나 길지도 아니며,

나오지도 아니하고 숨지도 하니하고,

생(生)하지도 멸(滅)하지도 아니하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만들게 되는 것도 아니며,

앞은 것도 아니고 누운 것도 아니고

다니는 것도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한가함도 고요함도 아니며,

나아가는 것도 물러서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지도 위태롭지도 아니하고,

옳은 것도 옳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얻지도 잃지도 아니하며,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떠나가지도 오지도 아니하고,
 푸르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고,
 빨갳지도 희지도 아니하며,
 붉은빛도 아니고 보라빛도 아니고 가지가지의 빛깔도 아님이라.
 계(戒) 정(定) 혜(慧) 해(解) 지견(知見)에서 나며
 삼매(三昧) 륝통(六通) 도품(道品)에서 일으키고,
 자비 십력무외(十力無畏)에서 일어나며,
 증생들의 선업(善業)의 인연에서 나느니라.
 장륙신(丈六身)에 자주 금빛으로 황홀함을 보이시고,
 곧고 바르고 밝게 비치사 심히 명철하시며
 백호상(白毫相)은 둥근 달과 같으시고
 머리 위는 해와 같이 빛나시고
 머리털은 등글게 말려있고,
 빛은 감청(紺靑)이며 정수리에 육계(肉髻)가 있음이라.
 깨끗한 눈은 밝은 거울과 같아 위아래로 자재하시고,
 눈썹은 감청이시고 잘났고 입과 뺨은 바로 퍼지셨으며,
 입술과 혀는 붉기가 빨간 꽃과 같으시고

흰 이는 40개가 마치 흰 눈과 같으며
 이마는 넓고 코는 높고 길며 얼굴이 거룩하시고
 가슴에는 만(卍)자가 나타나고 사자의 가슴이라.
 손과 발이 부드럽고 힘줄이 고루 갖추시고
 손바닥은 부드러워 안팎이 잘 잡히며
 팔뚝은 길고 손가락은 가늘고
 피부는 곱고 부드럽고 털은 오른쪽으로 말려 있으며
 복사뼈와 무릎은 잘 드러났고 음기는 말갈이 감추어지셨으며
 힘줄은 가늘고 뼈는 굳건하여
 안과 밖이 다 깨끗하여
 더럽지 않아 흐린 물이 물들지 아니하고
 티끌도 붙지 못함이라.
 이 같은 등등(等等)의 상(相)이 32이시고
 80종호(種好)가 다 같이 보기 좋으심이라.
 그러나 실(實)은 상(相)이나 상(相)이 아니므로 모양(色)도 없음
 이라.
 일체의 상(相)이 있음은 눈(眼)을 초월하지 못함이요
 상(相)이 없는 상(相)으로서 상(相)이 있는 몸이요
 증생들의 신상(身相)의 상(相)도 또한 그러함이라.
 능히 증생들로 하여금 환희(歡喜)로 례배(禮拜)케 하고

마음을 다하여 공경함을 나타내어 정증함을 이룩함이라.

이는 스스로 높다 하는 아만을 없이하신 인연으로

이 같은 묘한 색(色)의 몸을 성취 하심이라.

지금 우리들 8만의 무리(衆)는

함께 다 머리 조아려

사(思) 상(想) 심(心) 의식(意識)을 잘 떨하신

코끼리나 말을 길들여 거느리시고 착(著)이 없는 성인(聖人)께
귀명(歸命)합니다.

법색신(法色身)과 계(戒) 정(定) 혜(慧) 해 지견(解知見)의 모임
에 머리를 조아려 귀의(歸依)하나이다.

머리를 조아려 묘한 가지 가지 상(相)에 귀의하나이다.

머리를 조아려 생각으로 론의하기 어려움에 귀의하나이다.

맑은 음성은뢰성(雷聲)이 진동함과 같이 여덟 가지 소리로
미묘하고 청정해서 심히 심원합니다.

4체(諦) 6도(六度) 12연(緣)을

중생들의 심업(心業)에 따라서 설하심이라.

또 들으면 마음과 생각이 열리지 않을수 없으니

한량없는 생사의 모임(生死衆)을 끊으리라.

듣는 일이 있으면 혹은 수타원(須陀洹)

사타(斯陀) 아나(阿那) 아라한(阿羅漢) 과
 무루무위(無漏無爲)의 연각처(緣覺處)와
 무생무멸(無生無滅)의 보살지(菩薩地)를 얻으며
 혹은 한량없는 타라니(陀羅尼)와
 걸림이 없는 요설대변재(樂說大辯才)를 얻어
 심히 깊고 미묘한 계승을 연설하고
 유희(遊戲)해서 법의 청정한 못에 목욕하며
 혹은 뛰고 날아서 신족(神足)을 나타내고
 물과 불에 들어가고 나오되 몸이 자유로움이라.
 여래의 법륜상(法輪相)은 이와 같아
 청정하고 가이없으며 생각하기도 어려움이라.
 우리들이 다 함께 머리를 조아려
 법륜 전하실때에 귀의합니다.
 머리를 조아려 맑은 음성에 귀의합니다.
 머리를 조아려 12인연법 4체법(諦法) 6도(度)
 법문에 귀의(歸依)합니다.
 세존께서 지나간 옛적 한량없는 겁(劫)에 고(苦)를 참으시고 부
 지런히 여러가지 덕행(德行)을 닦고 익히시어 우리들의 사람과
 천 룡(龍) 신왕(神王)을 위해 널리 모든 중생들에게 미치도록 하
 심이라.

능히 버리기 어려운 일체의

재보(財寶)와 처자(妻子) 그리고 국성(國城)을 버리고

법에 있어 안으로도 밖으로도 아끼신 바가 없으시며

두목수뇌(頭目髓腦)를 다 남에게 베푸심이라.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계를 받들어 가지되

비록 목숨을 잃을 지라도 험고 상(傷)하게 하지 아니하며,

만일 사람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해(害)를 입히고 악한

말로써 꾸짖고 욕할지라도 끝까지 성내지 아니하며

겁(劫)이 지나도록 몸이 부서질지라도 게으름을 내지 아니하고

주야(晝夜)로 마음을 가다듬어 항상 선정에 있으며

두루 일체의 여러 도법(道法)을 배워 지혜는 깊이 중생들의 근기

에 들어 가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지금 자재(自在)한 힘을 얻어서

법에 자재하여 법왕(法王)이 되셨음이라.

우리는 다 함께 머리를 조아려

능히 행(行)하기 어려운 모든 것을 행(行)하심에 귀의(歸依)합니

다

2. 설법품(說法品)

그때 대장엄보살마가살(大莊嚴菩薩摩訶薩)이 8만의 보살마가살(菩薩摩訶薩)과 함께 이 계승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여 마치고 다 함께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우리들 8만 보살의 대중은 지금 여래의 법(法) 가운데서 묻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찌 하오리까. 세존이시여, 불쌍히 생각하셔서 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장엄보살과 8만 보살에게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이때를 잘 알았노라. 너희 뜻대로 물으라. 여래는 오래지 않아 마땅히 열반(涅槃)에 들것이니, 열반한 후 널리 일체로 하여금 다 의심이 없게 하라. 무엇을 묻고자 하느냐, 곧 말하라.”

이에 대장엄보살이 8만 보살과 함께 곧 같은 소리로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보살마가살이 아녹다라삼막삼보제(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속히 이룩하여 얻고자 하면 마땅히 어떠한 법문을 닦고 행하여야 합니까. 어떠한 법문(法門)이 능히 보살마가살로 하여금 속히 아녹다라삼막삼보제를 이룩하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장엄보살과 8만 보살에게 이르시되

“선남자야, 한 법문(法門)이 있으니 능히 보살로 하여금 속히 아녹다라삼막삼보제를 이룩하여 얻게 하느니라. 만일 보살이 이 법문을 배우면 곧 능히 아녹다라삼막삼보제를 얻게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그 법문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뜻은 어떠하며 보살이 어떻게 닦고 행하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선남자야, 이 법문의 이름은 무량의(無量義)라 하느니라. 보살이 무량의(無量義)를 닦고 배워서 얻고자 하면, 마땅히 일체의 모든 법은 본래부터 지금까지 성(性)과 상(相)이 공적(空寂)하여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으며,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으며, 머물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아니하며, 나아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으며, 마치 허공과 같이 두 가지의 법(法)이 없다고 관찰(觀察)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증생들은 허망하게 비뚤어지게 헤아려서 이를 이것이라 하고 이를 저것이라 하며, 이를 얻었다 하고 이를 잃었다 하며, 선(善)하지 못한 생각을 일으키어 여러가지의 악업을 지어 6도를 윤회하며, 모든 독한 괴로움을 받아서 한량없는 억겁이 지나도 스스로 나오지 못함이라.

보살마가살은 이와 같이 밝게 관하여 불쌍히 생각하고 큰 자비심

을 내어 곧 구해 내고자 하며 또 다시 깊이 일체의 모든 법에 들
게 함이라.

법(法)의 상(相)이 이와 같아서 이와 같은 법을 낳음이라. 법의
상(相)이 이와 같아서 이와 같은 법이 머무름이라. 법의 상(相)
이 이와 같아서 이와 같은 법을 다르게 함이라. 법의 상(相)이
이와 같아서 이와 같은 법을 멸(滅)함이라. 법의 상(相)이 이와
같아서 능히 악법(惡法)을 낳게 하며, 법의 상(相)이 이와 같아서
능히 선법(善法)을 낳게 함이라.

머물게 되는 것도 다르게 되는 것도 멸하게 되는 것도 또 다시
이와 같음이라.

보살은 이와 같이 4가지 상(相)의 처음과 끝을 관(觀)하여 살피
고 모든 것을 두루 알고 다음에 또 일체의 모든 법은 순간순간도
머물지 않으며, 새로이 새롭게 나고 멸함을 밝게 관(觀)하고, 또
는 곧 나고 머물고 달라지고 멸함을 관(觀)하라.

이와 같이 관하고서, 중생들의 모든 근기와 성품과 욕망에 들어
갈지니라. 성품과 욕망이 한량이 없는 까닭으로 설법(說法)도 한
량이 없느니라. 설법이 한량없는 까닭으로 그 뜻도 또한 한량없
느니라.

무량의(無量義)는 하나의 법에서 나며 그 하나의 법은 곧 무상
(無相)이라. 이와 같은 무상은 상(相)이 없고 상(相)이 아니니라.

상(相)이 아니며 상(相)이 없음을 실상(實相)이라고 하느니라.

보살마가살이 이와 같은 진실한 상(相)에 편안히 머물러서 일으키는 자비(慈悲)는 밝고 밝아서 헛되지 아니하리라. 능히 중생에게서 진실하게 고(苦)를 없애라. 고(苦)를 이미 없애고는 다시 법을 설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쾌락을 받게 하느니라.

선남자야, 보살이 만일 능히 이와 같은 일체의 법문(法門) 무량의(無量義)를 닦는 사람은 반드시 속히 아녹다라삼막삼보제(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얻어 성취하리라.

선남자야, 이와 같이 심히 깊고 위없는 대승(大乘)의 무량의경(無量義經)은 문리(文理)가 진정(眞正)하고 존귀하여 다시 더할 바가 없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함께 수호(守護)하시는 바이니, 여러 마(魔)의 무리들이 도(道)를 얻어 들어오지 못하며 일체의 사견(邪見)과 생사(生死)가 이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선남자야, 이런 까닭으로 보살마가살이 만일 속히 무상보제(無上菩提)를 이룩하고자 하면 응당 이와 같이 심히 깊고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경(無量義經)을 닦고 배울지니라.”

그때 대장엄보살이 또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세존의 설법은 불가사의(不可思議)요, 중생들의 근

기와 성품도 또한 불가사의하며, 법문 해탈 (法門解脫)도 또한 불가사의(不可思議)하옵니다. 우리들은 부처님께서 설(說)하신 모든 법(法)에 다시 의심과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증생들이 미혹(迷惑)한 마음을 내는 까닭에 거듭 세존께 문의하옵니다.

여래께서 득도(得道)하신지 이미 40여년에 항상 증생들을 위하여 모든 법의 4가지 상(相)의 뜻과 고(苦)의 뜻과 공(空)의 뜻과 무상(無常) 무아(無我) 무대(無大) 무소(無小) 무생(無生) 무멸(無滅)과 일상(一相) 무상(無相) 법성(法性) 법상(法相) 본래공적(本來空寂)과 불래불거(不來不去) 불출(不出) 불몰(不沒)을 연설하심이라.

만약 들은 사람이 있다면 혹은 난법(煖法) 정법(頂法) 세제일법(世第一法)과 수타원과(須陀洹果) 사타함과(斯陀舍果) 아나함과(阿那舍果) 아라한과(阿羅漢果)와 벽지불(辟支佛)의 도(道)를 얻어 보제심(菩提心)을 일으키어 제일지(第一地) 제이지(第二地) 제삼지(第三地)에 올라 제십지(第十地)에 오름이라.

지난날 설하신 모든 법의 뜻과 지금 설하시는 바와는 어떻게 다르기에 보살이 심히 깊고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경을 닦고 행하면 반드시 속히 무상보제(無上菩提)를 얻으리라 말씀하십니까. 이 일이 어찌 되나이까.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일체를 불쌍

히 여기서 널리 중생들을 위하여 이를 분별하시어 널리 현재와 미래 세상에서 법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때 부처님께서 대장엄보살에게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다. 대선남자야, 능히 여래에게 이와 같은 심히 깊고 위없는 대승(大乘)의 미묘한 뜻을 묻느뇨. 마땅히 알아라. 너희는 능히 이익되는 바가 많으리라. 인간과 하늘을 안락하게 하여 중생들의 고(苦)를 없애니 참된 큰 자비(慈悲)라. 진실(眞實)하여 헛되지 아니하니 이 인연(因緣)으로 반드시 속히 무상보제(無上菩提)를 얻어 성취하리라. 또한 현세에서나 후세에 일체의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무상보제(無上菩提)를 성취하게 하리라.

선남자야, 내가 일찍이 도장(道場) 보제수(菩提樹)아래 앉아서 6년만에 아녹다라삼막삼보제(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성취하여 얻었느니라. 부처님의 눈(眼)으로 일체의 모든 법을 관(觀)하였으되 선설(宣說)하지 아니하였노라.

어찌하여 그러한고. 모든 중생들의 성품과 욕망이 같지 아니함을 알았음이라. 성품과 욕망이 같지 아니하므로 가지가지로 법(法)을 설(說)하되 방편(方便)의 힘(力)으로써 하였으니, 40여년에 아직 진실(眞實)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노라. 이러한 까닭으로 중생들이

도(道)를 얻음에도 차별이 있어 속히 무상보제(無上菩提)를 성취하지 못함이라.

선남자야, 비유하면 법은 물이 능히 더러운 때를 씻음과 같음이라. 샘이나 못이거나 강이나 하천이거나

개울이나 큰 바다가 다 능히 모든 더러운 때를 씻음과 같이, 그 법(法)의 물도 또한 이와 같이 능히 중생들의 모든 번뇌(煩惱)의 때를 씻음이라.

선남자야, 물의 성품은 하나이건만 강과 하천과 샘과 못과 시내와 큰 바다는 각각 다름이라. 그 법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아서 진로(塵勞)를 씻어 없애기는 같아서 차별(差別)이 없을지라도 삼법(三法) 사과(四果) 이도(二道)는 하나가 아니니라.

선남자야, 물은 비록 다 같이 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샘은 못이아니요, 못은 강이나 하천이 아니며, 시내는 바다가 아니니라.

여래 세웅(世雄)이 법(法)에 자재(自在)함과 같이 설(說)한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음이라.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에 설함이 다 능히 중생들의 번뇌를 씻어 제(除)함이나, 처음은 중간이 아니요 중간은 끝이 아님이라.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에 설하되 말은 비록 같을지라도 뜻은 각각 다름이 있느니라.

선남자야, 내가 수왕(樹王)에서 일어나 파라나(波羅奈) 룩야원(鹿野園)으로 가서 아야구린 등 다섯 사람을 위하여 4체(諦)의 법륜(法輪)을 설(說)할때에도 또한 모든 법이 본래(本來)부터 공적(空寂)하건마는 끊임없이 바뀌어 머물지 아니하며 순간순간에 나고 멸(滅)한다고 설(說)하였노라. 증간에 이 곳과 다른 곳곳에서도 모든 비구와 보살을 위하여 12인연(因緣)과 6파라밀(波羅蜜)을 말하고 선설(宣說)하였노라. 또한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적하건만 끊임없이 바뀌어 머물지 아니하며 순간순간에 나고 멸한다고 설하였노라. 지금 다시 여기서 대승(大乘)의 무량의경(無量義經)을 연설함에 또한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적(空寂)하건마는 끊임없이 바뀌어 머물지 아니하며 순간순간에 나고 멸(滅)한다고 설(說)하느니라.

선남자야, 이러한 까닭으로 처음에 설한 것이나 증간에 설한 것이나 끝에 설한 것이 말은 하나일지라도 그 뜻이 달라서 구별되느니라. 뜻이 다른 까닭에 증생들의 해석도 다르고, 해석이 다른 까닭에 얻는 법(法)과 얻는 과(果)와 얻는 도(道)가 또한 다르니라.

선남자야, 처음에 4체(諦)를 설(說)해서 성문(聲聞)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였음이나, 8억의 모든 하늘이 내려와서 법을 듣고 보

제심(菩提心)을 일으켰으며, 중간에 곳곳에서 심히 깊은 12인연(因緣)을 연설해서 벽지불(辟支佛)을 구하는 사람을 위하였음이 나 한량없는 증생이 보제심을 일으키고 혹은 성문(聲聞)에 머물렀느니라.

다음에 방등(方等)12부경(部經) 마가반야(摩訶般若) 화엄해공(華嚴海空)을 설하여 보살이 한량없는 겁 동안 닦고 행함을 선설(宣說)하였으나, 백천의 비구와 만억의 인간과 하늘의 한량없는 증생이 수타원(須陀洹) 사타함(沙陀舍) 아나함(阿那舍) 아라한과(阿羅漢果)와 벽지불(辟支佛)을 인연법(因緣法) 가운데서 머물러 얻었느니라.

선남자야, 이러한 뜻이 있는 까닭을 알라. 같은 말로 설(說)하였으나 뜻이 다르니라. 뜻이 다른 까닭으로 증생이 해석함도 다름이라. 해석이 다른 까닭으로 얻는 법(法)과 얻는 과(果)와 얻는 도(道)도 또한 다름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선남자야, 내가 도(道)를 얻고 처음에 일어나 법을 설한 이래 오늘 대승(大乘)의 무량의경(無量義經)을 설함에 이르기까지 아직 일찍이 고(苦)와 공(空)과 무상(無常) 무아(無我) 비진(非眞) 비가(非假) 비대(非大) 비소(非小)하여 본래 생(生)하지도 아니하고 지금도 또한 멸(滅)하지도 아니하며, 일상(一相) 무상(無相) 법상(法相) 법성(法性) 불래(不來) 불거(不去)

나 모든 중생들이 4가지의 상(相)으로 옮겨진다고 설(說)하노라.
 선남자야, 이러한 뜻이 있는 까닭에 일체의 모든 부처님은 두가지의 말씀이 없느니라. 능히 한 말씀으로써 널리 모든 중생들의 여러 가지 말에 응(應)하며, 능히 한 몸으로써 백천만억 나유타의 한량없고 수 없는 항하사(恒河沙)의 몸을 보이느니라.

하나하나의 몸 가운데서 또한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항하사의 가지가지의 종류와 형용을 보이느니라. 하나하나의 형용 가운데서 또한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항하사의 형용을 보이느니라.

선남자야,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심히 깊은 불가사의(不可思議)의 경계(境界)이니, 이승(二乘)이 알 바가 아니며 또한 10지(地)의 보살도 미칠 바가 아니니라.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이를 능히 연구해 마치심이라.

선남자야, 이런 까닭으로 내가 설하노라. 미묘하고도 심히 깊고 위 없는 대승(大乘)의 무량의경(無量義經)은 문리(文理)가 진정(眞正)하며 존귀함이 다시 더 위가 없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함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바이니, 모든 마(魔)와 외도(外道)는 들어오지 못하고 일체의 사견(邪見)과 생사(生死)에 혈려 무너지게 되지 않느니라.

보살마가살이 만일 속히 무상보제(無上菩提)를 이룩하고자 하면

응당 이와 같은 심히 깊고 위없는 대승(大乘)의 무량의경(無量義經)을 닦고 배울지니라.”

부처님께서 이를 설하여 마치시니 이때 3천대천 세계는 6가지로 진동(震動)하고, 자연히 허공에서는 가지가지의 하늘꽃 우발라꽃 발담마꽃 구물두꽃 분타리꽃이 비오듯이 내리며, 또 수가 없는 가지가지의 하늘의 향과 하늘의 옷과 하늘의 영락이며 하늘의 값이 없는 보배가 허공 위에서 빙빙 돌며 내려와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성문(聲聞) 대중(大衆)을 공양함이라.

천주(天廚)와 하늘 발우에 하늘의 100가지 음식을 가득히 담고 하늘의 깃대와 하늘의 기와 하늘의 현개 하늘의 묘한 악구(樂具)를 곳곳에 놓아두고 하늘의 기악을 지어서 부처님을 찬탄하여 노래함이라.

또 다시 동방 향하사 등의 모든 부처님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또한 하늘의 꽃 하늘의 향 하늘의 옷 하늘의 영락 하늘의 값이없는 보배 천주(天廚) 하늘 발우 하늘의 100가지 음식 하늘의 깃대 하늘의 기 하늘의 현개(軒蓋) 하늘의 묘한 락구(樂具)가 비오듯이 내리고 하늘의 기악을 지어 부처님과 보살과 성문 대중을 찬탄하여 노래부름이라. 남서북방 4유(維)상하도 또한 역시 이와 같음이라.

이때 대중 가운데 3만 2천의 보살마가살은 무량의(無量義) 삼매

를 얻고, 3만 4천의 보살마가살은 수가 없고 한량이 없는 타라니(陀羅尼)의 문(門)을 얻어, 일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불퇴전(不退轉)의 법륜(法輪)을 능히 전함이라.

그 모든 비구 비구니 우파새 우파이 천 룡 야차 건달파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대전륜왕 소전륜왕 은륜 철륜의 모든 륜(輪)왕, 국왕 왕자 국신(國臣) 국민(國民) 국사(國士) 국녀(國女) 나라의 대장자(大長者)와 그 모든 권속 백천 대중(大衆)이 함께 와서 부처님 여래께서 이 경(經) 설(說)하심을 들었을 때, 혹은 난법(煖法) 정법(頂法) 세간제일법(世間第一法) 수타원과(須陀洹果) 사타함과(斯陀舍果) 아나함과(阿那舍果) 아라한과(阿羅漢果) 벽지불과(辟支佛果)를 얻었고, 또는 보살의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었으며, 또한 한가지의 타라니(陀羅尼)를 얻었고 또는 두 가지의 타라니를 얻었으며, 또는 세 가지의 타라니를 얻었고, 또는 네 가지의 타라니(陀羅尼)와 5 6 7 8 9 10의 타라니를 얻었으며, 또는 백천만억의 타라니를 얻었고, 또는 한량없고 수가 없는 항하사(恒河沙) 아승기(阿僧祇) 타라니(陀羅尼)를 얻어서 다 능히 순히 따라 불퇴전(不退轉)의 법륜(法輪)을 전하며 한량없는 증생들이 아늑다라삼막삼보제(阿耨多羅三藐三菩提)의 마음을 일으킴이라.

3. 십공덕품(十功德品)

그때 대장엄보살마가살(大莊嚴菩薩摩訶薩)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 하되,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이 미묘하고도 심히 깊고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경(無量義經)을 설(說)하시니, 진실(眞實)로 심히 깊고도 심히 깊고 깊으십니다.

어찌하여 그러한고. 이 대중(大衆) 가운데 모든 보살마가살(菩薩摩訶薩)과 모든 4중(四衆)과 천 룡 귀신 국왕 신민의 모든 증생들이 이 심히 깊고도 위없는 대승(大乘)의 무량의경(無量義經)을 듣고 타라니문(陀羅尼門)과 삼법(三法) 사과(四果)와 보제심(菩提心)을 얻지 못함이 없나이다.

마땅히 알지니 이 법(法)은 문리(文理)가 진정(眞正)하고 존귀함이 위를 지남이 없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바라, 여러 마(魔)와 여러 외도(外道)가 들어오지 못하며, 일체의 사견(邪見)과 생사(生死)도 헐고 무너뜨리지 못하나다. 어찌하여 그러한고. 한번 들을지라도 능히 일체의 법을 가지게 되는 고로, 만일 증생이 이경을 얻어 들으면 곧 큰 이익이 되나이다.

어찌하여 그러한고. 만일 능히 닦고 행(行)하면 반드시 속히 무

상보제(無上菩提)를 성취하여 얻으리이다. 중생들이 이를 듣지 못하면 마땅히 알지니, 이들은 큰 이익을 잃게 됨이라. 한량없고 가이없는 불가사의(不可思議)의 아승기(阿僧祇) 겁(劫)을 지날지라도 마침내 무상보제(無上菩提)를 성취하지 못하나이다.

어지하여 그러하고. 보제(菩提)로 향하는 크고도 끝은 길을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험한 길을 지나가게 되며 많은 어려움에 머물게 되기 때문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은 가히 생각하기도 어렵나이다. 오직 원컨대 세존께서는 널리 대중(大衆)을 위하여 사랑과 애민(哀愍)으로 이 경(經)이 심히 깊고 불사의(不思議)함을 설하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이 경전(經典)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어디에 가서 머무나이까.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功德)과 불사의(不思議)의 힘이있어 중생들로 하여금 속히 아녹다라삼막삼보제를 성취하게 하나이까.”

그때 세존께서 대장엄보살마가살(大莊嚴菩薩摩訶薩)에게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이와 같고 이와 같음이니 네가 설하는 바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내가 이 경을 설함이 심히 깊고도 심히 깊으며 진실로 심히 깊으니라. 어찌하여 그러하고. 중생들

로 하여금 속히 무상보제(無上菩提)를 성취하게 하려는 까닭이니라.

한번 들으면 능히 일체의 법을 가지게 하는 까닭이며, 모든 증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는 까닭이며, 크고도 끝은 길을 가게 하여 어려움에 머물지 않게 하는 까닭이니라.

선남자야, 네가 이 경(經)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서 머무르는가를 묻느냐. 마땅히 자세히 들으라.

선남자야, 이 경(經)은 본래 모든 부처님의 집으로부터 와서, 일체 증생들의 보제심(菩提心)을 일으키는 데로 가 이르며, 모든 보살들이 행하는 곳에 머무르니라.

선남자야, 이 경(經)은 이와 같이 와서 이와 같이 가고 이와 같이 머무르니라. 이런 까닭으로 이 경(經)은 능히 이와 같은 한량 없는 공덕(功德)과 불사의(不思議)의 힘이 있어 증생(衆生)들로 하여금 속히 아늑다라삼막삼보제를 성취하게 하느니라.

선남자야, 너는 또 이 경의 다시 10가지 불사의(不思議)의 공덕(功德)과 힘이 있음을 듣고자 하느냐.”

대장엄보살이 말씀하되

“원컨대 즐겨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선남자야, 첫째 이 경(經)은 아직 발심(發心)하지 못한 보살이

능히 보제심(菩提心)을 일으키게 하며,
 인자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인자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살생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대비심을 일으키게 하며, 질투하는 사람에게
 는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애착이 있는 사람에
 게는 능히 버리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모든 것을 아끼고 탐내
 는 사람에게는 포시(布施)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교만함이
 많은 사람에게는 지계(持戒)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성을 잘
 내는 사람에게는 인욕(忍辱)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게으른
 사람에게는 정진(精進)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모든 것에 산
 란한 사람에게는 선정(禪定)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어리석음
 이 많은 사람에게는 지혜(智慧)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아직
 제도가 안된 사람에게는 제도되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10가
 지의 악(惡)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10가지의 선(善)한 마음을 일
 으키게 하며, 유위(有爲)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무위(無爲)의 마음
 에 뜻하게 하며, 물러서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하며, 루(漏)가 있는 사람에게는 루(漏)가 없
 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번뇌(煩惱)가 많은 사람에게는 제(除)
 하여 멸(滅)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 경(經)의 첫째의 공덕이요 불사의(不思議)의

힘이니라.

선남자야, 둘째 이 경(經)의 불가사의(不可思議)의 공덕(功德)과 힘이라 함은, 만일 어떤 증생이 이 경(經)을 한 문장이거나 한 계승 이거나 또는 한 구절을 얻어 들으면 곧 능히 백천억의 뜻에 통달하여 한량없는 수의 겁(劫)을 두고도 받아 가진 법을 능히 연설하지 못하리라.

어찌하여 그러하고. 이 법의 뜻이 한량없는 까닭이니라. 선남자야, 비유컨대 이 경(經)은 하나의 종자(種子)에서 백천만이 나오며, 백천만 하나 하나 가운데서 다시 백천만의 수가 나오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이 전전(展轉)해서 한량없음과 같이 이 경전도 또한 이와 같아 한 법에서 백천의 뜻이 나오며 백천의 하나하나 뜻 가운데서 다시 백천만의 수를 내나니, 이와 같이 전전(展轉)해서 또 한량없고 가이없는 뜻이 있음이라. 이런 까닭으로 이 경(經)의 이름을 무량의(無量義)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 경(經)의 둘째의 공덕이요 불사의(不思議)한 힘이니라.

선남자야, 셋째 이 경(經)의 불가사의(不可思議)의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일 어떤 증생이 이 경(經)을 한 문장이거나 한 계승이거나 또는 한 구절을 얻어 들으면 백천만억의 뜻에 통달하여 비록 번뇌(煩惱)가 있을지라도 번뇌가 없음과 같으며, 생사(生死)에 나고 들고 할지라도 겁나고 두려운 생각이 없으리라.

모든 중생들에게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을 내며 일체의 법에 용건(勇健)한 생각을 얻으리라. 억센力士(力士)가 모든 무거운 것을 짊어지거나 능히 가짐과 같이 이 경(經)을 가지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능히 무상보제(無上菩提)의 무거운 보배를 짊어지고 중생을 업고 생사(生死)의 길에서 나옴이라.

아직 스스로 제도되지 못하였을지라도 능히 저들을 제도하리니, 오히려 뱃사공이 무거운 병에 걸려있어 팔과 다리가 자유롭지 못하여 이쪽 언덕에 머물러있을지라도, 튼튼한 좋은 배와 모든 건너는 도구를 그들에게 주어서 떠나 보내는 것과 같이, 이 경(經)을 가지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비록 오도(五道)의 모든 것이 있는 몸이 108의 무거운 병에 걸려 항상 서로 얽혀서 무명으로 사(無明老死)의 언덕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견고한 이 대승(大乘)의 무량의경(無量義經)이 설해 능히 중생을 제도하니 설(說)한 바와같이 행(行)하는 사람은 생사(生死)에서 제도됨을 얻으리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 경(經)의 셋째의 공덕이요 불사의(不思議)의 힘이니라.

선남자야, 넷째 이 경(經)의 불가사의(不可思議)한 공덕(功德)과 힘이라 함은, 만일 중생들이 이 경(經)을 듣되 한 문장이거나 한 게송이거나 또는 한 구절을 들으면, 용건(勇健)한 생각을 얻고

비록 스스로 제도되지 않았을지라도 능히 다른 사람을 제도하리라. 모든 보살과 함께 권속이 되며 모든 부처님 여래께서 항상 이 사람을 향해 법을 설(說)하시리라. 이 사람이 듣고 능히 다 받아 가지고 순히 쫓아 거역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람을 위하여 마땅함을 따라 널리 설(說)하리라.

선남자야, 이 사람은 비유하건대 국왕(國王)과 부인에게서 새로이 왕자를 낳음과 같음이라. 하루거나 이틀이거나 이레에 이르거나 혹은 한 달이거나 두 달이거나 일곱 달에 이르며 혹은 한 살이거나 두 살이거나 일곱 살에 이르게 됨이라. 비록 나라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지 못할지라도 신하와 백성에게 이미 숭상과 공경을 받게 되며, 모든 대왕의 아들과 친구가 되리라.

왕과 부인의 사랑하는 마음이 소중해서 항상 더불어 함께 말하리니. 어찌하여 그러하고. 어리고 작은 까닭이니라. 선남자야, 이 경(經)을 가지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부처님은 국왕이요 이 경(經)은 부인이라, 화합해서 같이 이 보살의 아들을 낳음이라.

만일 보살이 이 경(經)을 얻어 듣되 한 구절이거나 한 계승이거나 한 문장이거나 두 문장이거나 열 백 천 만 이거나 혹은 억만 항하사의 한량없고 수없이 설하면, 비록 진리의 궁극을 체득하지 못하고 비록 3천대천의 국토를 진동하고 우뢰와 같은 법음으로

대법륜을 설하지 못할지라도 일체의 4중(衆)과 8부(部)의 존앙을 받으며 모든 큰 보살의 권속이 되리라.

깊이 모든 부처님의 비밀의 법에 들어서 설하는 바는 가히 어김이 없고 틀림이 없으며, 항상 모든 부처님께서 호념(護念)과 자애(慈愛)로 두루 덮어 주리니, 이는 새로 배우는 까닭이니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경의 넷째의 공덕이요 불사의(不思議)의 힘이니라.

선남자야, 다섯째 이경의 불가사의(不可思議)한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혹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도하신 후에 이와 같은 심히 깊고 위없는 대승(大乘)의 무량경(無量義經)을 받아가져 읽고 외우고 옮겨 쓰면, 이 사람이 비록 여러가지 번뇌에 얽혀서 모든 범부의 일을 멀리 떠나지 못했을지라도 능히 큰 보살도(菩薩道)를 보이고 나타내서 하루를 늘여 백겁으로 하며 백겁을 또한 능히 줄여서 하루로 하여 증생들로 하여금 환희하고 신복(信伏)하게 하리라.

선남자야, 이 선남자 선녀인은 비유하건대 룡(龍)의 아들이 나온 지 7일만 되어도 곧 능히 구름을 일으키고 또한 능히 비를 내림과 같음이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 경(經)의 다섯째의 공덕이요 불사의(不思議)한 힘이니라.

선남자야, 여섯째 이 경(經)의 불가사의(不可思議)한 공덕(功德)과 힘이라 함은,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혹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도하신 후에 이 경전(經典)을 받아 가져 읽고 위우는 사람은 비록 번뇌를 갖추고 있을지라도 증생들을 위하여 법을 설(說)해서 번뇌(煩惱) 생사(生死)를 멀리 떠나게 하여 일체의 고(苦)를 끊게 하리라.

증생들이 듣고서 닦고 행하여 법을 얻고 도를 얻어서 부처님 여래와 같이 차별이 없게 하리라.

비유하건대 왕자가 비록 어리고 작을지라도 혹은 왕이 멀리 떠나거나 또는 병(病)이 있으면 이 왕자에게 맡겨서 나라일을 다스리게 함이라.

왕자는 이때 대왕의 명에 의하여 법과 같이 모든 백관을 가르치며, 령(令)을 내려서 바른 법을 선포하매, 국토의 인민이 각각 그 요긴함을 따르되 대왕이 다스림과 같이하여 다름이 없느니라.

이 경(經)을 가진 선남자 선녀인도 또한 이와 같아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멸도하신 후(後)이거나 이 선남자가 비록 초불동지(初不動地)에 머무름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부처님께 의지하여 이와 같은 교법(教法)을 이용하고 설(說)하여 이를 널리 펴느니라.

증생이 듣고 일심으로 닦고 행하여 번뇌(煩惱)를 제(除)하여 끊

어 법(法)을 얻으며 과(果)를 얻고, 도(道)를 얻게 되리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 경(經)의 여섯째의 공덕이요 불사의(不思議)한 힘이니라.

선남자야, 일곱째 이 경(經)의 불가사의(不可思議)한 공덕(功德)과 힘이라 함은, 만일 선남자(善男子) 선녀인(善女人)이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멸도(滅度)하신 후(後)이거나 이 경(經)을 듣고 환희(歡喜)하여 믿고 즐겨서 희유한 마음을 내어 받아 가져서 읽고 외우며 옮겨 쓰고 해설(解說)하며 법(法)과 같이 닦고 행하여 보제심(菩提心)을 내어 모든 선근(善根)을 일으키고 대비(大悲)의 마음을 일으켜서 일체 고뇌(苦惱)의 중생들을 제도(濟度)하고자 하면,

비록 6파라밀(波羅蜜)을 닦고 행하지 못하였을지라도 6파라밀(波羅蜜)이 스스로 앞에 나타나 곧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고 생사 번뇌(生死煩惱)를 일시에 끊고 곧 칠지(七地)보살에 이르리라.

비유하건대 힘센 사람이 왕을 위해 원수를 제(除)하여 원수가 멸(滅)하면 왕이 크게 환희해서 상을 주되 나라의 반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음이라. 이 경(經)을 가지는 선남자 선녀인도 또한 이와 같아, 수행하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용맹(勇猛)하고 굳셈이니, 6파라밀(波羅蜜)의 법보(法寶)를 구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얻게 됨이라.

생사(生死)의 원적(怨敵)이 자연히 흠어져 무너지고, 부처님 나라의 보배 무생인(無生忍)의 반을 증득(證得)하여 상을 받고 안락하리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 경(經)의 일곱째의 공덕이요 불사의(不思議)의 힘이니라.

선남자야, 여덟째 이 경(經)의 불가사의(不可思議)의 공덕과 힘이
라 함은,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멸도(滅度)하신 후(後)이거나 사람이 능히 이경을 얻은 이가 있으면
공경하고 믿기를 부처님을 친견(親見)함과 같이 하여 다름이 없게 하며,

이 경(經)을 사랑하고 받들어 받아 가져 읽고 외우고 옮겨 쓰고
머리에 이고 법과 같이 즐거이 행하며, 계행과 인욕을 견고히 하고 겸(兼)하여 포시(布施)를 행해서 깊이 자비(慈悲)를 일으켜 위
없는 대승(大乘)의 무량의경(無量義經)을 널리 사람들을 위하여
널리 설할지니라.

만일 사람이 옛날부터 이제까지 도무지 죄(罪)와 복(福)이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경(經)을 보이고, 가지가지의 방편(方便)
을 지어 글세게 교화하여 그로 하여금 믿게 할지니라.

이 경(經)이 위력이 있는 연고로써 그 사람이 신심(信心)을 일으

켜 홀연히 돌리게 하리라. 이미 신심(信心)을 일으키면 용맹정진(勇猛精進)하는 까닭으로 능히 이 경(經)의 위덕(威德)과 세력(勢力)을 얻어 도(道)를 얻고 과(果)를 얻으리라.

이런 까닭으로 선남자 선녀인이 교화(教化)를 입는 공덕(功德)으로 남자(男子)이거나 녀인(女人)이 곧 몸에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어 상지(上地)에 이르게 되고, 모든 보살과 함께 권속이 되어 능히 증생들을 속히 성취시켜서 부처님의 극토를 깨끗이 하고 오래지 않아서 무상보제(無上菩提)를 이룩하게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 경(經)의 여덟째의 공덕이요 불사의(不思議)의 힘이니라.

선남자야, 아홉째 이 경(經)의 불가사의(不可思議)한 공덕과 힘이 라 함은,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멸도(滅度)하신 후(後)이거나 이 경(經)을 얻게되어 환희하고 기뻐 뛰며 미증유(未曾有)를 얻어서 받아 가져 읽고 외우며 옮겨 쓰고 공양(供養)하며, 널리 여러 사람을 위하여 이 경(經)의 뜻을 분별하여 해설(解說)하는 사람은 곧 전세(前世)의 업장(業障)과 다른 죄(罪)의 무거운 장애(障礙)가 일시(一時)에 다 멸(滅)함을 얻느니라.

곧 청정함을 얻고 속히 큰 변론을 얻어 점차 모든 파라밀(波羅

蜜)로 장엄하고 모든 삼매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를 얻어 큰 총지문(總持門)에 들어서 부지런히 정진력(精進力)을 얻고 속히 상지(上地)를 넘어서 능히 몸을 나누어 널리 십방(十方) 국토에 흠어서 일체 25유(有)의 극히 괴로운 증생들을 빼내어 제도해서 다해탈(解脫)을 얻게 하리라. 이 경(經)은 이런 까닭으로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 경의 아홉째의 공덕(功德)이요 불사의(不思議)의 힘이니라.

선남자야, 열째 이 경(經)의 불가사의(不可思議)의 공덕(功德)과 힘이라 함은,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멸도하신 후(後)이거나 만일 이 경(經)을 얻고서 큰 환희(歡喜)를 일으키며 희유(希有)한 마음을 내어 스스로 받아 가져 읽고 외우고 옮겨 쓰고 공양(供養)하며 설(說)함과 같이 닦고 행하며, 또는 널리 재가(在家)이거나 출가(出家)한 사람들에게 권(勸)하여 받아 가져 읽고 외우고 옮겨 쓰고 공양(供養)하고 해설(解說)하며 법과 같이 닦고 행하게 하면,

이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경(經)을 닦고 행하도록 한 힘의 연고로하여 도(道)를 얻고 과(果)를 얻으리라.

이런 선남자 선녀인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교화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선남자 선녀인은 곧 몸으로 한량없는 모든 타

라니문(陀羅尼門)을 속히 얻으리라.

범부지(凡夫地)에서 처음부터 수가 없는 아승기(阿僧祇)의 넓고 큰 서원을 자연히 일으키고, 능히 일체중생을 구하려는 마음을 깊이 일으켜 대비(大悲)를 성취하고 능히 여러 가지 의고(苦)를 없애고 많은 선근(善根)을 모아서 일체를 널리 요익(饒益)하게 하리라.

더욱 법의 윤택함을 설하여 널리 목마름을 적시며 능히 법의 약(藥)을 모든 중생들에게 포시(布施)하여 일체를 안락하게 하고 점차로 초월하고 올라가서 법운지(法雲地)에 머무름을 보리라.

은혜를 널리 적시어 자비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고, 괴로운 중생들을 이끌어 도(道)의 자취를 밟아 들어가게 함이라.

이런 까닭으로 이 사람은 오래지 아니하여 아녹다라삼막삼보제(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이룩하여 얻으리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경(經)의 열째의 공덕이요 불사의(不思議)한 힘이니라.

선남자야, 이와 같은 위 없는 대승(大乘)의 무량의경(無量義經)은 극히 큰 위신력(威神力)이 있고 존귀함이 이보다 더함이 없느니라.

능히 모든 범부로 하여금 다 성과(聖果)를 이룩해서 영원히 생사(生死)를 여의고 다 자재를 얻게 함이라.

이런 까닭으로 이 경(經)의 이름을 무량의(無量義)라 하느니라.

능히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범부지(凡夫地)에서 모든 보살의 한량없는 도의 싹이 나오도록 하며 공덕수(功德樹)로 하여금 울창하고 무성하게 하여 가지가 뻗어서 더욱 자라나게 함이니, 이런 까닭으로 이 경(經)은 불가사의(不可思議)한 공덕(功德)과 힘이 있다고 하느니라.”

이때 대장엄보살마가살(大莊嚴菩薩摩訶薩)과 8만의 보살마가살이 같은 소리로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설(說)하신 바와 같이 심히 깊고 미묘하여 위 없는 대승(大乘)의 무량의경(無量義經)은 문리(文理)가 진정(眞正)하고 존귀함이 이보다 더함이 없나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함께 수호(守護)하시는 바이며, 모든 마(魔)와 여러 외도(外道)가 들어 올 수 없고, 일체의 사견(邪見)과 생사(生死)에 무너지거나 패(敗)하지 아니하리다.

이런 까닭으로 이 경(經)에는 곧 이와 같은 10가지의 공덕(功德)과 불가사의(不思議)한 힘이 있나이다.

한량없는 일체 중생들을 크게 요익(饒益)되게 하며 일체의 모든 보살마가살(菩薩摩訶薩)로 하여금 각각 무량의삼매(無量義三昧)를 얻게 하며, 혹은 백천의 타라니문(陀羅尼門)을 얻게하며 혹은 보살의 모든 경지와 모든 인욕(忍辱)을 얻게 하며 혹은 연각(緣

覺) 라한(羅漢) 4가지 도(道)의 과(果)를 증득(證得)하게 하나이다. 세존께서는 자민(慈愍)히 여기서 이와 같은 법을 쾌히 우리들에게 설(說)하시어, 우리들로 하여금 큰 법리(法利)를 얻게 하시나이다.

심히 기이하고 특이하고 미증유(未曾有)이옵나이다. 세존의 자비와 은혜는 실로 보답키 어렵나이다.”

이 말을 마치니, 그때 3천대천 세계는 6가지로 진동(震動)하고, 허공 위에서는 또 다시 가지가지의 하늘 꽃 하늘의 우발라꽃 발담마꽃 구물두꽃 분타리꽃이 비오듯이 내리며, 또는 수 없는 가지가지의 하늘의 향 하늘의 옷과 하늘의 영락(瓔珞) 값이 없는 하늘의 보배가 비오듯이 내리되, 허공에서 빙빙 돌며 내려와 부처님과 모든 보살(菩薩)과 성문(聲聞) 대중(大衆)을 공양함이라. 천주(天廚) 하늘의 발우에다 하늘의 100가지 음식을 가득히 담았으니 빛을 보고 향기를 맡아도 자연히 배부르고 만족함이라.

하늘의 깃대 하늘의 기와 하늘의 헌개(軒蓋) 하늘의 묘한 악구(樂具)를 곳곳에 놓아 두었으며 하늘의 기악(伎樂)을 지어 부처님을 찬탄하여 노래를 부름이라.

또 동방 향하사(東方恒河沙)등의 모든 부처님의 세계는 6가지로 진동(震動)하며, 또한 하늘의 꽃 하늘의 향 하늘의 옷과 하늘의

영락(瓔珞), 값이 없는 하늘의 보배가 비 내리듯 하며, 천주(天廚) 하늘 발우에 담긴 백 가지 음식의 빛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 자연스럽게 배부르고 만족하며, 하늘의 깃대 하늘의 기 하늘의 헌개(軒蓋) 하늘의 묘한 악구(樂具)를 곳곳에 놓아 두었으며 하늘의 기악(伎樂)을 지어 그 부처님과 모든 대중을 찬탄하여 노래 부름이라.

남서북방과 4유(維) 상하(上下)도 또 다시 이와 같음이라.

그때 부처님께서 대장엄보살마가살과 8만의 보살마가살(菩薩摩訶薩)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은 마땅히 이 경(經)을 깊이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법(法)과 같이 닦고 행하여 널리 일체를 교화(教化)하되 부지런한 마음으로 널리 펴라. 항상 마땅히 은근히 주야(晝夜)로 수호(守護)해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법리(法利)를 얻게 하라.

너희들은 진실(眞實)로 대자대비(大慈大悲)가 되리니神通願力(神通願力)을 세워서 이 경(經)을 수호(守護)하여 의심하고 머물러있지 않게 하라.

너희는 마땅히 이때 반드시 사파세계(娑婆世界)에서 널리 행(行)하여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옮겨 쓰고 공양(供養)하도록 할지니라.

이런까닭으로 또한 너희들이 속히 아耨 다라삼막삼보제(阿耨多羅)

三藐三菩提)를 얻게 하리라.

이때 대장엄보살마가살(大莊嚴菩薩摩訶薩)이 8만의 보살마가살과 함께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처소에 와서 머리와 얼굴로 발에 례배(禮拜)하고 백천번을 돌고 곧 앞에서 오른편 무릎을 꿇고 함께 같은 소리로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즐겁게 세존의 자민(慈愍)하심을 입었나이다.

우리들을 위하여 심히 깊고 미묘한 위없는 대승(大乘)의 이 무량의경(無量義經)을 설(說)하시니,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하심을 받들어 여래께서 멸도(滅度)하신 후(後) 마땅히 이 경전(經典)을 널리 류포(流布)하여 일체로 하여금 받아 가져 읽고 외우고 옮겨 쓰고 공양(供養)하게 하리다.

오직 원컨대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마땅히 원력으로 널리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이 경(經)을 얻어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옮겨 쓰고 공양(供養)하게 하여 이 경(經)의 크고도 높은 복(福)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이때 부처님께서 찬탄의 말씀을 하시되,

“훌륭하고도 훌륭하도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이제서야 너희들은 참되고 바른 불자(佛子)이도다.

넓고 큰 자비로 능히 깊은 고(苦)를 빼어내어, 액난(厄)에서 구제(救)하는것이라.

일체 모든 증생들의 바른 복전(福田)이며, 널리 일체를 크고도 바르게 인도하는 스승이 되며, 일체 모든 증생들이 크게 의지해서 머물곳이며, 일체 모든 증생들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주인이시라.

항상 법의 이로움으로써 널리 일체에게 베풀도록 하라.” 이때 법회에 모인 모든 이들은 크게 기쁘고 기뻐하며, 부처님께 절을 하고, 수지(受持)하고 돌아갔느니라.

- 무량의경(無量義經) 종(終) -

정법화경(正法華經) 권 제1

1. 광서품(光瑞品)

이와 같이 들었다.

한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王舍城)의 령취산(靈鷲山)에서 많은 비구 대중과 더불어 즐겁게 지내고 계셨는데 비구 천이백 명은 일체의 집착이 없고 모든 루(漏)가 이미 다하여 다시는 욕망의 티끌이 없고 이미 자재함을 얻고 이로움을 체득(逮得)하고 살아가는데 위태로움을 이미 찾아서 여러 가지 결박됨을 곧 끊어 일체를 마침으로써 말미암아 무극(無極)으로 건너게 됨을 얻어 지혜로써 벗어버리고 근본을 이해하여 건너음을 얻었으니 이름을 말하면 현자(賢者) 지본제(知本際=아야교진여) 현자 대가섭(大迦葉) 상시가섭(上時迦葉) 상가섭(上迦葉) 강가섭(江迦葉) 사리불(舍利弗) 대목건련(大目犍連) 가전연(迦旃延) 아나를(阿那律) 겁빈누(劫賓) 우치(牛齒) 리월(離越) 비리사(譬利斯) 박구로(薄拘盧) 구치(拘絺) 난타(難陀) 선의(善意) 만원자(滿願子) 수보제(須菩提) 아난(阿難) 라운(羅云)이라.

팔만의 보살이 다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아녹다라삼막삼보제)

에서 굳게 머물러 물러나지 않고 법을 다 수지하고 바로잡아 대변재(大辯才)를 얻고 항상 물러남이 없이 법륜(法輪)전하시는걸 찬탄하고 셀 수 없는 백 천의 모든 부처님과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베풀어 많은 덕(德)의 근본을 심어 모든 것을 깨달은 세존을 뵈옵고 물어보고 찬탄함이라.

몸으로는 항상 자비(慈悲)를 행하며 여래(如來)의 지혜에 들어가 널리 잘 분별하는데 이르러 크게 무극(無極)으로 제도됨을 알았느니라.

수없는 세월로부터 많은 것을 널리 듣고 밝게 통달하여 십방의 한량없는 백천의 증생들을 구원하고 보호하였느니라.

삼계에서 즐겁게 지내는 것은 마치 밝은 햇빛과 같아 일체 모든 법을 이해하기를 허깨비가 변화하는 것 같고, 아지랑이, 그림자, 메아리와 같아서 다 가질 바나 머무르거나 머무르지 않는 바도 없느니라. 비록 처음과 끝을 보아도 또 오고 감이 없으며, 이미 모양과 형상(色像)을 보았지만 본래 형상과 모양이 없어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도 영원히 기멸(起滅)함이 없어서 많은 증생들을 이롭게 인도해서 삼처(三處)에 집착하지 않게 하였다.

공(空)의 지혜와 무상(無想) 무원(無願)을 분별하여 삼탈문(三脫門)을 일으키고, 삼달지(三達智)에 이르러 이제 오고 감이 없는 현재의 생각으로 증생들을 깨우쳐 교화하여 본무(本無)를 깨닫게

하였는데 그 이름을 말하면 보수(溥首)보살, 광세음(光世音)보살, 대세지(大勢至)보살, 상정진(上精進)보살, 불치원(不置遠)보살, 보장(寶掌)보살, 인수(印手)보살, 약왕(藥王)보살, 묘용(妙勇)보살, 보월(寶月)보살, 월광(月光)보살, 월만(月滿)보살, 대도(大度)보살, 초무량(超無量)보살, 월세(越世)보살, 해박(解縛)보살, 보사(寶事)보살, 은시(恩施)보살, 응시(雄施)보살, 수천(水天)보살, 제천(帝天)보살, 대도사(大導師)보살, 묘의(妙意)보살, 자씨(慈氏)보살등 팔만(八萬)의 상수(上首)가 이와 같은 대사(大士)이니라.

이때 제석천(天帝釋)이 이만(二萬)의 천자(天子)와 더불어 함께 했고 일천자(日天子)는 무수(無數)권속들과 더불어 함께했고, 월천자(月天子)는 귀한 광명(光明)으로써 널리 밝히고 있는 보광(寶光)천자와 광요(光耀)천자가 함께했으며, 사대천왕(四大天王)은 만 명의 천자(萬天子)와 더불어 함께했으며, 험명대범자재(明大梵自在)천자는 삼만(三萬)의 천자와 더불어 함께했으며, 범인적(梵忍跡)천자는 삼만이천(三萬二千)의 천자와 더불어 함께했고, 식건대범(飾乾大梵)은 무수(無數)천자와 참여했으며, 또한 범명험광(梵名 光)은 셀 수 없이 많은 대증들과 더불어 함께했으니, 부처님 처소에 와 이르러 머리숙여례를 마치고 한쪽 방위에 물러가 앉아있었으며, 또한 팔룡왕(八龍王)은 무양수(無央數) 천

(千)의 모든 룡의 권속들과 더불어 함께했으며, 사진타라왕(四眞陀羅王)인, 신법진타라왕(眞法眞陀羅王), 대법진타라왕(大法眞陀羅王), 인화진타라왕(仁和眞陀羅王), 지법진타라왕(持法眞陀羅王)과 향음신(香音神)은 각각 시종들과 더불어 부처님 처소와 머리숙여 례를 마치고 한쪽에 물러가있으며, 정신(淨身)의 사천자(四天子)인, 유연천자(柔軟天子), 화음천자(和音天子), 미연천자(美軟天子), 열향천자(悅響天子)는 함께 부처님 처소에 와 이르러 앞에서 머리숙여 례를 마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으며, 사아수륜왕(四阿須倫王)인 최승아수륜(最勝阿須倫), 욕금아수륜(欲錦阿須倫), 연거아수륜(燕居阿須倫), 흡기아수륜(吸氣阿須倫)은 무양수백천(無央數百千)의 아수륜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부처님 처소에 와 이르러 앞에서 머리를 숙여 례를 마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았으며, 사금시조왕(四金翅鳥王)인 대신왕(大身王), 대구족왕(大具足王), 득신족왕(得身足王), 불가동왕(不可動王)은 함께 부처님 처소에 와 이르러 머리숙여 례를 마치고 한쪽으로 물러나 있었으며, 마갈국왕(摩竭國王)인 아사세(阿闍世)는 열명의 자식들과 아울러 모든 시종들과 더불어 부처님 처소에 와 이르러 머리숙여 례를 마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으며, 모든 천룡신(天龍神)과 세상 사람들이 귀명(歸命)하지 아니함이 없이 받들어 공경하며 모시고 앉아있었다.

이때 세존께서는 참여한 사부대중과 권속들도 둘러 쌓여서 경전을 설하시고 보살들에게 바르고 같은 많은 계승으로 일체모든 깨달음의 엄정지업(嚴淨之業)을 강연하시고, 이 경전 설하기를 마치시니 자연히 사자(師子)자리에 오르시어 결가부좌하시여 삼매(三昧)에 드셔서 바르게 결정된 뜻을 받아들이시니 그 이름을 말하면 립무량송(立無量頌)이라. 응당히 옳은 것을 찾아봐도 몸과 모양으로 볼 수가 없고 마음과 생각으로도 깨닫지 못하니라.

앞아서 머무르는 곳에 곧 응당히 상서로움이 있으니 하늘에서는 의화(意華)와 대의화(大意華), 유연음화(柔軟音華), 대유연음화(大柔軟音華)가 비오듯이 세존(世尊)과 그리고 대회(大會)의 사부(四部)대중 위로 흩어져 내렸으며 널리 불국토(佛國土)는 6가지로 진동했느니라.

이때 대중들 모임의 비구(比丘), 비구니(比丘尼), 청신사(靑信士), 청신녀(靑信女), 천(天), 룡(龍), 귀신(鬼神), 건담화(健沓和), 아수륜(阿須倫), 가류라(迦留羅), 진타라(眞陀羅), 마휴륵(摩休勒), 인(人)과 더불어 비인(非人), 국왕, 군주, 대력(大力)의 전륜성왕은 각각 거느린 시종들과 함께 다 일심으로 세존을 우러러보며 다 크게 놀라 이 미증유(未曾有)를 괴이하게 생각했다.

이때 부처님께서서는 말씀은 마치시고 앞에 광명을 놓아 널리 동

방 만팔천 불(佛) 극토를 비추시니, 그 광명은 모든 불(佛) 극토를 비추어 두루 두루 바른 것을 잃지 아니하게 하고 무택대지옥(無擇大地獄)가운데와 위로는 삼십삼천(三十三天)에까지 막힘이 없이 이르렀다.

저 세계와 이 세계의 륝취(六趣)를 두루 돌아 있는 바의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의 근본을 다 나타내시니라. 그 세계에 모든 부처님께서 지금 계신 바로 말미암음이라. 이 극토에 모인 많은 사람들도 다 멀리서 볼 수 있었고 저 극토에서도 또다시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것을 보니라.

십방(十方)의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과 가르침을 널리 두루 들었음인가. 모든 비구(比丘) 비구니(比丘尼) 청신사(清信士) 청신녀(清信女) 홀로 살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덕(德)의 과보를 체득(逮得)한 것이 모두 드러나 나타나며, 또 모든 보살들의 널반해탈의 뜻과 그 출가(出家)한 사람이 응당히 수행하여 보(報)를 구하는 것 모두가 또 다 보여지니라. 모든 부처님세계의 멸도(滅度)하신 많은 성인들이 세운 바의 보묘(寶廟)도 자연히 나타나게 함이라.

이에 미륵보살이 마음에 스스로 생각해 말하되 ‘지금 세존께서는 진리와 같고 바른 깨달음과 삼매를 바르게 받아들이심에 이르셔서 감동과 변화를 널리 나타내시고 많은 바를 항복 받으시고

천상 세간의 모든 부처님의 묘사(廟寺)를 널리 밝히고 나타내심은 일찍이 보지 못했으며 장차 무엇을 일으키고자 하시는 바인가, 이러한 상서로움이 있음을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일찍이 또한 보지 못함이다. 그 뜻을 묻고자 하나 누가 이를 옳게 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한바를 다시 생각하되 '지금 대사 보수동진(溥首童眞=문수사리 법왕자)은 일어난 일을 판별함에 통달하지 않음이 없으며 과거에 수없이 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일찍이 여러 진리와 같은 바른 깨달음에 이른이를 뵈옵고 이와 같은 상서를 응당이 보았으니 청(請)해 물어보리라.'

그때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모든 천룡신 건담화 아수륜 가류라 진타라 마휴륜은 일찍이 있지 아니한 일을 만나보고, 이 대성인의 다함이없는 위엄과 신통을 구족하여 나타내는 변화를 보고 마음속에 산란한 의심을 각각 뜻을 일으켜 세존께 묻고자하는 뜻을 품고 망설이고있었다.

자씨대사(慈氏大士=미륵보살)는 모임에있는 대중들의 마음을 알고 곧 보수(溥首)에게 물어 말하되

“인자(仁者)께서는 가르쳐주소서. 지금 무슨인연으로 이러한 상서러운 감응이있으며, 대성인께서는 신통력을 구족하시여 대광

명을 놓아 동방 1만8천극토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자연히 나타나
게하고 설하신바의 경법(經法)이 다 멀리까지 들리게합니까?”

이어 자씨(慈氏)는 계송으로 보수(溥首) 에게 물어 말하되
문수사리시여

지금 무슨 연고로 증생들을 이롭게 인도하고자

널리 광명을 놓으시고

심히 큰 위덕의 빛을 입에서 내시여

신통변화로 십방세계를 밝게 두루 비추시며

하늘에서 많은 꽃들이

뒤섞여 내리는 것이 비오듯이하고

의화(意華) 대의유연음화(大意柔軟音華)

가지가지 약간의 그 색(色)이

수승하고 묘한 전단향의 향내음이

가히 증생들의 마음을 기쁘게하나이다.

청정하고 높고도 크고 응장하게 주변이

다 장엄되어 금일 사부대중은 떨듯이 기쁘으며

이 불극토 십방세계가 6가지로 진동을 하여

기울거나 흔들리지 아니한곳이 없나이다.

저 광명은

곧 동방 1만 8천국토를 비추고

그 빛은 널리 모든 부처님 국토의 경계를 통하게 하고

자마금색(紫磨金色)의 번쩍번쩍 빛나고

눈부시게 밝게 빛나는 모양이

불타듯이 이어지지 않은곳은 없으며

국읍(國邑)의 여러 백성들이

어리석어 의지하지 않음이없고

상계(上界)에 다다르고

무택(無擇)지옥에 들어가 다하더이다.

모든 백성들은 생(生)을 받아

무명(無明)에 말미암은 연고로

몸을 말긴 이 모든 뜻이

타락에 빠져 보이지아니하며

이 같은 모든 백성들에게

약간이라도 빨리 인연을 보이고 알리고자

지금 청정하게 장엄됨을 나타내셨나이다.

작지않은 많은 것을 나타내시여
 세간속의 모든 무리들이 나와 이곳에 머물며
 다 멀리서 보았나이다.

또 모든 부처님께서 사자후로써
 경전을 연설하고 법문(法門)을 열어
 널리 퍼지게해서 중생들의 헤아릴수없는
 더러움을 제거하고 사라지게하는것도 보았나이다.

성인의 가르침을 노래하고
 칭송하여 유연한 음성을 내되
 그 소리가 깊고 묘해서 사람을 떨듯이 기쁘게하여
 각각 자신의 가진바 경계(境界)를 버리게하나이다.

비유로써 강설(講說)하시고
 과보를 헤아려 응당히 베푸시고
 이 불법(佛法)을 분별하여 퍼서 연설하시여
 일체중생들이 괴로움을 만나서
 좋고 편안하지 아니한 로병사(老病死)를 다스리게하고
 오히려 이 같은 무리들에게

적멸(寂滅)을 설해 제도하셨나이다.

비구들이여

많은사람들이 곧 흑독한 빈곤과 번뇌에

머물러있음을 마땅히 알것이며

안락하고 상쾌한 즐거움은

본디 공덕(功德)을 조금씩 쌓아

이에 성존(聖尊)을 뵈옵고

또 일각승(一覺乘)에 인연하는데 이르고

바로잡아 깨닫게 하여

일체를 이 도업(道業)에 들게 하여

부처님의 뛰어나고 불가사의함을

모든 경적(經籍)에서 보게 하시며

혹은 위없는 지혜를 뜻하고 구하게 하고

일체세간에 약간(若干)의 모습을 보여주시어

이 같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덕을 노래하나이다.

인자보수(仁者溥首)시여,

저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이곳에 서 머물며

지금 다 보고 들었으며
 그리고 나머지 셀수없는 모든 억천의 증생들도
 이곳에 머물러있으면서 자신들이 다 살펴보았나이다.

또 불국토에 가히 숫자를 헤아릴수없는
 모든 보살들과 강이나 하천의 모래 같은
 억백천의 수가 감소하지아니하고
 정진의 뜻을 세우고 도에 뜻을 왕성하게
 일으키는것도 보았습니다.

혹은 또 모든바 재업(財業)을 놓아버리고
 금 은 진기한 보배 명월진주(明月眞珠)
 차거(車渠) 마노(馬腦) 노비(奴婢) 거승(車乘)
 침구와 책결상 모든바 기이한 보배 환패(環珮)
 영락(瓔珞) 이러한것을 모두 구족하였으나
 은혜를 베풀어 나누어주고 포시(布施)를 행하여
 높고도 존귀한 불도(佛道)를 도읍고
 힘써 남김이없더이다.

지금 저희들은 이 음성을 듣고

정각(正覺) 대승에 안주하여 찬탄하고
삼계에 머물렀으나 의지할바없는
그 사람을 빨리 이르게하여 이 원을 얻게되었나이다.

혹은 모든 탈것들을 곧 베풀어 주고
모든 꽃과 기악과 난간을 장엄하고
통소 북 취주악기로 되어 음절을 즐겁게 하는것과
사사(四事)를 응당히 같이 함께 봉양하여
베풀어 주었으며 이 포시(布施)로써
처첩 또는 자손이 련여(輦輿)를 소중하게여기고
혹은 비상시를 우려했지만
인색하거나 아끼는 마음이 없었으며
수족을 남에게 주되 아깝게여기는 생각이 없이
다 포시(布施)로 은혜를 베풀면서
이 존귀한 불도(佛道)를 힘써 본받고자하더이다.

다시 또 몸을 버리고
모든 가진바를 주고 머리 눈 몸의 팔 다리도
남기거나 아깝게 여기는바없이 포시(布施)하여

배플고 불도(佛道)를 성취하고자 뜻과 서원으로
여래의 성스런 지혜를 얻는데 이르더이다.

보수동진 (溥首童眞)이시여
저는 국왕과 권속들이 더불어 함께
배움의 자리에 나오고 궁전안에 후비(后妃)와
채녀(嫔女) 귀인(貴人)과 족성(族姓)들이
즐겁게 함께 불신(佛身)에 예배하는 것과
많은 증생의 무리들이 다 도사(導師)께 이르러
법왕(法王)께서 가르치시는 경전을 묻고
곧 속세의 옷을 버리고
고수염과 머리털을 제거하고
가사를 입고 법식(法式)하는 것을 보았나이다.

저는 약간의 모든 보살대중들과
비구 지우(知友)들이 고생스럽게
산중 굴속에 머물며 홀로 조용하게 살면서
공무(空無)를 깨닫고 통달하며
혹은 경전을 받아가져 읽고 외우고
찬탄하는 것을 보았나이다.

저는 다시 개사(開士=보살)들과
 영웅의 무리들이 짝지어 출가하여
 산속 골짜기에 들어가 지내며
 여러가지 실상을 사유(思惟)하고 정진하며
 널리 모든 불승(佛乘)을 분별하고 강설(講說)하여
 애욕을 덜어내고 없애 영원히 남음이없게 하고
 항상 스스로 수행하며 정행(正行)을 따르길 원하며
 모든 제자들이 한거(閑居)에서 떠나지않고
 안주하게하여 곧 편안히 수행하여
 오신통을 성취하고 체득하는것도 보았나이다.

높고도 묘한 진리를 아는사람들의
 뜻 바르고 같으며 겸손하여
 모두를 인도하는 스승님을 향하여
 차수(叉手) 공경하고 뛰고 떨듯이 기쁜 마음을 품고
 부처님의 덕을 수천의 계송으로써 노래하고
 인중왕(人中王) 찬탄하는 것을
 두려울 바없이 보았나이다.

숫아난 뜻을 조화(調和)하여
 출가의 업을 분별하여 깨닫고
 량족존(兩足尊)께 물어 여쭙보고
 자주 자주 듣는 것을 곧 거듭 생각하고 익히어
 많은 제자들이 안주하게 하되
 먼저 자신이 수행해 마치는 것을
 저희는 또 멀리서 보았나이다.

모든 부처님 자손들이
 무수억의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강설하고 응하여 나타나는
 과보의 조짐을 헤아려 알기는 어려우나
 기쁘고 기쁜 뜻을 품고 스스로 정법에 귀의하도록
 권하고 도와주고 가르쳐 교화하더이다.

셀수없이 많은 보살들이
 많은 마구니들을 항복받고
 따르는 관속(官屬)의 무리들과
 이법의 복을 우뢰가 치듯이 두드려

잘 가도록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저희는 또한 지나면서 보았나이다.

모든 천(天) 인(人) 신(神)들이
함께 받들고 모시는바의 모든 제자들을
안락에 머무르게 하고 기이하고도
고상하지 않음으로써 적연(寂然)을 더하게 하고
바로잡아 헤아려 수행을 하되
치우치거나 집착하는바가 없게 하여
마치 부처님과 같아서 증생들을 깨우쳐서
교화하고 제도하여 도(道)의 뜻을 일으키게 하여
증생들이 머물러 살면서 함께 손잡고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품고서
모두 다 함께 나아가더이다.

또 모든 부처님 제자들이
서원을 세우고 정진하여
욕망의 티끌을 덜어내고 없애
항상 자재함을 얻고 굳센뜻으로 경행(經行)하며

모든 나무들 사이에서 즐겁게 지내면서도
 마음속엔 부지런히 수행하고
 불도(佛道)의 근본을 구하는 것을 서원하며
 신구(身口)를 항상 맑고 깨끗하게 수행하여
 경계하고 금(禁)하는것을 지켜
 안은하며 생사(生死)에 두려움이없더이다.

저 마음을 지키고 모든 수행을 구족하여
 이 경계하고 금(禁)하는것으로써
 모든 깨닫지못한 가장 수승한 제자들을 깨닫게하고
 모두가 잘난체하고 뽐내고 알보거나
 가볍게여기고 험뚱고 욕하고 꾸짖더라도
 인욕의 힘에 의지하여 겸순(謙順)하며
 만약 채찍질을 하더라도
 그 불도(佛道)을 구해서 말없이 갇지아니한 것을
 저는 또한 보았나이다.

보살과 대승들이
 기악으로 어울려 노는것과
 더불어 모든 힘있는 세력과

친우들과 함께하는 것을 일체 버리고 떠나서
 그 마음이 견고하고 바르기가 허공(虛空)과 같아서
 모든 더러움과 심란하고 어지러운 생각들을 없애버리고
 일심으로 건립(建立)하여 숨기고 덮어두었던 것들을
 소멸시키고자 사유(思惟)하고
 억백천년 동안이나 고요히 생각하며
 포시(布施)의 뜻을 세우고
 존귀한 불도(佛道)를 구하더이다.

혹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덮어 많은 바 은혜를 베풀고
 탐냄이나 질투하는 마음들을 잘라내 없애버리고
 바로잡아 숨기거나 두려워함이 없이
 음식을 갖추어서
 마땅히 만나는바의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였으며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병을 고치수있는 약을
 또 다시 주고 베풀었으며
 입고있던 옷과 복식(服飾)들을

별거벗은 사람들을 구제하기위해 베풀어주었으며
 창고에 모아둔 바가 없이하니
 다스리고 따르는 이들과 더불어 함께
 눈 앞에서 가장 수승하고 높은
 교화의 서원을 세우고 살면서
 억백천가지를 베푸는 것을 보았나이다.

진기한 보배와
 그리고 전단향으로 만든바의
 많은 상좌(床座)가있으며
 모든 간직한 명주(明珠)를
 현재 눈앞에서 받들어 바치고 안락함에 머물되
 그 보배의 가치는 억백천이며
 보이는 바 동산의 나무와 잎과 꽃과 열매들이
 신선하고 깨끗함을 구족하여
 가히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하더이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행하고
 겸해 부처님과 보살들과 모든 성문들에게
 진헌(進獻)을 더하여 가히 지혜가 더하게 하는바

이 같이 지위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섞이어 기쁘고 기쁘게 구제하길 다하고
 스스로 깊이 경사가 난것처럼 기뻐하며
 도(道)를 수행하는 서원을 세우고
 이렇게 베풀며 존귀한 깨달음을 구하길 원하더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적연(寂然)한 법의 도리를 깨달코저
 모든 보응(報應)을 많은 억조(億兆)해 동안 살피
 증생들을 일으켜 세워 그 허물을 뉘우치게 하여
 편안하고 보배롭게 여긴것들을 버리게하여
 불도(佛道)를 원하고 뜻하게 하며
 법을 몰래 감추거나 아끼지 아니하고
 관찰하여 밝게 깨달아서
 세가지 일(三事)을 제거해 다하게 하고
 허공 같은 적등(寂等)에 제자들을 안주케하여
 모든 집착하는바가 없는 이 같은 지혜로
 존귀한 불도를 구하여
 유연한 음성으로 널리퍼는 것을

저는 다시 보고 알았나이다.

모든 멸도(滅度)하신 부처님께서서

개화(開化)에 안주하시고 모두 현재하신 바이며

많은 보살대중들은

다함께 가장 수승한 사리(舍利)를 받들어 공경하더이다.

저는 억천(億千)수의

불묘(佛廟)를 만나보되

모든 한도를 계산하기 어려움이

강하(江河)의 모래 숫자와같이

억(億)의 국토에있어서

항상 존대(尊戴)함을 보았으며

모든 것을 변화로 나타내어

가장 수승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칠보(七寶)가 자연히 청정하게 나타나서

리수(里數) 25만을 구족했으며

모두 당번(幢幡)으로 덮어서 각각 수천이있으며

넓이와 길이가 빙 둘러 각각 2천리이며

그 덮은 것이 미묘하고 아름다우며

청정하게 장엄된 것이 수승하고 기이했으며

여러가지 향기와 진기한 보배가 자연히있는 바이며
 모든 과일들의 향기가 진하며
 기악은 아름답게 화합했으며
 귀신과 라찰(羅刹)이
 인존(人尊)을 공손하게 공경했으며
 모든 제자들이 안락하게 머물러 감동을 일으킨바
 사리(舍利)를 이같이 공양하니
 지금 이 불묘(佛廟)는 눈부시도록 밝게 빛나며
 꽃 향기가 두루 퍼졌으며
 낮과 같이 깨닫고자 서원을 세운
 이러한 사람과 증생들 무수억천(無數億千)이며
 다 멀리서 보니 울긋불긋하게 선명하게 빛이났으며
 가볍게 행하는것도 바르게 하고
 권속들을 만나면 전하여
 최상의 수승함을 알고자하게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최상의 광명을 드러내 나타내고
 큰 광명을 밝히고 널리퍼서 묘함을 밝게 알아서
 허물도 떠나고 루(漏)도 없게하여
 곧 능히 이같이 큰 빛을 나타내고 널리 퍼지게하고

모든 불국토에 헤아릴수없는 수천의 증생들이
 이러한 상서러움을 응당히 보고 미증유(未曾有)를 얻고
 이와 같은 무리들이 모두 크게 변화한 것을 보았나이다.

원컨대 보수시여,

이 도리를 자세히 설하소서.

지금 저와 모든 불자들과 사부대중들이

마음속에 기쁘고 즐거워함을 품고 흠모하고 부러워하며 인자
 (仁者)를 목마르듯이 우러러보며

겸해서 쳐다보고 관찰하여 알고자해서

금일에 안주하게 되었나이다.

무슨 인연으로 말미암아

대광명(大光明)을 입으로부터 내시여

널리 드날리시는지 의심스럽고 밝지아니함을

해결하시여 뿔듯이 기쁜마음으로

가르쳐 인도한것처럼 행하게하소서.

무슨 까닭으로 부처님께서는

다함이없는 대광명으로 이 같은 변화를 나타내시어

마땅히 있는바 감동한 제자들을 안주케하시는지
원컨대 때 맞추어 가르침을 베풀어주소서.

대성(大聖)께서 성취하신 바의
이 미묘법을 도장(道場)에 계시는
정사(正士)께서 펴서 연설하소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게 인도하시는 스승께서
말미암으셨던 바의 방면(方面)을
원하옵건대 분별하소서.

이 모든 보살들은
불국토에서 끝없는 수천의 화합하여 살아가는
모든 무리들과 청정함으로 장엄된 여러가지 귀한것들과 모든
것을 깨달아 헤아릴수없는 밝은 안목을
몸소 나타내심을 알고자 하나이다.

무릇 새로 배우는 사람과
깨닫지 못해서 주저하고 망설이지만

모든 것이 가장 수승한 제자들을
널리 함께 깨우쳐 알려주소서.

모든 사람과 백성들과
천신(天神) 라찰(羅刹) 사부대중
모두가 기쁘게 받들고 우러러 보오니
지금 보수께서는 오직 분별하여 구족케 하소서.

이에 보수는 자씨(慈氏)와 모든 대사(大士)와 모임에있는 대중
들과 족성자와 족성녀에게 말하되

내가 근본을 생각하고 헤아리건대

지금 여래께서는 마땅히 대법(大法)을 펼치시고 다함이없는 법
을 연설하시고자 대법의 비를 흘리고 대법의 북을 치고 대법의 소
리를 불러 무량법(無量法)을 강설하시고자하시며 또한 몸소 옛날
로 거슬러 올라가 기억을 해보건대 이에 과거로부터 여러 부처님
께서도 이와 같은 상서로운 현상을 나타내셨는데 광명을 놓으심
이 또한 이와 같으셨으니 이를 통해 성취하신 여래께서는 증생으
로 하여금 무극에 관한 설법을 경청하도록하기 위해 이와 같은
상서로운 광경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군생(群生)으로 하여금 속세의 티끌을 씻

어내게 하여 불법을 마음으로 따르게 하기 위해 광대한 신통변화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생각해보니 지나간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무양수(無央數=아승기) 겁에 어떤 여래께서 계셨는데 그 명호는 일월등명 지진등정각(日月燈明至眞等正覺) · 명행성(明行成) · 선서(善逝) · 세간해(世間解) · 무상사(無上士) · 도법어(道法御) · 천인사(天人師) · 불(佛) · 세존(世尊)이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경전을 설법하실 때 처음도 잘 말씀하셨고 중간도 잘 말씀하셨고 마지막 말씀 또한 잘 하셨으니 그 뜻을 미묘하고 구족하게 분별해 마침내 청정하게 범행(梵行)을 닦으셨습니다.

성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체(聖諦)를 강설하시어 사람들로 하여금 생(生) · 로(老) · 사(死) · 우(憂) · 뇌(惱) · 증환(衆患)에서 벗어나 무위(無爲)에 근접하도록 하셨습니다. 보살대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육도(六度=六波羅蜜) · 무극(無極) ·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아녹다라삼막삼보제)를 분별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족성자(族姓子)여, 저 일월등명 여래께서 멸도하신 뒤 또 다른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그 명호 또한 일월등명이셨고 이 부처님이 멸도하신 뒤 다른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그 명호 또한 일월

등명이셨고 이 부처님이 멸도하신 뒤 다른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그 명호 또한 일월등명이셨는데, 이렇게 해서 팔십 분의 여래께서 동일하게 일월등명이란 명호를 지녔으니 같은 성의 후예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만 분의 여래가 계셨는데 저 이만 여래 가운데 가장 먼저 현현하신 여래의 명호도 일월등명이었고 제일 마지막에 출현하신 여래의 명호도 또한 일월등명 여래 지진등정각(至眞等正覺)이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경전을 설법하실 때 처음, 중간, 마지막까지 뛰어난게 그 뜻을 분별해 말씀하셨고 미묘하고도 구족하게 범행(梵行)을 닦았습니다. 여러 성문을 위해서는 사체법(四諦法)과 십이인연(十二因緣)을 강설하시어 생로병사를 비롯한 온갖 근심과 걱정을 소멸시켜 마침내는 무위(無爲)하게 하셨으며, 여러 보살을 위해서는 육도무극(六度無極)의 가르침을 강설해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에 이르게 하여 지혜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월등명 여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왕자 여덟이 있었으니 첫째는 유지(有志), 둘째는 선의(善意), 셋째는 가권(加勸), 넷째는 보지(寶志), 다섯째는 지의(持意), 여섯째는 제만(除慢), 일곱째는 향의(響意), 여덟째는 법의(法意)였습니다. 여덟 태자는 여래의 자손으로써 신족(神足)과 홍보(弘普)를 갖추었는데 각각 사

역천하(四域天下)를 말아 다스렸으니 그 땅이 풍요롭고 다스림을 고루 펼쳐 정법(正法)은 어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존께서 나라를 저버리고 도를 닦아 최정각(最正覺)을 얻어 부처가 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자 세속을 버리고 높은 지위를 돌보지 않은 채 세존의 처소에 찾아가 사문이 되어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에 뜻을 두었습니다. 법사(法師)가 되어 항상 범행을 닦았으니 백천만억 아승기 부처님 주위에서 온갖 덕의 근본을 심었습니다.”

또한 보수 대사가 말씀들을 계속하셨습니다.

“또한 아일(阿逸)이시여, 그때 일월등명 여래께서는 보살들에게 권발(勸發)하고 불법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을 대상으로 대송방등정경(大頌方等正經)을 강연하셨습니다. 이때 저 세존께서는 법좌에서 적연(寂然)하게 무량송삼매정수(無量頌三昧正受)에 들어가 다시 나오지 않아 아무런 몸도 아무런 뜻도 없어 아무것도 얻을수 없어 마음을 세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 삼매에 들어가시자 하늘에서는 의화(意華) • 대의화(大意華) • 유연음화(柔軟音華) • 대연음화(大軟音華)가 비처럼 부처님 주위 법회참석 사부대중의 주변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때 땅이 여섯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대중들은 각각 하

늘꽃을 취해 또다시 부처님 주위에 뿌렸습니다.

사부(四部)제자, 여러 하늘과 사람은 크게 놀라 괴이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나, 그 위신력을 발휘해 열굴에서 광명 한줄기를 놓았는데 그 광명은 동방으로 만팔천 불국토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저절로 현현되어 또한 금일에 본 불국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 때 세존께서는 이십억 보살과 함께 계셨는데 보살 대중을 위해 경전 가르침을 강설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보살 대사들은 위대한 광명이 세간을 두루 비춘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그 부처님 당시에 초광(超光)이 시자 십팔명과 함께 있었고 어떤 보살이 유독 게을렀는데 그는 명문(名聞)이라 일컬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삼매정수에 드셨다가 삼매로부터 나오셔서 초광 보살을 위해 정법화방등지업(正法華方等之業)을 강설하여 온갖 보살행이 모두 불법임을 밝히셨다. 부처님께서서는 한곳에 편안히 앉은 채 육십겁에 걸쳐 대중을 위해 설법하는 동안 듣는 대중은 조금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고 마음에 요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월등명불께서는 육십 겁 동안 여러 보살을 위해 법화방등정경(法華方等正經)을 강연하신 뒤 곧 반니원(般泥洹)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세간 사람, 범천 악마, 사문, 범지(梵志), 아수륜(阿須倫), 귀신, 비구 등에게 이르기까지 시간을 살필 때 여래께서는 한밤중에 무여계(無餘界)에 이르러

반니원에 들어가지 전에 수장(首藏) 보살에게 수기를 내리기 위해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도에 들어간 뒤 수장 개사(開士)는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에 이르러 최정각(最正覺)을 성취하리니 그 명호는 리구체(離垢體)여래, 지진등정각(至眞等正覺)이리라.’

부처님께서서는 수기를 마치시고 한밤중에 멸도를 취하셨습니다.

저 세존의 아들 여덟명은 초광 보살대사에게 귀의하여 가르침을 받았고 모두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에 뜻을 두게 되었습니다. 여덟 왕자는 아승기겁 동안 무수한 부처님을 친견해 공양 올리고 받들어 모두 정각을 성취하게 되었으니 마지막에 성불한 왕자의 명호는 법사(法事)였습니다.

초광 보살의 시자 열여덟명 가운데 한 보살 명문(名聞)은 이익을 무절제하게 구해 은근히 공양을 바랐고 오염된 번뇌를 탐했기에 자주 세가지 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전 구절을 뜻에 맞게 이해하다가도 홀연 잊어버리곤 해서 계속 경전을 읽어나갈수 없었기에 그 족성자(族姓子)는 명문이라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덕의 근본을 무수한 부처님 주위에 심어왔기에 수많은 성인을 친견하기를 구했고 모두 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수 대사이여, 다음을 아는 것 보다 중요한 게 없사오니 그때의 비구 범사였던 초광이 바로 나 자신이고, 그때 게으름을 피운 명문(名聞) 보살 대사는 그대이니이 보다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 세존께서 상서로운 감응을 보여주기 위해 그 광명을 놓으셨음을 우리는 모두 보았사오니, 금일 위대하신 성인께서 마땅히 저희들을 위해 정법화방등전적(正法華方等典籍)을 강설하실 것입니다.”

이어 보수 보살은 그 의미를 거듭 펴기 위해 이 계송을 읊었다.

지난 과거 생각해 보면

불가사의한 겁 이전에 가장 수승한 존재

위없는 지혜지닌 인물

그 명호는 일월등명불

저 여래께서 법을 설하셨으니

성인께선 무극(無極)에 달하셔서

헤아리기 어려운 중생 개화(開化)시켰고

권조(勸助)하여 발기(發起)시킨

보살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네.

그때 여래의 어린 여덟왕자

아버지의 깨달음 전해 듣고
세존을 본받아
모두 사문이 되어
애욕과 모든 소유를
벗어 내려 놓았으며
세간을 이롭게 이끌기 위해
법을 강설하였으니
이에 강설한 경전은
무량송(無量頌)이라 일컬었네
명호는 최상(最上)이었으니
그 뜻이 이와 같았노라
억천수(億千數) 중생을 개화하기 위해
위대한 성인께서 때에 맞게
이 경전을 설법하신 뒤
능인(能仁) 지존(至尊)께서는
법상의 자리 위에서
결가부좌 자세를 취하고
상서로운 감응을 나타내어
무량송이란 삼매정수에 들어가시매

바로 그 때 대의음화(大意音華)가
 비처럼 뿌려졌으며
 또한 우뢰가 큰 소리로 울리자
 여러 하늘과 귀신이 허공 가운데에서
 일심으로 받들어 공경을 표하는 구나.
 이에 인증지존(人中之尊)께서는
 미간으로부터 이 광명을 현출(顯出)해
 여러 불국토에 퍼지게 했으니
 그 미증유를 차마 헤아릴 수 없더라.
 동방으로 불국토를 두루
 만팔천 수억세계를 휘돌아
 그곳 중생들의 종시근원(終始根源)
 모두 분별할 수 있었네.

혹은 어떤 불국토에서는
 여러 보배 덩개를 세워
 광명은 유리와 같고
 또 수정(水精) 같았어라
 도사(導師)는 광명으로
 휘황하게 빛나 단아하고

수승하게 장엄되셨으니
 여러 하늘 대중, 귀신,
 룡, 그리고 건담화(健曇和) 등이
 그 희유함에 환희심 일으켜
 높이 받들어 안주했으니
 저 여러 세계의 모습니
 이처럼 자연히 드러나게 되었어라.

또한 여러 부처임 살펴보니
 각각 자재하게 단아하고
 바르고 미묘하여
 자금색으로 장엄되어
 흡사 유리병 속에
 보배가 빛나는 듯 하고
 법회 대중을 위해
 법의 가르침 비처럼 내리매
 무수히 많은 성문들
 그 가르침에 한없이 찬탄했고
 제자(弟子), 도사(導師), 모든 세계

편안히 안주하게 되었어라.

또한 광명 통해 살펴보니

모두 준엄하게

설새 없이 정진 거듭하고

계율을 범함이 없이

인내력을 발휘하는 모습

마치 밝은 구슬 보듯

세존의 무수히 많은

제자들 한가하게 산림이나 광야에서

갖가지 선정을 닦으며

인연에 끌려 다지지 않고

어느 누가 해치더라도

성내거나 한을 품지 않더라.

갠지스강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보살대중

광명 가운데 안주해

이와 같이 감동하여

마음 깊이 무상의 이치 유념해

방일함에 떨어짐 없이

인욕과 선정을 즐겨

한마음 저버리지 않으며

편안히 머물렀어라.

스스로 자신의 뜻 조복해

불도(佛道) 높이 받들어

진체(眞諦)에 머물러

그 마음 적연해졌으니

각각 방편과 인연에 따라

많은 대중 개화했고

무수한 불국토에서

널리 경전 가르침 전했으니

세존께서 하시는 바에 이처럼 감응하는구나.

또한 광명 통해 살펴보니

위대한 성인 마치 배의 선장처럼

나투신 광명은 해와 달의 밝음을

덮을 정도여서

일체 중생 떨듯이 환희하며

서로 서로 이 무슨 감응인가
물고 또 물었어라.

하늘과 사람이 받드는 세존
삼매로부터 일어나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도사께서는 곧 앉으시어
초광(超光) 보살을
범사라 일컬으시며 말씀하셨네.
그대는 세간의 눈이 되어
육취(六趣)를 제거하리니
여래를 기쁘고 편케 하리라.
여러 종대(鍾大)를 제시하여
이 경전 가르침에 있어서
나를 위해 분별하리니,
나는 증생을 어여삐 여겨
이와 같이 교화를 펼쳐
권조(勸助)를 건립하노라.
여러 보살 대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흔연하게 찬탄하였어라.

그때 세존께서는
 위대한 경전의 가르침을
 이처럼 구족하게 펼쳤으니,
 육십중첩 동안이나
 그 자리에 앉은 채
 결가부좌의 자세로
 도사(導師)로서 세간증생 교화해
 수특(殊特)한 가르침 펼쳤어라.
 저 부처님 멸도하시자
 초광 인인(仁人) 범사가
 수승하게 경전의 진리
 펼쳐 말씀 전하매
 무양수인 많은 무리
 모두 크게 환희했어라.

위대한 성인께옵서
 분별해 풀이하시자

천상이든 세간이든
 경전의 가르침 법도에 맞게
 전해들어 현시(顯示)되매
 이것이 정법화(正法華)에 담긴 진리
 여러 비구에게 고하노니
 내 이제 때에 이르러
 한밤중에 멸도에 들어가리니
 수행함에 있어 방일하지 말고
 마음 굳게 다져야 하니라.
 내 이제 옷을 벗어
 여러 경전의 가르침이나
 위대한 성인의 신통력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무양수억(無央數億) 나술겁(那術劫) 동안
 항상 공양 올려야 하나니
 무량한 불자들 온갖 근심
 걱정에 깊이 빠져
 때때로 세존께서 전한
 장구(章句)의 가르침 듣고,
 무위(無爲)의 도리 관해

그 진리를 채집해 익히고
 인존(人尊)을 만나기도 하여
 때로는 안위케 되리니
 그 범회의 불가사의한
 비구들아,
 내가 널반에 들어간다고 걱정말아라.
 여래가 입멸한 이후
 한동안 현현하지 않다가
 온갖 번뇌에서 벗어난
 두번째 수장(首藏) 보살
 어디든 들어가지 않음이 없어
 마땅히 구경에 이르게 되어
 위로 불도를 받들으리니
 그 명호는 리구지체(離垢之體).

곧 한밤중을 택하여
 세존께서 멸도를 취하매
 흡사 불빛이 사그러지는 듯 하였네.
 그 부처님의 사리를

여기저기 널리 분포해
 곳곳에 탑묘를 건립했어라.
 무량억 세월 동안
 여러 비구, 비구니들이
 뜻을 두어 구해
 위로 불도를 높이 받들었으니
 강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중
 항상 정진에 정진 거듭해
 세존의 가르침에 안주하는구나.

그때 비구가 법사가 되었으니
 초광대인(超光大人)이
 경전 들고 한번 자리에 앉은 순간에
 세존의 법 연설하시매
 팔십증겁을 구족하게 하셨으니
 그때 시종 십팔인이
 교화입어 구제받아
 안온하게 되었어라.

이들은 무수억 부처님
 친견해 지극 정성으로 공양올려
 여러 위대하신 성인
 유순(柔順)한 가르침 받들어 지녀
 여러 세계에서 각각 성불 이루었어라.
 자재함을 얻어 무량한
 법문 수지해 제각기
 수기 받아 정각에 이르렀어라.

이때 여러 부처님
 정광(定光) 세존이 최후에 부처되어
 대선일월(大仙日月)의 스승되어
 성중(聖衆)을 개화(開化)하였으니
 도사(導師)의 교화임은 수백천억
 편안히 안주하게 되었구나.
 위대한 위신력 초광법사가
 바로 내 자신이었어라.

그때 시종 가운데

게으르고 이익에 탐착한 자
친구를 사귄 때마다
얻는 바에만 뜻을 두어
명성 얻기만 몰두하였기에
가고 오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있어서
여러 족성(族姓)에 나아갈 뿐
배운 바는 내팽개쳐 친채
경전 독송은 접어두고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분별만 일삼았으니
그는 이런 인물이었기에
그 이름만 실리게 되었어라.
불법의 가르침에서
명예만 얻고자 했으니
그는 이로 말미암아
허물이 있기는 했어도
덕의 근본을 지어
부처님 주위에 머물렀고
무수한 세존을 친견해
공덕을 쌓고 쌓아서

위대한 성인 주위에서
 오로지 바른 행만 닦아
 최순인(最順忍) 얻게 되었어라.
 또한 살펴보니 세존께서
 이에 능히 교화를 행하여
 미래의 최후세에 이르러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를 얻어
 세존의 경지를 성취하리니,
 그 명호는 자씨(慈氏)대사
 무량중생 교화하리라.
 대사는 용맹해 자유자재하게
 멸도에 편안히 안주하고
 그 가르침에 순수함이 이와 같으리니
 저 때에
 내 몸이 법사였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이와 같이 행애(行哀)하여
 광명 통해 과거의 일 보았고
 이와 같은 부류들이

인자(仁者) 가르침에 안주했으나
 세월따라 이런 변동 일어났으니
 본제(本第) 한 번 살펴보매
 이와 같이 상서로운 감응 일어나
 저 때 세존께서
 무량하게 밝으신 눈으로
 제석(諸釋) 가운데 왕 되시어
 제일의(第一誼) 나투시었어라.

이제 정법화경을 말하겠노니
 내가 과거세에 들은 도업(道業)
 지금 변화를 일으켜
 구족함을 얻게 하리니
 여러 도사(導師) 세존께서는
 방편도를 실행하셨고
 위대하신 석사자(釋師子)
 경전의 가르침 건립해
 자연의 진리 강설하셨으니
 도(道)에 뜻을 두었다면
 합장해 귀기울이라.

세간중생 이롭게 하기 위해
이젠 분별을 내어
진리의 비 뿌리게 하여
유연한 법의 가르침으로
일체를 윤기나게 하겠노라.
도에 뜻을 두고 여러 하늘은
무위의 이치에 들게 하리라.
마음에 의심을 품어
머뭇머뭇 거리는
어떤 보살이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내 마음 속 생각 드러내
이제 그 의문 제거 시키리라.

2. 선권품(善權品)

이때 세존께서 삼매로부터 깨어나시어 현자(賢者)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불도(佛道)는 매우 깊고 여래의 지진등정각(至眞等正覺)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이해하기 어렵고 헤아려 알기도 어려우니라 비록 성문이나 연각이 본래 억년동안 여래를 섬겨 무양수겁(無央數劫)에 걸쳐 덕의 근본을 지어 불법을 받들고 은근하게 정진 수행하였음에도, 여전히 도품지화(道品之化)는 알 수 없느니라.

또한 사리불아, 여래는 증생의 연기(緣起)를 관찰해 방편을 알맞게 활용했고 각각에 맞게 이끌어 지혜를 그에 따라 분별했고 법을 증생들에게 알맞게 베풀었느니라.

위대한 지혜의 힘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 일심으로 해탈을 구하고 삼매정수(三昧正受)에서 한량없이 즐겼으며 입으로 전하는 경전의 가르침은 그에 미칠 수 없기에 여래는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말했을 뿐이니라. 위대한 성인께서 미증유를 말씀하심은 매우 위대하여 헤아리기 어려우니라. 여래는 법의 소유(所由), 그 유래한곳[所從來], 제법자연(諸法自然)을 끝까지 다 알고 법의 모습과 온갖 현상의 근본 법자연(法自然)의 이치를

밝게 아느니라.”

곧이어 세존께서는 그 뜻을 거듭 펴기 위해 계송을 읊으셨다.

세상의 영웅도 헤아리기 어려워

여러 하늘, 세간의 사람

모든 중생 부류들이

어찌 도사(導師)일 수 있으랴.

번뇌로부터 벗어난 해탈문

적연(寂然)하여 두려움 없이

이와 같은 불법의 면모

능히 이룬 자 없구나.

본래 수천억 부처님

인(因)에 의지해 행을 닦아

심원하고 미묘한 이치에 들어가

그 드러난 바에 이를 수 없노라.

무양수겁(無央數劫)에 걸쳐

불도의 업을 익혀

마침내 도장(道場)에 이르렀고
 대자대비를 실행하여
 이 지혜 얻게 되었어라.

십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
 일체상을 구족하여
 온갖 상호 또한 이와 같구나.
 그 몸 볼 수 없고
 또한 말로 형용할 수도 없노라.

모든 중생 살펴보니
 세간 어느 존재와 같지 않노니
 만일 경전의 가르침 설할 때
 능히 분별해 이해하는
 오직 한 보살만이
 항상 즐겨 믿을 것이니라.

가령 부처님의 제자들이
 지은 바를 이미 판별하여
 그 가르침에 편안히 안주해

여러 번뇌 모두 제거하고
 자기 마음을 잡아 다스려도
 거기에는 도달하지 못하리라.

약간의 지혜를 갖추어
 설령 이에 이르고자 해도
 부처의 경계는
 일곱가지 보배로
 충만된 곳에 평안하게 안주했고
 신명지존(神明至尊)으로
 이 지혜 이해하고자 애써도
 끝내 이해할 수 없으리라.

가령 십방 불국도에
 여러 명철한 인물을 끌어 모으고
 또 현재의 여러 성문대중이
 일체를 구족하여
 한 때에 함께 모여
 지혜에 안주하고자 하더라도

능히 알 수 없으리.

부처님의 지혜

이와 같이 무량하여

그 한계 알고자 하나

이르러 알 수 없으리라.

여러 연각이나 독각은

온갖 번뇌가 없고

육근에 통달하고

그 마음이 하나로 귀결되느니라.

가령 십방세계의

사탕수수 대나무, 갈대처럼

사람이 모두 모여 함께 생각을 짜내어

여래의 설법을 알아내기 위해

억나술겁(億那術劫) 동안이나

이리저리 사랑(思量)을 거듭해도

법의 뜻 알지 못하고

증생을 이익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새로 뜻을 일으킨 보살들이

설령 무수억 부처님께 공양올리고
 경전 설법을 들어
 그 뜻을 분별하고
 또한 이런 무리들이
 십방세계에 가득해
 그 숫자가
 쌀 · 마(麻) · 숲처럼
 여러 세계에 많아서
 이들이 모두 모여 함께 사유해도
 세존께서 직접 보고 밝힌
 법의 근본은 불가사의하여
 강변의 모래알처럼
 무수억겁에 걸쳐 헤아려도
 그 끝이 없나니
 그 마음 변이(變異)하지 않고
 세간의 지혜 초월했기에
 얻어 알고자 할지라도
 그 경계가 아니리라.

불퇴전의 무수한 보살
강변 모래알처럼 끝없는 겁 동안
일심으로 사유에 전념해
한마음으로 사유 거듭해도
이와 같은 보살들
또한 감당할 수 없으리라.
모든 부처님의 성스런 밝음에
이르러 도달할 수 없으리니,

모든 번뇌가 다하여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없는
오직 부처님만이
십방 세계를 분별하여
능히 요득해 알 수 있느니라.

여러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한 바에 안주함은
오직 부처님만이 구족하여
저것을 알고 도달했고

증생을 매우 이롭게 이끌었고
 일체를 료식(了識)하였으며
 최상의 이치를 설하심은
 구원겁 동안이었느니라.

여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여러 성문과 연각은
 주장을 버리고
 널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각 득도(得度)하여야 하리라.
 부처님의 존귀한 법은
 방편을 뛰어나게 활용하시어
 강설로 세간중생 교화하시느니라.

항상 독보(獨步)함으로써
 많은 중생들을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진체의 경법(眞諦經法)을
 시현(示現)했노라.

그때 법회참석 대중 가운데 모든 성문, 아라한 등은 여러 번뇌가 다하여 본제(本第)를 알게 되었다. 천이백 대중과 제자, 성문이 되기 위해 발심한 비구 · 청신사 · 청신녀는 각각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세존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은근히 뛰어난 방편을 찬탄하셨으며, 여래의 깊고 오묘한 경법(經法)을 드날려서 최정각혜(最正覺慧)에 이를 수 없어 성문이나 연각이 알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일까? 지금 세존께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펴신다 해도 널반에 이를 수 없고 비록 이 경전을 설하실지라도 우리들은 그 가르침이 뜻하는 바를 이해할 수 없으리라.’

현자 사리불은 사부대중의 마음 속에 이런 의아심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의심 그물을 해소하고 아울러 가르침을 입기 위해 부처님께 아뢰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지금 여래께서는 무슨 연고로 뛰어난 방편을 찬탄하시게 되었습니까? 깊고 오묘한 법에 의해 최정각(最正覺)에 이르게 되오니 도와 덕은 외외(巍巍)하여 한계를 헤아릴 수 없사옵니다.”

이어 사리불은 계승을 읊었다.

지혜 밝으신 위대한 세존

이 진리 오래도록 선양하셔서

지혜력으로 선정에 들어가
 무량수겁 동안 받들어
 부처도장(道場) 찬양했사옵니다.
 이에 대해 감히 여쭙지 못하고
 참된 법만 찬탄했을 뿐
 미묘한 진리 여쭙지 못하고
 참된 법만 찬탄했을 뿐
 미묘한 진리 여쭙지 못했나이다.
 위대한 성인의 법 현시하시어
 세존께서 직접 그를 찬양했사오니
 한량없는 여래의 지혜
 분별해 헤아리고자 해도
 저희는 의심만 더할 뿐입니다.
 도는 모든 번뇌가 다했기에
 무위(無爲)의 이치 구하는 인물은
 부처님의 찬탄을 듣게 되나이다.
 연각의 도리 구하는
 비구, 비구니, 하늘, 룡, 귀신
 건담화(犍鬘和), 마휴륵(摩休勒)

또 여러 다른 부류들
 제각기 마음 속에 의심 품고서
 량족존(兩足尊)께 청문하노니
 대덕이시여, 의심 풀어주소서.
 일체 여러 성문들은
 교화입어 안주했기에
 위대한 성인께서 찬탄하셨건만
 저희들은 무극(無極)을 지향해
 비루한 생각 속에 빠져
 스스로 결정할 수 없사오나
 끝끝내 널반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에 대해 거듭 말씀을 내려
 분별하여 펼쳐 주시옵소서.
 사자후나 우뢰와 같은 말씀으로
 이제 가르침을 발하시어
 매우 뛰어난 제자(諸子)들은
 귀명해 함장한 채
 그 가르침 듣고자 하오니
 원컨대 분별해 설하옵소서.

여러하늘과 룡들 귀신과 진타라(眞陀羅)

강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한데

모두 입을 모아 말하고

세존께 공양 올리고

위문을 묻고

부처의 도 받들기 위해

국주(國主), 제왕(帝王)

전륜성왕 모두 한마음으로

수백천억 대중들

모두 공경을 올린 뒤

함장한 채 서 있사오니

그 덕이 어떤 연고로 성대해

온갖 행을 구족하게 되었나이까.

그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사리불아, 이런 질문 그만 두어라. 왜냐하면 여러 하늘이나 세간 사람이 이 가르침 듣는다면 모두 두려워하기 때문이니라.”

그러자 사리불이 거듭 아뢰었다.

“바라옵건대 위대하신 성인이시여,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해 가엾

이 여저 말씀을 내려주소서, 왜냐하면 여기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은 무양수 백천억년 기어다닌 생명[기행(歧行)] 천식(喘息)하는 생명, 기어나[연비(蝸蟻)] 굽실거리는[연동(蠕動)] 생명 등 온갖 생명으로 유전하던 중 일찍이 부처님을 친견해 온갖 덕을 심었고 그 부처님 가르침을 들은 바 있기에 모두 기쁜 마음으로 믿고 수지해 행할 것이옵니다.”

이어 사리불은 계송을 읊었다.

원컨대 인증왕(人中王)이시여
 가없이 여저 말씀 베푸소서
 여기 있는 출가자
 천만억 중생
 공경하며 엄숙히 안주하여
 그 지혜 뜻에 맞게 받들겠으니
 이 부류들은
 분명히 혼연하게 즐길 것입니다.

이에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세 번에 걸쳐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거듭 반복하지 마라. 그 가르침을 들으면 여러 하늘과 세간 사람은 모두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고, 비구·비구니는 큰 고난을

겪게 되리라.”

이어 세존께서는 게송을 통해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만두어라 그만 좋아거라.

이 지혜 크게 미묘해

대중이 알 수 없으니

가령 내가 알기 쉽게

가르쳐 베풀다 해도

어리석어 딱 막힌 대중

교만한 마음만 날게 되리라.

현자 사리불이 거듭 세존께 아뢰었다.

“바라옵건대, 위대하신 성인이지요, 지금 저희를 가엾게 여겨 말씀 하소서. 무양수 대중들은 지난날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 입은 것이 있사옵니다. 그래서 지금 성인의 말씀 듣기를 고대하옵나니, 들으면 믿어 크게 안온할 것이니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어 사리불은 게송을 읊었다.

저희는 부처님의 장자(長子)이오니
 이제 삼가 청하옵나이다
 원컨대 량족존이시여
 가없이 여겨 해설해 주시옵소서.
 여기 천만억 무수한 증생들
 모두 기꺼이 믿어
 성스런 세존의 가르침과
 본래의 덕에 회귀하여
 온갖 의심 그물 결단코 끊어
 지난날 긴 밤 동안의 어둠
 가르침의 바다 입게 되오니
 저희들은 합장한 채
 공경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비켜서서
 반드시 기쁘게 받들겠나이다.
 이 법의 뜻에 알맞게
 저희들 천이백 명과
 나머지 다른 부류들
 부처의 도 높이 받들겠나이다.
 가령 말씀듣게 되으면
 그 가르침에 안주하여

환희심 크게 일으키겠사오니
 대자대비의 마음 발하옵소서.

이에 세존께서는 사리불이 세번에 걸쳐 권조(勸助)함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은근히 세 번에 걸쳐 청하니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귀 기울이고 또 귀 기울여 들어 잘 생각하기 바라노라. 내 이제 말하겠노라.”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비구 · 비구니 · 청신사 · 청신녀 오천명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례를 표한 뒤 법석을 떠났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만해 아무런 방편도 통하지 않아 진리를 얻지 못했음에도 얻었다고 여기고 성취함이 없음에도 성취한 줄로 착각했기에 덮개[개장(蓋藏)] · 의복 · 침구를 거두어 떠나게 되었다.

세존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또한 제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사리불아, 법회 대중 가운데 교만한 무리는 물러났는데 그들은 광대한 뜻에서 벗어나 소리와 맛에 구속되었느니라.”

떠힌 사리불아, 이처럼 교만한 무리는 법회에서 물러남이 마땅

하리라.

여래는 어찌서 이 법을 설하는가. 비유컨대 영묘하고 상서로운 꽃은 시시때때로 볼 수 있지만 부처님이 찬탄하는 이 법은 아주 오래토록 만나기 어려우니라. 그대들은 마땅히 여래께서 진리를 말씀하신 깊은 경전의 가르침 믿어야 하나니 그 뜻은 깊고 미묘해 결코 헛되지 않느니라. 약간의 음성으로 장구(章句)를 나타내 보이셨으나 각각 달라서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느니라. 본래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을 여래는 모두 아느니라.

왜냐하면 정각(正覺)세존이 세간에 나타나는 것은 일대사(一大事)를 차탄(嗟歎)하기 위해 모두 하나의 근원[일원(一原)]에서 나와 시현(示現)하는 것이니 모두 하나의 근원[일원(一原)]에서 나와 증생의 바람에 응하여 이를 권조(勸助)하기 위해 세간에 출현하게 되었느니라. 증생들이 발원을 세워 부처의 지혜를 희구하기에 세간에 나투게 되었으며, 증생들이 여래의 보배 지혜를 바라기에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으며, 여래의 지혜와 깨달음을 군생(群生)이 희구하기에 세간에 나타나게 되었으며, 민서(民庶)에게 팔정(八正)을 보여주어 이를 희구하도록 하기 위해 세간에 출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알아야 되나니, 정각(正覺)세존이 일어남은 모두 한가지 뜻에 있는데 무극의 지혜로 광대한 업을 지음에 있나니라.

하나의 공의 지혜와 한량없는 연민스런 마음으로 세간에 나타나게 되었느니라. 부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그 이익과 뜻 또한 마찬가지로, 설법하여 여러 보살을 가르쳐 진체(眞諦)의 지혜를 현시하느니라. 부처님의 성스런 밝음으로 분별하여 점점 증진해 대각승(大覺乘)에 나아갈 뿐이니 이승도 없거늘 하물며 삼승에 있어서라! 십방세계의 모든 불세존은 과거, 미래, 현재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이니라. 방편으로 약간의 가르침을 펼쳐 각각 다른 말씀으로 일체를 개화(開化)하기 위해 설법함으로써 대승의 진리를 일으키나니 부처님의 정각승(正覺乘)은 여러 지혜에 통하나니라.

또한 사리불아, 여기 중생들은 모두 지난 과거에 여러 부처님께 공양 올린 바 있으며 또한 법을 들었으니 그 본행(本行)에 따라 그에 알맞게 시현(示現)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살펴보니 중생들의 본행(本行)이 같지 않기에 그 마음으로 즐기는 바 약간을 보고서 방편을 알맞게 써서 보응(報應)을 건립했느니라.

법을 그에 맞게 강설해 평등정각대승(平等正覺大乘)을 펼쳐 지혜, 도와 덕 그 하나에 통하게 되었으니 들이 있지 않느니라. 십방세계는 평등해 차이가 있지 않거늘 어찌 삼승이 있을 수 있으랴!

또한 사리불아, 가령 여래는 증생의 허물티끌[하예(瑕穢)] 일 겁(一劫)이 마쳐지지 않았다 말했으니, 지금 나는 오탁세(五濁世)에 출현했나니라. 첫째 진로(塵勞), 둘째 흉포(凶暴), 셋째 사견(邪見), 넷째 수명단(壽命短), 다섯째 겁예탁(劫穢濁)이니, 이처럼 본덕(本德)이 얇고 천박하며 탐욕이 많고 번뇌의 때가 두렵기 때문에 방편으로 삼승의 가르침을 현시해 성문과 연각의 이치를 화현(化現)시킨 것이니라. 만일 불승(佛乘)을 설했을 때 끝내 받아들이지 못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여래의 법 가운데 연각의 도가 있어 온갖 어려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리라.

만일 어떤 비구 비구니가 아라한의 경지에 이미 도달해서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불승(佛乘)을 비방한 셈이니라. 비록 부처와 평등하다고 하여 뒤에 반니원(般泥洹)에 이른다 한다면 이는 교만한 무리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왜 그럴까. 또한 비구가 라한(羅漢)의 지위에 올랐을지라도 모든 번뇌가 다하기를 희구하지 않고 이 경전 가르침을 듣고서도 믿지 않기 때문이니라. 만일 멸도할 때 여래의 얼굴이 여러 성문 앞에 현현하지만, 위대한 성인이 멸도할 경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나니라. 그로 하여금 방등송경(方等頌經)을 수지해 설하게 하고 다른 부처님을 친견하여 지진등정각(至眞等正覺)에 이르

러 의심을 소진케 하리라. 연후에 저 사람은 믿게 되리니, 여래는 실로 일승(一乘)만을 말하지 이승이 따로 없나니라.

이어 세존께서 계승을 읊으셨다.

비구와 비구니

교만한 마음 품었고

여러 청신사, 청신녀

믿음없는 오천명

자신의 허물 돌보지 않고

계율을 지키지 않고

위태한 일 자주 저질러

어리석은 무리 떠나가는구나.

도리어 잡유(雜糲)하게 행하니

아무런 방편 펼 수 없네

모든 여래의 최승선(最勝禪)

이로 인연해 법을 얻어 들어

청정한 지혜에 공양올리고

법회 대중 업연히 자리하면서

모든 은혜로운 가르침 수용해
 샅된 소견 멀리하는구나.
 사리불아, 이 법문 들을지니
 부처님은 인증상(人中上)이니
 모든 법을 성스럽게 깨달아
 약간의 가르침 설하겠노라.
 뛰어난 방편 베풀어
 백천만억 증생의 마음에 맞게
 설법 펼치노니,
 죄와 복 증생마다 다르고
 그 숙세(宿世)인연에 따라
 각기 보응을 얻게 되나니
 이 증생들 마음이 제각각 이어서
 저마다 지은 것에 따라
 근심이 마음에 얽혀있노라.
 이런저런 인연 살펴보아
 백천만억 모든 품류(品類)
 허물이 이와 같을지니,

 위대한 성인 여래가

이 경전 설법 펼쳐서
 지극한 정성으로 말씀 전하노니
 조금도 헛된 말이 아니니라.
 시종일관 무수한 비유 쓰나니
 그 비유말씀 제대로 이해하여라.
 정각도명 (正覺道明) 즐겨 따르지 않아
 무수한 여래 주위에서
 행을 세워 닦지 않았기에
 어리석음과 생사의 굴레 속에서
 심히 고통을 받게 되었구나.
 이에 이런 부류를 위하여
 널반 설하겠노라.
 위대한 성인 나투셔서
 수승한 방편 행사하여
 증생을 권조(勸助)해 교화하여
 부처 지혜에 들게 하리라.
 예컨대 부처님의 도교(道教)
 세간에서 일어나 현시되리니
 내가 일찍이 없었던 법

이제 비로소 드러내리라.

어떤 연고로 어리석은 무리

도사(導師) 만나게 되어

자신의 근심 염리(厭離)하여

이에 분별을 일으키니

이런 까닭에 말씀 입어

부처님의 판결 얻으리니

여래의 법교(法敎)에 있어서

여러 신학자(新學者)는

비로소 평등법에 대한 연설을 듣게 되리라.

부처님은 성스런 지혜로

방편을 행사하여

알아 듣기 쉽게 하나니

증생을 위하고

개화(開化)시키기 위하여

이 뜻 현시하노라.

불도를 알고자 한다면

항상 청정하게 유지하고

성인의 경전 즐겨 익혀

삶의 요묘(要妙)로 삼고
 부처님 처소에서
 지은 것 이미 변별하므로
 이 부류들을 위해서
 방등경(方等經) 설하노니,
 뜻과 성품 화순(和順)해
 행은 구족하고 응맹하여
 성인의 가르침에 친근하기에
 저들을 위해 말하겠노라.
 덕은 지극히 널리 퍼져
 미래세에
 자비로 증생을 가없이 여기고
 모든 법을 얻어 들으며
 혼연히 찬탄하게 되니
 우리처럼 성불 함이
 또한 이와같으리라.
 이런 행에 인연을 맺어
 세세생생 단정한 자태로
 방등경을 닦아 익혀

무극(無極) 성인의 가르침
 듣게 된다면
 이들은 마침내 불제자 되리라.
 가령 여래의 한 계승이라도
 듣는다면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모두 정각 성취하리라.

부처의 도는 하나 뿐이고
 일찍이 들이 있지 않거늘
 하물며 세간에 있어서도
 인증상(人中上)을 제외하고
 어찌 셋이 있을 수 있으랴.
 여래는 방편을 써서
 수레[乘] 비유를 쓴 까닭에
 개화(開化)시키기 위해 설법하여
 여래의 깊은 지혜 얻게 하노니,
 뛰어나게 방편을 사용하는
 도사(導師)의 광명은
 오직 일승(一乘) 뿐이거늘

어찌 이승(二乘)이라든가
 다른 하열한 승(乘)이 있으리오.
 수승한 여래의 깨달음
 구하고자 한다면
 항상 이와 같이 응해야 하리라.
 지극한 존재의 소재
 감히 당할 수 없으리니
 일심으로 힘을 다하여
 해탈문에 수순하면서
 증생 경지 벗어나야 하리라.
 이 도교(道敎)에 있어서
 부처님이 가장 수승해
 조금도 허물이 없어
 어느 존재와도 같지 않아
 평등각(平等覺) 현현하노라.
 이와 같이 증생에게
 선법(善法) 현시하여
 세존은 이에 방편으로
 이승, 삼승 가르침 세워

거기서 편안하게 하고
 다시 권유해 여러 경계에
 머리 숙어 나아가게 하노니,
 이에 수행을 닦아
 모든 흉포(凶暴)한 법 단절하므로
 부처의 명호 받게 되리라.
 그러니 크게 마음을 일으켜
 이미 약간의 상호 현시하고
 권속에 들러싸인 채
 법의 광명 펼쳐 보여
 백천만억 무수한 중생 위해
 자연지인(自然之印) 법을
 강설하고자 하노라.

여래는 이와 같이
 이제 이 중생들에게
 수승한 용모 삼십이상 보여주어
 자재하여 걸림없이 하고
 군생의 사념 내가 살펴보니
 지난날 발원을 세웠기에

미묘한 일 구족하게 성취했으니
 알기 쉽게 강설 베풀어
 부처 지위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리불에게 말하나니
 지극정성 담긴 여래의 말씀으로
 어떻게 중생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설령 입을 열어 전하더라도
 알아 듣지 못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극정성 가득한 말씀을
 즉시 마음으로 뜻을 수용한다면
 지난날 불가사의한 행 닦았기에
 지금에야 비로소 본원을 얻어
 애욕을 단절하게 되리라.

큰 음우[大陰雨]가 걸히면
 중생들은 욕망에 앉아
 악취에 떨어지게 되어
 오염 더미 속에 안주한 채

흑명(黑冥) 소용돌이 속에서
 죄업만 갈수록 증장되나니,
 박덕한 범부 고뇌에 휩싸여
 샳된 소견의 그물에 빠지게 되리라.
 이와 다름없이
 의의(依倚)한 소견 구족해
 예순두 가지 견해에 머물면서
 자신의 소유에 깊게 집착하고
 자기 세력이 박소해지매
 두려움만 품은 채
 부처님 음성 듣지 못하고
 항상 타락만 거듭해
 세곳[三處=三界]을 떠나지 못하리니
 백천만억 생 동안이라도
 이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리라.
 이에 여래는 방편을 활용해
 탁연(卓然)히 그 난관에 나아가
 설새 없이 설법을 행하여
 그 근원을 단절시켜
 샳된 소견에 휩싸인 중생들

여래의 인도에 힘입어
 곧 널반에 이르게 되리니
 여래는 이런 까닭으로
 항상 멸도의 이치 이해하여
 모든 법으로 하여금
 적연(寂然)에 이르게 하노라.

또한 과거를 굽어보니
 여러 불자 미래세에
 최상의 깨달음 성취하리니
 이제 여래는 이와 같이
 훌륭한 방편 행사하여
 각각 휴식을 취하게 하고자
 삼승의 가르침 설하지만
 수레는 오직 하나 뿐이고
 또한 하나가 아님도 아니나니
 위대한 성인 세존
 이에 다시금 그 하나를 설하노라.
 모든 중생들 탐닉에 빠져

사려가 궤란(憤亂=심란)하여
 의심으로 머뭇머뭇 하지만
 여래의 말씀
 끝내 진리와 다름 없어
 지혜의 수레 하나일 뿐
 들이 있지 않노라.

지난날 세간의 영웅 도사(導師)
 백천만억 부처님이
 멸도에 들어 가셨으니
 지난 과거 무량수 겁 동안
 그 숫자 헤아릴 수 없어라.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최상
 경전 가르침 강설하여
 무수한 청정행 짓고
 보응의 이치 비유로 풀이하고
 수승한 방편 행사하여
 백천만억 증생 위해
 일승법 현시해
 도를 설함으로써

제도 못한 증생 구제하고자
 그를 위해 평등한 도와
 지체를 항시 설법하여
 백천억 증생 개화하였어라.

또한 굽어보니
 위대한 성인께서는
 세존의 법 강설 통하여
 본성의 청정한 도리
 곧 믿어 이해하는구나.
 천상이나 세간 또한 마찬가지니라.

경전 말씀 전해 들어
 가르침 입은 저 증생들
 안온함을 얻게 되자
 항상 포시(布施)를 실천하여
 계율 구족해 인내력 발휘하니라.

평등하게 수행을 닦아

일심으로 정진하고
 용맹스럽게
 선(善)을 실행하며
 이 경전의 가르침 받들어
 그 지혜 높이 존중하고
 혹 약간의 덕 건립하나니
 이들은 모두 불도 성취하리라.
 멸도에 들어가신 여래
 재세 당시의 일체중생
 인욕행과 선정을 닦아
 대안(大安) 경지에 이르러
 누구나 불도 성취했으니,
 여래의 사리에 공양올리게 했노라.
 수승한 성인 멸도에 들어가매
 건립된 불묘(佛廟) 백천억
 황금 · 백은(白銀) · 수정(水精) · 류리(琉璃)
 마노(馬瑙)로 탑사(塔寺) 건립하고
 차거(車渠)등 진이한 보배
 명월주(明月珠)로 잠시 손질해
 여래 형상을 받들기도 했으니

이런 것들로 인해 마땅히
 부처의 도 성취하리라.
 가령 돌로 불묘(佛廟)를 세워
 전단향이나 목밀향(木蜜香)으로
 탑사나 천존상(天尊像) 건립하고
 나무로 루(鑊)를 깎고
 불화를 채색해 장엄하여
 지극정성으로 받들었네

또한 수승한 묘사(廟寺) 건립해
 집에서 경전을 독송하고
 광야나 깊은 계곡에 처해
 수억 중생에게 사자후를
 십방세계 향해 현시했어라.
 여러 부처님의 묘사(廟寺)에
 안치된 사리 보고
 어린애가 춤을 춘다면
 이들은 응당 불도 성취하리라.

만일 여래 위해 보배로
수승한 삼십이상 갖춘 형상을 짓고
또한 경전을 뜻에 맞게 독송하면
부처의 도 이루리라.

그 안에 안주해 불상을 세우고
칠보로 장엄하여
사념의 길 깨달으면
그 광명 두루 비추어
온갖 행을 통해 깨뜨으리니
이들은 누구나 성불이루리라.

또한 동(銅)으로
벽옥(碧玉)을 새기고
위대한 세존을 위해
뛰어난 불상 건립하고
경전의 문자를 미묘한
소백(素帛)에 새긴다면
이런 증생 누구나 불도이루리.

퇴락한 사찰 보살펴

공덕지어 백복 갖추고
 출가법 배워 익혀
 불교경전 필하한다면
 이들은 누구라도 불도 성취하리.

설령 각기 기이한 행 지어도
 일체 오락 내버리고
 정사(正士) 동자(童子) 총명해
 뜻에 맞게 이해하여
 불법을 조롱하지 않고
 말이 허황되지 않아
 또한 모두 스스로 이루고
 대자 대비 행한다면
 누구나 불도 이루리라.

도를 이룬 천만억 군맹(群萌)
 신통삼매 나투는 무수한 보살
 이들이 사리를 안치하여
 탐사 건립해 여래 형상 채색하고

경전의 문자 벽에 쓰고
 뛰어난 꽃의 향음 공양올려
 탐과 불상에 훈습되게 하며
 음악을 통해 여래의 덕
 노래로 지송하고
 틱소에 맞춰 춤추게 하고
 절주(節奏=절도에 맞춤)해 찬미하게 하며
 또한 엄숙에 엄숙을 보태
 받들어 봉양하고
 거문고, 공후(箜篌) 연주하고
 뇨발(鐃鈸=바라)이 울리고
 쟁(箏), 피리를 불어
 미묘한 음 발하여
 모두 한마음이 되어
 온갖 번뇌 부림받지 않나니,
 이에 인연하는 누구나
 적연(寂然)해져 환희하게 되는구나.
 청소하여 탐사를 청정하게 하고
 유연(柔軟)한 물을 쓰고
 꿀과 장(漿)등의 음식을 베풀고

여러 향기로 장엄하고
 나무결에 맞게 악기도 만들어
 편안히 귀명한 채
 수승한 어르신께 공양올리는구나.
 약간의 재화 사리에 올리고
 여래 멸도하신 이후 엄숙 공양하고
 가령 잠시라도 부(拊=두드려)를 연주하면
 누구라도 불도 성취하리라.

여래 친견하기 위해
 화상(畫像)에 안주한 채
 꽃 한 송이 손에 들고서 진상올려
 공경한 마음으로 바치고
 두터운 믿음으로 아무 의심없어
 점차 무수한 여래 친견하고
 어떤 중생 불묘(佛廟)에서 합장[叉手]한 채
 한 순간이라도 구족하게
 요선(繞旋)해 스스로 귀일하여
 위대한 성인께 례배(禮拜) 올리고

머리속여 찬탄하나니
 그 행이 이와 같아
 몸에 아무런 번뇌의 때 없고,
 점점 무수한 여래 친견해
 도사 주위에서 가르침 입고
 가령 어느 누가
 사리에 공양 올리고
 입으로 남모불존(南摸佛尊) 지송하고
 마음이 어지러운 자가
 이 말을 엄해 반복하면
 이들은 누구나 불도이루리라.

멸도 인연을 당해
 독화(毒火)가 다한다면
 이들은 모두 불도에 이르게 되리.
 법회 대중 가운데
 믿음을 굳게 세운 사람
 그때 안주하여
 이 증생들 구제하리.
 가령 어떤 사람이

이 법의 이름 듣는다면
이들은 누구라도 불도 이루리라.

만일 내세에
무수히 많은 부처님
불가사의하게 한량없이
이처럼 지극히 뛰어난
세간의 영웅 도사
마땅히 강설을 베풀어
방편으로 지혜를 가르치노라.
대인(大人)은 방편을 행사해
미래에 성불 이루리라.
세간 이끄는 성스런 영웅
무수억 중생 개화시켜
선정과 지혜에 의해
온갖 번뇌 소멸하고
이 법 얻어 들으며
중생 가운데 어느 누가
깨달을 수 없으랴.

위대한 성인의 가르침
 본원이 이러하노니
 불도를 행할 때에
 최후 구경의 천만억 무량법문
 수승한 강설 통한 가르침
 여래께서 항상 선포하리라.
 그러니 세존의 올바른 가르침
 얻어 보고 들을지니라.

모든 법 본래 청정해
 항상 저절로 행해지노니
 이와 같은 뜻으로
 여래는 가르침 펴노라.

량족존(兩足尊)은 이처럼
 도를 분별하는 까닭에
 이 일승의 도 높이 펼쳐
 제법에 담긴 뜻 마음깊이
 품고 계율을 지키면서
 항상 세간에 처하여

이 도리 계송으로 찬탄하고
 매양 똑같이 독송하며
 방편을 뛰어난게 써서
 여러 최승존(最乘尊)
 그 뜻이 홍대(弘大)하니
 공양 받아 하늘과 사람 귀의하는구나.

강변 모래알 처럼 무수한
 현존 부처님은 지금
 일체 증생 안온하게 하니,
 정각(正覺)은 또한 존귀한 도 설해
 뛰어난 방편을 활용해 연설하셨노라.

약간의 가르침으로
 증생을 개화시킴으로써
 일승의 도 입모아 찬탄케 했구나.
 적연한 경지 들이 없나니
 증생의 본제지행(本際之行)알려면
 과거로부터 뜻이 지향하는 바
 정진이나 본원(本原) 관찰하여야 하리라.

해탈하지 못한 증생 위해
 분별해 설하노니
 대중 인도하는 도사의 힘으로
 인연, 비유법 써서 나타내 보이셨노라.
 증생이 갖가지 즐기는 바 살피
 약간의 말씀으로 개화하노니,

이처럼 여래는 인중왕(人中王)으로
 증생의 마음을 발하게 하여
 이익과 뜻에 안온케 하며
 백천억 증생위해 갖가지 음성으로
 불도 나타내 보이셨노라.

여러 증생이 다양하게
 마음으로 즐기는 바 살피보고서
 약간의 색상(色像)으로 환희케 하고
 그 지혜에 반연 맺게 하고
 도력으로 가르치노라.

여래는 법왕으로써
 어리석은 무리 굽어보건대
 지혜와 복덕에서 떨어져

생사 소굴에 추락해서
 험준한 계곡에 빠진 채
 벗어나지를 못하누나
 내세에도 위험에 휩싸여
 애육에 속박당하고
 번뇌의 티끌 류사(流沙)처럼 치달리니,

오늘 자재하신 성인
 위신력 크게 갖추어
 깨달아 아무것도 구함없노라.
 제법에 일찍이 없었던
 온갖 환난 몰려드매
 증생의 부류들은
 말없이 여섯가지 구덩이에 갇혀 있어
 샷된 소견만 굳게 지킬 뿐
 빠져 나올 줄 모르더라.
 고뇌 속에 갇히어
 험준한 곳에 처했기에
 여래는 크게 슬퍼했네.

어리석은 무리 가없이 여겨
 안온함 구하도록 이끌고자
 도장(道場)에 처하여 7일 구족히
 풀더미 깔고 앉아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뜻에 맞게 사유하여
 다스리고자 했나니,
 저 당시 교만한 무리
 눈도 한번 깜빡거림 없이
 나무 아래서 관찰하였다네.

여래는 또한 이 나무 아래서
 경행하였나니 그 수승한 지혜
 일찍이 있지 않았건만
 증생들은 윤회에 빠져
 커다란 무명 가운데 있구나.
 때에 범천왕이
 여래의 뜻 알아차렸고
 세상을 보살피는 무수한

제석천 사천왕, 대신묘천(大神妙天)
 선천자(善天子) 모두 알아차려
 합장한 채 공손하게 대기했노라.
 그때 여래는 생각했나니
 어떻게 내가 여래의 도덕
 찬탄한다면 증생이
 받아들이기는커녕
 어리석은 그들은 비장하여
 이 법을 훼손할 뿐
 법지(法地)로 나아가지 않으리라.
 만일 묘법(妙法) 설하지 않으면
 증생은 다른 일만 즐길 뿐이니
 무엇에 바탕하여 해탈할 수 있으랴.

지난날 여러 부처님께서
 행한 바 살펴 보건대
 저 때 성인들께서는
 수승한 방편 행하셨으니
 이제 나도 차라리

이 부처의 도를 나누어
삼승으로 개화(開化)하리라고 생각했느니라.

또한 십방 세계의
위대한 성인 여러 불세존
모두 제각기 스스로 현시하셔서
음성으로 찬탄하셨어라.
우리들은 크게 환희하여
능인(能仁)이시여, 흔쾌하나이다.

세상의 영웅 도사
이 정법을 위하여
당연히 사유하여
뛰어나게 방편 쓰게 되었나니
위대한 성인의 여러 경전
또한 익혀 세상을 구하고
우리들은 부처가 되어
과거불의 자취 밝을 때
삼승으로 나누어 개화함에도
하열한 무리 받아들이지 않은 채
나열한 생각에만 머물고

여래의 출현 믿지 않는구나.
 우리는 여전히 이들을 위해
 자비 일으켜 구제하기 위해
 뛰어난 방편으로 시현하여
 그 얻은 과보 찬탄하겠노라.

또한 다시 무수한 보살
 권조(勸助)하기 위하여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저런 찬탄 듣고
 여러 성인의 음성 알아들어
 홍묘지사(弘妙之士) 마음이 흥열(欣悅)했네.
 지금 위대한 신통력으로
 명색(名色)을 분별하니
 예컨대 이 때에 우리들은
 도사들의 말씀하신 바 대로
 마땅히 그 행 존중하여
 우리 비구들은 그 때
 또한 이 법 수지한 채

증생 무리 속에
 태어나게 되었어라.
 사리불에게 고하노니
 나는 저 소리를 듣고
 파라나(婆羅奈)에 가서
 곧 여러 비구들 모여들어
 신자(身子)가 여래의 방편
 가르침 알고자 하기에
 위대한 성인이 그에 응해
 법륜을 굴러 선창(宣暢)하매
 멸도의 적연(寂然)함, 라한(羅漢) 법의 소리에
 크게 찬탄하는구나.
 이에 노래 읊어서
 성증(聖衆)의 덕 기리고
 그 사이 수승한 저 경전 설하니
 모두 운집해 세존에 귀의하기 위해
 공손히 두 손 모은 채
 엄숙한 자세로 머물렀기에
 뛰어난 방편 약간 활용하였노라.

그때 세존께서
다시금 사유하였으니
법을 받들어 설법할 때가
바로 지금이리라.
나는 이런 까닭으로
세간에서 가장 어렵기는 해도
불도 받들어 강설하겠노라.
뜻이 어리석은 무리
망상만 일으키기에
설령 내가 설법해도
믿을 적 드물고
교만심만 크게 품어
순순히 수용하지 않는구나.
이와 같은 가르침
보살은 이에 청법하니
여래는 크게 흔쾌하노라.
용맹스럽게 정진 거듭하여
모든 결박 소멸시키는구나.
오늘에야 마땅히

수승한 자유 설하겠나니
 권조(勸助) 입어 불도에 들어가
 여러 불자 이 법 보게 되어
 이로 인하여 믿음 얻고
 법의 가르침에 순행(順行)하는구나.
 그때 천이백명
 모든 번뇌가 다하여
 세간에서 불도 이루고
 또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대한 부처님
 미래에도 역시
 수승한 법 전하리니,
 나 또한 이와 같이
 증생의 온갖 망상 소멸시킨 연후에
 천상의 존귀한 법 강설하리라.
 구구시시(久久時時)
 세간에 대선혜사(大仙慧士)
 부처님 제셨으니
 성인의 도 흥발(興發)시켜
 무극(無極) 이치 명백히 밝혀

이미 세간에 현출케 하셨고
희유한 법 선택하셔서
그 때 이 진리 강설하셨어라.
백천억 무량겁수에야
비로소 이와 같은 법
겨우 만날 수 있으리니
가령 어느 보살로 하여금
이 경전 가르침 얻게 하여
그가 얻어 듣게 된다면
불도 받들게 되리라.
예컨대 영묘한 꽃은
때로는 볼 수 있지만
가장 뛰어난 용모지닌 존재
보고자 해도 능히 볼 수 없으니,
천상이나 세간에 있어서
비할 수 없이 존귀한 성인
지금 바로 이 세존
가히 진귀하다 하리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경전 설법 듣고서
 일반(一反)이라도 소리 내어
 크게 환희심 일으켜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그 산란한 마음 제거하여
 의심 품지 않으리라.
 여래는 법왕으로써
 널리 칙령을 선포하노니
 나의 법 가운데
 모든 성문 곧 권조(勸助)하여
 부처의 도 존중한다면
 지금 여기 법회에 현조하고 있는
 사리불과 여러 성문
 또한 모두 말없이 듣고 있으니
 여러 보살
 생각, 용기, 지혜 갖춰
 이 법 마음 속에 수지한 채
 망녕되게 드러내지 않는구나.
 이런 까닭으로 다섯가지 일[五事]

세간 중생에게 말할 수 있으리.

혹 어떤 중생 독을 품고

남의 단점을 추구하여

탐욕과 어리석음에 빠져

비방을 즐겨 일삼으니

이와 같은 부류들은

지극한 도 승상하지 않는구나.

미래세에 어떤 사람

이 법을 얻어 듣고서

여래의 일승 가르침 관찰해

설령 가장 수승한 존재

또한 친견하고자 할지라도

이 경전을 비방한다면

곧 지옥에 떨어지게 되리라.

가령 어느 누가

청정하게 참회하여

발심해 뜻을 세워

미래에 불도를 받들어

대각승(大覺乘) 무량한 덕
 부처님의 성명(聖明) 듣고자 하면
 여러 존귀한 존재와 도사
 눈 앞에 현시하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이 법을 강설하여
 방편을 자재하게 활용해서
 백천억 가지로 분별해
 또다시 망상 없게 하리니
 이치를 배우지 못한 무리
 제대로 알 수 없으리라.
 이런 까닭으로 말미암아
 바로 진언(眞言)을 펴기 위해
 정각(正覺)께서 출세해
 명철(明哲)한 도리 닦게 하여
 온갖 의심 끊게 하고
 머뭇거림 없게 함으로써
 불도에 응맹히 뜻을 두게 하리라.

정법화경(正法華經) 권 제2

3. 응시품(應時品)

그 때 현자 사리불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떨듯이 크게 기뻐하여 곧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아뢰었다.

“지금 위대하신 성인의 이와 같은 법요(法要)의 가르침들 듣고 마음으로 크게 환희하여 미증유를 얻게 되었나이다. 왜냐하면 항상 부처님을 따라 다녀 설법을 통해 여러 보살승을 이끄는 것을 보았으며 나머지 개사(開士)들은 부처님의 음성을 받들어 덕이 지진각(至眞覺)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고서 매우 감동하여 조금도 망설임이 없게 되었나이다. 그런데도 마음은 더욱 서글퍼졌사오니, 세존께서 나타내 보이신 가르침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나이다. 저는 이와 같이 오래도록 여래의 지혜를 잊었사옵습니다. 가령 깊은 산속 바위라든가, 광야(曠野) 나무 밑에 가서 한가하게 머물든지, 또는 연실에서 삼가 스스로를 지킨다 하더라도 일신(一身)의 경행(經行)에 있어서는 서글픔만 더할 따름이옵기에 법호(法號) 등에 들어가고자 깊이 생각하게 되었사옵습니다. 세존께서 저희를 위해 가르침을 베풀었건만 소승에만 뜻을 두었

을 뿐이니, 이는 저희들의 허물이지 여래의 허물은 아니옵니다.

강법을 통해 위대하신 성인의 마음을 전하셨으니 개사(開士)는 탄복하게 되어 받들게 되었으며 제일 여래의 훈전(訓典)을 얻게 되어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에 이르게 되었사옵니다. 이에 저희들은 수순하여 의복을 입고 번다하지 않게 원을 세우게 되었나이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비루한 저희들은 당시에 자책하여 밤낮으로 생각하였사옵니다. 비록 법으로부터 태어났어도 자재하지 못하였고 성인의 은혜를 두루 입었건만 악취(惡趣)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지금에야 비로소 법을 듣게 되었사옵니다.”

이어 사리불은 게송으로 찬탄하였다.

불승(佛乘) 법문

한 구절의 뜻 듣고

본래의 욕심에서 벗어났으니

그 미증유 놀랍습니다.

얻은 것은

마음 * 입 * 말이 아니고

직접 위대하신 존재 친견하여

마음속에 환희심만 가득합니다.
 가령 어느 누가 행을 닦아
 지난날 가르침 듣고 편안하고
 기아(奇雅)하게 여기웁고
 갖가지 번뇌의 티끌 다하게 하며
 음성에 대한 믿음
 또한 길이 제거하옵나니,
 저는 온종일 경행하거나
 또는 나무 밑에서
 일심으로 단좌(端坐)하거나
 가령 산림 숲속 바위 위에서
 뜻에 맞게 수행 닦고자
 마음으로 생각하였나이다.

오호라, 스스로
 샅된 생각 자책하고
 평등법에 인연맺어
 무루(無漏)를 얻사오니
 삼계에 말미암음 없이

법에 수순해 따르옵고
 지난일 뉘우침으로써
 앞으로는 삼가 조심하겠나이다.
 자금색 용모 삼십이상에
 저는 크게 어긋나게 되어
 스스로의 위엄마저 못지키고
 수승한 팔십상호 구족했건만
 갖가지 허물 쌓였기에
 영락(瓔珞), 근력(根力), 탈문(脫門)
 팔부의음[八部之音] 장엄못하고
 평등법에 있어서
 스스로 깎아먹어 위태로웠나이다.
 온갖 불법(佛法) 십팔사(十八事)
 이에 담긴 뜻
 저는 이미 잃었사오니
 그 말씀 십방에 두루하옵기에
 저는 얻어 들었나이다.
 세속 증생 연민하옵기에
 홀로 밤낮으로 경행해
 또한 자책하고 생각했사오니

저는 매일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깊이 숙고해 변화하여 아취를 가까이 하고
 저 자신 헤아려
 세존께 이와 같은 뜻 묻사오니
 비루한 저는 어째서 잃었으며
 어떻게 해야 다시 얻을 수 있사오니까.
 성명(聖明)스런 세존의 목전에서
 지난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시도 쉬지 못하였나이다.
 나머지 다른 보살들도
 헤아리지 못하나이다.
 세상의 어른신 세존께서
 교화를 베푸셔서
 저들이 모두 여래의
 음성법문 얻어 듣고
 온갖 중생 위하여
 법력을 널리 베푸시어
 그 가르침 무상(無想)하기에
 모든 번뇌 다하게 하여

두루 밝게 드러나

미묘한 지혜에 이르게 되나이다.

갖사지 사사(祠祀), 외도(外道)

이교(異敎), 모든 샷되고 거짓된 슬법[諸邪僞術]

두루 살펴보니

이런 까닭으로

여래의 가르침 이해하게 되고

탈문(脫門) 보게되어

멸도를 비롯한 가르침과

갖가지 소견과 행 이해하게 되니

이윽고 공무의 법 열리게 되었나이다.

이로 인해 스스로

이미 멸도 얻었다 자위했사옵니다.

하지만 금일에야 비로소

널반아닌 줄 알겠사오니

여러 부처님 친견하옵고

천중지천(天中之天) 인증상(人中上)

법회 주위를 둘러싼 채

삼십이상 광명이 외외(巍巍)해

이로 인해 깨달아
 무여(無餘)의 멸도에 이르렀나이다.

마침 저는 청법해 듣고
 갖은 번뇌 제거하였고
 소리에서 벗어나게 되어
 무위를 얻었사옵니다.
 제가 아는 바와 같이
 정각(正覺) 사자(師子)
 여러 하늘, 세간 사람이 받드오니
 그 법력과 위세로
 항시 이와 같이 머무시옵나이다.

처음 성인의 가르침 듣자옵고
 마왕 파순(波旬)이 변화해서
 부처님으로 변한 줄 여겼으나
 마왕의 희롱은 아니었사오니,
 인연의 행에 따라
 무앙수억 비유설법으로 이끄시고

피안세계 건립하여
 도의 바다 이르게 하고
 저 법 얻어 들어
 온갖 의심 제거하사오니
 백천 부처님 모두 친견했고
 이 부처님들 멸도에 드셨으니
 말씀으로 경전 가르침 펴시고
 뛰어나게 방편법 행하시니
 이에 수순해 따랐나이다.

가령 어느 누가
 구경행(究竟行) 현시하매
 미래의 백천억 부처님
 뛰어난 방편 펴시어
 이들을 이끌어 인도하시고
 설법하여 널반을 이끄시네.
 그 체상(體像)을 좇아
 지혜의 행으로 교화해 밝히셨으니
 여러 불법의 가르침 차례대로
 펼쳐 성인의 뜻이어

경전 말씀 받아 글리누나.

세간의 영웅 도사께옵서

진리의 가르침 현시하시니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 부처님 법에 의거했사오나

저 마구니 무리들은

감당하지 못하기에

마음으로 맛보지도 못한 채

삿된 의심만 키울 뿐이니,

이에 널리 부드럽고

지극히 미묘한 도(道) 일으켜

부처님의 음성으로

크게 환희케 하옵나니

머뭇거리는 뜻

물러나려는 생각 저버리게 하여

성인의 지혜에 머무르게 하사

우리도 여래가 되어

아무런 번뇌의 속박 없이

여러 하늘 세간 사람
 권속으로 삼고자 하오니
 금일에 부처님의 도안(道眼)
 얻어 여러 증생들을
 권조하여 교화하겠나이다.

이에 부처님께서 현자 사리불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내 이제 천상이나 세간의 사문, 범지(梵志), 여러 하늘의 대중이나 아수륜(阿須倫)에게 고하겠노라. 사리불은 일찍이 삼십이천억 부처님께 공양올려 그 교화를 입음으로써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를 성취하였느니라. 나도 장야(長夜)에 또한 사리불을 보살도로 교화한 일이 있느니라. 이런 인연으로 인해 내 법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노라. 여래의 위신력으로 건립했기에 또한 본원은 보살도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멸도하지 못했건만 스스로 멸도를 자처하는구나.

사리불아, 그대는 본행(本行)에 무양수 부처님을 친견하고자 했으니 마땅히 이 정법화경을 받아들여 일체 부처님의 보호를 받으라. 널리 성문을 위해 분별하여 법을 설하겠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그대는 내세 무량한 불가사의 겁에 백천억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 정법의 가르침을 받아 이 방등경(方等經)을 높이 받들어 수행하고 온갖 행 구족하여 불도를 성취하리니, 그 명호는 련화광(蓮華光)여래 * 지진등정각(至眞等正覺) * 명행성(明行成) * 선서(善逝) * 세간해(世間解) * 무상사(無上士) * 도법어(道法御) * 천인사(天人師)이시고, 그 세계 이름은 이구(離垢)리니 평등하고 쾌락하고 위요외외(威耀巍巍)하리라. 제행이 청정해 안온하고 미곡이 풍부하고 천민이 증가하리니 남녀가 많고 일체가 구족해 갖춰 있으며 황금류리(琉璃)로 깬 밧줄 만들어 로변(路邊) 옆에 길게 이어져 있으며 칠보로 된 나무가 여덟겹으로 교차되어 심어져 있으며 가로수 나무의 잎, 꽃 열매는 항상 무성하리라. 련화광 정각 또한 이어받아 삼승법 설하니 그 부처님 설법 구족하게 일겁이나 계속되고 경전 가르침 펼쳐 특별한 원 제시하리라. 집의 명칭은 대보엄(大寶嚴)이니 대보엄이라 일컫는 것은 저 불국토에 보살 대중이 있는데 보살 숫자가 무양수여서 불가사의해 한량을 알 수 없으니 오지 여래만이 알리라.

보살 대사는 그 불국토에서 련화광 여래같이 깨달아 보배로운 행을 닦고 잡되게 섞여 익히지 않는 대신 오래도록 덕의 근본 심고 청정하게 범행을 행함에 구애됨이 없이 닦고 여래와 친근히 하여 항상 부처의 지혜에 감응하고 신통력을 갖추어 법요(法要)

에 뜻을 두고 용맹하여 보살들은 이와 같이 조금도 흠결없이 구족했느니라. 그래서 겁의 명칭이 대보엄이었느니라.

련화광불의 수명은 십이 증겁(中劫)이니 동자는 계산할 수 없고 그 극토 대증의 수명은 팔겁이니라. 련화광여래께서 십이겁을 지낸 뒤에 견만(堅滿)보살이 있어 마땅히 수기를 내리면서 여러 비구에게 고할 것이니라.

‘이 견만 대사는 내가 멸도한 뒤 미래에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를 얻으리니 명호는 도련화계여래정각(度蓮華界如來正覺)이리라.’

련화광 여래께서 멸도하신 뒤 정법과 상법은 이십 증겁 동안 유지되고 그 불세계는 이전의 불국토와 평등해 차별이 없으리라. 도련화계여래 역시 수명이 이십이 증겁이니 그 겁이 지나면 멸도하리라. 저 여래 멸도하신 이후 정법과 상법은 이십이 증겁 동안 유지되리라.”

이어 세존께서 게송을 읊으셨다.

그대 사리불아

미래세에 성불하여

여래 세존이 되리니

그 명호는 련화광불

평등한 안목으로
 천억 중생 가르치고
 무수한 여래를 받들어 섬기니
 저 수행의 힘에 따라

많이 흥립(興立)되고
 권화(勸化)입어 십력(十力)얻으매
 위로 부처의 도 받드니
 불가사의한 무양수 겁
 겁의 명칭 이구(離垢)리니,
 그 려화광 여래
 국토 청정하여
 땅은 감색 류리빛
 자금색 금빛줄로 이어서
 도로변 장식되어있고
 칠보로 된 나무들
 꽃과 열매 모두 황금빛
 저 보살들 뜻이 굳어
 짓는 언행 밝고 총명하기에

부처의 도 잘 익히는구나.
 백천억 무리 모두 찾아오니
 수승한 가르침 현시되어
 저 부처님 최후 맞으며
 음개(陰蓋)있지 않으니,
 동자일때
 즐겨 구하는 바 없고
 애욕으로부터 멀리 떠나
 곧 출가하여
 성취하게 되리니,
 위로 불도 받들어
 이 가장 수승한 존재
 자유자재함을 얻어
 그 수명 십이중겁
 법의 가르침 글게 세워져
 저 수명이 한량없어
 팔겁이 다하기 까지
 겁수(劫數) 이와 같노라.

위대한 성인 부처님

멸도하신 이후에
 구족하게 이십중첩 동안
 법이 유지해 지속되고
 약간의 수 천상이나
 세간의 증생 가없이 여겨
 부처님의 정법 소멸된 뒤
 상법 유지 기간 이십중첩
 저 위대하신 성명(聖明)
 사리가 널리 류포(流布)되어
 남신(男神) 여귀(女鬼)
 최고로 수승한 존재께 공양바치고
 세존의 덕 또한 이와 같노라.

사리불에게 고하노라
 스스로를 제도해야 마땅하노니,
 인자(仁者)의 국토
 장엄됨 이와같으리니
 량족존(兩足尊)
 자연히 비길 데 없으리라.

그때 사부대중, 비구 * 비구니 * 청신사 * 청신녀 * 하늘 * 룡 * 귀신 * 건담화 * 아수륜 * 가류라 * 진타라 * 마휴룩등은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수기를 내려 미래에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를 성취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크게 흥연하여 떨듯이 기뻐 스스로를 이기지 못해 제각기 옷을 벗어 부처님 위를 덮었다.

이때 천제석(天帝釋)과 범인적천(梵忍跡天), 그리고 무수히 많은 천자들이 각기 옷을 취해 세존께 공양으로 바쳤고 천화(天華), 향의화(香意華), 대의화(大意華)를 부처님 위에 뿌렸다. 여러 하늘의 옷들이 허공에서 춤추듯 머물러 있었고 천상의 풍악이 저절로 울러 퍼졌으니 천상의 대성(大聲) 자연히 우뢰처럼 울렸고 하늘 꽃이 비오듯 내렸다. 이에 모두 입을 모아 찬탄하였다.

“지금 듣는 법은 일찍이 없었던 것으로 예전에 파라나(婆羅奈)의 녹원(鹿苑)에서 처음 법륜을 굴리실 때에도 일찍이 말씀하신 일이 없으셨다.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금 위없는 법륜을 강설하시느니라.”

이어 천자들은 계승을 읊어 찬탄했다.

세간에 전줄 게 없사오니

지금 법륜 굴리시어
 남녀 위해 강설하여
 음쇠(陰衰) 소종기(所從起)이니,
 저 제일의 뜻 설하고자
 십이인연 굴리시는구나.
 지금 도사께서 펴시는 말씀
 믿어 받드는 자 적으니
 세간의 영웅 위대하신 성인으로부터
 무수한 설법 전해 들어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경전 취하지 않으셨네.
 위대하신 도사의 설법
 우리는 지금 권조(勸助)입었으니
 용맹한 사리불
 이에 수기를 얻게 되매
 본래 발한 뜻 찬탄하고
 무수한 여래께 공양올렸사오니
 저희들은 가르침을 입어
 세간의 가장 존귀한 여래 친견해

약간의 청정한 행 이미 짓고

지난날의 부처님 받들어

부처의 도 얻고자 하나이다.

이어 사리불이 부처님께 말씀을 올렸다.

“저는 이제 조금도 의혹이 남지 않았기에 현재의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아 무상정진도를 미래에 얻게 되었나이다.”

계속해서 사리불은 말씀을 드렸다.

“마음이 자재한 여기의 천이백인은 예전에 배운 일이 있지 않사옵니까. 미래에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여러 비구들은 행문(行門)에서 단숨에 멈추고 법률(法律)을 받들어 로병사(老病死)에서 벗어나 니원(泥洹=넬반)에 대해 감탄하게 되었나이다.

여기있는 무앙수 비구들은 부처님께 공양올려 배울 바를 배웠으며 저희들은 삼세 윤회를 두려워하여 온갖 샷된 소견을 휘떨시켜 행은 멸도에 이르게 되었사오니 이런 생각을 품어 도장(道場)에 이르게 되어 일찍이 이와 같은 상법(像法)을 들은 일이 없사옵기에 마음으로 세존을 크게 찬탄하옵고 법요(法要)에 대한 설법을 원하게 되었나이다. 여기 비구들로 하여금 의심 그물을 모두 제거하도록 하소서. 여기 사부대중은 모두 뜻과 같이 되지 않기에

이들로 하여금 의심의 매듭을 근원적으로 남김없이 해소하게 하옵소서.”

이에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지난날 내가 이법을 말하지 않았는가. 약간의 뛰어난 방편을 발휘해 그 인연에 따라 시현한 바 있으니, 여래의 지진등정각(至眞等正覺)을 분별해 펼쳤는데 모두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를 위함이니라. 여래가 탄식한 바는 마땅히 알 것이니 모두 보살을 위한 것이니라.

또한 사리불아, 지금 나는 비유를 통해 이 뜻을 거듭 풀이하고자 하노니 밝은 지혜가 있다면 이 비유를 이해하리라.

어느 마을에 부유한 장자(長子)가 살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 앓고 일어서기가 힘들었지만, 크게 부유해 재물이 한량없었느니라. 그에게 대저택이 있었으니 저택주위가 넓었고 담장은 높고 길었느니라. 저택은 오래 되었기에 수백천명이 살았건만 문과 감수자(監守者)는 하나 뿐이었다. 당옥(堂屋)은 기울고 대들보와 기둥은 썩었고 수많은 창문에는 풀만 돋아나 있었느니라. 그때 큰 불이 한쪽으로부터 일어나 저택 곳곳을 태우고 있었다.

장자에게 아이들이 십, 이십명이 있었는데 불난 집에서 빠져 나와야 하건만 어린애들은 먹고 노는데 정신팔려 놀다가 마침내 불

길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제각기 빠져나오려 했지만 출입구를 알지 못했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는 다음같이 생각했다.

‘이제 불이 일어나 저택이 치열하게 타는구나. 어떤 방편으로 아이들은 구할 수 있을까.’ 그때 아버지는 아이들이 각각 즐기는 바를 알기에 코끼리, 말이 끄는 수레와 놀이기구를 문앞에 진열하고 절묘한 음악을 울림으로써 서로 웃고 즐기는 가운데 재난으로부터 면하게 하고 코끼리, 말, 양, 하인[기(伎)]이 끄는 수레를 나누어 주리라 하고 이런 장난감을 지지고서 문밖에 머물러 아이들을 속히 저택에서 빠져 나오게 하여 화재로부터 면하게 하여 각자의 즐기는 바에 따라 즐기게 하였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코끼리, 말이 끄는 수레 또는 음악 등을 준다는 말씀을 듣고 모두 제각각 함께 달려 흙더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느니라.

장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벗어나 여기저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떨듯이 기뻐해 두려움이 없어졌는데 각각 다음같이 말했느니라.

“원컨대 아버님께서 저희들에게 앞서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오락기구, 코끼리나 말이 끄는 수레를 내려 주십시오.”

또한 사리불아, 저 장자가 첩보로 장엄도니 수레를 아이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으니 구슬로 장엄된 수레는 매우 높고 넓었으며 여러 진귀한 것으로 장식되었는데 청정한 향과 꽃, 영락으로 꾸며졌고 명주로 된 요 * 담요 * 면류관 덮개가 펼쳐있고 전광(電光)처럼 선백색(鮮白色) 옷으로 입혀져 있고 머리의 관과 신은 희유한 것이 입혀져 있으며 약간의 동자가 끌고 있으니 한가지 색으로 똑같이 되어있는 수레들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느니라.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들은 모두 장자의 자녀이니 평등하게 사랑하고 그 뜻에 아무런 편당이 없는 까닭에 평등한 대승의 수레 [평등대승(平等大乘)]를 주는 것이니라.

또한 사리불아, 여래 역시 중생의 아버지로 창고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 실물을 가득 채우고 있나니 이와 같은 색상(色像)으로 인도해 교화하여 대승(大乘)의 진리를 얻게 하노라. 아이들은 이 대승을 얻어 미증유의 기이한 재화를 얻어 수레를 타고 즐기게 되었느니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자가 진귀한 보배 수레를 아이에게 준 일이 허망하지 않느냐?”

이에 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아니옵니다. 수레를 타고 안주하나이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장자의 정성이 지극하옵니다. 왜냐하면 저 장자는 아

이들을 구해 이 불의 재난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고자 했으니 아이들이 불난 집에서 빠져나오자 대승(大乘)의 수레를 나누어 주었나이다. 이런 까닭에 장자가 한 일은 허망하지 않고 마침내 아이들을 자기 뜻에 따라 즐기게 하기 위해 방편을 활용해 재난을 면하게 하였나이다. 하물며 또한 무량한 보물을 저축해 한가지 색으로 평등하게 대승의 수레를 선사했사오니 허망하다고 할 수 없나이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기특하구나, 사리불아, 실로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여래는 지진등정각(至眞等正覺)으로 십방세계를 초월해 온갖 어둠을 광명으로 비추고 근심과 걱정에서 해탈되어 근본 싹을 뿌리뽑나니라. 그 가지, 잎, 꽃, 열매를 여래는 지혜로 비추어 보나니 법왕은 이런 위신력으로 인해 세간 증생의 아버지가 되나니, 수승한 방편력을 발휘해 불가사의한 힘을 총섭하고 대자비의 도를 행하여 마음에 다함이 없느니라. 삼계가 치열한 불구덩이 속에 있건만 증생들이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에, 이를 가련하게 여겨 세간에 모을 나투어 증생의 생로병사(生老病死)와 헤아리기 어려운 여러 번뇌의 결박을 소멸시키고 그들이 집착한 음욕, 성냄, 어리석음을 무너뜨림으로써 삼승(三乘)으로 유도해 점차적으로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를 제시하느니라.

이에 세간에 몸을 나투어 대중을 살펴 보니 망상, 재업(財業)에 애착함이 그지없기에 이런 정욕으로 인해 무수한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느니라. 현재의 탐욕에 따라 구하기에 급급하므로 뒤에 구제받을 수 없어 곧 지옥, 아귀, 축생으로 떨어지게 되며, 포(脯)처럼 번뇌로 인해 태워지고 굶주림과 기갈은 갈수록 더 해가니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느니라. 예컨대 인간세상에 태어날지라도, 애착으로부터 벗어날 줄 모르고 걱정이나 고뇌가 한량 없어 일시에 헤어나지도 못하느니라. 노래나 춤, 웃는 일에 빠져 두려워 할 줄 몰라 난관을 잊지도 자각하지도 못하느니라. 고통의 원인을 생각해 그 본말을 헤아리지도 못하기에 구제되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번뇌의 더미 속에서 불탈 뿐이니라.

삼계 중생이 설새없이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있기에 여래는 마땅히 무극(無極)의 지극한 편안함을 제시하고자 하노라. 불가사의하게 무수한 부처님의 바른 지혜[정혜(正慧)]로 방일함에 빠져 미혹 속에서 욕망에 떨어져 있는 중생에게 여래는 도, 지혜, 신족(神足)을 수립하고 수승한 방편으로 부처의 지혜를 화현(化現)시킴으로써 아무 두려움 없는 여래의 힘을 알게 하노라. 중생은 이를 깨닫고 어려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중생은 인연에 속박되어 생로병사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삼계의 불바다

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하기에 귀의처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느니라.
부처의 지혜란 무엇을 뜻하는가.

비유컨대 장자가 힘세고 용맹한 인물 여러명을 동원해 아이들을 구해 불길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했으니 방편을 활용해 유도하여 집 밖으로 벗어나게 한 연후에 진기한 보배 수레를 나누어 주었느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사리불아, 여래의 정각(正覺)은 두려움 없는 힘으로 온갖 덕을 건립하고 뛰어난 방편으로 용맹스럽게 지혜를 닦았으니 치열하게 불타오르는 삼계의 불바다를 바라 보고서 증생의 곤란을 구제하고자 마음을 내었느니라. 따라서 성문 * 연각 * 보살의 도를 현시하게 되었으니 이 삼승의 가르침을 개화하여 애욕의 속박을 소멸시키게 되었느니라. 색(色) * 성(聲) * 향(香) * 미(味) * 촉(세골細滑)의 법, 삼처(三處), 오욕(五欲)에 빠진 증생은 삼계에 의지하지 말고 삼승의 가르침을 얻어 삼승법을 설새없이 닦아 삼계를 벗어나야 하나니 삼승에 나아가는 것이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대중이 무양수하게 운집하였으니 세존은 희행(戲行)을 나투어 증생이 즐기게 하였나니라. 이 근력을 닦아 선정, 탈문(脫門), 삼매정수(三昧正受)를 깨닫게 되나니 후세에 대법락(大法樂)에 이르게 되어 혼연하고 안온하여 아무런 걸림이없게 되느니라.

또한 사리불아, 아직 불법이 흥기(興起)하지 못한 증생도 있지만 여래가 세간에 출현하자 가르침을 믿어 받드는 자도 있느니라. 불법을 즐겨 정진해 받들어 최후에 멸도를 취하고자 하는 인물을 성문승이라 일컬느니라. 성문은 라한(羅漢)의 경지를 구해 삼계를 벗어나고자 하나니 비유컨대 장자가 아이들을 난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양이 끄는 수레를 준 것과 같느니라.

또한 어느 누가 아무런 스승의 가르침 없이 스스로 출가해 적연(寂然)의 이치를 구하기 위해 홀로 멸도하여 인연법을 깨닫기를 도모하고 여래 가르침 대로 정진한다면 연각승이라 일컬으리라. [비유컨대 장자가] 불난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이 끄는 수레를 선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령 어느 누가 부처님의 도와 지혜, 성인의 지혜에 자재하게 통하기를 구해 마음으로부터 출가하여 스승없이 지혜 얻기에 치중하고 여러 하늘과 대중을 여래법에서 멸도하게 하고 받들어 정진해 성인의 지위 두루 보는 지혜와 아무런 두려움 없는 힘을 구하나니, 이를 여래의 도[여래도(如來道)]라 일컬는데, 이는 보살대사가 타는 수레이니라. 비유컨대 장자가 아이들을 유도하여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코끼리가 끄는 수레를 선사한다고 말하여 불난 집에서 벗어나게 하고 아이들이 불더미로부터

안전하게 빠져나와 아무런 위험이 없음을 보고서 장자는 무량한 자기 재산가운데 뛰어난 칠보 수레를 똑같이 나누어준 일과 마찬가지로.

여래의 정각 또한 이와 같이 무수한 백천만억 증생을 살펴보고 삼계의 험나함 가운데에서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자 그 소원(所願)을 좇아 생사문(生死門)을 열어 험난함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멸도에서 편안함을 얻게 하느니라.

또한 사리불아, 그때 여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삼계 화택(火宅)에서 무수한 지혜와 두려움 없는 힘으로 증생의 죄액(罪厄)을 보게 되어 아이처럼 가엾게 여기고 인도하여 불승(佛乘)으로 귀일하게 하고 자기 멋대로 멸도를 착각하지 않게 하여 모두 이끌어 부처님의 멸도로 멸도하게 하느니라. 증생으로 하여금 삼계를 벗어나게 하며 여래의 지혜로써 생각을 바로잡아 집안에서 벗어나게 하고 성인의 현명함으로 집안을 떠나게해서 법에 안위케 하여 환희하도록 함으로써 부처의 위대한 도를 베푸느니라.

예컨대 저 장자는 본래 아이들에게 삼품의 수레를 준다고 허락하고 마침 재난에서 면하게 되자 각각에게 한가지씩 평등한 큰 수레[대승(大乘)]를 주었으니 실로 허망함이 없이 아이들은 떨듯이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여래도 이와 같이 원래 삼승의 가르침을 현시한 연후에 다시 교

화를 베풀어 대승법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험망하지 않게 하느니라. 왜냐하면 여래의 등각에는 무양수의 창고 속에 보배가 가득 들어 있기에 중생을 위해 대법으로 교화[대법화(大法化)]를 베풀어 지혜에 통하게 하여 이 법을 뜻에 맞게 알게 하나니 여래는 등정각(等正覺)과 수승한 방편력으로 지혜의 음성을 통해 오직 일승만 설하는데 이를 불승(佛乘)이라 일컬느니라.”

이어 세존께서 게송을 읊으셨다.

비유컨대 어느 장자
 커다란 저택 있지만
 집이 극히 오래된 까닭에
 매우 낡고 헐어
 대저택이 단숨에 무너질 듯
 기둥뿌리 썩어 기울어져
 처마, 문빔장, 창문은 쓰러지고
 또한 창고는 헐었고
 진흙으로 쌓인 높은 담장
 벽은 크게 붕괴되어
 초목이나 잡초로 뒤덮여

오랫 동안 조락(彫落)했네.

그때 어떤 사람

오백명과 함께

저 저택에 머물렀으니

무양수의 초목이 우거져

무량하게 자랐으며

모든 루각(樓閣)이 폐쇄되었고

여러 연꽃의 온갖 향기

곳곳에 넘쳐 흘렀노라.

새의 무리 주위를 날아다니고

갓가지 살무사와 뱀

박쥐와 벌레들이 쏘고 달아나고 숨으며

곳곳에 있는 온갖 독충

검은 원숭이, 살괭이, 생쥐와 쥐들이

그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소리내어 울부짖는구나.

여기 저기에 숨은 채

똥이나 오줌 배설하여

오물이 가득 넘쳐나네.

사나운 벌레와 새
그 가운데 가득하고
사자 ,여우, 이리 짓으면서
죽은 시체를 씹어 먹으며
어느 누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런 광경보고 들을 수 있으랴.
무수한 개 떼들
소굴 속에 쭈구린 채
각각 둘러 앉아 함께
먹이를 씹고 있구나.
가령 이런 무리들이
굶주림에 지쳤을 때
서로 먹이를 얻기 위해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서로 싸움질을 일삼아 으르렁 짓어대니
험상궂은 그곳 모습
이처럼 무섭구나.

온갖 귀신들 사나운 생각

마음에 가득찼고
 파리, 벼룩, 이
 또한 지극히 많고
 갖자기 지네, 망량(魍魎=산도깨비)
 여기저기 사방에 두루 둘러있고
 우유를 짜 내어
 각각 취해 새끼를 기르고
 사나운 들양, 수컷 양
 분주하게 날뛰어 다녀도
 자기 처소로 돌아가지 못하네.
 비록 귀신들이 와서 옹호해도
 피해받지 않게 못하네.

저 여러 귀신
 또한 증생을 잡아 먹으니,
 배가 불러도
 마음에 샅된 생각 계속 되는구나.
 군품(群品)은 같지 않아
 종성(種姓)이 별이(別異)하네.

죽은 어떤 사람
 무덤에 묻는다 해도
 저 사람의 생각은 밖으로 나와
 곳곳을 편력하나니,
 구환향(鳩桓香) 귀신
 그 뜻이 포악하여
 두 팔 휘저으면서
 이리저리 오가니
 어떤 주술로도 좇을 수 없어라
 어느 땐 개의 두 다리 잡고서
 몸을 늘려 때리고
 두 다리를 잡고서
 그 몸을 조이고
 방자한 자세로 앉은 채
 멧대로 장난치는구나.

검고 야원 귀신 무리
 키 크고 장대하여
 체력이 강성하기에

제멋대로 발호하는데
 십일간 굶주리며
 음식을 찾아 헤메다가
 저 멀리서 꿀, 썩을 보고서
 분주히 치달리는구나.

침으로 쓰는 벌레
 쇠부리 지닌 새
 언덕과 언덕 사이에 있네.
 사람의 죽은 시체보고
 사악한 귀신 흉측한 모습으로
 산발한 머리로 울부짖는구나.
 가뭄 말은 귀신 모여드는데
 탐욕에 깊이 떨어졌기에
 문과 창 통해 넘겨 보건대
 사망을 두려워 살피도
 항상한 것이 없구나.
 여러 샷된 요매(妖魅)
 아귀, 독수리, 울빼미
 모두 먹이 구하러 헤매누나.

넓은 장자의 저택

이와 같은 군품(群品)으로 인해

험난하게 되었어라.

큰 정원 살펴보니

장벽(牆壁)은 퇴락(墮落)되었고

방이나 문은 파괴되었어라.

어떤 한 남자가

그 저택 지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머물고 있을 그때

불이 일어나 사방을 태워

저택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자

수천여 명이 크게 놀랐으니

불길 드세게 솟아올라

자기 아이들 태우려 하매

저 장자는 크게 소리 지르는구나.

당주(堂柱)는 쓰러지고

담벽은 흩어져 내리자

귀신과 아귀

소리내어 환호작약하고
 수백마리 독수리들
 불길 피해 날아오르고
 무수한 비둘기들이 담이나
 널의 문, 서까래를 둘러싸 두려우며
 백천 요매(妖魅)
 황망하게 치달리면서
 수많은 짐승들
 불길에 타는 모습 직접 보고
 까마귀는 남은 재의 온기를 짚고
 박복한 존재는 불길에 쫓겨
 제각기 한탄하면서
 태워져 문드러져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구나.

이때 이 저택에
 사납고 무서운 귀매(鬼魅)들이
 함께 다투어 잡아먹으며
 악취가 연기와 함께 일어나고
 모든 집오리는 분주하게 날뛰고

지네와 그리마
 개미와 구더기 한꺼번에 출현하고
 염매(厭魅) 용맹하고 분일해
 자주 깨물어 씹고
 머리에 는 불길 이 번져
 희희작작하며 유행하고
 굶주려 보이는대로 잡아먹고
 불길에 휩싸인 저택에는
 이처럼 황망하게 겁에 질린
 백천 명의 대중 가운데 타 죽은 시체 랑자(狼藉)하구나.

그때 저택의 주인
 세도 드센 장자
 이와 같이 화급한 재난
 전해 듣자마자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보배 수레로 유도하려 했으나

어리석은 아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노는데 정신이 팔려
방일하게 희희낙락할 뿐이더라.
장자가 저택 안을
들어가 살펴 보았더니
무지몽매한 아이들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빠져 나올 생각않는구나.
지금 내 아이들은
불길에 갇히게 되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귀 멀고 눈 멀어
노는데 빠진 까닭에
스스로 묶여 있구나.
집안 자손은
지극히 얻기 어렵나니
일체 증생이
큰 화재를 만나게 되어
제각기 괴로워 하는구나.
귀신이나 뱀, 살무사

마음 속에 독을 품고
 무수한 요매(妖魅)
 떨듯이 환희하고
 여러 이리, 여우, 개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한데
 굶주림과 기갈에 쫓겨
 음식을 게걸스레 구하는구나.

많은 무리 아이들
 이런 지경에 빠졌나니
 설령 화재가 아닐지라도
 또한 즐겁지 아니하리.
 온갖 의심 매듭
 괴로움이 이와같거늘
 하물며 도처에 두루
 불길이 사납고 치솟음에 있어서랴.
 어리석은 아이들은
 아랑곳없이 제멋대로
 놀이에만 정신 팔려

조금도 유념함이 없이
아버지 말씀 듣고서도
마음으로 속히 빠져 나올
생각조차 앎는구나.
그러자 장자는
이렇게 스스로 헤아렸으니
내가 낳은 이 아이들
어렵사리 양육했건만
불길에 휩쓸려 버리겠으니
어떻게 해야 아이를 구하고
자손을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방편을 시설하여
다시 생각하기를
지금 나의 아이들
놀이에 정신을 빼쳐
재난이 곧 이르륜에도
놀기를 그치지 앎으니
오호 통재로다. 어리석게도
곤란을 돌아보지 앎고

어린애들은 제멋대로 놀아
이 어려움 알지도 못하는구나.
지금 내 마음은 떨리건만
아이들은 분탕하게 놀 뿐이니
재빨리 집에서 빠져 나와
불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리라.
그래서 방편을 베풀어서
저택 바깥에
음악과 놀이 기구 진열해
아이들이 좋아하게 하리라.
나는 변별하여
음절을 조절해
일시에 말을 하였더니
아이들은 선물 준다는 말 듣고
음악 기구에 애착을 일으켜
제각기 재빨리 뛰쳐나와
불난 집에서 힘껏 벗어나
위험으로부터 빠져 나오게 되었어라.
아이들은 한곳에 모여

안온하게 되자 환호하여
다시는 두려움이 없게 되었으니,

이에 장자는
아이들이 집에서 나오자
마음이 지극히 태연해지고
뜻은 자유롭게 되었어라.

오락기구를 많이 모아둔
장자는 사자좌에 앉아 말했으니
나는 지금 무위를 얻게 되어
저 온갖 고통과 근심
길이 소멸됐으니
이에 동자들은
수행에 정진했건만
어리석게도 불난 집 속에서
방일하게 놀 뿐이기에
갈수록 미혹만 더해지고
불길만 치열하게 솟게 되었나니,
누구나 이 위험 당하면
음개(陰蓋)에 뒤덮여

마음이 밝게 열리지 않노라.

곰일에 모든 것으로부터
일시에 벗어나게 되어
자연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 소원에 뜻을 두게 되는구나.

아버지는 아이들의 뜻이
안온함에 머무름을 보았네
이에 아이들은
장자 앞에 나아가
아버지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레를 각자에게 내려달라고 하고
불더미 속에서 놀 때에는
미혹해 알지 못하다가
대인(大人)께서 가르침 내리자
일체가 받들어 계승하오니
마땅히 저희들에게
세가지 수레를 지금 바로 이때 내려주소서
바라옵건대 나누어 주옵소서.

이에 장자는
시종에게 명령을 내려
창고를 열게 하였으니
자금색 금, 명월 진주, 보배
뛰어나게 진귀한 것
세간에 희유한 물품
지극히 미묘하고 우아한 수레
장엄하게 장식되어 있구나.
난간도 두루 두르고
구슬, 영락, 당번
화려한 비단으로 장엄되고
금과 은 교차하여
그 위를 뒤덮어
붉게 빛을 발하고
진귀한 보배와 꽃으로
사면을 가득 장식해
아래로 드리워
수레 위를 중첩하고
앞을 자리 그 안에 펴고

흰 색 천상의 비단
 헤아릴 수 없구나.
 또한 거기에 보태서
 부드러운 인옥(茵褥=담요)
 무량한 면류관
 수레에 깔아 자리 만들고
 이런 장식 계산해 보니
 수레 값어치 천만억
 기이하고 진귀한 보배
 무량한 연(纒)에 걸쳐있고
 크끼리는 힘이 드세
 꽃처럼 선백색이고
 크끼리 몸은 높고 크며
 우아하고 길들여져 있고
 보배수레에 탈 것을 매달았으니
 이를 큰 수레[大乘]라 일컫노라.

이에 장자는
 장엄된 수레를 변별하여

각각 선물로 내리누나
 여러 정사(正士)무리
 모두 나의 자손이니
 평등하게 선사하노라.
 이때 아이들은
 떨듯이 환희심 일으켜
 곳곳에서 함께 기뻐하는구나.

사리불에게 고하노니
 대선(大仙)도 이와 같이
 여러 군생(群生)을 위하여
 아버지로서 보살피노라.
 모든 중생
 모두 나의 자손이나니
 삼계 속에서 욕심부려
 보는 것마다 속박 당하고
 삼처(三處)를 살피 보건대
 저 불난 집과 마찬가지로
 실새없이 고통에 휘몰려
 괴로움은 백천가지니,

이것이 소위
 무여(無餘)의 생로병사와 고통이라
 여래는 삼계 증생을 위해
 남김없이 제도하고자
 세상을 한가롭게 유력하노라.
 숲속 나무 아래 앉아
 항상 시절인연에 따라
 번뇌 불꽃에 타는 모습 보노니
 이들은 모두 내 자손이기에
 증생을 깨우쳐
 자신에게 돌아가게 하노라.
 이 뜻으로 말미암아
 저곳에 몸을 나투나
 모든 증생들은
 어리석어 가르침 받지 않은 채
 앉아서 애욕만 일삼아
 스스로를 결박하는구나.
 이에 방편을 활용하여

큰 약을 짓기 위해
 삼승으로 분별함으로써
 증생에게 제시하노니
 삼계의 증생
 무량한 번뇌의 와중에서도
 마침내 이 가르침 듣고
 때에 맞게 벗어나느니라.
 여러 보살들
 부처님 찾아와 귀의해
 륝통(六通) 삼달(三達)
 위대한 성인의 지혜 성취하고
 혹은 연각승 이루기도 하고
 불퇴전의 지위에 이르러
 부처의 도에 도달하는구나.

현재의 여러 아이들
 여래의 자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비유설법을 통해
 더 이상 성내지 않으며
 이 인연으로

불승에 가깝게 근접해
 모든 가르침 받아
 지극히 수승함 얻을지니
 이에 크게 평등한 믿음으로
 모든 세간의 번뇌
 조복받아 벗어나고
 정각의 지혜, 수승한 도와 덕
 머리속여
 량족존(兩足尊)께 귀명하오니,
 근(根), 십력(十力), 탈문(脫門)
 일심으로 이와 같이
 삼매 선정 들어가는구나.
 수천억 여러 불자
 항상 존중하오나니
 이를 일컬어
 오묘한 대승 받든다 하리라.
 낮에 서원을 세워
 생각으로 마구니 다스리고
 밤엔 오로지 정진 거듭해

조금도 쉽없이 흠모하니,

일년 동안이든지

또는 여러 겁에 걸쳐

무수한 증생 구제하고

보배 수레 비유로

이 수레를 타고 유력함으로써

여래의 도장에 이르렀도다.

무수한 불자

이를 오락으로 여겼지만

가르침 들어 받게 되어

제자로서 안주하리라.

사리불에게 고하노니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하리라.

일승만이 있을 뿐

이승이 있지 않노라.

십방세계 곳곳을 찾아가서

도처에서 구하여

인증상(人中上) 알아야 되리니,

여래는 방편을 뛰어나게 행해
 미미한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점차적으로 이끌어 들이니
 먼저 성문과 연각의 법 현시해
 삼계를 버리고 떠나게 한 뒤
 곧이어 보살도를 제시하노라.
 여래의 은혜 두루 적시노니
 비유컨대 비옥한 밭
 그 뿌린 씨앗에 따라
 각기 그 부류에 맞게 되나니
 종자로 뿌린 것은
 땅에 따라 증감하지 않듯
 여래 또한 마찬가지로
 일체 중생에게 평등하게
 항시 대도를 현시하건만
 취하는 자에 따라 증감있게 되노라.

부처님은 저들의 아버지로서
 내가 항상 살펴보건대

무수억 겁에 걸쳐
 증생이 고통과
 번뇌속에서
 불타고 있기에
 삼계 가운데 어려움을
 여래가 창도(唱導)하여
 멸도얻게 하여
 무위에 이르게 하리라.
 금일에야 비로소 알겠나니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괴로움으로부터 떠나리라.
 어떤 보살
 이 경지에 머물러
 지극 정성으로 수기받으니
 이런 비유를 취해
 일체중생에게 널리 듣게 하는구나.
 여래의 해처럼 밝은 지혜
 위대하신 도사께서
 방편을 활용하시어
 응당 권조(勸助)하시나니

예컨대 보살들은
 애욕과 번뇌 혐오하는구나.
 마음이 어둡고 닫히면
 오염되게 되므로
 그래서 도사께서는
 설새없이 법을 설하시어
 사성체(四聖諦) 현시하셔서
 이를 분별해 말씀하시네.
 가령 증생이
 번뇌의 묶임에서 벗어나지 못해
 육근으로 육진에 집착할 뿐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니
 이런 무리를 위하여
 그 길 제시하노니
 익힌 습기로 말미암아
 온갖 고통 이르게 되노라.
 애욕이 이미 소멸된다면
 항상 아무것에도 걸림없어
 이와 같이 멸도 얻으리니

이 삼품(三品)에 있어서
아무런 차별없음 료달(了達)하면
해탈얻게 되리라.

만일 팔로(八路)를 닦으면
곧 초도(超度)얻게 되리라.

사리불에게 고하노니
무엇 제도(度)된 것 인가.
무소유를 수용하면
곧 해탈하게 되어
저것 또한 불위(不爲)하여
일체에서 해탈하여
멸도할 것도 없이
곧 도사(導師)를 친견하리라.

부처님은 어떤 까닭으로
해탈을 설하셨을까.

어디에도 이름이 없어야
비로소 불도 성취함이니
반드시 나와 같이
성스런 법왕(法王)이 되어

안온하게

세간에서 벗어나리라.

사리불에게 고하노니

이는 나의 법인(法印)이며

이는 부처님께서 최후에 이르러

미묘하게 설하노니

여러 하늘과 세간 증생

가없이 여기셔서

머무는 곳곳에서

항시 홀로 행하노니

가령 어느 누가

이 경전 설법할 때,

권조해 환희하게 하여

그 오묘한 법 듣고

항시 받들어 수지하고

과거 부처님께 공양올려

이 법 수지하여

불퇴전의 지위에 오르리라.

가령 어떤 사람

이 경전 가르침 즐겨 믿고

지난날 되살려 보건대

과거의 도사 또한

모두 받들어 수순하고

성스런 위대하신 세존

가르침 얻어 듣고

이와 같은 경전의 법

모두 일찍이 친견했으니

나의 의용(儀容)

또한 관찰했노라.

우리 비구 대중

항상 쉬지않고 살펴보노니

지금 현재 보살들이

이 경전 가르침 믿는다면

그 덕 또한 이와같아

모두가 우러러 받들리라.

어느 보살일지라도

이 경전 가르침 믿는다면

역시 이와같다.

어리석어 우매한 범부 받아들여 믿지 않으니

이 경전에서 말하는 신통력

성문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고

연각 또한 이해하지 못하리라.

지금 여래가 갖춘 것

성문들과 사리불은

확고하게 믿어 받들고

이와 같은 위대한 법전

현재에 모두 다하여

인연에 걸리지 않으리니,

만일 이 경전 가르침에

감응하지 않는다면

비방하는 셈이리라.

부처님은 천중천(天中天)

어리석어 미혹한 무리

항시 애욕을 품어

생하되 생하지 않는 무생법(無生法)

이해하지도 못하고

게다가 비방만 일삼는구나.
 뛰어나게 방편을 써서
 세간의 모든 존재
 여래는 항상 밝게 보나니
 여래가 이 죄와 복을 말씀하나
 마음으로 즐기지 않아
 안색이 변하는구나.

여래가 지금 현재
 그리고 멸도한 이후
 만일 이와 같은 경전
 비방해 헐뜯는다면
 비구로 하여금 이 경전
 필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부처님이 설하는 죄와 그 인연
 다 두루 올바르게 들을지니라.
 사람 몸 잃게 되면
 지옥마저 가리지 않아
 그 가운데 처하게 되어
 일겁을 구족하게 채우리라.

또한 무양수에 걸쳐
 한이 맏히게 되고
 만일 죄가 다하게 되어도
 항시 어리석음 속에 갇히리니
 설령 지옥으로부터 벗어날지라도
 곧 금수 축생으로 떨어져
 개, 벌레, 여우가 되리라.
 그 형색이 초취(憔悴)하여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흑 해침을 당하리라.
 가령 불교경전 증오하면
 안색이 검게 변하여
 먹처럼 암담(黯黮)하고
 죄지은 바에 의해
 안색은 항상 옷칠한 듯 하고
 신체는 지극히 수척해
 아무런 윤기 없어
 천박하고 더럽게 여겨서
 다른 무리가 돌을 던지니
 구슬퍼서 눈물이 나리라.

그 사람은 항상
 회초리나 곤장을 맞고
 기갈로 인해 허기지고
 육신은 비쩍 메말라
 마땅히 축생에 떨어져
 락타(駱駝)나 당나귀가 되어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채찍을 맞게 되어도
 마음 속으로는 기쁘고 따듯해서
 액난 증에도 건초와 풀만을 생각함이라.
 불경을 비방하여
 얻은 죄 이와같느니라.
 비록 사람 몸 얻어도
 몸에는 악성종기와
 문등병과 부스럼 투성이고
 외모가 이처럼
 등창으로 루추(陋醜)해
 살과 피부는 상하고 문드러지리라.
 가령 어디를 가다가
 어느 취락에 들어가도

아이들이 우습게 여겨
 희롱하여 작살로 때려
 어린애의 장난감이 되리라.
 뒤에 수명이 다하면
 곧 변방 오랑캐 땅에
 함혈(含血)하여 끔틀거리는 것으로
 혹은 병어리, 귀먹어리로 태어나
 자재하지 못하리라.

이 경전 비방하여 죄업으면
 항상 병이 많아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
 무수히 많은 벌레
 그 몸을 쪼아먹어
 마음은 항상 우울병을 앓고
 질병은 끊이지 않으리라.

사리불에게 고하노니
 이 경전 믿지 않는 저 남자는
 지혜없는 무명의 어둠 속에서

간탐(堅貪)만 일삼고
 성품이 설새없이 지저귀고
 장님으로 태어나
 사람이 저버리게 되고
 부처님의 도를 믿지 않아
 입에서는 항상 구취가 나서
 악취가 밖으로 풍기고
 귀신과 염매(厭魅)가
 항상 번거롭게 붙어다니고
 세상사람이 말을 붙이지 않는다.
 약을 먹어도 효력 없으니
 이 지경에 이른 사람
 크게 중땀하게 되어
 항상 빈한 속에 있으리니.
 몸에는 좋은 옷 못입고
 재업(財業) 풍부할지라도
 음식을 달게 못먹으리라.
 짓고 행한 바가 있어
 가령 안온함을 구하여 하여
 설사 얻는다 해도

곧바로 잃어 버리게 되니
나쁜 행 범하게 되어
그 과보 이와 같으리라.

설령 의사를 불러
약을 짓게 하고
방편을 잘 활용해서
치료받고자 할지라도
차도가 있기는커녕
증세만 갈수록 악화되어
항시 질병과 함께 하고
치료방법이 없으리라.

설령 다시금 뜻을 발하여
다른 일 꾀하고자 해도
다투는 업 만나게 되리라.
또한 훼손이나 욕됨 당해
채찍질을 맞게 되고
저 범법자에게 말려들어
이런 재앙에 빠지게 되리라.

이처럼 경전을 비방하여
 얻은 죄로 말미암아
 세간의 영웅도사
 인증제왕(人中帝王) 친견 못하고
 부처님의 법교(法敎)
 마침내 귀신의 손아귀에 떨어져
 아수륜 귀신 항시 재앙 일으켜
 귀 멀고 입 멀어 막혀
 어리석고 미혹하게 되어
 경전 가르침 못들으리라.
 이 경전을 비방하여
 후세에 이르게 되면
 영원히 아무런 소견 없으리니,
 이 경전 훼손한 죄과로
 재앙은 무수한 겁 동안
 백천가지 계책 쓴다 해도
 강변의 모래알 처럼 해겁(孩劫)에 걸쳐
 항시 병어리되어
 입으로 말 못하리라.

부처님이 세운 불은
항상 사자후 뽑어내건만
이를 훼손한 사람
지옥세계에 떨어져
악취 속에서 고통 받으리니,
큰 저택 지어 숨어도
이미 저지른 범죄로 인해
이런 재앙 초래되리니,
또한 자주 질병에 걸려
속히 병어리 되리라.
만일 세간에 있더라도
마땅히 이런 허물 얻어
여러 명과 함께 있을때면
두가지 말로 속일 것이니
수명이 다하게 되어
삶을 더 살고자 하건만
그 몸은 끊임없이
고통이 떠나지 않으리,
무양수 억에 걸쳐

백천가지 고통의 와중에서
안색은 항상 검은색이어서
사람이 좋아하지 않고
악창, 문둥병에 걸려
항시 악취를 풍기니
스스로를 보게 되매
안색이 검은 빛이며
화가 나서 독기를 품어
극심히 성내기에
정욕이 치성하게 일어나
좋아함과 싫어함에 있어서
마치 축생이나 다름없이
절도를 찾을 수 없구나.

사리불에게 고하노니
금일 세존은 일체를 구족한 채
그 사람의 죄 밝히노니
이 불경 비방한 자
그의 재앙 계산하려 해도
끝 알수 없어

이 뜻에 알맞게
 마땅하게 관찰하겠노라.
 지금 여래는
 사리불을 위해 설하는 것이지
 어리석어 우매한 자라든가
 도를 모르는 자를 위해
 분별해 강설함 아니니,
 이와 같은 상법(像法)
 총명하고 박학다문하고
 뜻이 굳어 확고하여
 항상 닦아야 알게 되리라.
 만일 권발(勸發)하여
 불도를 섬겨 받들어야
 비로소 청법해 수용하리니,
 일찍이 없었던 이 법
 이미 목도하였으니
 백천만억 부처님
 무양수의 공덕 심으셨네.
 그 사람의 뜻과 성품이

일광처럼 맹렬해야만
 이와 같은 경전 가르침
 청법해 수용할 수 있으리라.

만일 정진 거듭하여
 생각에 항시 자비 품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증생의 삶 비애(悲哀)로 비취
 자신의 몸 저버리고
 수명마저 아끼지 않아야만
 법을 듣고 수용할 수 있으리라.
 이와 같은 경전의 말씀 좇아
 항상 공경히 행하고
 다른 습기에 빠짐이 없이
 그 마음은 전일하여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고
 항시 광야에 처하거나
 깊은 바위에 숨어
 저와 같은 어진 사람이라야
 비로소 법을 얻으리라.

선우와 친교 맺어
항상 서로 멀리하여
결코 만나지 않아
이와 같은 불자라야
능히 만날 가치 있으리.
이런 가르침에 따라
계율 범하지 않으며
보배 같은 밝은 구슬처럼
방등경전 받들어 익혀
이와 같이 보아
성스런 부처님 자손으로
설새없이 이 경전 가르침대로
일심으로 정진해야 하리라.

가령 이 경전 매도하고
훼손하는 자 있더라도
항시 자비의 마음으로
증생을 지향하여
따뜻하게 공경하고

편안히 불법에로
 그를 이끌기 위하여
 이 경전의 진리 설법하리니,
 그 증생 가운데
 이 경전 독송하는 사람
 마음으로 항상 감응해
 무양수 억겁에 걸쳐
 비유 설법한 까닭에
 한 무리가 되어
 이 경전 보게 되리라.
 또한 부처님이 금일에
 도품(道品) 강해(講解)하여
 그 도달한 곳에
 떨듯이 기뻐하고,
 가령 비구가
 선에 대해 구함이 있어
 이 경전 보게 되자
 방등경을 머리에 이고
 높이 섬겨 수지하여
 항상 마음으로 정진해

다른 일 즐기지 않고서
 계승 한 구절이라도 지닌 채
 뜻을 조금도 바꾸지 않아야
 비로소 얻어 들으리라.

이와 같이 광대한 법
 어떤이가 흠모하고 찾아서
 마땅히 여래의 몸과 같이
 받들어 공경하고
 만약에 사람이
 이법을 배우고자하고
 바라고 생각한다면
 설령 얻은사람을 만나거든
 마땅히 머리 숙여 받아들이고,
 그 사람은 결코
 다른 경전을 생각하거나 찾지도 않고
 또한 세상의 다른 서적들
 조금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부처님의 도 행하나니

뜻은 근력(根力)에 두어
 모든 것 저 버리고
 이 경전 강설만 일삼는구나.

사리불에 고하노니
 부처님은 일겁 꼭차도록
 천만억 비유를 들어
 분별하여 해설하나니,
 예컨대 위로 부처의 도
 받들고자 하는 뜻이 발하거든
 마땅히 이경전을
 널리 선창(宣暢)하고 류포(流布)하여 전하여라.

정법화경(正法華經) 권 제3

4. 신락품(信樂品)

그때 현자 수보제(須菩提), 가전연, 대가섭, 대목건련 등이 위대한 법에 대해 강연을 듣고 미증유를 얻게 되었으니 본래 듣지 못한 가르침이었고,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수기를 내려 미래에 무상정진도를 얻으리라는 말씀을 듣게 되자 떨듯이 기뻐 모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채 례(禮)를 올린 뒤 합장해 세존의 얼굴을 우러러 바라 보았으며 안으로 스스로의 생각을 반성하고 마음과 몸이 환희에 넘쳤으며 온 몸이 화락해 기쁨과 슬픔이 함께 몰려 들었고, 이어 세존께 아뢰었다.

“위대하신 성인이지요, 저희들은 년로(年老)하여 거동까지 불편해 여러 늙은이 가운데서도 더욱 힘이 없사오니 귀명(歸命)하여 멸도를 얻기 위하여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에 뜻을 두어 힘을 다하건만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래의 강설을 저희들은 귀기울여 청법하기 위해 법회를 찾아온 대중으로 차례대로 좌정해 피곤을 느끼거나 싫증을 느끼지도 않사옵니다. 예전에 여래께서

설법하셔서 이미 공(空) * 무상(無相) * 무원(無願)을 얻게 되어 불전(佛典)에 제시된 불국토에 이르게 되었으니 일체 법에 아무런 조작이 없게 되었나이다. 그 모든 보살들은 오락을 즐기기에 여래께서 권발(勸發)하여 많은 바를 교화로 이끌었사오나 어리석어 삼계의 재촉함과 다툼을 보고서 항상 스스로 생각하고 헤아려 멸도를 얻었다고 말했사옵니다.

이제 년로(年老)하여 비로소 저희들에게 특이한 뜻을 가르쳐 일등(一等)을 즐겨 무상정진도에 큰 뜻을 일으켰사오니 지금 위대하신 성인께서 성문들에게 수기를 내려 정각을 성취하게 하여 마음으로 크게 놀라 미증유를 얻게 하셨나이다. 저희들은 커다란 이익을 얻어 각각 여래는 받들었기에 이 경전 가르침을 얻어 듣게 되었사옵니다. 지난날 부처님으로부터 이 법을 항시 들었으므로, 다시 만나게 되어 오묘한 보물을 얻게 되니 무양수의 오묘한 뜻에 이르게 되었사옵니다. 이제 색(色)에 있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게 되어 진귀한 음악이 자연히 울렸고 커다란 등불이 휘황하게 밝혀졌고 전단향으로된 총림이 향기를 뿜어내고 있사옵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제가 이법을 감당해 설할 수 있겠나이까?”

이에 세존께서 감당할 수 있다고 답하셨다. 그때 여러 성문이 입을 모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지난날 어느 누가 아버지 곁을 떠나 방탕해 다른 곳으로 이 삼십년(二三十年) 떠돌면서 사방으로 옷과 음식을 구하고자 애썼건만 항상 빈곤해 변변한 일도 하지 못했나이다. 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무앙수 금 * 은 * 진귀한 보물 * 수정 * 유리 * 차거(車渠) * 마노(馬瑙) * 산호 * 호박(琥珀)을 얻게 되어 창고 가득히 저장하게 되었사옵니다. 시중 * 노비 * 코끼리 * 말 * 수레가 헤아릴 수 없었고 권속은 무수했고 칠보는 넘쳤고 재물의 출납은 빈번했고 농산물 경작도 많았나이다.

아이들은 먹을 것을 구해 두루 이 나라 저 촌락을 떠돌다가 마침 부유한 장자의 성에 가을 무렵 이르게 되어 성 안에 들어가 창고 주위를 돌아다니게 되었나이다. 장자는 자식과 헤어진 지 오래 되어 홀연(忽然)히 생각에 잠기곤 하지만 자식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나이다. 재물은 무량해 원근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도 했으나 아버지는 늙고 노쇠하여 죽게 되면 창고 속 보물은 속히 흩어지게 되어 원컨대 자식을 다시 만나 마음대로 옷 입고 자기 뜻대로 먹는다면 무위를 얻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나이다. 아이들이 우연히 장자의 집에 이르러 문 앞에서 집안을 엿보았더니, 범지(梵志) 군자가 대증을 주위에 모았고 권속이 둘러싸고 있었사옵니다. 금은으로 사자좌를 만들

어 주영(珠瓔)을 교차하여 커다란 보배 장막을 들렀는데 아버지는 그 가운데 앉아서 명령을 내리고 있었사옵니다. 온갖 해탈화(解脫華)가 땅을 뒤덮었고 백천만금 나가는 그릇에 음식이 담겨 있었으니, 자식은 장자의 이와 같은 위엄을 보게 되자 두려워 편안하지 못해 다음같이 생각하였나이다.

‘그는 제왕 아니면 대군주 이리라.’

자식은 주위를 머뭇거리다가 감히 목전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곧바로 달아나 버렸나이다. 아버지는 저 멀리서 자식을 보게 되자 마음으로 크게 기뻐 옆에 있는 시종을 시켜 자식을 데리고 오도록 시켰나이다. 자식은 황급히 달아나다가 땅에 넘어져 쫓아 나오는 시종에게 말했사옵니다.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거늘, 어찌서 잡아가려 하십니까?”

시종이 자식을 잡고서 함께 장자에게 되돌아가자, 장자가 말했사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려워하지도 마라.”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부지런히 재물을 모아 창고에 가득 채웠나이다. 자식과 헤어진 지 오래되어 자주 생각에 사무치게 되었고 나이는 들고 힘은 쇠약해져 부자의 정은 갈수록 깊어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자식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하였나이다.

자식이 여러 사람과 함께 있기에 이런 생각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궁자(窮子)의 뜻이 하렬(下劣)한 줄 알아 부유한 아버지를 오래도록 보지 못했기에 그 얼굴이나 이름을 알아보지 못했고 더욱이 기이한 물품을 보게 되자 아버지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나이다. 장자는 그 대가 내 자식이라고 말하는 대신 방편을 다음같이 말했나이다.

“이제 그대는 마음대로 자기 뜻에 따라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 말은 들은 궁자는 괴이하게 생각했지만 크게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서 옷과 음식을 주었나이다. 아버지는 자식의 인연을 알기에 방편으로 그대는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몇몇 사람과 지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자식이 이 저택으로 다시 오게 되자 재차 조치해서 “이 저택에는 할 일이 있다”고 말했으니 아버지는 궁자에게 코끼리와 말을 관리하게 했나이다. 가령 어느 누가 묻는다 해도 답도 또한 이와같이 마땅히 수레와 말을 담당하게 하고 보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에 맞게 재화를 주었사옵나이다. 아버지는 궁자에게 필요한 용품을 이처럼 구족하게 하였나이다.

그때 자식은 마구간에서 수레와 말을 관리하였고 진귀한 보물은

잘 담당해 또 다시 잡안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해 가르침을 받게 되었하옵니다. 아버지는 창문을 통해 멀리서 자식이 하는 것을 살펴 보았는데 낡은 옷을 벗게 하고 목욕하고 오른손을 씻어 보배영락과 향기나는 옷을 입혔더니 그의 몸이 빛나 청정하게 되자 아버지가 말했나이다. “그대는 본래 어디에서 자랐는가, 어느 집에 속하는가. 그대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고통 속에 굶주리고 추위에 떨게 되었구나. 나는 이미 늙었기에 인정으로 고하노니 곧 아내를 맞아 들여 즐겁게 먹고 놀아 자손을 얻기 바라노라.

내가 벌려 놓은 일은 헤아릴 수 없고 온갖 보배가 구족되었음을 그대는 아는가. 그대를 오랫동안 찾았지만 이렇게 험벗은 모습으로 변한 채 이제서야 돌아왔으니 깨끗하게 때를 씻으라. 내게는 오묘한 보배, 야광명주(夜光明珠), 진기한 보물이 있으니 모두 그대에게 주노라. 노비, 시종, 남녀노소 모두 그대의 뜻대로 하라. 일체를 부촉하노라. 나는 그대를 마치 극왕이 태자를 행복하게 여기듯 하노라.”

여러 성문이 함께 부처님께 이어서 말씀을 아뢰었다.

“바로 저 때 공자는 유랑한 지 이십, 삼십년이 지났으니 장자의 저택에 이르게 되어 전후에 유관(遊觀)하던 바를 거슬러 생각하니 마음에 더 한층 유념하게 되었나이다. 그때 장자는 병이

들어 침상에 누워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자식을 불러
말했사옵니다.

‘내 이제 늙고 쇠잔했으니 그대가 홍범(洪範)을 계승함이 마땅
하니 보배창고를 모두 그대가 이어 받고 궁핍한 이웃에게 그대의
뜻에 따라 고루 베풀어라.’

자식은 아버지의 이와 같은 말씀을 자주 받게 되자 기쁘기 한량
없었나이다. 그 행실이 지성이어서 본래의 맹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 아버지는 자식의 뜻과 행실이 조신함을 알았고 예전엔
빈곤했으나 이제부터 부유하기에 그 기쁨이 한층 더했나이다.
자식은 친족을 받들고 어른께 예의를 갖추었사옵니다.

아버지는 국왕 * 군주 * 대신등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말했나
이다.

‘각자 귀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이 아이는 내 자식으로 내가
낳은 자식으로 이름은 모(某)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이삼십년(二
三十年) 유랑하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자식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이니 내 재물과 보물은
모두 그의 것입니다.’

자식은 아버지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선언하시는 말씀
을 듣게 되자 마음으로 더욱 기뻐 ‘나는 지난날 무슨 복덕으로

이러한 보물을 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했나이다.”

여러 성문들은 또한 다음같이 부처님께 말씀을 올렸다.

“부유한 장자는 비유컨대 여래이시고, 여러 학사(學士)는 불자에 해당되고, 저희들이 삼계의 고통 속에서 구제됨은 장자가 자식을 거두어 생사(生死)에서 벗어나게 제도하는것과 같나이다.

세존께서는 무양수의 신성한 보배를 갖추었으니 오신통(五神通)으로 오음(五陰)의 덮개를 소멸시키고 저 도(道)의 가르침대로 항상 정진하여 멸도에 뜻을 두었으니 이를 묘인(妙印)이라 일컫나이다. 은근히 흠모하여 조금도 나태함이 없이 무위(無爲)를 얻기 위해 묵연(默然)히 생각했나이다. 스스로 사유하고 숙성(熟省)하여 얻은 바가 무량하게 되어 여래께서 내리신 법에 순행하게 되었고 선정을 닦았고 항상 불법을 즐겨 믿었나이다. 살펴보건대 저희들은 게으르고 하렬(下劣)하여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발원에 따라 지향하지도 못하옵니다. 여래의 이 법은 보배 창고로서 지금 세존께서 방편으로 본제(本際)의 지혜와 창고를 보시고 굶주림과 혈벗음을 제거하셔서 대묘인(大妙印)을 수기하시나이다.

바라옵건대 대성께서는 지금 년로(年老)하시니, 여기 대가섭이 여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받들고 있사오나 이제 무위(無爲)에 이르실 시간이 되었나이다.

또한 세존께서 저희들을 위해 보살대사로 시현하시어 그 지혜와 뜻을 가르치셨으니 저희들은 가르침을 받들어 대중을 위해 설법 하겠나이다. 여래께서는 성인의 밝은 대덕(大德)을 현시하여 저희로 하여금 때에 맞는 가르침에 들어가게 하소서.

왜냐하면 세간의 영웅께서는 수승한 방편을 통해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할 줄 미리 아셔서 성문의 도리를 현시하시어 삼계의 법과 생로사(生老死)를 두려워하고 색성향미(色聲香味)의 어지러운 일들을 자세하게 해서 뜻은 일체 구하는 바 없이 스스로 구제하도록 하여 대자비(大慈悲)를 열어 지혜를 잘 분별해서 선정삼매(禪定三昧)에 의해 이미 사람 마음을 알았기에 일체중생의 근원(根原)을 새삼스레 보이지는 않았나이다.

비유컨대 궁자가 옷이나 음식을 구하기에 열증했을 뿐이지만 아버지는 때를 기다린 연후에 안락하게 했으니 자식은 아버지의 이런 뜻을 알지 못했사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때에 맞게 시현하셨건만 저희들은 알아차리지 못했고 지금에야 비로소 ‘성불할 수 있는 참된 자식’ [성불진자(成佛眞子)]이어서 지극히 존귀한 자식은 부처님의 자랑이기에 위대한 지혜를 베푸시는 줄 알게 되었사옵니다.

왜냐하면 비록 부처님의 자식이었지만 비천하고 나약하였나이다.

가령 여래께서는 보살승(菩薩乘)을 마음으로 믿고 즐기게 된 연 후에 비로소 방등대법(方等大法)을 설하시나이다. 또한 세존께서는 두가지 일을 일으키셨으니, 보살을 위해서는 감로법(甘露法)을 제시하셨고 하렬(下劣)한 무리를 위해서는 먼저 소승법을 현시하셨고 점차 미묘한 법으로 나아가게 하셨사옵니다. 비유컨대 저 자식은 아버지와 헤어진 지 오래되어 멀리서 보고서는 누구인지 알지 못해 두려워 했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위의를 갖춰 보였더니 비로소 아버지인 줄 알게 되었사옵니다.

부처님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보살의 위대한 가르침을 알지 못했으니 비록 법으로부터 태어난 여래의 자식이기는 하지만, 단지 멸도만 구했을 뿐 도장(道場) 나무 아래서 앉아 마구니와 권속들을 항복받고 일체를 제도하고 벗어나려 뜻하지 않았나이다. 저희들은 이미 스스로 해탈은 얻은 줄 착각하였사옵니다. 이런 까닭으로써 금일(今日) 성취된 것이 아님을 보고 들으니 출가한 것이 아니고 사문이 된 것도 아니옵니다.

지금 여래께서 일체에 통하는 지혜를 현시하시어 저희들은 위대하신 성인의 진귀한 보배를 얻게 되었기에 부처님은 저희의 아버지이시고 저희는 그 자식이오니 아버지와 자식은 한 몸이옵거늘 어찌 차별이 있겠나이까.

예컨대 장자가 임종의 순간에 임박하자 대중 앞에서 제왕 * 법

지 * 장자 * 군자에게 선언하였으니, 지금 소유하고 있는 창고 속 진귀한 보배는 내 자식에게 준다고 말하자, 자식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나이다.

부처님 또한 마찬가지로 먼저 소송법을 제시하여 한때 저희를 기쁘게 한 연후 지금 최후의 시간이 임박하자 널리 네 부류, 비구 * 비구니 * 청신사 * 청신녀에게 말씀하셨으니 천상이나 세간의 모든 중생들에게 여래의 본뜻을 현시하시어 여래는 방편으로 삼승을 설했거늘 이승도 없건만 어찌 삼승이 있겠느냐고 하셨사옵니다. 이에 성문들은 마땅히 미래에 성불하게 되어 저희들은 크게 기쁘기 한량없었사옵니다.”

이때 대가섭이 곧 계송을 읊었다.

저희들은 지금에야
이 말씀 듣고
괴이하여 놀랐지만
미증유 얻게 되었하오니
이런 까닭으로
마음에 희비가 교차하나이다.

또한 도사의 부드러운
 음성을 살펴보건대
 오묘하고 진귀한 보물
 크게 쌓아 두고서
 한곳에 집적한 채
 재화를 저희에게 베푸시니
 일찍이 생각지도 못했고
 또한 구한 적도 없나이다.

광대하신 가르침 듣자옵고
 마음은 떨 듯이 환희하오니

비유컨대 어느 장자에게
 한 자식이 있었는데
 바보처럼 암명(闇冥)하여
 자기 아버지를 저버리고
 다른 나라를 떠돌아
 타향 땅에 어질고 현명한 사람이
 많으리라는 뜻을 두었나이다.
 이에 장자는 걱정을 하였으며

뒷날 자식의 소식을 듣고 즉시 가서
 십방(十方)으로 유력하며
 항상 근심 걱정에 쌓인 채
 헤어진지 이삼십년(二三十年)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
 자식을 만나고자 했사옵니다.

장자는 다른 지역에 가
 큰 성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게 되어
 커다란 저택을 짓고
 구족하게 장엄하고서
 오욕락을 즐겼으며
 무수한 자금(紫金)
 갖가지 진귀한 보배
 온갖 기이한 재업(財業)
 명주(明珠)와 벽옥(碧玉)
 코끼리와 말의 수레
 지극히 많고 많으며

소, 돼지, 닭, 집오리 등
 갖가지 가축
 수시로 번식해 불어나고
 논이나 밭을 경작하는
 남녀노비 헤아릴 수 없고
 백천억 가지 일
 엄격하게 변별해 처리했나이다.

또한 왕의 신임을 얻었고
 국주(國主)처럼 위엄 갖춰
 한 성의 모든 대증들
 공경하게 그에게 귀의하고
 주위 군(郡)의 사람들
 멀리서 우러러 공경하옵나니,
 수천가지의 업
 장자로부터 구해져
 이미 지어진 일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부와 위세 이와 같건만

자식 생각에 눈물만 흐르고
 장자는 이미 노쇠하여
 의지력마저 쇠약하게 변하고
 마음으로 날마다
 아들 만날 생각 뿐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부자의 정 마음에 가득하여
 자식의 소식을 물어도
 번민과 한탄한 생각만 더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떠난지 이삼십년
 내가 소유한 재산 광대하건만
 가사 수명이 다할지라도
 말길 자손이 하나 없으니,
 저 장자 생각하기를
 어리석은 자기 자식
 빈곤하고 곤경에 빠져
 수시로 옷과 음식 구하고자
 여러 군현(郡縣) 떠돌면서

어리석은 생각으로
떠돌기에만 급급(汲汲)하고
허기를 채우려는 생각에
이곳 저곳 치달려
자기 살 길 도모하는데,
어떤 때는 얻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얻은 바 없어
타향 땅에 얽매인 채
또한 슬픔만 더할 뿐,
생각이 편협하기에
가시밭길에 몸이 잠겨
떠돌면 떠돌아 다닐수록
조금도 쉴 수 없었지만
점차 알게 모르게
발걸음이 아버지 집에 이르러
들어가서 머뭇거리다가
다시 옷과 음식을 구하고자
한걸음씩 나아가
장자의 저택에 도달해
멀리서 재물과 위세가

지극히 당당한 장자의
 저택을 바라보고서
 그 문전에 이르렀는데
 장자가 사자좌에서
 무수한 시종과 권속을
 주위에 거느린 채
 재산의 출입과 베풀 바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았나이다.
 많은 사람들 주위에서
 금은 보화 계산해
 혹은 장부에 기재하고
 부분 별로 나누어서
 많고 적음을 료량(料量)해서
 출입을 기록하였사옵니다.

그때 가난한 자식
 길가에 기대서 이 모습
 바라보고 생각했나이다.
 내가 어찌서 이 집까지

흘러오게 되었을까
이 저택은 제왕의 것이나
태자의 것이리니,
만일 아무 연고도 없이
붙들리면 핍박을 당하리
재빨리 달아나서
다른 곳에서 구걸함만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한 궁자
속히 벗어나고자 했으나
세간에 가난한 궁자를
반기는 사람 없나이다.

그때 장자는
사자좌에 앉아서
저 멀리 그 자식을 알아보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서
주위의 시종에게 명해
달아나는 궁자 좇아가
잡아 오라고 했사오니
시종은 명령 받고

쫓아가서 데려오고자 했으나
 궁자는 두려워 땅에 쓰러져
 마음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어찌서 잡아가는 걸까.
 부유한 장자는
 이 모습 바라보고서
 지극히 하열한 저 궁자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아차리지고 못하고
 또한 회의에 빠져
 재물과 보물을 살피지도 못하는 것 불쌍하여,
 장자는 달래기 위하여
 구족하게 갖춰 말하였네.
 자마금(紫磨金)이 있어
 여기에 쌓여있으니
 그대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노라.
 먹을 것도 갖춰있어
 온갖 사람 두루 받아들여

일을 나누어 맡기노니
 내게 갖춰진 온갖 보물
 썩을 정도로 쌓여있노라.

그대에게 분(糞=똥)치우는 일 할당하니
 먹는 것만 원하지 말고
 편리한 만큼 마음대로
 취해 쓰도록 할지니
 축재한 바가 많지만
 헛되게 쓰지는 말 것이니라.

그 사람의 이와 같은 말씀에
 자식은 찾아가서
 명령 받들어 시행했고
 장자의 말씀 봉행하여
 조금도 어기지 못했어라.
 궁자는 곧 저택에 들어가
 그 명령대로 행하였나이다.

그때 장자는
 멀리서 창문을 통해

궁자의 일하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였는데,
 비록 내 자식이기는 하나
 지극히 하렬(下劣)하고
 오로지 이해타산에만 밝아서
 수레 관리 하는 일 감당할 뿐이라.
 루(樓)에서 이렇게 내려보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넓은 옷으로 갈아입고
 아들에게 찾아가서
 촉발시키기 위해 말했네.

말은 일 제대로 처리하면
 지극히 얻기 어려운
 직위를 내리고자 하노니
 그대에게 덕을 베풀어
 손과 발 안마해 주고
 맛있고 훌륭한 음식
 공급해 먹게 하고

책상이라든가 침구,
 말을 타기에 부족한 것
 그때마다 공급해주고
 처자도 구해 얻어주고
 장자는 이렇게 점차 가르쳤으니
 자식은 일을 나눠맡고
 장자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마음에 의심 없었나이다.
 점차 명령을 내려
 집 안으로 끌어 들여
 재산 관리도 맡게 하여
 계산하기 어려운
 공결(空缺)한 일마다
 차서 넘치게 되었으니
 아들 하는 일마다
 때로 채찍질 하기도 하며
 진기한 보배, 명주, 류리(琉璃)
 모두 수검(收檢)하여
 창고 속에 저장하게 하고
 일체소유 모두 계산하고

재산의 증식과정

알맞게 헤아려 나가니

장자는 어리석은 궁자 위해

별도로 작은 창고 지어주니

아버지와 같지 않게

바깥에 처하게 했나이다.

그때 궁사(窮士)

마음 속에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나처럼

창고가 있지 않다

이에 아버지는

그가 생각한는 바를 알고서

스스로 끝없는 세도

얻었다 생각하는 까닭에

곧 궁자를 불러 들여

직접 살펴 보고서

소유재산 부족하기 위해

다음같이 말했사오니

지금 나의 무수한 모든 재산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
여기에 모인 대증과
국왕 앞에서
장자, 범지, 균자등
원근대소 사람들에게
이제 내 아들임을 밝히오니
아버지를 저버린 채
타향 땅에서 구걸하면서
지극히 빈곤하게 지내다가
이제야 비로소 귀가하니
이들과 헤어진 기간
무려 이삼십년
오늘에야 이곳에 다시 와서
겨우 상봉하게 되었나이다.
지난날 어떤 성에서
내 자식 잃어버렸다가
여기에서 찾았더니
자연히 제 발로 돌아왔으니
나의 모든 재물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모두 현재하여
 이와 같이 완비하였나이다.
 일체 모든 재화
 관리들이 운영하다가
 아버지의 기업(基業)
 자식이 기쁘게도 돌아와서
 미증유 얻게 되었사옵니다.
 본래 빈궁하여
 소재를 알지 못하다가
 아버지는 자식이 지극히
 하렬(下劣)한 줄 알아
 탕장(幣藏=재화를 간직하는 창고)을 얻게 하였으니
 오늘에야 평안하게 되었나이다.

위대하신 영웅 도사께서는
 저희들을 교화하시오니
 하렬한 성품 살피셔서
 소송법 즐거움을 아시어
 저희들을 생사에서 벗어나

안온하게 이끌기 위해
 곧 수기의 말씀을 내려
 미래에 성불하리라 하시니,
 이제 저희들은 안주하여
 많은 행을 갈고 닦아
 무수한 보살
 무량한 지혜로 인해
 위 없는 도 시현했고
 반연(攀緣)따라 칭찬하고
 무수한 비유의 가르침
 곧 받들어 봉행하여
 존귀한 대도 흥립하고
 증생의 안목이 되었으니
 저희들은 이 법 듣고서
 수승하게 되었나이다.
 마땅히 세간에 있어서
 부처님의 도 성취하여
 성스런 존재가 되어
 이와 같은 업을 지으리이다.
 장차 이 불법을

옹호하고 받들어
 뛰어난 여래의 지혜
 널리 강설하여
 일체 중생 감동시키고
 저희들은 부족한 마음이지만
 불도에 뜻을 두겠나이다.

가령 이 불법의 바다
 가르침 얻어 들어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여래께서는 지혜로
 수승하게 살펴 보시어
 그에 맞게 도를 펼쳐
 생각으로 누구나
 도탈(度脫)하게 이끌었건만
 이와 같은 여래의 지혜에
 뜻을 두어 구하지 않았나이다.
 또한 성인 말씀들으니
 불국토에 뜻을 두어

환희심 발하지 않는다면
 적연(寂然)한 무루법 저버려
 여래가 멸도한 이후에
 이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부처의 도 이루지 못하리니
 항상 수행하여
 밤낮으로 교만심 버려
 부처의 도에 계합하여
 가장 수승해 위가 없어
 일찍이 권조(勸助)않았기에
 저것에 뜻을 두었사오니
 오늘에야 마침내
 구족하게 가장 수승해
 무한(無限)을 얻게 되어
 마땅히 음개(陰蓋)를 버리고
 오래도록 정진 거듭해
 공의 이치 닦아
 삼계(三界) 해탈하고
 고통을 씩없이 소멸시켰고
 여래께서 내리신 계율

구족하게 지켜 장엄하였사오니
 이와 같이 조금도 모자람없이
 경전에 담긴 여래의 지혜
 수승하게 펼쳤사옵나이다.
 가령 어느 누가
 부처의 도 평등하게 원해
 이런 까닭으로
 법사(法事)를 더욱 내리옵고
 이와 같은 인연으로
 불법 더 한층 흠모하나이다.
 위대하신 도사(導師)께서는
 세상을 주선(周旋=두루 다님)하셔서
 모든 부류 두루 관찰하시니
 두려움에 떠는 증생으로 하여금
 의(誼)와 이(利) 얻게 하여
 권조(勸助)를 구하게 하고
 불법을 믿게 하기 위해
 방편을 뛰어나게 베푸시니
 마치 아버지가 그러하듯

비유컨대 장자는
 크게 부자가 되었고
 집에 돌아온 자식
 하렬(下劣)하고 증핍하기에
 재물과 보배로서
 베풀어 나누어 주었나이다.

위대하신 성인 도사께서
 희유한 법 일으키시어
 뛰어난 방편을 베푸셔서
 제자(諸子)의 무리
 하렬(下劣)한 것에 뜻을 두었기에
 수행하고 선정 익히고
 불법을 베풀었사옵니다.
 저희들은 오늘에야
 백천가지 미증유법에
 이르게 되었사오니
 마음이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교화를 입었기에

도의 보배 얻게 되어
 제일 청정해지매
 오랫동안 익힌 습기 떨어내고
 다시 무루(無漏)하게 되고
 계율지켜 선정뒀고
 장차 불법을 외호하여
 세간의 영웅께서 내리신 가르침
 부처님의 위대한 도
 오늘에야 얻게 되었나이다
 주위에서 권속이 둘러싸고
 빼놓음 없이 수행하고
 그 기나긴 어둠 속에서
 청정하게 범행지켜
 법왕에 의지하여서
 심원한 지혜 구족하고
 이 존귀한 덕의 과보
 나날이 미묘해져서
 모든 번뇌 소멸되었사오니

저희들은 오늘에
 비로소 성문이 되어
 다시 가르침 얻게 되매
 위로 불도 존승하고
 깨달은 성인의 음성
 항상 들어 받드오니
 범음을 들은 까닭에
 두려움에서 벗어났사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아무런 집착없게 되어
 조금도 집착하지 않기에
 여러 하늘 위해 설하고
 세간 사람이나 마왕
 범천 위해 설법하고
 모든 증생들과
 가깝게 지내오니
 어디에 명색(名色) 있으리오
 적연(寂然)하게 지내
 무수억겁 동안에 걸친
 증생의 때 지워내고

이어 만나뵙기 어려운 세존
 세간에서 희유하신 어른
 직접 친견해 뵈옵고
 오늘에야 집착없게 되어
 죄를 소멸시켜 피안에 이르고
 수행에 정진 거듭해
 떨듯이 환희하옵나니
 저희들은 성인께 귀의해
 정수(頂受)해 받드오니
 발원이 구족하게 되어
 저 강변의 모래알처럼
 음식과 의복 두루 갖춰
 거억(巨億)의 침상과 침구
 아무런 때, 흠이 없고
 전단향을 사용해 방을 짓고
 부드러운 좌구(坐具)를
 그 위에 펴서 깔았나이다.

만일 병 걸린 자 있거든

무수한 약품이 마련되어 있고
 금일에 공양올려서
 안주하게 하여 널리 제도하고
 베풀은 겁수는
 강변 모래알처럼 무수하고
 이렇게 세운 뜻은
 결코 빼앗기지 않사오니
 고원한 법
 무량하고 무한하나이다
 신족통(神足通) 구족해
 법력으로 건립하고
 여래는 대왕으로서
 무루(無漏)의 수승한 어른이시고
 굳건하게 일체를 감당하고
 항상 확고하게 수행 닦아
 화평하게 정진 거듭하오니
 항상 시절인연에 따를 뿐
 망상으로 복을 구하는 일
 일찍이 나서지 않은 채
 일체 세간에 있어

제법 가운데 존귀한 존재
 수승한 여래께서
 광대한 등불 밝히어
 무양수 중생에게 제시함으로써
 못 중생들에게 근력(筋力)의
 소재 알게 하사오니
 중생이 즐기고 원하고 바라는
 백천가지 인연 따라
 수순해 개화(開化)하나이다.
 여래께서는 모든 중생의
 성품과 행동 아시옵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일체 중생 꿰뚫어 보셔서
 약간의 행을 베풀고
 법을 시현하심으로써
 불도(佛道)를 받들게 하셨습니다.

5. 약초품(藥草品)

그때 세존께서 대가섭과 여러 년로(年老)한 성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사실 그대로 찬탄했구나, 그대들이 말한대로 여래의 공덕은 몇 곱절로 무수한 불가사의여서 겁동안 계량한다 해도 할 수 없나니라. 하나 하나의 증생에 성인께서는 감응하니 여래의 지혜는 한량없어 어떤 생각도 도지(道地)에 처하여 다하지 않음이 없나니라. 세존은 일체에 두루 들어가셔서 세간을 살펴 증생들의 마음을 관찰해 일체를 지극하게 분별하여 방편의 지혜를 통해 결단하게 하느니라. 일체 증생을 이끌어 피안으로 인도하시니 널리 지혜를 현시해 지혜에 통하게 하느니라.

비유컨대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 온갖 약초, 대나무, 갈대숲 등 크고 작은 여러 나무가 있고 뿌리, 줄기, 가지, 잎, 꽃 열매의 색은 종류마다 갖가지이니 모두 땅에서 자라나고 높은 산이나 암석 사이, 언덕이나 흙더미, 계곡이나 갭도에서 생장하느니라.

그때 비가 크게 내려 두루 윤택하게 쏟아지매 그 종류에 따라 제각기 무성하게 자라 마침내 여래를 향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자기 자리를 얻지 않음이 없느니라. 비가 한번 내려 불국토를 두루 적셔 모든 나무들이 제각기 생장해 조금도 차별없이 윤기를

흡수하느니라.

여래는 정각으로 인해 오묘한 법을 흡사 비 내리듯 설법하시나니, 위대한 선인이 세간에 출현하실 때 모든 하늘, 대중, 아수륜, 귀신, 룡이 현란한 광명을 찾아 여래의 처소에 모두 모여 들었나니 대음(大音)을 펼쳐 지혜로서 분별하시고 대사자후로 광명의 유래를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여래의 사신이 됨이라. 천상천하의 여러 하늘과 세간 사람 가운데 제도되지 아니한 자를 제도하고 벗어나지 못한 자를 벗어나게 하고 편안하지 못한 자를 편안하게 하고 멸해서 제도하지 못한 자를 멸하고 제도함을 얻게 하리라.

이어 현세와 후세를 살펴 심원한 지혜로 두루 보았더니 모든 제도되어야 될 자를 제도했고 모든 벗어나야 할 자를 벗어나게 했으며 모든 편안하게 해야 할 자를 편안하게 했고 멸하고 제도하지 못한 자를 다 멸하고 제도하게 하였느니라. 이들 모두 여래를 찾아왔으니 그때 온갖 하늘 대중 아수륜 * 건담화 * 가류라 * 진타라 * 마휴륜 모두가 운집했다. 이에 여래는 법을 강설해 그 도를 현시하였으니 부처님은 도의 어버이로서 도의 지혜를 말씀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실 때 무수억해(無數億垓)의 무리가 와서 청법하였느니라. 여래께서는 일체의 근본

을 꿰뚫어 보시고 크게 정진해 감응한 바대로 설법하시니 무량한 말씀으로 분별해 말씀하셨느니라. 본심(本心)을 잃지 않고 모두 환희해 아무런 근심없이 안온하게 되어 혹 세간에서 벗어나기도 하였으니 종생(終生)토록 좋은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즐겨 제각기 자연히 생했느니라. 혹은 애욕의 습기를 익혔기에 이에 맞게 설법하기도 했고 혹은 청법해 법을 받들어 모든 탐욕과 미혹을 떠나기도 했으며 점차적으로 순종하여 모든 지혜에 통하였느니라.

본력(本力)으로부터 인하여 그 능력(能力)과 역량(力量)에 따라서 견고하게 평등법신(平等法身)을 성취하였으니 마치 큰 비가 내리는 것과 흡사했느니라. 두루 불세계(佛世界)를 번성하게 육성하고 양생하여 평등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게 여래께서 연설하는 법은 하나의 법이고 이와 같아서 해탈의 맛이고 욕망을 떠나 적멸에 이르게 해서 모든 것을 통달한 지혜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만약 듣고 받아서 가지고 소리 내어 읽고 외우고 받드는 자는 스스로 지혜를 깨닫고 관념(觀念)하지 아니한 바가 없으리라. 왜냐하면 증생은 근본적으로 형상으로 드러나있어 상념하는 바와 같이 이미 생각했기에 가히 행해지고 행할 바가 비로소 행해지느니라. 증생의 여러 인연, 마땅히 이루어야 할 바 마땅히 말하는 바를 여래는 모두 알아 그것이 현현한 곳에 있고 그 땅에 함께 머무느니라. 예컨대 비가 평등하게 약초, 총림, 흰 것,

검은 것, 푸른 것, 붉은 것, 상증하 나무에 고루 내리나니.

세존은 이와 같이 한 맛으로 보고 있나니, 해탈에 들어가 멸도에 뜻을 두고서 제도 못 받은 중생을 제도해 마침내 멸도하게 하느니라. 하나의 땅(一土)에 이르게 하여 하나의 동일한 법을 맛보게 하며 아무런 두려움도 없게 하여 해탈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중생을 교화하여 불법을 즐겨 믿게 하여 기르고 보호하여 모두 근본지혜에 통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분별해 성현의 법을 찬탄했으니 또한 예전에도 가섭의 말과 같이 찬탄했느니라.”

세존께서는 이 뜻이 의미하는 바를 거듭 펴기 위해 계송으로 읊으셨다.

여래는 세간에 나투어
 인자한 법왕의 자격으로
 중생 위해 설법하노니
 그 즐겨 믿는 바에 따라
 용맹하게 대업 세우기 위해
 오랫동안 두루 설했노니
 많은 중생 수지하여
 여러무리(蒸庶) 아무 말 없어
 법왕의 지혜 난해하기에

설령 어리석은 자 듣는다 해도
 증생은 의심 품으리니
 앓은 자리에서 달아나리라.
 이에 경계에 맞게 설해
 본력(本力)으로 감당할 만큼
 또한 큰 번갯불을 놓아
 곳곳에 윤기가 가득한데
 거듭 우뢰소리 울려 퍼지매
 증생이 모두 환희하나니
 해와 달 음폐하여
 열기 내려 청량하고
 감로비 내리기 위해
 구름 모았다가
 제때 평등하게 쏟아져
 불국토 곳곳에 방류하여
 곳곳마다 물로 적시누나.
 때에 맞게 강우 내리매
 모든 땅 크게 윤택해져
 메마른 계곡 물로 넘치고
 모든 것이 물에 적셔지니

그 혜택 곳곳에 미쳐
 깊은 계곡 넓은 들
 산기슭이나 깊은 수풀
 도처에 물이 흘러 넘치나니
 잎사귀 푸르게 돋고
 약초는 무수하게 생하고
 유목(楸木) 총림 속에
 크고 작은 나무 자라고
 온갖 약초 무성하고
 즐기, 꽃, 열매 번성하니
 그 경계에 알맞게
 수분의 혜택 입는구나.
 여러 큰 수목
 협애하게 뒤엉켜
 그 중에 이와 같은 사도(邪道)
 모든 어리석은 무리
 갈수록 속박만 더하나니
 코끼리가 고삐에 묶인 듯
 거칠은 가시나무와 갈대

즐기, 곁가지
 꽃과 열매 무성하여
 크게 이익이 되나니
 감로수의 은택 입어
 약초는 더욱 증장되고
 그 종류와 본래 경계에 따라
 각각 알맞게 윤기 얻어
 기갈 채워 포만하니
 이와 같이 그 종류에 맞게
 각각 알맞은 수분 얻지만
 그 천연의 감로비는
 모두 한 맛이로다.
 가섭에게 고하노니
 여래 또한 이와 같이
 세간에 몸을 나투어
 감로수처럼 법문 내려
 천하에 불법 나타내시어
 대중을 위해 설법하나니
 진실한 행을 통하여
 중생에게 법을 내리노라.

대선(大仙)은 이와 같이 하여
 경전말씀 듣게 함으로써
 여러 하늘과 대중 앞에
 나타내 보이니
 여래는 성증지존(聖中之尊)으로
 뛰어나게 방편 활용해
 마치 하늘에서 비 내리듯
 어리석은 일체중생(群萌)
 몸이 수척하고 말랐지만
 온갖 고뇌 제거하게 하여
 크게 편안함 얻게 하고
 애욕을 남김없이 소멸시켜
 멸도에 이르게 하노라.

여러 하늘과 대중들아
 내 말 경청할지니
 모두 여기 찾아와서
 위대한 성인 친견하여라.

나는 여래로서
 세간에 견줄 존재 없어
 증생을 이끄는 도어(導御)이므로
 세간에 몸을 나타내어
 일체 존재를 위하여
 경전을 분별해 설하노니
 무수한 증생 교화하고
 또한 다시 나타내시어
 약간의 뜻에 따라
 저곳에서 이와 같이
 항상 평등하게 행해서
 해탈, 멸도, 무위(無爲)에
 도달하게 하였나니라.

혹은 문전에서 경전을 설했으나니
 도덕의 장경(藏經) 조립하고
 평등하거나 불평등한 것을
 모두 평등하게 이끌어
 증감됨이 없게 함으로써
 애욕이 길이 소멸되었노라.

일찍이 강설할 때마다
 이익 베풀지 않음이 없었고
 인연 빠져 방일했더라도
 미워한 일 없었노라.

모든 법을 중생위해 설했으니
 가령 중생으로 하여금
 헤아리라 해도 할 수 없고
 대전(大典)을 강법하여
 인연에 어그러짐 없이
 행하나니
 또한 다시 건립하고자
 사자좌에 앉은 채
 삼매에 계속 들어가
 일체 세간에 있어서
 지혜 구름 운집하게 하여
 법의 비 내리 노니
 미묘한 뜻 퍼게 하여

병에 따라 약을 주고
 항상 증생을 위해
 모두 받들어 지키게 하노라.

비유컨대 천음(天陰) 청량해
 증생들이 실언(失言)하고
 행동을 어길지라도
 법에 가깝게 이끌고자
 점점 조복해 부드럽게 하고
 의심 품은 자를 유도해
 샷된 소견 버리게 함으로써
 교화해 이롭게 인도하고
 그를 청정하게 하여
 하열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게으른 무리로부터 떨어져
 그 나아가는 바에 따라
 불법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때에 맞게 설하고
 증생의 근기에 맞게
 베풀어 샷된 마음을 버리게 하고

사자의 행에 수순케 하니라.

세존께서는 평등하게
 법의 감로수 전개하시어
 일체 존재에게 이르게 하노니
 지극히 존귀한 불도
 각각의 근기에 알맞게
 청법해 수용하게 하노라.

약간의 도와 지혜로
 여러 하늘과 사람이
 즐기는 뜻과 성품에 맞게
 교화를 두루 베푸노니
 천제석범(天帝釋梵), 전륜성왕 등은
 흡사 이 소세계(小世界)의
 갖가지 약품 종류와 같이
 제각기 다르지만
 작게 분쇄해서
 여러 양약 되었나니라.

가섭아, 또한 잘 들을지니
 내 모두 설하겠노라
 무루(無漏)의 법
 능히 아는 지혜로
 곧 무위(無爲)를 얻어
 곳곳을 유행(遊行)하는
 신통 삼달(三達) 이와같나니라.

이 비에는 뜻이 정해져 있으니
 삼매의 여러 약에 있어서
 혹은 두루 유력을 다니다가
 산속 바위에 처하여
 그 사람이 곧
 일각승(一覺乘)의 인연 얻어
 저곳에서 선을 닦아
 청정한 행 실천하니
 그를 이름하기를
 중품(中品)의 약이라 하노라.

가령 뜻을 크게 인도해
 상사(上士)의 미덕에 두게 하고
 내가 응당 세간에 나투어
 그의 도사가 되어
 항상 정진행을 닦고
 한마음에 뜻을 두게 하니
 이를 일컬어
 상존(上尊)의 약이라 하노라.
 설령 어느 누구로 하여금
 마음에 안주하게 하여
 자비심에 의지한 채
 적연(寂然)의 이치 행해
 속히 도를 이루어
 인중존(人中尊)이 되리라.

소위 나무라 함은
 이에 비유함이나니
 이는 능히 전륜(轉輪)하여
 불퇴전의 지위에 올라

신족(神足), 근력(根力) 건립해
 이에 인연하여 장양(長養)하나니,
 의약(醫藥)으로 병을 제거해
 영웅께서 무수억 증생
 제도해 구제했노라.
 때에 맞게 나타내시니
 이 불도를 일컬어
 대림수(大林樹)라 하노라.

나의 발원은
 수승한 방편 펼침이니
 모든 위대하신 성인
 또한 마찬가지로.
 수승한 법 강설하여
 평등하게 고루나니
 마치 구름이 잔치하듯
 두루 감로수 내리는 것처럼
 그 신통력이 이처럼 걸림없노라.

이와 같은 온갖 약

지상에 있으며
 이처럼 미묘한 뜻 보고서
 여래는 방편을
 뛰어나게 건립하였나니
 가령 일선법사(一善法事) 분별함
 또한 하늘의 비 내림과 같아
 여러가지 유형의 존재
 여래의 범우 내리매
 크게 안온함 느끼고
 천하가 두루 적셔져서
 성취함이 있게 되느니라.

그 사람 관찰해서
 감당할 바에 알맞게
 법의 가르침 펼치노니
 그래서 한 맛으로 평등하게
 비유컨대 비가 내려
 산속 풀이나 바위
 그 어느 곳이든 간에

조금도 치우침이 없이
 온갖 산천초목 적시듯
 광대한 총림 위에
 사방에서 구름 운집해
 천하가 풍요롭게 되니
 가령 세간 증생으로 하여금
 자비의 법 행하게 하여
 항상 경전 가르침으로
 천하를 포만(飽滿)하게 하니
 현세간의 증생이 두루
 안온함 얻게 하노라.

하늘에서 약초에 비 내리매
 꽃과 열매 무성해지고
 약이 되는 나무
 점차 장대하게 자라니
 이는 나한에 해당되노니
 모든 번뇌가 다한 경우니라
 여러 연각(緣覺)의 품(品)
 무성한 숲속에 처하나니

여래가 펴는 설법
 조금도 때가 없느니라.
 무수히 많은 보살
 뜻이 열리고 총명해
 삼계를 두루 주선(周旋)하여
 일체행 두루 닦아
 대중 모인 가운데에서
 이 대도(大道) 연설하는구나.
 마치 수목이
 나날이 생장 거듭함과 같나니
 신족(神足)을 증장하고
 오로지 사선(四禪)에 통달했노라.

만일 공의 지혜 듣거든
 마음으로 통하게 되어
 무수억천 세계에
 광명을 놓아 방출하니
 이를 대수(大數)라 일컬으니
 또한 계속해서 생장하리라.

예컨대 여러 성문이
 멸도에 이르지도 않은 채
 여기 세존께서
 제일의 법문 설하매
 이를 분별해 수용하고 나서
 비로소 강법을 펼치니
 마치 운집한 구름이
 감로수 쏟아 부어
 온갖 약초, 약이 되는 나무
 점차 생장 거듭하고
 증생의 윤택 헤아릴 수 없어라.
 어느 때에 이르러
 대중을 위하여
 인연법을 전개해서
 불도를 나타내고자
 방편을 자재하게 펼쳐
 부처님의 말씀 전하나니
 일체 도사(導師)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한 바는
 구경의 뜻 담긴 것이니
 여러 성문들은
 모두 이 가르침 받들고
 이에 인연해 행을 닦으니
 반드시 여래의 행 얻으리라.
 여기 여러 나한들도
 이와 같이 차이 없으니
 세존께서 펼친 그 뜻
 이에 극진하게 일칭되나니
 소승의 무리 교화하여
 모두 불도 얻게 되나니라.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대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여래의 가르침은 평등해 아무런 차별이 없나니라. 비유컨대
 해와 달이 천하를 널리 비출 경우 그 광명이 밝거나 어둡거나,
 높거나 낮거나, 깊거나 얕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향기나 악취
 를 가리지 않고 조금도 차별이 없는 것과 같나니라.

부처님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지혜광명으로 일체 존재

오도(五道)에서 생사하는 모든 보살·연각·성문을 두루 비추어 그 지혜에 조금도 증감이 없어 그 마음에 따라 각각 알맞게 얻게 되나니, 본래 삼승은 없건만 인연의 행에 따라 생겨났을 뿐이니라.”

이에 가섭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삼승이 없다고 하온대 어떤 연고로 보살·성문·연각이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유하건대 도예가가 진흙을 이어 그릇을 만들면 흑감로밀(甘露蜜)을 담기도 하고 때로 소락이나 소마유(蘇麻油), 농음식(醲飮食)을 담기도 하지만, 진흙은 본래 한가지일 뿐이고 만들어진 그릇에 각각 다른 것이 담겨지는 것일 따름이니라.

본제(本際) 또한 한가지로 평등해 조금도 다르지 않건만 각각의 행에 따라 상증하가 성립되나니라.”

가섭이 또 여쭙었다.

“설사 다르게 되더라도 구경에는 합쳐자니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합명자(合明者)만이 할 수 있나니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어서 해와 달, 오색, 십방을 보지 못하니 천하에 오색, 팔방상하가 없는 줄 알았느니라. 이에

반대하여 말해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느니라. 어떤
 량의(良醫)가 그의 병을 살펴 보고, 어째서 눈이 없느냐 하면
 본래 죄로인해 명안(明眼) 명체(冥體)가 떨어져 나가 증병을
 앓게 되었다. 무엇이 증병이나 하면 풍(風) 한(寒) 열(熱)
 벽(癖) 네가지이니라.

양 의는 다음같이 생각했느니라.

‘이 사람의 병은 일반적인 약으로는 결코 치료할 수 없으니
 설산에 네가지 병을 치료하는 약이 있다. 첫째 현(顯), 둘째
 량(良), 셋째 명(明), 넷째 안(安)이 그것이다.’

그때 량 의는 그를 불쌍히 여겨 약을 구하려는 방편으로 설산에
 들어가서 네가지 액을 채취해 뺀고 찢어서 그 장님을 치료했더니
 곧 광명을 보게 되었으며, 또한 침을 놓고 기를 보충했더니 그의
 눈동자는 안팎으로 통철(通徹)하게 되어 일월 광명과 오색,
 십방을 볼 수 있게 되었나니라. 이에 바르게 믿게 되어 스스로
 자책하게 되었으니, 예전엔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면서도 사실대로 보고 듣는다고 착각했지만 지금
 시력을 다시 회복하였기에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이 심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는 원근(遠近)이나 고하(高下)를 보는데
 자신 보다 나은 자 없으리라 생각했느니라.

그때 오통(五通)을 이루어 한가로이 지내는 선인(仙人)이 있었었는데 선인은 보고 듣는 것을 꿰뚫었고 몸은 날아 다녔으며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능히 알아 그 소종래(所從來)와 생사의 본말(本末)을 알았으니, 선인이 그에게 말했느니라.

‘그대는 그 정도로 기고만장하지 마라. 그대가 집에 갇혀있으면 밖으로 나올 수 없어 바깥 일을 알 수가 없다. 선이나 악을 생각할 때 십리, 오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말소리의 경우 이십리 밖에서 북치는 소리는 들을 수 없으며 일리 혹은 이리를 한걸음에 뛰어 넘을 수도 없으며 또한 어머니 뱃속에서 배태(胚胎) 당시의 기억을 되살릴 수도 없거늘 이에 어찌 통달했다 하여 보지 않음이 없다 하겠는가. 내가 그대를 살펴 보건대 어두운 것을 밝다 하고 밝은 것을 어둡다 하는구나.’ 이에 그 사람이 물었느니라.

‘어떤 방술(方術)을 익혀야 이처럼 신성한 신통을 얻을 수 있는지 지혜를 내려 가르쳐 주옵소서.’ 선인이 답했느니라.

‘응당 깊은 산속에 들어가 홀로 한가롭게 처하여 여러 정욕을 제거해야 비로소 신통을 얻을 수 있으니, 가르친 바를 준수하여 집을 떠나 바위 밑에서 일심으로 오로지 정진해서 아무것도 흠모해 구함이 없으면 신통을 얻어 곧 스스로 깨닫게 되나니라.’

이렇게 해서 본래 본 바를 살펴보건대 말로 다하기 어려우니
오통(五通)을 얻으면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 스스로 근본을 알게
되어 그 가려진 바를 보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생사와
오도음개(五道陰蓋)가 있어서 본래없는 이치[本無]를 요달하지
못했기에 어리석다고 일컫느니라.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행동(行)을 일으키고 행동으로부터 식(識)이 일어나고
식으로부터 명색(名色)이 일어나고 명색으로부터 육입(六入)이
일어나고 육입으로부터 경(更)이 일어나고 경으로부터 통(痛)이
일어나고 통으로부터 애(愛)가 일어나고 애로부터 수(受)가
일어나고 수로부터 유(有)가 일어나고 유로부터 생(生)이
일어나고 생으로부터 노병사(老病死) 우뇌고환(憂惱苦患)이
일어나나니 죄가 집적되어 쌓이므로 이를 맹명(盲冥)이라
일컫느니라.

다라서 세존께서는 그 사람이 삼계에서 끝없이 윤회에
부침하여 스스로 빠져 나오지 못함을 가엾게 여겨 중생 마음의
근원을 관찰해서 그 병에 가볍고 두터움이 있으며, 번뇌의 때에
얕고 깊음이 있으며, 그 이해 정도에 있어 쉽고 어려움이 있으며,

보는 바에 있어서도 멀고 가까움이 있으므로, 곧 삼승의 가르침을 펼쳐 보살의 마음을 발하게 하여 속히 부처의 경지에 이르도록 이끄나니라. 예컨대 밝은 눈을 얻어 신선이 됨과 같으니 량의는 여래에 해당되고 광대한 뜻을 내지 못함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경우에 해당되느니라.

탐욕 · 음란함 · 성냄 · 어리석음 등 륝십이가지 소견[六十二見]은 네가지 병에 해당되고 공(空) · 무상(無想) · 무원향(無願向) · 니원문(泥洹門)은 네가지 병과 마찬가지로이니라. 약을 써서 병이 낫으면 어리석음이 없게 되나니 명색 · 륝입 · 통 · 애 · 수 · 유 · 생로병사 · 우뇌고환이 모두 소멸되리라. 생각으로 선도 짓지 않고 또한 악에 뜻이 있지도 않게 되리니 예컨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이 다시 두 눈을 얻음과 같느니라.

예컨대 성문이나 연각이 생사를 이미 소멸시켜 삼계를 벗어나 오도(五道)세계를 깨달아 스스로 통달하게 되어 그 보다 나은 이가 없게 되리라. 멸도에 임하고자 한다면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셔서 법으로서 가르쳐 보살품을 발하게 하리니 생사에 있지 않으며 멸도에 머물지도 않아 삼계가 공한 줄 알고 십방세계 일체가 허깨비, 꿈, 아지랑이, 깊은 산속 메아리 처럼 아무것도 있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취함도 버림도

없으며, 어두운 무명도 없어져 비로소 심도있게 보게 되어
 통달하지 앎이 없고 보지 못하는 바가 없으리니 일체 증생의
 온갖 조짐을 잃게 되리라.”

이어 세존께서 계송을 읊으셨다.

비유컨대 해의 광명이
 천하를 두루 비출 때
 그 밝음 아무런 증감없고
 또한 좋고 나쁜 것마저 가람이 없나니
 여래도 이와 같이
 그 지혜 해처럼 평등하게
 일체 증생 두루 교화해서
 조금도 증감함이 없느니라.
 예를 들어 어느 도예가가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 때
 흑 감로밀 담겨지기도 하고
 대로 소유(蘇油) 담겨지기도 하니
 진흙은 본래 한가지이건만
 그릇마다 각각 상이하게

수용되는 바가 다르니
 담긴 물건에 따라
 그릇 명칭이 세워지느니라.
 사람 또한 이와 같이
 삼계나 오도가 원래 없건만
 그 행에 따라 태어나서
 유전 거듭해 자각하지 못하느니라.

공을 이해하면 보살이라 일컬고
 중(中)에 머무르면 연각이 되고
 공에 의지해 지혜를 오를진대
 성문이라 일컬어지나니
 비유컨대, 태어나면서 장님이면
 해와 달의 광명 못보고
 오색, 십방세계도 보지 못하기에
 아무것도 없는 줄 착각하느니라.
 량의가 본래 까닭 탐문해
 네가지 병의 음개(陰蓋) 알아내어
 자비로 그를 불쌍하게 여겨
 약을 구하고자 산에 들어가

기이한 약 채취해 치료하니
 약의 이름 현(顯) · 량(良) · 명(明) · 안(安)
 네가지 약을 잘 배합해서
 맹인을 치료했고
 생리적인 소식(消息)하여 침을 놓았더니,
 병이 나아서 눈이 밝아져
 해와 달, 오색을 보게 되자
 눈이 어두운 줄 알았나니라.
 사람은 본무(本無)의 이치 몰라
 생사의 소굴에 떨어졌기에
 십이인연에 속박당하면서
 고통의 처음과 끝 알지 못하니,
 이에 세존께서 세간에 출현하시어
 삼세 속박의 조원 관찰하여
 그 병통에 의하여, 그 본(本)에 따라
 각각 알맞게 개화시켰나니,
 공 도리 요득하면 보살되고
 뜻이 하렬하면 연각이 되고
 생사의 괴로움에 압박당하는 까닭에

성문 경지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스스로 도와 덕 높다고 자처해
 자신보다 나은 자 없다 하니
 보는 바가 지극히 구련(究練)해
 아무 장애 없는 줄 착각하지만
 예컨대 오통(五通)을 성취한
 선인(仙人)이 그에게 충고하기를
 그대는 안목이 가로막혀있어서
 심오한 도리 보지 못하나니
 어리석으면서도 밝은 줄 여기는구나.
 밝은 곳에서도 어리석을 따름이니
 수십리 밖에서 나는 소리
 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어느 누가 해치고자 하더라도
 그의 생각 알아 차리지 못하고
 몇 리 떨어진 곳 갈 경우에도
 걸음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커서 장성했을 때에는
 태증의 일 알지 못하고

다섯 가지 일[五事] 표리 꺾뚫어야
 비로소 모든 것에 통달하리니
 그럼에도 무슨 까닭으로 건방지게
 누구도 견줄 수 없다 하는가.

만일 오통을 얻고자 하려면
 반드시 한가한 곳에 처해서
 정신 모아 도에 전념하여야
 비로소 이 도리에 밝아지리니
 그 가르침을 찾아 받들어
 집 떠나 깊은 산에 들어가
 잡된 생각 없이 일심이 되면
 곧바로 신선이 될지니라.

만일 성문의 경계에 이르고
 연각승을 성취하면
 저절로 지혜가 갖추어져
 여래와 평등하게 널반에 이르러
 멸도의 시간에 임하게 되면
 부처님이 그 앞에 현전하시어

곧 보살법을 나타내시고
 삼달(三達)하여 아무런 걸림없고
 지혜로 무극(無極)에 이르고
 훌륭한 방편을 잘써서
 공(空) · 무상(無想) · 무원(無願)을 건너
 보살이 이로 말미암아 생하고
 네가지 평등심 · 은혜를 써서
 증생을 개화시켜
 일체가 헛것임을 이해시키고
 꿈, 아지랑이, 그림자 같고
 깊은 산속 메아리 파초 같아
 삼계는 무소유(無所有)라
 아무것도 집착 않고 또 버리지도 않고
 어리석음도 없고 밝음마저 없고
 생사도 없고 녀반 또한 없고
 일체가 평등해 허공 같나니

 보는 것도 보지 않음도 없어
 이에 비로소 일체의 근원 보노라.
 마땅히 보는 바가 이와같아야
 삼계의 관을 짓지 않으리니

일체가 두루 평등해
끝없이 구제를 펼치리라.

6. 수성문결품(授聲聞決品)

이때 세존께서 이 계승을 읊으신 뒤 여러 비구 대중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내 이제 모두 밝히겠나니 여기 있는 성문 비구 대가섭은 일 짝이 삼천억 부처님께 공양 올렸고 미래에도 이와 같은 숫자의 부처님께 공양 올려 모든 불세존을 받들어 공경하여 정법을 품수 받아 수지해 널리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마친 뒤에 성불하리니 그 세계는 환명(還明), 겁의 명칭은 홍대(弘大), 그 부처님의 명호는 대광명 여래 · 지진등정각 · 명행성(明行成) · 선서(善逝) · 세간해(世間解) · 무상사(無上士) · 도법어(道法御) · 천인사(天人師) · 불증우(佛衆祐)이니라. 수명은 십이중겁, 그 부처님이 멸도한 뒤 정법의 유지는 이십겁, 상법의 유지 또한 이십겁이리라.

그 불국토는 지극히 청정하여 자갈 · 가시나무 · 온갖 예탁(穢濁) · 산릉(山陵) · 계간(谿澗)이 전혀 없어 크게 쾌락하느니라. 땅은 감색류리로 되어있고 나무는 온갖 보배로 되어있고 황금으로 밧줄을 이어 보배 나무를 연결하여 길가에 여덟 겹으로 늘어서 있는데 온갖 보배나무에는 항상 꽃과 열매가 무성하게 자라느니라. 그 불국토에는 백천 무양수 보살들이 있으며 백천억의 성문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 극토에는 마군과 그 권속이 없으

니 마군들은 모두 불법을 외호하면서 항상 정진을 닦아 조금도
어긋남이 없느니라.”

이어 세존께서는 그 뜻을 거듭 밝히고자 곧 계송을 읊으셨다.

부처의 안목을 지니고
내가 비구들을 살펴보건대
여기 있는 가섭
미래에 성불 이루리니
다가올 무양수 겁에 걸쳐
무수한 여래, 성증지존(聖中之尊)
받들어 공양 올려
삼천억 여래 모두 만족하리.
여기 대가섭
모든 번뇌가 다하여
반드시 월도(越度)하리라.
삼품(三品)의 행으로
미래에 부처의 도 얻어
법보시를 널리 펼치고
여러 부처님, 천증지존(天中之尊)

공경하여 공양 올리고자
 함께 모여 자리하여
 위없는 무상대도(無上大道)에 이르리라.
 최후의 세상에서도
 비할 바 없는 성인의 도
 무극(無極)의 신선 존귀하리라.

그 불국토 매우 훌륭하여
 조금도 흠없이 청정하리라.
 약간의 생각으로 원하는 바
 항상 마음에 충족되리니
 자마금(紫磨金)빛
 진귀한 보배로 장엄되고
 또한 기이한 보배
 나무가 되어있는데
 도로에 여덟 겹으로 장엄되나니
 하늘과 사람 향기 뽑어
 저절로 유출되리라.
 저 불국토 이와 같이
 온갖 꽃으로 장엄되어

자마금색의 모든 꽃
 광명과 음성 일으켜
 그 법칙(法則)으로 삼으리니
 항상 미묘한 광경
 보지 못하는 자 없으리라.

여러 보살 대중 천만억
 뜻과 품성 조화로와
 대신통력 구족하였고
 성인과 철인들은
 방등경 받들었나니
 그 숫자 헤아릴 수 없고
 온갖 번뇌 다하였으며
 그곳의 성문들
 여래 받들어 굳게 수지하는 구나.
 저 불법 수승하여
 가령 천안(天眼)으로 하여금
 겁과 기간, 제자의 숫자
 헤아리게 한다 해도

제대로 할 수 없을진저
 그 부처님의 수명은 십이중첩
 정법이 유지되는 기간은 이십중첩
 상법 역시 이십중첩
 대광명불
 그 덕 이와같으리라.

이어 현자 대목건련 현자 수보제, 현자 마가가전연이 똑 같은
 마음으로 일어서서 광명서린 부처님의 존안을 우러르면서 눈도
 깜박거림 없이 여래의 발에 머리 숙여 예를 올리고 나서 전전공
 증하였으니, 그때 각각 다음같이 계송을 읊어 찬탄했다.

위대하신 영웅 아무런 집착없이
 무극을 성취하신
 석가족 출신 법왕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여래의 음성을 선양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에게 수기 내리시오면
 감로수 세례를 입어
 목욕해 청량하리나이다.

비유하옵건대 목이 말라
 맛난 음료수 원할 때
 어떤 사람이 먹을 것 주면
 저희들은 크게 환희하옵나이다.

본래 하렬한 저희들
 시절인연 어기고 대중에서 벗어나
 미혹하옵기에 지혜 못얻었사오니
 평등각깨옵서 현신하사와
 설령 수기를 내리셨건만
 진리의 음식 먹지 못했나이다.

이제 세존께서 쉬지않고
 권면하시는 음성 듣자옵고
 수기 내리는 말씀 듣고
 비로소 크게 편안하게 되었사오니
 지난날 저희의 어리석음
 저희의 소행 어여빠 여기시고
 어리석은 소견 어루만지시어

감로의 수기로 인도하옵소서.

그러자 세존께서는 오래된 제자들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읽고 다시 여러 비구 대증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야 되나니 여기 성문 가운데 원로 수보제는 또한 미래에 팔천삼십억 부처님을 받들어 공양 올리고 부처님 처소에서 항상 범행을 닦아 공덕을 쌓고 구경에 구족하게 되리니 마침내 후세에 성불이루리라.

그 명호는 칭탄(稱歎)여래 · 지진등정각 · 명행성 · 선서 · 세간해 · 무상사 · 도법어 · 천인사 · 불증우이고 세계 명칭은 보성(寶城), 겁의 이름은 보음(寶音)이리라. 그 불국토 곳곳에는 보배나무가 자연스럽게 장엄되고 모래 · 자갈 · 돌 · 산 · 구름 · 계간(谿澗)이 전혀 없으며 그 나무 음성은 애화(哀和), 유아(柔誦)하고 증서(衆庶)의 산업은 헤아릴 수 없으리라. 사람이 머무는 약간의 저택은 중각(重閣)이 무양수하게 교차되고 성문 대증은 한량없어 계산하기 어렵고 모두 숙명(宿命)을 알고 있으리라.

저 불국토의 보살 또한 백천억 헤아릴 수 없고 그 부처님의 수명 십이증겁이고 멸도 하신 뒤 정법의 유지는 이십증겁이고 상법역시 이십증겁이리라. 그 부처님께서서는 허공에 앉으셔서 일체 대증을 위해 정법을 강설하시어 무수한 백천 보살들을 깨우쳐 교

화하리라.”

이어 세존께서는 게송을 읊으셨다.

이제 여러 비구 대중에게
 나는 널리 고하겠나니
 모두 귀 기울여 경청하라.
 여래는 차례로 선언하노니
 나의 제자 존자 수보제
 미래에 성불이루리라.
 위대한 성인의 견해
 지극 정성 조금도 헛됨없이
 삼십 나술해(那術孩) 구족해
 세간에서 도를 받들어 닦아
 항상 이 불도에 뜻을 두리니,
 미래세에 구경에 이르러
 안색이 수승한 삼십이상으로
 위엄이 외외(巍巍)하고
 자마금빛의 용모 빛나고
 청정한 위용으로 처하여

많은 증생 가없게 여기리라.

그 국토 쾌락하여

여래가 세간에 현현하는 모습

무수한 대중이 보게 되면

떨듯이 기뻐하여

저 두 부처님 찾아가매

백천억 증생 제도하리라.

헤아릴 수 없는 보살 대중

항상 널리 설법하여

불퇴전의 법륜 굴리니

지극히 수승한 가르침에

여러 근기 날카롭게 통하여

모두 응당 공경하리라.

저 불국토 가운데

여러 성문의 일

헤아릴 수 없기에

계산하고자 할지라도

제대로 알 수 없으리라.

육통(六通) 삼달(三達)

대신족(大神足) 모두 얻어
 크게 불가사의 하리니,
 가령 내가 불도를 설법하여도
 강변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하늘과 대증들이
 항시 합장한 채
 스스로 성존(聖尊)께 귀의하리라.

그 부처님 수명 십이증겁
 정법의 유지 이십증겁
 상법 역시 이십증겁
 세간의 영웅 도사
 그 겁수 이와같으리라.

곧이어 세존께서는 비구 대증에게 말씀들을 하셨다.

“비구들아, 견고하게 요체를 얻고 평등을 분별하려 하는구나.
 나의 성문 대가전연은 후세에 팔천억 부처님을 받들고 공양 올릴
 것이니 부처님 멸도한 이후 각각 높이 사만리 폭과 길이 이만리
 에 달하는 탐묘를 세워 칠보로 장식하고 금·은·류리·수정·마

노 · 산호 · 벽옥, 화향(華香) · 잡향(雜香) · 도향(搗香) · 증개(繪蓋) · 당번(幢幡)을 탐묘에 바치리라.

이와 같이 팔천억 부처님께서 출현한 뒤 또다시 이십억 부처님께 공양 올린 연후에 래세(來世)에 성불이루리니, 그 명호는 환이자마금색 여래 · 지진등정각 · 명행성 · 선서 · 세간해 · 무상사 · 도법어 · 천인사 · 불증우이리라.

그 국토는 엄정하고 평등해 사악함이 없으며, 명문(名聞) 현현하여 땅은 류리로 되어있고 나무들은 온갖 보배로 장식되어있고 자마 황금으로 밧줄 만들어 나무들은 이어져있고 여러 나무와 꽃, 그리고 열매는 무성하고 꽃은 도처에 만개하리라.

그 불국토에는 지옥 · 아귀 · 축생이 없고 단지 여러 하늘과 대중만이 가득해 층만하리라. 또한 무수한 성문은 백천 나술(那術), 보살들은 무수해 백천이나 되어 국토를 장엄하리라. 그 여래의 수명은 십소겁, 멸도하신 뒤 정법의 유지는 이십중겁, 상법 역시 이십중겁이리라.

이어 세존께서는 게송을 읊으셨다.

여러 비구들아

내 말에 귀 기울여 들어라

그 부처님의 음성

미려하고 유연하리니
 가전연 존자는 내 제자이니
 응당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약간의 도사 받들어
 무량하게 공경하리니
 무수한 세간 사람
 능히 헤아리지 못하리
 만일 멸도한 이후
 응당 탑묘를 건립하여
 꽃이나 향으로 공양하리라.
 그런 뒤 후세에 곧 성불 성취하리니,
 그 국토 청정하여
 조금도 하자 없으며
 불법을 강설함으로써
 천만억 중생 구족하게
 깨우쳐 교화시켜 인도하리라.
 일체 대중과 세계 장엄해
 광명이 십방세계 비추리라.
 미래에 응당 부처가 되어

그 명호는 자금색 여래
 그의 덕은 외외(巍巍)하여
 구경에 백천억 증생
 무수한 보살과 성문
 그 불국토에 가득하여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 정진을 거듭하여
 온갖 곤란 소멸시키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이때 세존께서 거듭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고하노니 여래의 성문, 존귀한 목건련은 팔천 부처님을 받들어 공양 올리고 세존에 수순해 어김없고 부처님들께서 멸도하신 뒤 응당 탑묘를 세워 칠보로 장엄하고 금·은·류리·수정·차거·마노·산호·진주로 장식하여 탑묘의 높이는 사만리, 길이와 폭은 이만리에 달하리라. 약간의 뛰어난 온갖 보배를 탑묘에 공양 올리고 향화·잡향·도향·증개·당번·기악도 공양 올리리라.

팔천 부처님을 이렇게 받든 뒤 또다시 이백만억 부처님을 받들어 공양올리리라. 최후에 이르러 성불이루리니 명호는 금화(金

華)전단향 여래 · 지진등정각 · 명행성 · 선서 · 세간해 · 무상사 · 도
 법어 · 천인사 · 불증우이리라. 국토의 명칭은 의락(意樂), 겁의
 명칭은 락만(樂滿)이리라.

그 불세계는 쾌락하고 안온하고 청정하고 땅은 감색 류리로 되
 어있고 온갖 나무의 꽃과 열매는 칠보로 합성되어있고 곳곳마다
 진주와 꽃으로 장엄되어 있고 평등하고 단엄(端嚴)하여 갖가지
 보배 구족하고 백천억에 달하는 신선과 성인은 적연하게 무량한
 시간 동안 앉아있으리라. 보살들은 널리 경전 가르침 설하리니
 그 부처님의 수명은 이십증겁이리니 멸도하신 이후에 정법의 유
 지는 사십증겁이고 상법 또한 마찬가지로 지리라.”

이어 세존께서는 게송을 읊으셨다.

내 제자 대목건련

세간사람의 일 놓아둔 채

자재함을 얻으리니

여러 겁수에 걸쳐

이백만억 부처님 공양하고

그 가르침 받드나니

여러 부처님 주위에서

항상 범행을 수행하여
 이 불도에 뜻을 둔 채
 불세존 응당 받들어
 도사께 구족하게 수순하여
 성인 가르침 널리 흥포하리라.

약간의 억겁
 백천만겁에도 만나기 어려우매
 대명(大命)을 은근히 받자와
 어김없이 안주하오리니,
 부처님 멸도한 이후
 칠보로 장엄하여
 수승한 탑묘를 건립하리라.
 전단향을 사용해서
 기둥이나 대들보 만들고
 온갖 향, 기악 공양올리리라.

후세에 구경에 이르러
 말씀에 담당하게 빛나
 사람의 추앙을 받게 되매

대증을 가없게 여기리라.

그 하는 바 이와 같아

미래에 성불이루리니

그 명호 금화전단향 여래

부처님 수명은

이십중겁에 안주하여

그 덕행이 이와같아

마땅히 보살들을 위해

경전 가르침 강법하리니,

그 겁수에 있어서

뜻에 맞게 분별하리라

지극히 뛰어난 성문 수천억

강변 모래알처럼 무수하니

륙통·삼달·대신족 얻어

세간에 안주한 채

오묘한 신통 이루리라.

무수한 보살 대증

모두 불퇴전의 믿음으로
 용맹하게 정진 거듭하고
 지혜에 뜻을 두었기에
 이와 같이 수행 닦아
 이 불도 가르침에 수순하리라.
 약간의 천수(千數)
 부처님 멸도하신 뒤
 많은 제자가 배워 익혀
 정법이 유지되어
 십방세계에 류포(流布)되고
 정법과 상법의 유지로
 사십증겁에 이어지고
 정법이 소멸된 이후
 이어서 상법이 출현하리라.
 이 부처님의 성문
 대신족을 얻게 되고
 부처님은 권립(勸立)하여
 세존의 도(道)에로 인도하고
 위대한 성인에 의지하여
 참된 지혜 이기지 않아

미래 세상에 이르러

자재하고 성불하리라.

정법화경 권 제4

7. 왕고품(往古品)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지난날 오래고 먼 과거 헤아리기 어려운 무양수 겁 이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명호는 대통증혜(大通衆慧)여래·지진등정각·명행성·선서·세간해·무상사·도법어·천인사·불증유이니라. 세계 명칭은 대식가(大殖稼), 겁의 이름은 소재형색(所在形色)이니라.

그 부처님께서 경전 설법하신지 한량이 없었으니 비유컨대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땅을 어느 누가 모두 쪼개어 이 한 불국토를 티끌로 만들고 한티끌을 취하여 동쪽으로 일천 불국토에 있는 미진수 국토를 지날 때마다 한 티끌을 떨어뜨리는데, 이와 같은 식으로 한 티끌을 다시 취해서 동쪽으로 일천 불국토의 미진수 국토를 지날 때마다 한 티끌을 떨어뜨리기를 계속하여 이렇게 해서 삼천대천 세계의 티끌을 다하게 하여 동방으로 남김없이 한다면 이와 같이 무량한 불국토를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불국토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에 어느 비구가 답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계산할 수 없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불국토의 숫자는 아득하게 많나니라. 예컨대 어느 누가 티끌을 떨어뜨린 국토를 하나하나 취할지라도 모든 불국토의 티끌은 헤아리기 어려우니라. 저 대통중혜 부처님께서 멸도한지는 백천만억조 겁이 지난 오래고 먼 세월이 지나 불가사의하고 무량하여 헤아리기 어려우니라. 대통중혜의 도력을 나타내시어 멸도하신 이후 법이 유지된 겁수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이어 세존께서 계송을 읊으셨다.

내가 지난 과거 생각하니

무수한 억겁 이전에

여래 량족존(兩足尊)계셨으니

그 명호 대통중혜 여래

무극에 도달해 자비로웠으니

그 당시에 세존께서는

대중 위에서 취하셨으니

예컨대 이 불세계

모두 분쇄해 티끌로 만들고
 가령 어느 누가
 티끌 하나 하나를
 일천세계 지날 때마다
 한 티끌씩 붙여 놓아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성존(聖尊)의 국토에
 그가 티끌을 떨어뜨려
 이와 같이 지속하더라도
 불세계의 숫자 헤아릴 수 없고
 대성(大聖)께서 지니신
 국토의 모든 티끌
 또한 한량이 없나니
 모두 깨뜨려 분쇄하여
 남김없게 할지니라.

지존(至尊) 대성(大聖)
 이와 같이 오랜 겁 이전에 가셨으니
 안주하신 그 부처님
 멸도에 들어가신 겁수

이와 같이 천만억겁 무량하여
 그 시간 헤아리고자 해도
 능히 생각 미칠 수 없노니
 멸도한 이래 약간의 겁수
 저 당시의 도사
 구원겁 지났건만
 여러 제자와 보살의 행동
 여래의 지혜로
 이와 같이 외외(巍巍)하게 보노라.
 성인께서 멸도한 이래
 지금 여래는 모두 생각하노니
 비구여
 부처의 지혜 알고자 하거든
 성스런 밝음 두루 통해
 조금도 다름이 없으라.
 부처님은 이처럼 깨달았기에
 무수한 겁 지날지라도
 미묘한 무루의 뜻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라.

계속해서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그 대통증혜 여래정각께서는 수명이 사십사억 백천 겁으로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로 처음에 도장(道場)에 올라가 나무 아래 앉으셔서 일겁동안 묵연히 계셨고 이겁에 이르러도 정각을 얻지 못했고 내지 십겁이 지나도록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 흠어짐이 없었고 또한 사념하지도 않았기에 생각을 일으켜 제법(諸法)에 향하지도 않았으니 마침내 이와 같이 나무 아래 좌정하자 마구니 권속들이 항복해 정각을 이루게 되었나니라.

그때 도리천의 천자가 화하여 대사자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자리의 면이 사십리에 달했나니라.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좌정하시자 여러 범천의 천자가 두루 하늘 꽃을 사십리에 걸쳐 비처럼 내렸으며 자연히 바람이 불어 꽃을 부어 날려 부처님 주위에 흩날렸나니라.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십중겁 가득 차도록 앉아 계셨으니 하늘 꽃은 분분하게 십겁이 다하도록 끊이지 않았나니라.”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대통증혜 여래께서는 십겁이 다하게 되자 마침내 무상정진도를 성취하여 최정각(最正覺)이루어 멸도에 도달 할 때까지 게으름 피움이 없이 공양 올렸느니라.

그 부처님이 나라를 떠나지 않아 집에 머물러 태자였을 때 열여섯 아들이; 있었으니 단정하고 뛰어나 지혜에도 미치지 어려웠고 용모가 제일이었고 성품이 인자해 부드러웠나니라.

그때 열여섯 왕자는 제각기 약간의 음악을 흔쾌하게 즐겼으니 금슬(琴瑟) 기악 또한 헤아릴 수 없었나니라. 왕자들은 불세존께서 최정각 성취하심을 보았고 그때 자연스럽게 대법(大法)의 음성이 들렸기에 그 소리를 찾아 나라를 버리고 전륜왕위·만민(萬民)·기악·성인·현인·대향제왕(大響帝王) 백천명과 함께, 또한 헤아리기 어려운 백천만 무리와 더불어 세존의 처소에 찾아가서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세존의 주위를 세번 돌고 한쪽에 물러나 앉으셨나니라.”

열여섯 왕자는 게송을 읊었다.

대통중혜

위없이 존귀한 세존

무량억 겁에 걸쳐

평등하게 덕을 쌓으셨으니

뛰어나게 미묘한 가르침으로

일체 증생 어여삐 여겨

소원을 구족하게 하셨나이다.

이에 성인과 현인

부지런히 고행을 닦아

십증겁이 다할 때 까지

한 자리에 처해서

오로지 일심으로 정진해

그 몸 청정하여

조금도 동요함이 없어

마치 나무의 뿌리를 뽑듯이

온갖 고뇌 소멸시키시니

마음 밝게 분별하고

뜻은 지극히 담백하여

나아가거나 물러남 없고

또한 육신의 흐트러짐도 없고

증감은 더욱 없어

말없이 묵연히 감응해

구경에 이르러 적역하니,

온갖 번뇌 없게 되어

길상(吉祥)함 현재하여

크게 편안함 획득하셨고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어
 존귀한 불도 얻으셨나이다.
 저희들은 모두 보았사오니
 지혜 증장되어 두려움 없고
 이와 같이 덕도 크게 늘어났고
 신명을 계산하지 않으매
 온갖 고뇌 소멸시키셨고
 인욕의 공을 쌓아서
 안락마저 탐착하지 않고
 지혜로서 밝게 보아
 괴로움에 빠지지 않으셨나이다.
 한가하게 처하기를 즐겨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셨어라.
 믿음이 두렵지 못한 자
 부처님의 음성으로 일깨우시고
 장야(長夜)에 증익된
 못된 죄로 말미암아
 사람 몸 잃어버려
 악취에 떨어지게 되니

일체 세간에 있어서
 지혜로써 소멸하였나이다.
 이제 세간의 신성한 어버이로서
 그 도는 최상이기에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셨고
 이 세간에서 구제하시니
 과거의 대성(大聖) 도사(導師)이시여.

이어 부처님께서서는 비구들에게 고하셨느니라.

“여기 여러 제왕과 태자들아, 태자 형제는 나이가 어리건만
 대통증혜 여래 지존등정각을 찬탄해 이와 같이 계승으로 선양하
 며 세존께 경전 가르침에 대한 설법을 통해 안주하게 하여 증생
 을 안온하게 함으로써 널리 이롭게 하고 여러 하늘과 사람을 편
 안하게 하고자 했나니라.”

계속해서 이 계승으로 찬탄했느니라.

바라옵건대 대성이시여
 경전 설법을 베푸시어
 증생의 안목을 개화시켜
 대증을 발기하게 하소서.

삼계의 무리

공손히 가르침 갈망하옵나니

도의 뜻 건립하셔서

훈도를 입게 하옵소서.

대성 불세존

백복으로 장엄하사와

무극(無極)의 신선되어

지혜는 수승하게 미묘하시니

여러 하늘 위해 강법하셔서

세간의 증생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널리 여러 무리에 미치어

인연 따라 현현하여

여래의 지혜 드러내시오니

흡사 지금과 같이

최상의 도 현시하여

온갖 무리들로 하여금

평등하게 법을 얻게 하시어,

모든 것에서 풀려나

지혜의 본말 행하여
 지난 세상에 행한 덕
 분별하게 설법하시고
 대증이 마음으로
 즐기는 바 살펴보고서
 법륜을 굴리옵소서.
 수승하여 전줄 수 없사오니
 증생의 액운 벗어나게 하여
 누구나 대도에 이르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고하셨느니라.

“그때 세간에서 존귀하신 대통증혜 여래께서는 십방세계에 변
 화를 일으켜 각각 오백억 백천 불국토에서 6가지로 진동을 일으
 켜고 광명이 두루 비추지 않음이 없었느니라. 모든 불경계(佛境
 界)에서 허공천신(虛空天神)이 약간의 광명으로 저 멀리까지 지
 극하게 밝혔으니 존귀해 어느 것도 전줄 수 없었고 여러 하늘의
 궁전까지 밝혀져 범천에까지 밝혀 자연히 다시 되돌아왔으니 그
 부처님께서 변화 일으켜 상서로운 광명을 나투어 일체를 뒤덮었
 느니라.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천상세간을 비취 드러나게 하자
 저 세계의 증생 품류들이 서로 쳐다 보면서 이 세간에 창졸간에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말하였느니라. 그때 천상에 진동이 일어나 곳곳마다 미쳤느니라. 그때 동방의 불국토는 끝이 없었는데 백천억 범천의 궁전도 자연히 외외(巍巍)하게 빛났기에 여러 범천은 무수한 범궁 건물에 광명이 미치지 않음이 없으니 무슨 상스러운 감응으로 이런 변괴가 일어난 것일까라고 생각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백 세계에 백천억 대범천 대중은 각자 궁전으로 운집하게 되었느니라. 그때 오백 세계에 백천억 대범천 대중은 각자 궁전으로 운집하게 되었느니라. 그때 대범천 대중 가운데 호군생(護郡生)이란 대범천이 여러 범천을 향해 다음같이 계송을 읊었느니라.”

현인은 마땅히 알리니
 금일 저희들의 궁전과
 저택에 비추는 이 대광명
 여러 하늘까지 수승하게 밝혀
 저희들은 크게 환희하였나니
 도대체 무슨 인연으로
 상스러운 감응 나타나게 되었을까.

뛰어나도다.

마땅히 그 뜻을 알아보리라.

그때 천자들

금일에 스스로 흥(興)하여

성인의 어떤 뜻 받들어

이와 같은 신묘함 나타났을까.

지금 목도하는 바는

본래 미증유하여

여러 하늘까지 미쳤구나.

인증왕(人中王)께옵서

대성이 없으며

장차 세간에 출현하기 위해

지극히 오묘한 광명

십방세계에 나투었으니

그 변화가 이와 같은 것일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때 오백세계의 백천억 범천 모두가 동방으로부터 모여들어
저멀리 서방에 대통증혜 여래정각께서 도장(道場)의 보제수(菩提
樹)아래 사자좌에 앉아 계시고 여러 하늘 · 룡왕 · 아수륜 · 가류라

· 진타라 · 마휴룩 · 사람인듯 아닌듯한 존재 그리고 열여섯 왕자와 그 권속에 둘러싸인 채 경전 설법을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곧 여래 앞에 나아가 땅바닥에 머리 숙이고 부처님 주위를 무수하게 돌고 수미산 처럼 커다란 연꽃을 들고서 그 밑에 부처님께서 앉아계신 보제수 나무에 뿌렸는데 나무 높이는 사십리나 되었느니라. 각각 본래의 국토에서 지니고 온 범천 궁전을 세존께 올리면서 바라옵건대 어여삐 여겨 궁전과 꽃 공양을 거두어 달라고 말했느니라.”

이어 계송으로 찬탄했느니라.

부처님의 무량광명 보고서

미증유 얻게 되었사오니

중생을 가엽게 여기시어

세간에 몸을 나타내셔서

사자후로 설법하시매

십방의 대중 보호받았나이다.

저희들은 있는 범중으로부터

일백천억 세계 지나 왔사오니

모든 궁궐을

성존(聖尊)께 바치옵나이다.
 숙명(宿命)의 청정한 덕
 미묘한 보배로 장엄된 중전
 잠시나마 살피 주시어
 그곳에 머무셔서
 원컨대 대자비 일으키시어
 어여배 여겨 거두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자. 때마침 대범천 무리가 사
 면에서 부처님을 찬탄했고 오백명이 함께 부처님께 아뢰었느니라.

“청하옵건대 법륜을 굴리셔서 대성전(大聖典)의 가르침 펼쳐
 주시옵소서. 저희 무리들로 하여금 멸도를 얻게 하시옵소서.”

그때 오백 범천의 백천만억 대중이 한 목소리로 계승을 읊어
 찬탄했나니라.

량족존(兩足尊) 세존이시여.
 원컨대 경전 설법 베푸시어
 자비의 마음 내시어
 중생의 괴로움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대범천 무리가 바친 궁전을 묵연히 바라보셨느니라.

바로 이때 동남방으로부터 오백억 백천 세계의 모든 범천 대중이 각각 궁전에서 광명이 황홀하게 비치어 밝히지 않은 곳이 없었기에 괴이하게 생각하여 모두 운집하게 되었는데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최자애(最慈哀)라 불리는 대범천이 여러 범천을 위해 게송을 읊어 찬탄했느니라.

범천들이여 마땅히 알지니
 이는 본래 상서로운 감응으로
 궁전마다 감동되어
 명문(名聞)이 지극히 높은
 덕 있는 천자들
 모두 여기에 운집하였어라.
 그 광명의 위신력으로 인해
 궁궐 외외(巍巍)하게 빛나누나.
 이제 부처님 량족존께옵서
 세간에 몸을 나타주시리라.
 그래서 저 궁궐들 곳곳에

이와 같은 광명 나툼 것이니
 우리들은 부처님 찾아가서
 이 일 헛되지 않게 하리니,
 예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같은 상서로움 없었노라.
 사방 곳곳마다 광명 비취
 수만억 국토를 밝혔으니
 부처님께서 세간에 나투심이리라.

세존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오백억 백천 범천들이
 각각 궁궐을 지니고서 사바에서 나왔으니 하늘꽃이 수미산처럼
 무수하게 쏟아졌는데, 범천들은 서북방으로 모여들어 저멀리 대
 통증혜 여래께서 도장(道場)의 나무 아래 사자좌에 앉아있으며
 여래께서 설법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었느니라. 범천들은 부
 처님을 찾아 뵙고 땅에 머리숙여 례(禮)를 올리고 부처님 주위를
 무수하게 돌았는데 손에는 커다란 꽃을 들고서 부처님 위에 뿌렸
 나니라.

끝이어 대범천과 그 권속들이 계승을 읊어 부처님을 찬탄했느
 니라.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대선(大仙) 천중지천(天中之天)이시여,
 난조(鸞鳥=봉황의 일종인 신령스러운 새)같은 음성으로
 널리 말씀을 창도(唱導)하시매
 여러 하늘과 대중들은
 머리 숙여 례(禮)를 올리나이다.
 세속의 중생 애민하게 여기시어
 미증유 법문 얻으셨사오니
 세간에서 만나기 어려운 법
 오랫동안 갈망해왔건만
 오늘에야 볼 수 있게 되었나이다.
 본래 백겁에 걸쳐
 덕을 쌓아 공의 도리 이해하였사오니
 팔십억 부처님
 그 수명 진겁(塵劫)과 같으시고
 인중존(人中尊)께옵서
 공의 지혜 밝히기 위해
 설새없이 강설을 베푸시고
 뛰어난 방편을 진설하셔서

여러 하늘과 군신(群神)
 대증들이 친견하게 되었나이다.
 구족한 팔십억 해(孩)
 그 눈으로 꿰뚫어 보시어
 도처에서 구제를 펼쳐
 많은 증생 제도하셨나이다.
 부처님께서 도법(道法) 펴시고자
 세간에 몸을 현출하사와
 증생을 어여삐 여기시니
 저희들은 복되옵게도
 친견하기 어려운 부처님
 만나뵙게 되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실 때에 무수한 천만억 범천
 의 무리가 세존께 법륜을 청해 경전의 가르침 펴시기를 원하자
 세존께서는 대증들에게 삼계에서 벗어나 안온함을 얻게 하겠노라
 고 말씀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실 때에 무수한 천만억 범천
 의 무리가 세존께 법륜을 청해 경전의 가르침 펴시기를 원하자

세존께서는 대증들에게 삼계에서 벗어나 안온함을 얻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느니라.

그때 여러 범천들은 한결 같은 마음으로 입을 모아 계송을 읊었느니라.

최고로 존귀한 대인(大人)이시여

원컨대 법륜을 굴리셔서

경전의 말씀 강법하시옵소서.

십방세계의 증생

고통 속에 빠져있사오니

그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모든 증생으로 하여금

떨 듯이 환희하게 하옵소서.

세존의 말씀 듣는 자마다

부처의 도 이룰 것이옵나이다.

모든 하늘과 증생

가르침 입어 안온해지고

아수륜의 무리

응당 감소하게 되어

인욕을 베풀고
안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대통증혜 여래께서는 묵연히 남방과 서방의 백천억해 불세계에 가셨는데 대범천 궁전이 모두 아름답게 빛나지 않음이 없었느니라. 그때 범천들은 자기 궁궐이 휘황하게 빛나고 괴이한 그 미증유를 보고 모두 모였느니라. 그들은 각자 우리들의 궁궐이 어찌서 밝아졌을까 라고 생각하였는데 범천들 가운데 선법(善法) 대범천이 유독 찬탄해 게송을 읊었느니라.”

위대하신 성인 흥기하사와
일어난 일 헛되지 않나니
모든 궁전마다
위엄있는 광명으로 밝혀졌어라.
이처럼 상서로운 감응
세간에 현출하게 되었으니
그 의미를 구해보는 것이
응당 합당할지니
지난날 무수한 천만억 겁에

이와 같은 감동
 결코 본 일이 없으니
 장차 여래께옵서
 세간에 몸을 나투셔서
 여러 천자들은
 자연히 친하게 되리라.

이어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느니라.

“그때 오백 백천억 범천들이 각자 있는 곳으로부터 저 멀리 부처님 주위에 수미산처럼 무수한 꽃이 공양되는 모습을 보고서 각자 손에 공양물을 지닌 채 북방으로 향했으니 대통중혜 여래께서 도장(道場)의 나무 아래 사자좌에 앉아 계셨는데 무양수 하늘 · 룡신 · 아수륜 · 가류라 · 진타라 · 마휴특이 권속과 함께 부처님을 둘러싼 채 부처님께서 경전 가르침을 강법하시는 모습도 보았느니라. 범천들은 곧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 땅에 머리숙여 례(禮)를 표하고 그 주위를 무수히 돌았는데 수미산 처럼 커다란 꽃을 손에 들고서 부처님께 공양 올려 그 주위에 뿌렸으며 각자의 증전을 세존께 바쳐 거두어 주시옵기를 원했느니라.

그때 여러 범천들은 똑 같은 마음, 동일한 음성으로 계송을 읊

어 찬탄했느니라.”

부처님께옵서 현출하셨으나
 친견하기 지극히 어려워
 오랫동안 만나뵙지 못하다가
 오늘에야 뵙게 되었사오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옵나이다.
 저희들의 애욕 제거하사와
 삼천 세계에
 구족히 증만하게 하시옵고
 증생의 대도사(大導師)로서
 그 허기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만나뵙기 어렵사오니
 마치 영묘한 꽃[靈端華]처럼
 만나기 어려워
 도의 지혜 볼 수 없었건만
 금일에야 비로소
 저희들의 궁전
 무량한 광명으로 빛나

부처님의 광명으로 빛나
 부처님의 위신력 입었기에
 이와 같이 친견하게 되었사오니
 바라옵건대 자비심 일으키셔서
 저희의 공양물 거두시어
 원컨대 그 중전 가운데 처하셔
 도의 안목 현출하시옵소서.

범천들이 계속해서 세존께 청법했느니라.

“바라옵건대 법륜을 굴리시어 경전 가르침 펼치시옵소서. 여러 하늘·신·사문·범지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일체 중생을 어여뻐 여기시어 천상이나 세간의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은덕을 입게 하시옵소서.”

이어 범천들은 그 권속과 함께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게송을 읊어 찬탄했느니라.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널리 경전 가르침 펼치시어
 자비심으로 성인의 법륜 굴려

우레와 같으신 음성으로
 불법의 진리 보여주시옵소서.
 원컨대 굽어 살피시어
 대법(大法)의 고동소리 높이 울려
 위대한 경전의 가르침
 세계에 비처럼 내리셔서
 뛰어난 진리 가르치시옵고
 미묘한 뜻 펼치시어
 저희들을 권조(勸助)해 주소서.
 바라옵건대 도의 지혜를 통해
 백천억 해(亥) 증생들을
 깨우쳐 교화시켜
 제도하시옵소서.

“서남방·서북방·동북방·각각의 범천들도 이와 같이 하였으
 니 범천들은 무수해서 헤아릴 수 없었느니라. 상방(上方)·하방
 (下方)도 각각 이와 같이 자신들의 궁전에 광명이 두루 비추는
 모습을 보고서 괴이하게 생각되어 각각 있는 처소로부터 떠났으
 니 오백억 백천세계의 범천 대증들은 각각의 궁궐로부터 부처님
 처소에 이르렀느니라. 묘식(妙識)이라 불리는 범천이 계송을 통

해 찬탄했느니라.”

위대하신 부처님이시여
 세간을 일깨우시는
 성인의 밝으신 사자후 말씀으로
 삼계의 중생을 위해
 정각승(正覺乘) 개시하사와
 널리 세간의 안목이 되시어
 십방세계 꿰뚫어 보시고
 감로법문을 펼치셔서
 무수한 중생 제도하시나이다.
 멀고 먼 예전에서부터
 인중존(人中尊)께서 현신하사와
 공과 무의 사상을
 십방에 제시하셔서
 지옥중생도 크게 이롭게 하시고
 축생도 기뻐하셨사옵니다.

 뒤에 아귀세계에 떨어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증생
 하늘세계로부터 추락하여
 다른 악취(惡趣)에 떨어지더라도
 만일 불법을 듣게 되면
 평등한 도에 나아가
 여래의 지혜에 뜻을 두게 하오니
 장차 일체 증생을 보호하사와
 누구나 안온함 얻게 하셔서
 법의 기쁨 잃지 않게 하소서

부처님의 도 행하지 않아
 정법의 자리하지 못해
 무량한 성인의 법에 어긋나
 곧 악취 세계에 떨어지게 되나이다.

이제 세계를 밝히는
 저 광명을 좇아 왔사오니
 일체 증생으로 하여금
 자비의 마음 발하게 하셔서
 세존을 친견하기에 이르렀고
 공의 지혜·무루법 이해하게 되니

여러 하늘과 세간 증생
 이에 권조(勸助)입었사옵니다.
 궁전에 비친 무량 광명
 위신력 지극하옵기에
 저 밝음 널리 베푸셨사오니
 인종존 대도사께옵서는
 저희들의 정성 어여삐 여기시어
 여기의 궁전들 거두어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위없는 도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이에 부처님께서는 여러 비구들에게 고하셨느니라.

“그때 오백 백천억 대법천 대중들이 이와 같이 부처님을 찬탄
 해 대법륜을 굴리시기를 청법하여 십방의 증생을 개화하시하고
 간청했느니라.”

범천들은 거듭 계송으로 찬탄했느니라.

바라옵건대

무상법륜 강설하사와

법고(法鼓)높이 울려
 오묘한 법음을 펼쳐
 증생의 온갖 괴로움 벗어나게 하시고
 거듭 자비심 일으키시어
 무위 대도 현시하셔서
 저희들을 제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인의 설법만이
 모든 존재 구할 수 있사오니
 유연한 음성 법문으로
 아름다운 메아리 펼치셔서
 백천억 겁에 걸쳐
 그 덕행 집적(集積)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고하셨다.

“대통증혜 여래께서는 그때 십방세계의 무양수백천억 대중들
 이
 찬탄해 설법을 청하고 또 열여섯 왕래자들이 청법하자 대법륜,
 삼전(三轉) 십이사(十二事)를 굴러 사문·범지·하늘·룡신·증
 마(衆魔)·범천·세간의 증생을 개화(開化)시키기 위해 설법하셨
 느니라. 증생의 괴로운 것은 본래 이 고체(苦諦) 때문으로 괴로

음이 집적되나니 도체(道諦)에 이르러 괴로움이 다하게 되고 괴로움이 다하여 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십이연기를 구족하게 분별하여 어리석음[癡]으로부터 행(行)을 일으키고 행으로부터 식(識)을 일으키고 식으로부터 명색(名色)을 일으키고 명색으로부터 육입(六入)에 이르게 되고 육입으로부터 습(習)에 이르게 되고 습으로부터 통(痛)에 이르게 되고 통으로부터 애(愛)에 이르게 되고 애로부터 수(受)에 이르게 되고 수로부터 유(有)를 일으키고 유로부터 생(生)을 일으키게 되고 생으로부터 로병사(老病死) 우고대환(憂苦大患)에 이르게 되는니라.

계속해서 비구에게 고하나니 대통증혜 여래께서 첫번째 경법(經法)을 설하실 때 한 수유(須臾)에 이 뜻을 분별하시어 십륙억 백천해 대중이 번뇌가 다하는 뜻을 이해하여 육통(六通)과 삼달(三達)의 지혜에 이르게 되어 무양수 대중이 도탈(度脫)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두번째, 세번째 경법을 설하실 때 강변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백천억해 군생(群生)들이 청법해 누구나 번뇌가 다하는 뜻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그이후 성문의 무리는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하였느니라.

그때 열여섯 왕태자는 집을 떠나 출가하여 사미가 되었으니 총

명해 지혜 높고 방편이 뛰어나 일찍이 백천억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온갖 행을 닦아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를 구하고자 했느니라. 왕태자들은 부처님께 말씀을 아뢰었느니라.

‘지금 여기 있는 무양수 백천억 성문들은 대신족(大神足)을 이미 구족하게 성취했사오니 바라옵건대 저희들을 위해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의 뜻을 강법하시어 널리 그 지혜로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저희들은 응당 여래로부터 대성(大聖)의 가르침을 배워 함께 그 근본에 나아가 관찰하고자 하나이다.’

이때 세존께서는 나이 어린 왕태자의 마음을 굽어 살피셔서 국왕과 여러 권속을 위해 경전 가르침을 강설하셨으니 팔십억 백천해 대증이 모두 사문이 되셨느니라. 그때 저 부처님께서 모든 사문이 마음으로 바라는 바를 읽으셔서 이만겁에 걸쳐 정법화(正法華)와 방등경전을 가르치셨으니 보살이 행해야 할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시는 법이니라. 가르침이 모두 두루하여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증이 평등해 조금도 차이가 없었느니라.

열여섯 어린 사미 형제는 부처님 말씀을 수지하여 독송하고 강법하고 찬탄하여 그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아 응당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를 얻게 되었느니라.

이 경전 설법을 저 부처님께서 마치시자 성문들은 크게 환희하였으니 열여섯 사미, 무수억 백천해 보살들은 모두 본지(本志)을

얼게 되었느니라. 저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설법하셨을 때 팔천 겁 동안 조금도 쉬지 않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전 설법을 마치신 뒤 조용한 방에 들어가셔서 생각을 고르시어[靜思] 사십만 겁 동안 삼매 정수(正受)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때 열여섯 왕자 사미는 보살도를 행하여 본시 불자(佛子)였으니 세존께서 혼자 조용히 선정에 드셨음을 보게 되자 제각기 법좌에 올라 저 법의 뜻을 팔만사천 겁에 걸쳐 경전 가르침을 펴게 되었느니라.

열여섯 보살 사미는 각각 육십만 강변 모래알의 백천억해 증생을 제도하여 무상정진도에 처해 대승의 가르침을 세웠느니라.

그 대통증혜 여래께서는 팔십사만 겁이 지나자 삼매로부터 나오셔서 법좌에 나아가 모든 비구 대중에게 널리 고하셨느니라.

‘열여섯 왕자가 쌓은 공덕은 무량해 헤아리기 어려우니 미증유의 외외(巍巍)한 지혜에 이르렀노라.

열여섯 사미는 무수한 백천억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온갖 행을 구족하여 널리 성인의 지혜를 수용했나니 밝은 도에 계합해 부처의 지혜에 합치했노라.’

이에 여러 비구들은 모두 머리숙여 열여섯 인현(仁賢)에게 공경을 표해 귀의하고 조금도 게으름 피우지 않았느니라. 그 뜻이

성문 연각승이어서 이미 성문·연각의 길을 얻었느니라. 또한 보살도를 행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자는 그 뜻을 새로 발하여 모두 이 부촉을 받았느니라.

여러 족성자(族姓子)들은 경전 설법을 듣고 거역하지 않았기에 응당 무상정진도에 이르러 부처의 지혜를 성취하게 되었느니라. 여러 족성자들은 세존의 가르침에 수순해 이 정법으로써 일체를 위하여 자주 자주 분별해 실행했느니라.

열여섯 왕자는 보살승을 구족해 제각기 룡십 강변의 모래알 만큼의 대중을 교화했으니 열여섯 왕자는 태어나는 곳에 항상 함께 태어나 또한 거듭해서 정법의 가르침에 대한 설법을 듣게 되어 제각각 사십억백천 부처님을 친견하였고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리니, 나는 사부대중에게 이를 밝혀주노라.”

부처님께서 그때의 열여섯 왕자를 알고자 하느냐고 묻자 미칠 수없다고[不及]고 답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열여섯 왕자는 모두 무상정진의 도를 성취했나니 지금 십방세계에 처하여 설법해서 무수억 백천해조(孩兆) 성문대중,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한 보살들을 제도했느니라. 현재 동방 세계에서 즐겨 설법하여 두 사미가 성불하니 명호는 무노산강(無怒山

崗)여래 지진등정각(至眞等正覺)이고, 현재 동남방에 두 사미가 성불하니 명호는 사자향(師子響) 사자당(師子幢)여래이고, 현재 남방에 두 사미가 성불하니 명호는 일주(一住) 상멸도(常滅度)여래이고, 현재 서남방에 두 사미가 성불하니 명호는 제당(帝幢) 범당(梵幢)여래이고, 현재 서방에 두 사미가 성불하니 명호는 무량수(無量壽) 초도인연(超度因緣)여래이고, 현재 서북방에 두 사미가 성불하니 명호는 전단신통(梅檀神通) 산장념(山藏念)여래이고, 현재 북방에 두 사미가 성불하니 명호는 락우(樂雨) 우음왕(雨音王)여래이고, 현재 동북방에 두 사미가 성불하니 명호는 제세구(除世懼)이니라. 지금 나 능인(能仁)으로 인세계(忍世界)에서 깨달아 여래의 지진등정각을 성취하리니 모두 열여섯 세존이리라.

또한 비구에게 고하노니 열여섯 세존이 사미였을 때 저 부처님께서서는 경전 가르침을 강설하시여 증생을 청법해 수용했으니 하나하나 보살이 무량한 강변 모래알처럼 백천해 증생을 개화시켰으니 무상정진도를 발한 자는 이제 보살도를 성취하게 되었느니라. 성문 지위에 머무는 자는 점차 인도하여 무상대도로 나아가게 하여 점진적으로 최정각(最正覺)을 성취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여래의 지혜는 한계를 헤아리리 어려워 이와 같음을 알 수 없

기 때문이니라.

거듭 비구들에게 고하노니 어찌된 까닭일까. 내가 보살이었을 때 백천해 강변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대중이 청법해 지혜에 통하게 되었나니, 미래의 말세에 이르러 혹시 뜻을 일으키기도 하며 제자승(弟子乘)을 익혀 성문이 되었건만 보살승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아 여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보살도를 행하지도 못하리라. 누구든 뜻을 무위에 두어야 응당 멸도라 일컬어져 비로소 다른 불세계에 이르게 되어 수이행(殊異行)에 수순하여 다른 불국토에 태어나 응당 도의 지혜를 구하여 뜻을 듣고 가르침을 수용하고 이에 바로 여래의 법을 깨달아 알게 되리니 이 한가지 멸도 뿐이지 다른 이승(二乘)은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다 여래께서 삼승을 설해서 방편을 잘 분별하도록 했을 뿐이니라.

여래 정각께서 멸도하실 때 청정한 행으로 공양 올리고 공 도리를 즐겨 믿고 경전 가르침에 나아가고 일심으로 뜻을 모아 이 법을 강법하게 되리니 이에 비로소 세간에서 불도는 두가지 멸도가 없음을 보게 되리라. 여래 정각께서는 수승한 방편으로 설법하셨을 뿐이니라. 하렬(下劣)하여 소승의 행을 즐긴다면 저절로 사람 씨앗을 잃게 되리니 사람이 본래 애욕계 소박된 줄 이해하지 못하리라. 여래가 멸도 할 때 만일 청법하여 환희심을 일으키고 믿음을 낸다면 부처님의 은덕이 보호할 것이니라.

가령 비유컨대 오백리나 되는 험한 길에 인적도 없고 또한 국군(國君)도 없는데 한 도사가 지혜가 밝고 지리에 통달해 방책(方策)과 은밀한 계책에 뛰어나고 원근에 밝아 장차 여러 상인을 이끌고 가려고 했지만 상인들은 모두 피곤에 지쳐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없어 다음같이 생각했느니라.

‘우리들은 성흥지도(聖興之土)에 편안히 처해 본국(本國)은 평온하여 군장(君長)과 사부(師父)가 있건만 지금 멀리 떨어져 더 나아가기가 힘드니 차라리 모두 되돌아가야 환난을 면하리라.’

이에 도사는 가엾게도 보배를 구하러 가는 도중에 후회한다고 생각했느니라. 가령 방편을 잘 활용해 대광야에서 사천리든 팔천리를 갈 때 신족(神足)의 힘으로 큰 성을 짓고 여러 상인을 향해 물러나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대국에 이미 이르렀으니 휴식을 취해 원하는 대로 음식을 먹고 자기 뜻대로 놀고 이곳에서 고귀한 보배를 찾으라고 말했느니라.

또한 비구들에게 고하노니, 상인들은 성안의 많은 대중들이 지극하게 쾌락을 즐겨 그 미증유가 괴이하였으니 고통에서 벗어나 희희락락하고 더 이상 공포·근심·굶주림의 괴로움을 격지 않음을 보게 되자 이를 무위라 하여 멸도 얻음이라 자처하여 이 성에

머물러 더 이상 나가기를 꺼려 하였느니라. 이에 도사는 신통으로 세운 성을 무너뜨려 사라지게 하고 여러 상인에게 고하였느니라.

‘속히 짐을 꾸려 고귀한 보배있는 곳으로 나아가자. 그대들이 여행으로 피곤에 지치고 마음으로 두려워하기에 신통력으로 이 성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비구들에게 고하노니 여래는 이와 같이 사람들을 위해 경전의 진리를 창도(唱導)하느니라. 생사가 장구하여 그 간난(艱難)의 도정에서 벗어나기 어렵기에 삼승법을 현시하여 결정코 일심으로 닦아 멸도를 얻도록 하였느니라.

또한 여래는 본래 일승을 설했건만 여래의 강법을 듣고서도 도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불법을 꺼려하는 자는 응당 행을 지어 설새없이 고통 속에 떨어지기에 여래는 그 마음 속 생각을 보고 뜻이 게을러짐을 모두 보았나니, 이에 얻기 쉬운 성문이 나 연각 가르침을 현시하였느니라.

마치 도사가 신통으로 큰 성을 지어 대중을 풍요롭게 하고 상인이 휴식을 취하게 했는데 살펴보건대 편안함에 빠져 헤어가지 못하자, 이에 상인들을 위해 신통으로 성을 만들었노라고 밝힌 것과 같나니라.

그 도사는 곧 여래에 해당되고 대광야는 오도(五道)생사, 여러

상인은 배우는 사람, 장차 보물을 구하러 가는 것은 도의 지혜와 보살행을 설함, 중간에 먼 여정을 꺼려하여 편안함에 빠져 더 나아가기를 꺼림은 부처 경지는 얻기 어려워 오랜 겁 동안 공덕을 쌓아도 결코 성취 할 수 없기에 얻기 쉬운 성문이나 연각으로 인도함에 해당되느니라. 신통으로 성을 지음은 라한(羅漢)의 니원(泥洹=넬반), 성이 사라짐은 멸도에 임하여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나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에로의 뜻을 권발함으로 라한의 니원(泥洹=넬반)은 한계가 있어 참이 아니기에 대도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니라. 만일 타방(他方)에 가서 부처님과 상견(相見)하여 불퇴전의 지위를 얻어 더 이상 생(生)하지 않아야 비로소 위대한 보배이니 구경의 일이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고하셨나니 여래의 설법은 그대들이 들은 바대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노라. 자기가 짓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여전히 밝게 보지 못하는구나.

또한 여래의 지혜로 세간의 일체중생의 마음을 굽어 보아 니원(泥洹=넬반)과 여래의 지진등정각을 현시하였고 방편을 잘 헤아려 삼승법을 설법하였느니라.”

곧이어 세존께서는 거듭 그 뜻을 펴시기 위해 다음의 계송을 읊으셨느니라.

지난 옛적

대통증혜 여래께서

마침 도장(道場)의 보제수(菩提樹)아래

앉아 좌정하셨나니

그 부처님 그곳 그자리에

십증겁동안 구족하게 앉아 계셨건만

여전히 구경(究竟)의 진리

성취하시지 못하였으니

여러 하늘과 룡신, 아수륜등이

모두 정진을 돕기 위해

뛰어난 물품 공양 올리고

하늘 꽃으로 분분하게

비 내리듯 뿌려

등각(等覺)인중(人中)의 도사(導師)

주위를 장엄하고

허공 중에서 우레소리 일으켜

상존(上尊) 대성(大聖)께

공양으로 올리었느니라.

저 뛰어나신 어르신

씬없이 수행을 닦아
 장구한 세월이 지나
 위없는 도 이루었네
 일심으로 정밀한 사유 닦아
 십증첩에 걸쳐
 마침내 정각 이루어
 대통증혜 여래 되었으니
 여러 하늘과 대증
 백천억해 일체증생
 떨듯이 환희하는구나.

저 부처님 출가하기 전
 두었던 열여섯 아들
 모두 수순해 품수받아
 인증존으로 교화 베풀어
 백천억해 그 권속에 들러쌓여
 량족존(兩足尊)앞에 나아가
 머리 숙여 례(禮) 올리고
 은근하게 칭법하여

경전 설법 원하자
 용맹스런 사자후로
 세간 증생과 저희들을
 진리로 포만케 하셨어라.

십방세계의 황막한 영역
 그리고 이 세간은
 구원토록 공허했건만
 이에 대성께서 현현하셔서
 범천의 궁전 크게 밝아져
 상서로운 광명 현현하매
 모두 분별해 설왕설래
 동방세계 백천억해 오백국토
 자연히 진동하였으니
 저 대범천들
 각자 자기의 궁전에서
 외외한 위신력과 공덕
 즉시에 보게 되었구나.
 이 상서로운 감응 찾아
 여래께 나아가서

하늘의 꽃으로
 대인(大仁)께 공양 올리고
 각자의 궁전을
 세존께 봉상(奉上)하고
 풍악 울려 노래 불러
 부처의 공덕 찬양하누나.
 바르게 권조(勸助)해 이끌고자
 법륜을 전하시길 청하였더니
 그때 인증존(人中尊)
 말없이 수용하셨어라.

이윽고 청함에 응해
 여래께서 경전 설법하시매
 남방, 서방
 북방의 세계
 상방(上方), 하방(下方)
 사우(四隅)의 경역(境域)
 백천만해 대증과
 범천이 모두 찾아와

각기 진귀한 것 현수해
공양으로 바치는구나.

또한 다시 하방의
여러 세계의 범천들
또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무 차별없이
모두 각자의 중전을
대성께 헌상하였어라.
여래를 찬탄하여
함께 권조(勸助)입기 위해
법륜을 칭하였으니
그 광명으로 마음의 눈 밝혔나니라.
무수한 억겁 동안
만나 뵈기 어렵거만
이제야 시현(示現)하시니
지난날의 근력(根力)으로
중생을 어여삐 여기시어
감로수 법문을 내려
법안(法眼)을 평등하게 열어

지혜로 그 뜻을 분별하고
 여러 경전 가르침 선양하였느니라.

약간의 품류(品類)

그때 부처님께서 설법하여
 사체(四諦)법을 두루 제시해
 일체를 이해하게 하시고
 십이인연법을 통해
 무힐(無黠)의 도리 나타내시어
 진리의 안목 얻게 하시고
 생사, 우비고뇌 강설하여
 일체세간 모두가
 생(生)으로부터 있게 되었으니
 응당 이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노라고
 여래께서 알맞게 설하시어
 이 설법 마치게 되었노라.

무양수(無央數) 팔십억해

증생의 무리들이
 그때 청법하여
 성문승(聲聞乘)에 머물렀으니
 하물며 다른 곳[餘方]에서
 제일지(第一地)에 도달함에 있어서라.

바로 저 당시
 지극히 수승한 경법(經法)으로
 강변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대중 청정해져
 모두 성문행에
 뜻을 두게 되었고
 도사 성인의 무리
 이와 같이 무수했기에
 모두 합해 계산하려해도
 한량을 알 수 없었노라.
 일체의 품류(品類)
 하나 하나가 이와 같이
 모두 이처럼
 최상의 지혜 세웠어라.

그때 지존(至尊)
 열여섯 성스런 아들
 똑같이 함께 배우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왕궁 떠나 출가하여
 모두 사미가 되어
 밝게 알게 되었으니
 여래는 방등경 설해
 우리가 응당
 세간의 밝은 아버지 되었듯
 그대들도 이와 같이
 최상의 지혜 성취해
 모든 증생으로 하여금
 이 지혜 얻게 하라고 하셨노라.
 또한 세존처럼
 법눈을 갖추어
 최상의 지극 정성으로
 사람 마음의 흐름 읽어

비록 나이가 어리기는 해도
 항상 평등법을 행해
 증생을 위하여
 상존(上尊)의 도 설하여라.
 백천만억해
 무저(無底)의 비유로
 인연법을 나타내시어
 보응의 이치 얻어
 일어난 현상 분별함으로써
 그 지혜에 통하였어라.
 여러 보살들
 응당 행을 지었나니
 그때 위대하신 성인
 진체(眞諦)를 나타내시어
 이 정법화(正法華)의 가르침
 널리 선양해 펼쳤고
 대방등경(大方等經)
 비 내리듯 강설 베풀었으니
 무수한 계승
 감히 생각으로 헤아려

저 강변의 모래알처럼
그 한량 알 수 없어라.

그때 마침

이 경전 설법하고 나서
여래께서는 조용한 방에 들어가
삼매에 들어가셨으니
팔십사만 겁 동안이나
움직임이 없었노라.

세간의 영웅 도사
결정된 뜻이 이와 같았으니

그때 모든 사미들은
대성을 알현하고자
조용한 방에 머무른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나
무수억천 중생들을
개화(開化)시키기 위해
결정코 뉘아 청정한
무루를 깨달아 마치고

제일의 대법좌를
 처음으로 베풀어
 이 인현(仁賢)의 경전을
 선양(宣揚)해 홍보하여
 그 가르침에 안주하여
 불화(佛化)를 류포(流布)하였어라.
 이와 같이 가르침을
 두루 홍보하였으니
 마치 저 강변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한
 백천만억 대증이
 모두 가르침을 듣고
 그 법에 안주하게 되었으니,
 하나 하나 깨우쳐 인도한
 무리 헤아려보니
 무수해 한량없더라.

그때 최승(最勝)의 존재
 멸도하신 이후에
 모두 사십억 부처님

직접 친견하게 되어
 저 때 배우는 무리
 마침 그 명호 듣게 되자
 곧바로 량족존(兩足尊)께
 공양을 바쳐 올리는구나.
 네가지 행(四事行)에
 허물 벗어남이 가장 귀하노니
 모두 부처의 도를 얻어
 현재 십방 세계에서
 이 열여섯 사미
 모두 부처의 아들로써
 널리 팔방에서
 불도를 두루 펼치고 있노라.
 사미들의 설법을
 청법해 수용한
 여러 성문들은
 모두 부처님의 제자 되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약간의 색상(色像)

이제 불법에 친근하게 되어
 대도에의 뜻 발하게 되었어라.
 이때 나의 가르침은
 깨닫지 못한 자를 깨닫게 하였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청법해 수용하게했노라.
 그때의 여러 현자
 성문이라 일컬어졌으니
 뛰어난 방편을 써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를
 시현하였노라.
 나는 전세(前世)에
 그 보음 이와 같았으니
 말씀한 법에 감응한
 인연으로
 불도 닦게 되었느니라.

 비구여, 마땅히 알지니
 마구니에 희룡 당해
 그 본성에 이끌려

방자하게 흉포한 일 저지르고
 불법에 뜻을 두지않은 채
 공의 지혜도 즐기지 않았으니
 무수한 백세(百世)에 걸쳐
 목말랐음에도 물을 만날 수 없었어라.
 또한 어리석고 우매하여
 항상 두려움에 떨었나니
 무수한 장부(丈夫)
 백천의 대증
 발적(發跡)을 행하기에
 광야에서 제도하고자 했노라.
 또한 광야를 둘러 보니
 그 고난이 심상찮고
 가야 할 길 계산하건대
 무려 오백 유순(踰旬)이라.
 어느 한 대인(大人)있어
 현명하고 지혜 밝아
 대증을 이끌어 깨우쳐주고 교화해
 마음엔 두려움 없었으니

저 장사꾼을 위해
 지름길로 인도하였나니라.
 광야는 현막(懸邈=떨음)해
 고난과 험악함 많아
 무수억 여행객이
 두렵고 고달픔에
 각기 도사(導師)에 대해
 소송(訴訟)일으켰노니
 우리들은 피곤에 지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기에
 이젠 금일부터
 되돌아 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도사는 총명하여
 방편을 활용하여
 순순(淳淳)하게 비유를 통해
 위곡(委曲)히 가르쳤으니
 암색(闇塞)한 무리 불쌍히 여겨
 그들이 보배를 구하러 가는 도중에
 본래의 의도로부터 물러나

중도에 되돌아 가려 하자
 내 이제 차라리
 신족력(神足力)을 펼쳐
 조화술에 의하여
 대성곽을 건립하고
 다양하게 장엄하였더니,
 천만억 대중 위해
 방실(房室)을 세워
 미묘하게 꾸몄으며
 또한 다시 신통력으로
 큰 강 흐르게 하여
 정원과 욕지(浴池) 만들어
 꽃과 열매 무성하고
 대관(臺館)과 전우(殿宇)
 담장은 비단으로 장식되었구나.
 백천억 남녀의 무리
 인도하여 권면함으로써
 두려움 씻겨내어
 각자 경사 만남에 기뻐

환희심으로 넘치게 했으니

오늘에야 비로소

이 대성곽에 이르러

안에 들어가

오락기구 즐기게 되매

마음은 혼연하게 되어

모두 화락하게 되었구나.

그대들과 나는

모든 환난 제거하여

친친(親親)한 까닭에

편안함에 환희하게 되었으니,

금일에 모든 것

원대로 베풀겠노니

각자 즐기는 바에 따라

두루 살피 불지니라.

그대들과 한마음 되어

거듭 정중히 말하노니

모두 함께 모여서

내 말 들어 보아라.

나는 신족력으로
 변화 일으켜 대성곽 지었나니
 저때 내가 관찰하니
 가시밭길에 썩들려
 그대들은 두려움만 가득해
 고통 속에서 되돌아 가려 하매
 즉시에 방편을 베풀어
 여러 가지로 화현시켜
 또한 뜻을 정일하게 하여
 계속 여정에 오르게 했노라.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고하셨으니
 내 또한 이와 같이
 무양수(無央數) 천만억 증생
 쓸새없이 고통에 떨어져
 그 미혹 그침이 없기에
 이에 방편의 가르침으로
 깨우쳐 인도하기 위해
 부처는 이와 같이

이로움과 뜻 생각하건만
 그들은 불도를 싫어하여
 멸도를 얻지 못하기에
 일체중생의 어버이로서
 깨닫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 분별하였으니,
 이제 라한(羅漢) 경지 얻은 까닭에
 권조(勸助)를 세워
 덕의 과보에 맡기게 했노라.
 여러 현인의 삶 살피
 라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어라.
 그대들 모두는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노니
 그때 모인 대중 위해
 모든 위대하신 성인, 부처님
 뛰어난 방편을 써서
 불교의 가르침 강설하여
 대선(大仙)으로 구호(救護)를 펼쳐
 그 수레는 일승뿐
 이승이 있지 않노라.

자세히 설하겠으니
 그대들은 휴식을 취하라.
 이 교화로 말미암아
 여기 여러 비구들
 항시 정진을 거듭하여
 그대들은 마땅히
 지극히 영묘(英妙)한
 일체지혜와 보살의 전법(典法)에
 뜻을 두어 지향할지니
 멸도를 얻지 못했기에
 항시 근본 지혜
 성취하기를 구하여
 십방세계에 있어서
 지극히 수승한 법에 통달해
 열글은 뛰어난 삼십이상
 마땅히 멸도에 이르리니
 여러 위대한 도사
 이와 같이 설법을 하였고
 또한 휴식 취하게 하여

스스로 멸도 얻게 하여
마침내 휴식 취하게 하고
무위법 획득하게 되었으니
이런 인연으로
근본지혜를 창달하게 되었노라.

정법화경 권 제5

8. 수오백제자결품(授五百弟子決品)

그때 현자 빈녹문타니자(邠耨文陀尼子)는 부처님께서 뛰어난 방편을 활용하시어 성문들에게 미래에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내리시는 말씀을 들었으며 지난날 지은 행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며, 또한 여래의 경계를 보게 되자 미증유의 환희심으로 떨듯이 기뻐하여 옷이나 음식에 대한 생각없이 온 몸으로 환희하여 스스로 이겨낼 수 없을 정도였다. 대정법(大正法)에 대해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희하기도 하였으니, 곧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례(禮)를 표하고 나서 말씀을 올렸다.

“참으로 헤아려 미치기 어렵나이다. 세존이시여 미증유의 법에 이처럼 안주하시오니 여래의 지진등정각(至眞等正覺)에 의해 베푸신 방편은 참으로 깊고 진정으로 오묘하시니 입으로 퍼신 것이 아니옵니다. 여기 여러 세계의 품류(品類)를 위해 무수한 방편을 펼쳐 마땅하게 지혜를 나타내시어 대중을 순화(順化)하여 법을 밝히시나이다. 이곳 증생을 위해 그 본원(本源)을 설파하

시고 방편에 의해 도탈(度脫)케 하시니 세존께서는 성스런 지혜로 우리들의 행적(行跡)·뜻·성품의 귀의처를 모두 아시어 거듭 비유설화와 지난 생에 대한 말씀을 펼쳐 새로 뜻을 발하게 하시옵나이다.”

그때 만원자(滿願子)는 머리 숙여 부처님 발에 례(禮)를 표하고 나서 한쪽으로 물러나 세존께 귀명(歸命)하고 광명으로 장엄된 부처님의 존안(尊顏)을 우러러 보면서 잠시도 눈을 깜짝하지도 않았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기특하도다. 진실로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여래는 일체의 본체(本際)를 꿰뚫어 그 심천(深淺)의 인행(因行)을 보고서 그에 맞는 가르침을 펼치노니, 예컨대 성문에게는 낮은 소송법을 제시하여 음욕·성냄의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마침내 보살의 무극(無極)의 지혜로 인도하느니라.

예를 들어 지난날 어느 한 도사(導師)가 있었으니 그는 자비를 행하고 곤란에 빠진 증생을 가엾게 여겼는데 옷과 음식이 충분하지 않아 구하고자 해도 얻을 수 없어 궁핍을 면하게 할 수 없자, 이에 북을 높이 울려 온 나라에 ‘어느 누가 바다에 들어가 진귀한 보물을 채취할 수 있겠는가’ 라고 명을 내렸느니라. 이에 대증들이 모여들자 다시 명을 내렸느니라.

‘어느 누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부모를 그리워하지 않고 처 자식을 되돌아봄이 없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 진귀한 보배를 구할 수 있겠는가.’

대중들은 이런 명령을 듣고 물러나는 자가 많았지만 또한 가난한 자들은 보물을 구하려는 마음도 있었으니 그들은 의복으로 몸을 가릴 수 없었고 삶을 연명할 재물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의복으로 몸을 가릴 수 없었고 삶을 연명할 재물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머뭇거릴 뿐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자 도사는 이를 알아차리고 그들을 불러 말했다.

‘만일 바다에 함께 간다면 옷과 음식을 공급해 주어 궁핍하지 않게 하리라.’

이에 가난한 무리는 크게 환희하여 명을 받들어 곧바로 배에 올라 탔느니라. 바람불기를 기다려 돛을 올리고 대해에로 나아갔으니 큰 물고기를 만나지도 않고 험난한 지형에 마주치지도 않고 사악한 귀신이나 라찰(羅刹) 또한 장난치지 않은 채 마침내 통궁에 이르렀느니라. 도사는 곧 통왕 앞에 나아가 원하는 대로 보배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속인(俗人)들은 궁핍해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므로 원컨대, 저 멀리서 보물을 구하러 왔으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였다. 통왕은 곧 그의 원대로 들어주었으니 보배

를 얻고자 하는 자는 모두 취하게 하였느니라. 이에 도사가 명을 내리자 취한 자는 적고 취하지 못한 이는 많았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여 용왕의 처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못할까 두려워서였다. 이에 도사는 상인들에게 고했다.

‘각자 마음대로 취하라.’

그러자 상인들은 모두 금·은·류리·수정·호박·차거·마노를 제각각 배에 가득 채웠느니라. 도사는 엄격하게 명을 내려 다시 염부리(閻浮利)로 돌아가라고 하자 사람들은 명에 따라 다시 본토(本土)로 돌아오니 일가친척과 마을 사람이 음식과 음악을 준비해 수레와 마차를 타고서 모두 환영하며 함께 칠일 낮 칠일 밤 동안 오락을 즐기고 집으로 돌아와 서로 무슨 보배를 얻었는지 물었다. 지혜 적은이(小智)는 빈한하기에 도사로부터 단지 철보를 얻고자 했고 지혜있는 이(慧侶)는 여의주를 얻고자 하였으니, 이에 도사는 높은 누각에 올라가 손에 보배 여의주를 잡고서 두루 사방, 사우(四隅), 상하를 둘러보고 이 여의주의 덕으로 철보로 된 비가 내리게 하자 라는 말을 마치며 철보 비내려 널리 그 국토를 충만케 하였다. 그 나머지 지혜있는 이들을 여러 국토에 보내서 사방 곳곳마다 또한 철보 비가 내리게 하였느니라. 지혜가 적고 빈한한 무리는 이에 한탄하였으니 자신도 함께 바다에

들어가서 이런 보물을 구할 수 없었다고 탄식했느니라. 그러자 도사가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묻겠노라. 그대는 함께 가서 보배를 취하지 않았으니 지금 그대의 소망은 무엇인가?’

이에 사람들은 보배를 내려놓고 다시 모여 함께 보배를 채취하러 바다의 통왕에게 나아가 여의주를 구했으니 곧 모두 얻어 염부리로 돌아왔고 또한 칠보 비가 내렸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의 마음을 발하여 일체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것은 비유컨대 도사가 바다에 들어가는 것과 같느니라. 여러 빈한한 무리를 가없이 여겨 바다로 들어감은 일체중생을 위해 경전 가르침과 도를 설법함에 해당되고, 바람이 불어 돛을 올려 대해로 나아감은 지혜를 분별하는 것을 배움에 해당되고, 바다에서 마주치는 삼난(三難)은 공(空)·무상(無想)·무원(無願)이요, 바다는 살아가는데 위태로움을 이롭이요, 여의주를 얻음은 여래의 무극법신(無極法身) 얻음을 말함이라. 대중이 따라가서 여의주를 취함은 보살도(菩薩道)를 듣고 대승의 뜻을 일으켜 무종생(無從生)을 얻음을 말하는 것이고, 빈한하고 하렬(下劣)한 사람이 칠보를 채취해 각각 배에 가득 실음은 칠각(七覺)을 얻어

마침이고, 고향에 돌아와 일가친척의 환영을 받음은 십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음이고, 누각에 올라 여의주 들고 팔방상하를 둘러보는 것은 불도를 얻어 십방에서 증생을 제도해 해탈시킴이고, 지혜있는 인물이 여러 국토로 나뉘어 가서 칠보 비를 내림은 제각기 다른 곳으로 가서 최정각(最正覺)을 성취함이고, 가난한 무리들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 보배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함은 성문 무리들이 일승법만 있고 이승의 도가 없음을 들은 것에 해당되나니라. 이에 다시금 무상정진도에 뜻을 내어 미래에 성불하여 각각 명호를 얻게 되니라.”

이어 세존께서는 계송을 읊으셨다.

비구들아, 귀 기울여 들을지니
 비유 들어 말하겠노라
 예컨대 어느 도사가
 그 국토의 증생들이
 매우 가난하고 궁핍하여
 항상 고뇌 속에 혈떡거리자
 북을 울려 어느 누가 바다에
 들어가겠느냐고 명령하니

이에 대중이 모여들매
 다시 고하기를
 신명을 아끼지도 말고
 부모 돌아보지도 말고
 처자식 생각도 말고
 함께 바다 속에 들어가자
 바닷속에는 험난함이 있으니
 후회하지는 말라고 했다네.

그때 여러 가난한 무리들
 또한 뜻을 내기는 했지만
 되돌아 오지 못할까 두려워
 고민할 뿐 결단 못 내림을
 알아차린 도사가 너그럽게
 옷과 음식 내려주었다네.

이에 대해에 들어가서
 각기 첩보를 구하고자 했네.
 룡왕의 궁전에 들어가
 여의주를 구하오니

평등하게 가르침을 내려 달라고
 말씀들을 고해 올려
 여의주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가자
 모든 사람이 마중나왔네.

이에 도사는
 높은 누각 위에 올라가
 팔방을 둘러보고서
 진귀한 보배를 비처럼 내렸고
 사람들을 각각 나누어
 여러 국토로 파견하여
 칠보를 비오듯 내리게 하여
 은택을 누구나 입게 하였어라.
 칠보를 채취한 자는
 함께 바다에 들어갔건만
 이런 보배 구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한탄하였으니,

그래서 도사가 말하였네

예전에 칙령을 내렸음에도
 스스로 받아 들이지 않았기에
 이런 허물 있게 되었으니
 어느 누구를 원망하는가 하고
 곧 바다로 들어가서
 여의주를 구했더니
 바로 얻게 되었느니라.

뜻을 발한 보살은
 정진도(正眞道)를 얻게 되고
 생사에 두려워한다면
 곧 성문으로 떨어지리니
 공(空)의 일을 봉행하여
 무상(無想) · 무원(無願)으로
 삼계로부터 벗어나
 니원(泥洹=넬반)의 문에 이르러
 불세존을 친견하여
 마구니 권속을 항복시켜
 마침내 최상의[無上]

정진도(正眞道)에 이르러
 일체중생 깨우쳐 교화시키고자
 만억음(萬億音)을 일으키매
 십방세계의 군생(群生)들이
 가르침 받지 앎음이 없더라.
 하늘 · 룡왕 · 귀신
 찾아와 머리숙여 례(禮)올리고
 보살에의 뜻 발하여
 무종생(無從生)에 이르는구나.

혹 성문이 되어
 허물 많은 삼독(三毒) 끊고
 십방세계를 보되
 아무런 걸림이 없으리라.
 여러 라한(羅漢)들은
 자신의 어리석음 뉘우쳐
 함께 도를 닦았건만
 어찌서 이를 얻었을꼬
 앞으나 서나 걸어다니나
 항상 자신을 책망하누나.

여래는 연후에
 삼승법 나타내시어
 뛰어난 방편을 펼쳐
 수순하게 인도하여
 도에는 들이 없거늘
 하물며 셋이 있으랴.
 여러 성문들은
 이에 떨듯이 환희하여
 그 마음이 밝아져
 번뇌구름이 광명으로 씻어지니
 부처님이 수기를 내려
 미래에 대도 이루리니
 불국토 곳곳에
 각기 명호 얻으리라.

이어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대들은 여기 있는 성문 만원자(滿願子)가 보이는가. 비구
 들에게 설법을 행하여 부처님의 덕을 크게 찬탄하고 가르침을 펼
 쳐 권조(勸助)하고 여래의 설법을 열어 수용하여 받들게 하며 듣

지 못한 법을 나타내시어 게으름 피우지 않게 하며 불법의 뜻 천명하여 얽힘을 풀어주며 사부대중의 의문에 나태함이 없이 응하여 여러 범행(梵行)을 닦는 수행자들로 하여금 환희하게 하였느니라. 여래·보살대사를 제외한다면 그 변재와 질의응답능력은 여기의 만원자(滿願子)같은 인물뿐이리라.

비구들이 취한 것은 어떤 가르침인가. 저 만원자가 어찌 유독 내가 성문승을 위해 지은 법전만 가르쳤겠는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하느니 그는 일찍이 구십억 부처님을 모셨으며 세존들로 부터 바른 가르침[正要]을 전수받아 대중을 위해 항상 법을 강의했고 경전의 뜻을 펼쳐 공(空)의 지혜를 변별했느니라. 그의 생각에는 아무런 집착이 없어 예컨대 경전을 설법할 때에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어 통달하지 않음이 없고 막히는 바도 없었느니라. 그는 항상 마음을 다해 불세존과 보살의 신통을 구족해 그 형상과 수명에 따라 범행을 닦아 성문 무리들이 그를 믿고 따랐느니라. 이처럼 뛰어나게 방편으로 이익을 베풀어 구제를 했으니 무양수 백천만억해 군생부류를 개화시켜 무량 아승기 대중으로 하여금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에의 뜻을 발하게 했느니라. 그는 두루 소요하여 증생(黎庶)에 까지 이르러 대도를 나타내시어 부처경계에 머물게 했나니라. 일체증생이 닦아 항상 자기몸으로 불국토를 청정하게 했나니 이와 같이 증생들을 깨우쳐 교화했느

나라. 그는 여러 정각(正覺)께서 세간에 나투실 때마다 주위에
서 공양 올려 시봉하였느니라.

지금 나의 세(世)에 있어서 법을 강설하여 매번 정전(正典)가
운데 난해한 가르침을 베풀었느니라.

현겁(賢劫)시대에 일천 부처님께서 나타나는데 또한 응당 미래
의 부처님께도 공양 올리고 또 존귀한 법을 강설하여 항상 무량
한 무극(無極)의 품류를 위해 지혜광명으로 그 뜻을 알맞게 설명
함으로써 무한의 일체 대중을 헤아려 교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무
상정진도(無上正眞道)에의 뜻을 발하게 하고 보살도의 행으로 구
족하게 나아가게 했으며 무수한 겁에 성불을 이루리니 그 명호는
법조요(法照曜)여래 · 지진등정각(至眞等正覺) · 명행성(明行成) ·
선서(善逝) · 세간해(世間解) · 무상사(無上士) · 도법어(道法御) ·
천인사(天人師)이리라.

그는 이 국토에서 대성(大聖)이 되리니 그때 강변의 모래알처
럼 무수한 삼천대천 세계가 하나의 불국토로 되고 땅은 칠보로
되어 있어 손바닥처럼 평평하고 산 · 계곡 · 가시밭길 · 자갈밭이
없으며 중각정사(重閣精舍)가 곳곳에 가득한데 칠보로 건립되어
하늘의 궁전은 아름답고 오묘해 바라볼 수 있나니 천상에서는 세
간을 볼 수 있고 세간에서는 천상을 볼 수 있어 하늘나라 사람과

세간사람이 왕래하고 접촉할 수 있으리라.

그 불국토에는 96종(種) 62가지 교만한 소견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일체 존재가 화생(化生)하여 여인의 몸을 빌리지 않으며 청정하게 범행을 닦아 각각 위덕(威德)을 갖추 대신족(大神足)으로 허공을 날아다니리라. 설새 없이 정진을 거듭해 짓는 행마다 통달된 지혜가 구족되고 자마금(紫磨金)의 용모에 삼십이상과 대인의 상이 갖추지리라.

이때의 대중은 마땅히 두가지 식사를 하리니 첫째는 법식(法食), 둘째는 락선열예(樂禪悅豫)가 바로 그것이니라.

무양수 백천만억해 보살대중이 모두 신통력을 구족하고 경전 속의 뜻을 빠짐없이 밝게 알고 성문들도 모두 성인의 행을 실천하여 여덟가지 해탈문(脫門)을 행하고 방편으로 위력을 펼치니 덕이 높고 아취(雅趣)있어 무극(無極)의 이치 얻으리라.

그 겁의 명칭은 보명(寶明)이고 세계 명칭은 선정(善淨)이고 그 부처님 수명은 무량겁이리라. 그 부처님 멸도하신 이후에도 법은 지극히 오랫동안 유지되리니 칠보탑이 불국토 곳곳에 세워져 십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함께 그 극토의 공덕을 찬탄하리라.”

부처님께서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신 뒤 그 뜻을 거듭펴기 위해 곧이어 계승을 읊으셨다.

여러 비구들아, 귀 기울여라
 이 뜻에 있어서
 내가 밝힌 바대로
 여러 하늘과 세간 사람 위해
 방편법을 행사하여
 마침내 제대로 배우게 하리라.
 세존의 가르침 받들어
 불도를 닦아 행해야 하리니
 여기의 중생들은
 하렬(下劣)하고 게으른 까닭에
 마땅히 미묘하고 적정한 법
 연설하여 펼쳐
 성문이나 연각의 무리에게
 나타내기는 하지만
 보살의 대도(大道)는
 항상 우뚝하게 서있노라.
 뛰어난 방편을
 천만억 가지나 써서

무수한 보살들을
 깨우쳐 교화시켰느니라.
 따라서 여기의 성문들은 말하기를
 위로 불도를 존승하지만
 얻기가 매우 어렵다하나
 무수한 군생(群生)들
 그 은택 입어 순화해
 이미 닦아 배우고 익혀
 이와 같은 행에 있어
 하렬(下劣)한 무리 게으름 피워
 방자해 교만 부리지만
 점차 불도 이루리라.
 몸과 입, 그리고 마음으로
 행할 바를 항상 존승하여
 이와 같은 성문들
 힘과 세력이 미약해
 일체의 두려움에 눌리게 되어
 시종 근심에 쌓이지만
 다시 엄격하게 다스려
 불국토 청정하게 되리라.

혹 다시 나타내시어
 자기에게 있는 애욕
 성냄 · 탐욕 · 어리석음
 모든 중생들의 미혹이나
 사견을 모두 살펴보고
 의심그물이나 맺힌 것
 쓰러뜨려 타파하리라.
 우리의 성문 대중
 그 행 또한 이와 같이
 마땅히 때에 알맞게
 이 부류를 교화하기 위해
 방편법을 활용하여
 일체중생을 발기(發起)시키리니,
 모든 중생을 위해
 수순해 널리 설법하리라.
 비구들에게 고하노니
 우리의 성문들은
 소행(所行)을 구족하여

천만억 불국토에서
 증생을 구제하리라.
 부처의 이 정법
 깨달아 참선 닦고서
 증생 구하기 위해
 자기자신이 소재한 곳에서
 세존의 제자로서
 박문(博聞)과 지혜를 지니고
 용맹하게 강설하여
 증생을 마땅히 기쁘게 하여
 마음에 싫증내지 않게 하고
 불사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도를 건립하게 하여
 대신통을 획득하여
 가는 곳마다 안주하고서
 도사로서 구족히 갖춰
 등불이 되어서
 항상 증생의 고통 원인을
 깊이 굽어 살펴
 경전을 설법함으로써

청정함에 이르게 하리.
 백천만억해 무리를 유도하여
 세존의 위없는 정법
 분별해 나타내시니
 바로 이 대승의
 무상정진도에 처하여
 자기 국토가 청정하고
 영묘함을 보게 되리라.

장래의 세상에
 백천만억 부처님께
 마땅히 공양 올려 받들어
 이와 같이 공경할지니
 장차 세존의 정법을
 항상 보호하리라.

또한 다시 위엄있고
 청정한 자신의 불국토에서
 경전을 강설해 베풀고
 백천만억해

뛰어난 방편 활용해
 항상 용맹하게 준수하여
 무수한 증생들을
 또다시 깨우쳐 교화시켜
 마음으로 도의 지혜를 지향해
 온갖 번뇌 없게 하고
 위대하신 여러 성웅(聖雄)
 매 번 받들어 공경하고
 항시 이 부처님의 법
 온 몸으로 수지하여
 언젠가 불도 이루리라.

이처럼 자재(自在)한 도사
 그 명호 법광요(法光曜)요.
 십방세계에 명성 드높으리.
 그 불국토는
 지극히 안락하여
 칠보로 된 땅은
 두루 청정하리니
 그 시기 겁의 명칭은

보명(寶明)이라고 불리고

무수한 천만억

여러 보살 대중

이와 같은 부류들은

대신통을 얻으리라.

그때 불세계의

대중들이 찬탄할

신통력 회대(恢大)

뛰어나게 칭정하노라.

또한 여러 성문들

천만억 대중

모두 대성(大聖)되고

현명하고 맹렬한 대중

지극한 신족으로

여덟 해탈문 행하여

일체를 밝게 분별해

통하지 앎이 없었느니라.

그 불국토의

모든 증생
 청정행을 실천하여
 항시 범행을 닦아
 변재와 지혜 구족하였으니
 덕에 있어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서민과 현인이 흥성해
 지극히 성대하고
 여러 현인들과 대증은
 크게 번성하리니
 경전 가르침만 즐길 뿐
 다른 것 흠모하지 않을 뿐이다.

그 불국토 또한
 여인의 무리가 없어
 악취(惡臭), 근심걱정
 조금도 있지 않으리라.
 자마금색(紫磨金色)의
 자연스럽게 빛나는 몸
 삼십이상을 갖춰
 저절로 장엄되리니

저 불국토에는
 옷이나 음식 구하지 않아도
 원하기만 하면 얻게 되니
 이에 마땅이 이같이 설하노라.

이때 천이백 명은 제각기 마음으로 생각하였다. ‘미증유를 얻어 환희하지 않음이 없다. 세존께서는 불쌍히 여겨 수기를 얻게 하셨으니 반드시 이들도 가엾게 여겨 그 은택을 입게 하리라.’

이에 세존께서는 여러 성문들의 마음을 꿰뚫어 현자 대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눈 앞에 있는 응진(應眞=阿羅漢) 참된 대승 천이백 명 가운데 아란 라운(羅云)은 제외되느니라. 또한 성문들은 본제(本際)등을 알아 룝십이억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이만큼 부처님을 받든 뒤 오백제자는 모두 성불하리니 그 명호는 보광(普光)여래 · 지진등정각 · 명행성 · 선서 · 세간해 · 무상사 · 도법어 · 천인사 · 불증우(佛衆祐)이리라.

우위(優爲)가섭 · 상(像)가섭 · 강(江)가섭 · 해(海)가섭 · 흑요(黑曜) · 우타(優陀) · 아난율(阿難律) · 리월(離越) · 겁빈누(劫賓菟) ·

박구로(薄拘盧)·순누선(淳菟善)등 오백 라한은 모두 무상정진도를 성취하여 최정각으로써 동일한 명호를 얻으리라.”

이어 세존께서는 계송을 읊으셔서 찬탄하셨다.

여래의 존귀한 제자
 그 이름은 본제(本際)
 미래에 성불하여
 세간 이끄는 도사되리라.
 앞으로 다가올 세상
 무양수 겁에 걸쳐
 무수한 천만억
 중생들을 교화해
 지극히 수승하게 하리니,
 그 명호는 보광(普光)이고,
 저 불국토
 그 명칭은 청정
 미래세에
 무양수 겁 동안
 항시 부처님 친견하고
 차마 헤아릴 수 없는

그 광명 · 음성 · 신족(神足)

위대한 힘 갖추신 어르신

음성법문 곳곳에 올리매

십방세계에 있는

천만억 중생

그 주위를 에워싼 채

오직 강설에만 귀 기울여

부처의 도 받들지니

여러 보살들은

항시 정행(正行) 닦아

타는 수레 단정히 장엄되고

궁전은 존귀하고 오묘하여

보살들이 유행(遊行)할 때

아무런 상념도 없이

법을 들어 수용하리라.

량족존(兩足尊)께서는

항상 주선(周旋)하여

타방(他方) 불국토에 가서

여러 부처님 위대한 성인 만나
 또다시 공양 올려
 지존(至尊)께서는
 마음속으로 흥연(欣然)하시어
 크게 기뻐하시리라.
 여러 국토에 있어서
 최상의 부류
 위대하신 성웅(聖雄)
 다른 명칭 없이
 사람 가운데 최상의 존재로다.
 그 명호는 보광(普光)
 이와 같은 부류들
 정진하고 력행(力行)하여
 지극히 길고 한계없는
 그 수명에 안주하니
 겁수 구족하여
 룩만 이천이나 되리라.
 저 여래 멸도하신 이후
 정법은 유지되리니
 성인께서 남긴 경전

유지되는 겹은 세배
또한 상법은
다시 유지되어
정법보다 오래 지속되어
또다시 세배 되리라.

가령 정법이
멸진된 이후에
많은 남녀들은
큰 고난을 당하리라.

지극히 수승한
위대하신 성인
그 명호는 보광
구족하게 갖추셔서
오백명의 도사
제각각 평등하게
누구나 불도 이루리니
그 명성 널리 퍼져
십방 불국토 가득하리라.

신족과 대력(大力)
그리고 그 경계
정법의 공덕
그 부류 이와 같으니
누구나 이 귀한 경전
가르침 받들어 닦아
일체가 얻는 소득
모두 이와 같을진대
천상에 나타내시고
세간에도 있어서
예컨대 나는 지난날에
칭정한 도 펼쳐
널리 광명을 놓았으니
사람 가운데 지극한 존재
행을 건립하여
모두 인내하고 따르니
각각에게 수기 내리노라.
가엾게 여기어
무양수의 일을 통해
하나의 평등 성취하게 하리니

이와 같이 여래는 지금
 세간에서 정진(正眞)한 존재로
 존귀한 까닭에 마음을 발해
 가섭 위해 설하노니
 오백명의 여래 명호
 그대들도 마땅히 호념한다면
 여러 성문 대중과
 그리고 다른 일체 제자들은
 자유자재함을 얻으리라.

그때 오백명은 아무런 집착없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어
 여래의 수기를 받게 되매 뿔듯이 기뻐하여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
 스스로 땅에 몸을 던져 머리 숙여 례(禮)를 올리고 참회하면서
 스스로 자책하였으니 비루한 무리들은 지난 일을 다음과 같이 회
 상하였다.

“저희들은 스스로 니원(泥洹=넬반)의 멸도를 얻었다 하였으나
 오묘한 방편이 없어 간별하여 바른 귀의처에 돌아갈 수 없었고
 밝은 곳을 저버리게 되고 생각은 피곤에 지치게 되었사옵니다.
 하지만 이젠 여래의 지혜에 이르게 되어 마땅히 정각을 성취하게

되었나이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비유하옵건대 사부(士夫)가 보배창고에 들어가 명월주(明月珠)를 상투 가운데 넣어 두었다가 술에 취해 누워 잠이 들어 명월주를 유념하지 않게 되어 명월주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었나이다. 그는 깨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아무것도 자용(資用)할 게 없어 굶주려서 음식을 구했건만 조금도 얻을 수 없었사옵나이다. 생각을 거듭해 주선(周旋)을 반복했더니 먹을 것을 얻어 마음이 흔쾌하게 되었사오니 이에 이전에 보배 창고에서 얻은 명월주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명월주는 결박되어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나이다. 이에 달려가 구하였더니 곧 자비로운 보배 창고 주인을 찾아가자 자비로운 보배 창고 주인이 말했나이다.

“그대는 어찌된 영문으로 스스로 번다하게 하는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생각을 쉬지 않으니 그대는 알겠는가. 그때 몸에는 의복을 엄정하게 입고서 유행(遊行)을 다녀 이치에 맞게 공명을 행하다가 여기에 이르게 되어 명월주를 보게 되었으니 그대의 옷에 결박시켜 달아 놓았기에 지금도 명월주는 그대의 몸에 붙어 있음에도 어찌 살펴보지 않았는가. 어떤 인연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어떤 방편으로 력행(力行)하게 되었을까. 그대는 지금 재물을 구했건만 얻기가 참으로 어려웠으니 자기 자신을 되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또한 곧바로 명월주에로 달려가고 큰 룡에게로 지니고 가서 바꾸어라. 보배 창고에 있는 보물을 그대 원대로 베풀지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세존께서도 본시(本始)에 행을 지어 보살이셨을 때 지혜를 발하셨건만 저희들은 이해하지도 못했나이다. 지금은 모두 라한의 지위에 머물렀음에도 멸도를 자처하여 험난한 업에 떨어지게 되어 항시 궁핍하게 되었사옵니다. 금일에야 이와 같이 비로소 지혜에 통하기를 발원하게 되었사오니 마땅히 이 법으로 다른 사람을 깨우쳐 교화하여 여래의 지혜로 도를 분별하겠나이다. 비구들은 이것을 니원(泥洹=넬반)으로 여겨서는 안되나이다. 그대 현자들 또한 마땅히 온갖 덕의 근본을 심어야 하리니 지난날 여래는 방편을 펼쳐 깨우쳐 인도하였고 지금도 또한 거듭 경전의 가르침을 설법하시나이다. 이런 부류들은 스스로 멸도를 취하지만, 이제 세존께서는 무상정진도의 수기를 내리매 이에 오백 성문들은 본제(本際)등을 알게 되어 계송을 읊어 찬탄하게 되었나이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듣자옵고

지난날 잃은 바 알게 되어
 이제 수기까지 얻게 되었사오니
 위없는 불도의 가르침과
 무량하게 밝은 지혜에
 머리숙여 례 올리옵나이다.
 세존께서 가없이 여저
 이 가르침 강설하셔서
 광명을 연출하시건만
 어리석고 우매한 저희는
 하나하나
 멀도를 얻게 됨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나이다.
 금일에야 환연(歡然)하여
 교화사업에 안주해
 뜻을 널리 펼쳐
 지혜에 통하게 하오니
 예컨대 어느 누가
 와서 구하고자 한다면
 즉시에 들어오게 하여
 당실(堂室)에서

많은 재물 모두 보게 되리니
그때 부유한 인물은
많은 음식 진실하오리다.
그 사람은 잠들어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명월주 보배
옷 속에 매여 두었으니
이로 인해 누워 잠들어
잠자리에서 깨어나
자비로운 주인의 보배 창고에서
크게 환희하기는 했건만
저 어리석은 사람
이치와 뜻 알지 못하기에
곧 자리에서 일어나
멀리 떠나 성에 들어가
옷과 음식 구했음에도
좀처럼 얻을 수 없었으니
다니면서 먹을 것 구했으나
보물은 자기 옷에 매여 있건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음식 얻어
 이를 무위 얻음이라 여기니
 명월주는 여전히 몸에 붙어있건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 이 진귀한 보배
 어디에 있는가 라고
 어디 있는지 모르기에
 이에 다시 자비로운
 보배창고 주인을 만나서
 포시(布施) 내려주기를 원하자
 주인은 대장부로서
 곧바로 말하였으니
 흔쾌히 선재(善哉)로다.
 오묘한 보배 보여주고
 교화하여 제도하자
 그 사람은 마침내
 지극히 안온하게 되어
 보배의 은택을 입고서
 그 얻음이 여기에 이르러
 무극(無極)의 재물 있어

창고에 가득차게 되었사오니
 또한 오욕(五慾)에 있어서
 스스로 오락으로 즐겼나이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비유설법 이처럼 펴셨사오니
 저희들은 전생에
 입모아 발원했사옵니다.
 여래께서 흥발하셔서
 지난 과거세
 장야(長夜)토록 정진하지 않았다면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하렬(下劣)한 마음으로 인해
 여래께서 베푸신 교화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발원 세우지 못해
 전진해 나아가지 못한 채
 자신이 얻은 니원(泥洹=넬반)
 환희해 스스로 경축했을 뿐

부처님의 성스런 가르침에 의해
 깨달아 깨우치고 제도받아
 이에 입각해 헤아린다면
 멸도라 일컬을 수 없으리이다.
 인증지상(人中之上)께옵서
 가없이 여겨 지혜를 펼쳐
 이에 멸도를 나타내시어
 제일의 무위 알게 되었사오니
 저희 옷에 매인 월명주
 허물없는 최상의 보배
 지금에야 저희들은
 무한의 법문 듣자옵고
 이에 따라 교화입어
 크게 환희하였사오니
 저희들은 마침내 각각
 수기의 말씀 듣게 되었나이다.

9. 수아난라운결품(授阿難羅云決品)

이에 현자 아난은 생각했다.

‘나도 차라리 수리를 받는게 어떨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은밀히 발원을 하고 곧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숙여 부처님 발에 례(禮)를 표하였다.

현자 라운(羅云) 또한 세존의 발 아래 례(禮)를 올리고 아난과 라운은 함께 부처님께 아뢰었다.

“바라옵건대 저희들에게도 감로수 법문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성(大聖) 어버이께서는 명철(明徹)하여 귀의를 받고자 하지 않건만 모두가 귀의하고 구제함이 없건만 구제를 받고 얻으려 하지 않음에도 얻게 되오니 여러 하늘과 아수륜이 나서서 갖가지로 장애 하나이다. 아난과 라운은 불자(佛子)이자 시자(侍者)로서 성인의 법장(法藏)을 수지했나이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발원이 구족되게 하시옵소서. 무상정진도의 수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나머지 성문 이천명도 함께 티끌처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채 일심으로 합장하고서 세존의 존안을 우러르면서 자신들의 소원을 밝혔다.

이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래세(來世)에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명호는 해지각오락신통(海持覺娛樂神通)여래라 불리워지리라. 그 국토 대중들은 자주 신통을 부러 주선(周旋)을 행하고 여래가 멸도한 이후 법의 유지는 그 부처님 수명의 배나 되고 상법의 존립은 정법 유지기간의 배가 되리라. 십방세계의 무량한 백천억 부처님께서 입을 모아 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게 되리라.”

곧이어 세존께서는 계승을 읊으셔서 찬탄하셨다.

여러 비구·대중들에게
 지금 여래가 선언하노니
 인자(仁者) 아난을
 여래의 법 총지(總持)하여
 다가올 미래세에
 지극히 훌륭한 존재가 되어
 룩십이억 부처님께
 공양을 바쳐 올리리니
 명호는 해지각오락신통으로
 크게 박문(博聞)하여
 그는 대도를 성취하리라.

그 불국토 청정하여
 지극히 미묘하게 나타나
 자연스럽게 갖추어지게 되고
 무수한 당번 드리워지고
 저 강변 모래알처럼
 무수한 보살 대중
 모두 저 여래께서
 교화시켜 마음내게 하리니,

그들은 지극히 수승해
 무극의 신족(神足)이리.
 그의 덕과 명문(名聞)
 십방세계에 가득하고
 그 여래의 수명
 한량없이 헤아릴 수 없나니
 세간중생 불쌍히 여겨
 교화시켜 마음 내게 하리.
 설령 그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이후에라도
 정법이 유지되는 기간
 여래 수명의 두배
 상법이 존립되는 기간
 정법 기간의 두배
 훌륭한 법 가르쳐
 이와 같이 교화 펼치리니
 강변 모래알 처럼 많은
 이곳의 증생
 그 보응의 마음 일으켜
 깨달음의 도 높이 세워야 하리라.

그때 새로 뜻을 발한 보살 팔만명은 다음같이 생각하였다.

‘괴이하여 일찍이 듣지 못한 일로 예전부터 있지 않았으니 세
 존께서는 우리 보살들을 제외시키고 완고한 저 성문 무리들에게
 만 거듭 수기를 내리시어 대도를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에 세존께서는 그들이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꿰뚫어 아
 시고 곧 말씀하셨다.

“여러 족성자(族姓子)와 비구들이여, 귀 기울여 들어라. 불법

은 평등하느니라.

족성자들아, 저들은 무상정진도를 낸 적 있느니라. 예전에 초공(超空) 여래의 지진등정각의 처소에서 여러 경전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계속 정진을 거듭해오다가 나의 처소에 이르게 되었은근히 도를 건립하고자 했느니라. 이런 인연으로 빨리 무상정진도를 얻어 최정각(最正覺)을 성취하게 될 것이니라.

인현(仁賢) 아난은 직접 부처님을 따라 다녀 무량한 공무(空無)의 뜻을 듣고 성불의 수기를 얻고 그 불국토 대한 말씀도 듣고 그 본행(本行)과 발원도 듣게 되자 환희심으로 넘치게 되었으니 곧 무양수 백천억해 정각(正覺)의 경전을 회상해 내고 또한 전후의 겁수 동안 본행(本行)으로 밝은 자취를 보게 되었다.

곧이어 게송을 읊어 찬탄하였나니라.”

저는 본래 무량한

부처님의 설법 들어

모든 가르침 기억하옵니다.

경전 설법하실 때

여러가지 멸도

훌륭한 대성의 가르침

저는 모두 기억하옵니다.

가르침 대로

깨달음의 도 높이 세워

마음에 회의 품지 않나이다.

이처럼 방편을 활용해

안주하게 되었사오니

부처님 모시는 시봉으로

큰 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른 법을 가지겠나이다.

이어 세존께서 현자 라운(羅云)에게 말씀하셨다.

“생각컨대 라운 그대는 래세(來世)에 성불하리니 그 명호는
도칠보련화(度七寶蓮華) 여래 · 지진등정각 · 명행성 · 선서 · 세간
해 · 무상사 · 도법어 · 천인사 · 불중유이리니 마땅히 십방세계의
미진수 여래께 공양 올려 여러 부처님의 존자(尊者)로 태어나게
되고 또한 지금과 마찬가지로 내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리라.

그 도칠보련화 여래의 국토, 수명, 증생 교화는 장엄하고 해지
각오락신통 여래의 세계처럼 청정하리라. 라운은 마땅히 부처님
의 존자가 되어 무상정진도를 얻어 최정각을 성취하리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계송을 읊으셨다.

라운은 세존의
장자(長子)이며
나이 어린 동자로
유화(柔和)하고 미묘하여라.
그는 여래의 아들로
대도를 얻어
항상 법을 베풀며
환희에 넘치리.
무수억 부처님
친견해 애념(哀念)일어나니
그 숫자 계산하려 해도
그 끝을 알 수 없노라.
가장 훌륭한
부처님의 아들로
반드시 대도 성취하리라.

여러 비구들이
또한 여기의 라운은

행실이 온아(溫雅)하고
 독특한 발원을 세워
 나의 정계(正戒) 받들어
 세간의 영웅·도사가
 찬양하고 찬탄하리라.
 내가 지금 밝히노니
 그는 여래의 아들로써
 온갖 덕 무량하니
 그 숫자 천만억해
 헤아린다 해도
 그 끝을 알 수 없네.

저 라운이란 인물
 부처님의 장자로
 이제 도를 통해
 불도에 머물게 되리라.

그때에 아난과 라운은 입을 모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지금 저희들 이천 성문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계율을 배워 마음이 흥연(欣然)하게 되어 세존의 존안을 우러러 보면서 도법(道

法)이 담긴 정전(正典)은 불가사의하오니 원컨대 지금 배워서 이해하고자 하나이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난로 라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천성문 제자로서 법계(法戒)를 배우는 것이 보이는가?”

그래서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러하옵니니다. 보고 있사옵니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고하셨다.

“이 무리들은 함께 대승법을 배우는 사람들로 오백세계의 미진수 여래께 공양을 올리고 정전(正典)을 수지한 이후 후세에 함께 운집한 다음 십방세계에 퍼져 각기 다른 국토에서 무상정진도를 얻어 최정각을 성취하리니, 그 명호는 보영(寶英)여래 · 지진등정각 · 명행성 · 선서 · 세간해 · 무상사 · 도법어 · 천인사 · 불중우이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일겁으로 깨달음의 지혜가 평등하고 여러 성문들은 똑같아 다소의 차별이 없으며 여러 보살 대중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이후 정법의 유지 기간도 차이가 없으리라.”

이어 부처님께서 게송을 읊으셨다.

여기있는 성문들
 이천명의 무리
 이제 모두
 세존 앞에 일어섰으니
 이들의 성스런 지혜
 부처님의 수기를 받아
 미래세에 반드시
 성불하여
 무량한 비유 통해
 법을 나타내게 되리라.
 여러 부처님 친견해
 공양 올리고
 곧 위없는 세존의 도를
 증득하여
 도행(道行)에 머물면서
 자재함을 얻게 되리라.
 그 이름과 행은 다르지만
 십방세계 유력하면서
 인욕행을 감내하면서도

한 순간이라도 변치 않으며
 마땅히 혼자서
 나무숲 아래 좌정하여
 불도를 이루고
 지혜를 성취하여
 깨달음을 이루리라.
 그 명호 동일하게
 보영(寶英)이라 일컬어지고
 그 명성 흘러 넘치리라.
 그 불국토
 평등하고 특수하며
 여러 성문 대중 또한
 평등해 이와 같이
 신족(神足)과 광명
 세간에 두루하여
 일체 십방세계 극토에
 충만하리라.
 경법(經法)분별하여
 그에 의지하리니

정법의 존립은
평등해 차이가 없으리라.

이어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되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이어 계송을 통해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부처님의 수기 말씀 듣자옵고
세간에 광명 총만하여
흡사 감로수가 넘치듯
무극의 편안함 얻게 되었나이다.

정법화경 권 제6

10. 약왕여래품(藥王如來品)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도법(道法)은 한 가지뿐으로 이승(二乘)은 있을 수 없다. 예컨대 무상정진도에는 과거·현재·미래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없으니, 비유컨대 온갖 시냇물, 네 도랑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 맛이 되듯, 해가 비추되 두루 밝히지 않는 곳이 없고 조금도 증감되지 않음과 같나니라.

만일 어느 족성자가 정각에 이르러 삼도(三途)와 과거·미래·현재가 없음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정법화경을 수지하여 공(空)의 지혜를 분별하여 육도(六度)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리니 꽃·향·음악을 울림을 공양이라 여기지 말고 마땅히 삼계에서 벗어나 세 가지 통달한 지혜, 무극(無極)의 지혜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양이라 일컬을 수 있느니라.

왜 그럴까. 구원겁이라 칭하기도 어려운 아주 오래전 그 당시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명호가

약왕여래 · 지진등정각 · 명행성 · 선서 · 세간해 · 무상사 · 도법어 · 천인사 · 불증우이고, 세계의 명칭은 대정(大淨), 겁의 명칭은 정제(淨際)였느니라. 약왕여래의 수명은 이십중겁(二十中劫)이고 성문 대증은 삼십륙억이고 보살대사는 십이억이니라. 당시에 보개(寶蓋)라 불리는 전륜왕이 있었으니 전주(典主)는 네 가지 지역을 담당했고 왕에게는 왕자가 천명 있었는데 단정하고 용맹스러웠으며 칠보로 장엄된 성신(聖臣)이 있어 원수나 적을 항복 받았느니라.

이 왕은 약왕여래께 구족하게 다섯 중겁에 걸쳐 공양을 올렸으니 그 권속과 함께 모든 것을 갖춰 약왕여래께 시주하고 평안하게 받들었나니라. 다섯 겁이 지난 뒤 왕은 천명의 왕자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처럼 여래 곁에서 공양을 올렸나니 그대들 또한 부왕의 단서를 이어받아 여래께 수순하여 받들기를 바라노라.’

이에 왕자 천명은 왕의 말씀을 받들어 또한 다섯 겁에 걸쳐 약왕여래께 공양 올렸으니 뛰어난 음식을 진상으로 바쳐 그 편안함에 조금도 어김이 없게 하였느니라.

천명 가운데 한 태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선개(善蓋)였느니라. 선개 태자는 홀로 한가롭게 머물면서 조용히 생각에 잠기기를 즐겼나니라. 다른 왕자들이 생각하기를 하였다.

자신들은 지금 여래께 공양 올리거늘 저 선개 태자는 저처럼
 홀로 초연하구나. 부처님의 위신력을 계승한
 허공유천(虛空有天)이 말했나니라.

‘지금 족성자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법 공양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것이니라.’

또한 물었다.

‘법 공양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허공유천(虛空有天)이 답했다

‘그대는 약왕여래께 찾아가서 물어라. 마땅히 분별하여
 자세히 설하시리라.’

이에 선개는 일어나 약왕여래의 처소를 찾아가서 머리 숙여
 례(禮)를 표한 뒤 약왕여래께 아뢰었나니라.

‘법 공양은 경전을 받들어 수순함이라 하는데 무엇을
 뜻하옵니까?’

이에 세존께서 말씀하셨나니라.

‘법 공양이란 예컨대 여래께서 설파하신 경전의 심오한 뜻에
 수순해 모든 세간의 대중을 깨우쳐 교화 시킴이니, 법을
 수지하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려워 이로움을 버리고 출가하여
 보살의 협장(篋藏)을 구하기 위해 광막한 곳에 처하여

총지인(總持印)으로 인가하고 정진, 력행(力行)하여 불퇴전의 법륜을 굴러 육도(六度) 무극(無極)의 지혜를 나타내어 은근히 여래의 도품(道品)을 일람해 섭수함이니라.

법인(法忍)을 일으키지 않은 채 정전(正典)에 들어가서 많은 증생들에게 대자비를 베풀어 마구니들을 항복시키고 온갖 법견(法見)으로부터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어 십이인연(十二因緣) · 무아(無我) · 무인(無人) · 비수(非壽) · 비명(非命)의 이치를 펼쳐 보이고, 공(空) · 무원(無願) · 무상(無想)의 법에 뜻을 두어 증생의 행에 말미암지 않았으며 도장(道場)에 처해서 법륜을 굴리는 것이니라.

하늘 · 룡왕 · 건담화 등에게 법을 권하고 힘쓰게 하여 즐겨 받들게 하고 법장(法藏)을 천명하니 여러 현인과 성인이 보호하고, 온갖 보살행을 선양하며 마침내는 온갖 고통이 무아(無我)인 까닭에 수용할 몸이 없나니라. 증생들의 탐욕을 막기 위해 곧 방편을 세우나니라. 온갖 마구니 이도(異道)가 전도된 소견에 떨어져 기이함에 빠진 채 항상 두려움을 품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나니 그들로 하여금 생사의 두려움을 떨진하게 하여 근심 걱정을 제거함으로써 안온한 무위의 일을 보게 하니라.

과거 · 미래 · 현재의 부처님을 찬탄함이 이와 같아 미묘한

색상을 할판(割判)하여 온갖 법인(法忍)을 총지함으로써 도를 선포하여 깨우쳐주어 갖가지 법기(法器)를 천발(闡發)하나니라. 익힌 바의 뜻을 분별하여 장차 정법을 가르치는 것을 법 공양이라 일컬느니라. 여러 경전의 가르침을 베풀며 뜻을 법인(法忍)에 둔 채 전적(典籍)에 담긴 의미를 펼쳐 수순하게 반복하고 그 요체를 연설하고 가르치되 사된 소견 없게 하나니 소종생(所從生)이 없게 하여 법인(法忍)을 일으키지도 않게 하나니라. 무아(無我)·무인(無人)으로 온갖 인연에 들어가니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고 소송함도 없으며 무아·무수(無壽)하여 구절의 뜻에 얽매어 집착함도 없고 지혜에 있어서 방일함도 없나니 장차 심식(心識)으로 머무를 바 없는데 머무르며 이치의 귀의처를 알아 비의(非義)를 인도하여 온갖 기이한 법을 도래시켜 사람을 돌보는 대신 진체(眞諦)에만 의지하니 예컨대 법의 귀의처에는 집착할 것도 들어갈[入] 것도 없이 온갖 기이한 집착을 단멸시켜 갖가지 교활함을 멸진하여 생로병사가 모두 제거되고 십이인연을 관찰해 다하지 않고 여러 머무르는 소견[住見]을 살펴보아 전도에 떨어지지 않나니, 이를 즉성자의 법 공양이라 일컬나니라.’

왕자 선개는 약왕여래로부터 이와 같이 법 공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에 유순하게 법인을 얻게 되어 곧 옷을 벗어 부처님 주위를 덮고 세존께 아뢰었다.

‘성인의 은택으로 인해 저는 뜻을 세우게 되었나이다.

여래께서 입멸하신 이후에 정법을 보호하여 법 공양을 일으켜 마구니와 원수를 항복받아 정법을 수용하게 하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서는 그의 마음을 알았으니 그가 말세에 법을 지키는 성(城)이 되어 보호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왕자 선개는 현재의 부처님으로 인하여 집을 나와 출가의 도를 닦고 정진을 거듭해 덕의 근본을 일으키나니 머지않아 오신통을 성취하게 되리라. 신통, 총지, 아무 두려움 없는 힘[力無所畏]을 구족하게 갖추리니 십중겁(十中劫)에 걸쳐 약왕여래께서 설법한 경전의 가르침을 수레바퀴처럼 전하리라.

선개 비구는 정법을 보호하는 까닭에 일세(一世)중에 천억인을 교화시켜 뜻을 발하게 하여 물러나지 않게 하리라. 14년 동안에 사람들이 성문과 연각의 지위에 올랐고 천상에 태어난 인물은 헤아리기 어려우니라.

비구들이여, 그때 선개 왕자가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지금 현재부처님이신 보함(寶燄)여래·지진등정각이 바로 그이니라. 천명의 왕자는 여기 현겁

가운데 천분의 부처님이 바로 그들이나니, 구루진(拘樓秦)여래가 첫째이고, 마지막에 성불한 왕자는 흔락(欣樂)이니라. 태자 선개(善蓋)는 지금 내가 바로 그이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일체를 공양 받음에 있어서 법 공양은 빼놓을 수 없나니 과거·미래·현재 부처님이 이로부터 출현하시나니라.

족성자와 족성녀들아, 십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자 한다면 곧 정법화경을 수지하여 모든 중생들에게 수지하게 하고 독송하여 그 뜻을 나타냄으로써 일승만 있을 뿐 삼승도(三乘道)가 없음을 밝게 알게 해야 하나니라.”

이어 부처님께서 게송을 읊으셨다.

가령 어느 누가

대법(大法)을 이해하여

모든 중생 깨우쳐 교화하여

정각에 이르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 법화경을

미쁘게 수지하여

원근(遠近)에

모든 듣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낼지니라.

비유컨대 시냇물이

모두 바다로 모여들어

합쳐 한 맛으로 되듯

성문이나 연각

그리고 보살도(菩薩道)

모두가 다 무상정진도에 귀의할지니

비유컨대 해와 달이

천하를 널리 비추되

백 가지 곡식, 약목(藥木)

가시나무 모두 밝히듯

이 경전 이와 같이

삼계를 밝게 비추어

모두 한 뜻에 들어가리라.

지난날의 여래

그 명호는 약왕

그때 어느 성왕(聖王)

이름은 보개(寶蓋)

오겍 동안에 걸쳐

약왕 부처님께 공양 올려
 모두를 평안하게 베풀어
 아무런 결핍이 없었어라.
 천명의 왕자에게 고하노니
 부처님께 공양 올려
 천명의 왕자 가르침 받아
 마음이 떨 듯 기뻐
 오겹에 이르도록
 여래께 공양 올려
 음식이나 침구
 번개(旛蓋)나 풍악을 구족했으며
 선개(善蓋) 태자는
 한가롭게 살면서
 스스로 생각하되
 이 공양보다
 나은 것이 있을소냐,
 허공가운데 하늘(空中天)에서
 법 공양이 수승하다고 말하니,
 곧 스스로 물어 말하되

무엇을 법 공양이라 하나이까
 하늘에서 곧 알리어 말하되
 마땅히 부처님께
 가서 물어 보라.
 태자가 곧 여쭙었더니
 부처님께서 구족하게 해설해
 난해한 구절의 뜻
 깊고 묘한 법장(法藏)의 가르침으로
 허공처럼 생각이나 원함이 없이
 곧 바른지혜[正慧]에 들어가
 대자대비로
 온갖 마구니들 항복받고
 62가지 소견을
 자연히 제거하나니
 무상(無想) · 고(苦) · 공(空)
 몸의 일 아니로다.
 무아(無我) · 무인(無人)
 무수(無壽) · 무명(無命)의 이치
 뛰어나 장차 수지하여
 법인(法忍) 일으킴 없이

불퇴전의 법륜 굴러
 법과 법이 서로 비추니
 열두 가지 인연법
 전전(展轉) 상생 함으로써
 본무(本無)의 이치 이해하여
 시작과 끝 따로 없어라.
 이에 선개 태자
 유순히 법인을 얻었어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이후
 정법의 성 글게 지켜
 게으름 피움이 없이 정진해
 오신통, 총지
 무애변재를 얻어
 모든 증생 깨우쳐 교화하리라.
 그때 천억 증생
 모두 대도를 세워
 14년 동안에 사람들이
 성문과 연각에 올랐고
 무양수의 증생

천상에 태어나니
이런 까닭에
법 공양 찬탄하노라.

가령 어느 누가
공양하고자 할 때
이 정법화경
마땅히 수지하고
여래의 뛰어난
방편 밝게 알기에
이승에 있지 않고
하나의 도에 귀일되리라.

그때 세존께서는 팔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약왕개사(開士)가 보살등에 인연하여 곧 이 사부대중인
무앙수억 천 · 룡 · 귀신 · 아수륜 · 가류라 · 진타라 · 건답화 ·
마휴륜 · 사람 · 사람이존재 · 비구 · 비구니 · 청신사 · 청신녀 · 성문
· 연각 · 보살들을 살피되, 현재 목전에서 여래께서 이 경전
설법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고, 모든 대중이 게송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들어 한결같이 단숨에 환희심을 일으킨 것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서는 여기의 사부대중에게 수기를 내려 마땅히 무상정진도의 마음을 얻게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서 약왕개사에게 말씀하셨다.

“가령 여래가 멸도하신 이후에 이 경전의 게송 하나 4구계를 듣고서 단박에 뜻을 내어 권조(勸助)한다면 부처님이 수기를 내려 미래에 무상정진도를 얻게 되리라. 예전에 백천억 부처님을 시봉하였으니 백천억 부처님을 좇아 뜻을 내어 원을 세웠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증생을 가엾게 여긴 까닭에 와서 태어난 것[來生]일뿐이니라. 이 경전의 게송 하나를 수지하여 독송하고 죽백(竹帛)에 서사하고 마음속 생각에 깊이 아로새겨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일 게송 읊는 소리를 듣고 공손하게 살핀다면 비로소 성스런 세존의 최상구(最上句)를 알게 되리라. 만일 꽃·향·증채(繒綵)·당번으로 뜻을 내어 이 경전에 공양 올리고 여래를 향해 합장하여 례(禮)를 올린다면 마땅히 세간의 증생들이 저절로 귀의하리라.”

또한 약왕에게 말씀하시되,

“만일 족성자 족성녀가 가령 어느 누가 게송 하나를 능히 수지 한다면 권조(勸助)하여 이 경전 명칭을 듣고서도 환희하게 되리라. 만일 그 명칭을 듣는다면 마땅히 이 도리를 배우게

되어 미래에 세존께서 전전(展轉)해 서로 일컬으리니, 족성자
족성녀여 래세(來世)에 곧 여래 지진등정각이 되리라.

왜냐하면 이 경전을 수지하여 독송하고 서사하여
번개 · 꽃 · 증채 · 잡향(雜香) · 분훈(芬薰)을 공양으로 올리면 그
족성자 족성녀는 무상정진도를 성취하여 여래처럼 멸도를 얻어
널리 여러 하늘과 세간 사람을 어여뻐 여겨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거리낌이 없음을 얻으리라. 항상 인간으로 태어나 이
경전 가르침을 펴고자 하는 그 사람은 이미 예부터 미묘한 행을
지었고, 지은 바의 행으로 인하여 곧 마땅히 청정하게 장엄된
불국토에 태어나게 되리라. 항상 스스로 인연을 살펴 법을
강설하고자 하는 까닭에 마땅히 알아라. 이 무리들은 중생들을
불쌍하게 여기어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연고로 이곳에 와서
태어나는 까닭이니라. 곧 여래께서 시키신 바를 반복하리라.
그 족성자는 곧 저 사람들에게 여래의 일을 행하고 알리되
세존께서 보내신 바이며 여래께서 펼치신 바를 강설하리라. 이
법에서 가르치는 것을 만약 다시 통달하지 못했더라도 그 몸으로
입고 뒤를 이으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흉포하고 험해 항상
독해(毒害)하고자 생각을 품고 잠깐이라도 생각을 일으키면 그
사람에게 불가한 일이라 말을 하라. 그 재앙은 측정하기
어려우니라. 만약 일겁동안 여래를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과

죄는 똑같아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 이는 다 세존의 씨앗이기 때문이니라.

만약에 족성자가 이 경전을 강설할 때 어린 동자가 있어 이 경권(經卷)을 수지하리니 백의(白衣) 사문(沙門)이리라.

만일 말로써 악한 일을 저지르고자 해도 생각한대로 그 사람에게 더하지 못하리라. 악한 말을 시켜서 듣게 해도 지성(至誠)이 헛되고 망령되어 원성(怨聲)만 선양(宣揚)하게 되고 곧 재앙과 허물 속에 살게 되리니, 오히려 여래를 향해서 해(害)하려는 생각과 같느니라.

족성자녀가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만 할뿐 배우고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위해 말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허물을 얻게 되리라. 만약 경전을 수지하고서 마땅히 옷과 맛있는 반찬과 음식·향·꽃·등불·기이하고 수승한 것을 받치고 즐기고 공양한다면 이 족성자 이 족성녀는 곧 대보(大寶)를 지니고 마땅히 례(禮)를 올린 것이 되느니라.

왜 그런가 하면, 곧 능히 한 번 이 경전의 가르침을 반복해 들었고 만약 듣고서 공양하는 바가 있다면 뜻이 무상정진도를 원하는 연고니라.”

이어서 부처님께서 게송을 읊으셨다.

만일 불도에 머물고자 한다면
 뜻으로 그 공덕을 흠모하여
 마땅히 저 사람들은 이 경전을 수지한
 사람사람에게 공양 올려야 하리라.
 만약 즐겨 모든 지혜에 통하고
 거림낌없는 생각으로 설법하려면
 곧 마땅히 이 경전을 수지하고
 아울러 공양하고 받드는 사람과
 이 경법 설하는 법사는
 중생을 불쌍히 여겨
 세간에 사자후 남기고자
 찾아와서 대중을 교화하리라.
 가령 경전을 수지하여
 나는 곳마다 항상 정진하고
 힘차고 글세게 스스로 와서
 중생을 불쌍히 여겨
 원하는 대로 자재하게 태어나니라.
 최후의 말세에
 저들을 따라 우연히

만나보리니

이 경전은 존귀하고 최상이니
 마땅히 모든 하늘과 사람이
 향·꽃으로 받들고 공양하며
 의복으로 모두 다시 덮어주고
 항상 법사에게 공급하리라.

저 사람을 공경하기를
 마땅히 항상 부처님처럼 받들며
 합장[叉手]하여 례(禮) 올려
 성인의 도 자연히 이룰지니
 만일 최후의 때 당하면
 이 경전을 만나게 되리라.

부처님 멸도하신 뒤
 이 경권(經卷) 수지해
 항시 공양 바쳐 올려
 지극히 수승한 존재로 받들어
 온갖 맛을 구족한
 음식이나 공양물

방 · 집 · 침구

수억 가지 의상으로 공양 올려

한 번 반문(反聞) 행하여

이와 같이 받들면

여래께서는 곧

그에게 수기를 내리리니

부처님은 저 국토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리라.

만일 최후에 당면하여

이 경전과 만나거든

칭법한 자로 하여금

수지하여 서사케 하라.

지금 부처님 나투시어

눈앞에서 보고 있나니

여래를 비방하여

구족하게 일겁 동안

얼굴색 바꾼 채

마음에 회한을 품으니

이에 그사람은

무수한 재앙 얻으리라.

설령 이 경전 수지해
다른 사람의 이해를 위해
분별해 설하지라도
만일 비방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류들은
헤아릴 수 없는
죄가 저것보다 지나치리니
가령 어느 누가
면전에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열 손가락으로 합장한 채
구족하게 일겁 동안
뜻을 청정하게 지녀
이 불도를 구하여
백천억해 동안
계송 통해 찬탄해
법사를 길이 칭송하고
기쁘게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고
 지혜 밝은 자 덕이 있기에
 저 국토에서 복 얻어
 이보다 또한 나으리니
 어느 누구든 찾아와서
 배우는 이에게 공양 올리리라.

 만일 십팔억 천겁 동안
 그가 함께 공양 바쳐
 온갖 맛난 진수성찬
 여러 하늘의 향과 꽃
 부드럽고 정교한 공양물과
 공양 올린 겁의 수
 계산하니 십팔천억
 조화로운 음성, 환희 넘친 용모로
 기구(崎嶇)한 것 현상하리라.

 만일 한 번 돌이켜
 이 경전설법 듣는다면
 온갖 이익과 경사로움 얻어
 어디에도 전줄 수 없을 것이로다.

이어 부처님께서 약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매번 밝힌 바 있듯 전후에 현시한 경품(經品)은 무량하니 설법한 경권(經卷)은 매우 많아 세간의 모든 법에 전주어지나니라. 지금 이 경전과 그 계승은 뛰어나게 지어져 지극히 존귀하여 하늘과 땅을 뒤덮건만 중생들이 즐겨 믿지 않으나 여래의 정각은 조금도 훼손됨이 없나니라. 안에서 연거(燕居)하여 은밀히 법사를 좇아 이 경전을 수지한다면 여래께서는 위신력으로 지키리니 어느 것에도 파괴되지 않으리라. 전세에 때때로 법문을 들었기 때문이니라. 여래가 현전한 지금 이 경전을 들어도 자주 비방을 일삼거늘, 하물며 여래가 멸도한 이후에는 이 가르침을 얻어 듣기 어려우리라. 뜻을 내어 뒤덮으니 족성자녀가 이와 같이 원하는 바를 타방세계에 현전하시는 여래가 모두 보고 있나니 존립하고 있는 곳에서 자기 몸으로 법문을 듣게 되는 것은 믿음의 힘이고 선본력(善本力)이고 발원의 힘 때문이니라. 여래의 집은 평등하게 한 곳에 있음이니 이런 부류의 덕은 이와 같느니라. 여래의 감로수를 구하려는 뜻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나니 이는 전세에 위력의 소치이니라. 부처님이 멸도하신 뒤 이 정법전(正法典)을 믿는

자는 수지해 서사하고 공양 올려 받들어 수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리니 그 덕이 이와 같으리라.”

부처님께서 계속 약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누가 이 경전 가르침을 전하거나 서사(書寫)해 읽는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의 신묘한 사찰을 일으키고 대보(大寶)로써 높고도 장대(長大)하게 한 것이니, 마땅히 다시는 부처님의 사리(舍利)에 집착하지 말지니라. 왜 그런가. 곧 여래의 사리를 모두 입은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이 경전을 설법하는 곳에서는 독송되고 읊어지고 서사되리니 사경이 마쳐지면 즉백경권(竹帛經卷)에 공양이 바쳐져 예컨대 부처님의 탑사(塔寺)처럼 귀명하여 례(禮)를 올려 온갖 향·꽃·분훈(芬薰)·금슬(琴瑟)·공후(箜篌)·당개(幢蓋)·증번(繒幡)을 바치리라. 만일 어느 중생이 탑사에 머리 숙여 례(禮)를 올리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 경전 무상도(無上道)의 가르침을 친근해야 하리라.”

또한 부처님께서 약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많은 보살이 출가해 도를 닦고 그리고 모든 백의(白衣)들이 보살법을 행하고 능히 이와 같은 모양의 경전을 만나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보고 독송하고 서사(書寫)하고 공양 올릴지니라. 그 어떤 보살이든 보살행을 수행하여 방편의 뜻을 밝게 깨달아

마치리라. 가령 부처님의 경모(景摸)를 듣게 되어 보살행을 함께 행하고 법을 듣고 즐겨 믿어 그에 계합해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공양을 받게 되리니 한자리에 앉아 무상정진도에 가깝게 가리라. 이와 같은 사람이 불교의 뜻에 계합함을 보게 된다면 그 덕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약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유컨대 어느 남자가 기갈에 쫓겨 물을 구하기 위해 평지를 떠나 고원(高原)에 땅을 파내 나날이 공을 들였건만 단지 마른 담만 보게 되었으니 시절(時節)이 집적되어 그 샘물은 멀어질 뿐이어서 물을 얻지 못했느니라.

또다시 다른 때에 땅을 많이 파냈더니 진흙 물이 나왔으나 탁해 차마 먹을 수 없었으니 그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계속 파내 물을 얻고자 했느니라. 그때 남자는 상서로운 감응을 만나게되자 의심을 떨어내고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날마다 달마다 공을 들였더니 비로소 물을 만나게 되었느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약왕보살이여, 가령 보살이 이 경전 말씀을 듣고서도 수지하여 독송해 배우지 못한다면 무상정진도로부터 극히 멀어지게 되리라. 이 경모자(景摸者)는 보살의 업이니 가령 이 정법화경을 듣게 하여 독송하고 정밀하게 마음에 품고서

봉행해야 속히 최정각을 성취하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약왕보살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이 이 경전을 순순히 수지해 독송할 수 없기에 무상정진도에 이르러 최정각을 성취할 수 없느니라.

왜 그런가. 내가 전에 선언한 바와 같이 가령 어느 누가 이 경전을 즐겨 받들지 않는다면 여래를 어기는 격이니 이 경전은 도법(道法)의 으뜸이자 온갖 지혜의 근원으로 보살로 하여금 도를 성취하게 하느니라.

어느 보살이 이 경전 가르침을 듣고 두려워하여 즐겨 받들지 않는다면 그는 새로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리라. 만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오랫동안 보살행을 닦은 것이리라. 성문이 이 경법을 만난다면 혹 두려워하여 마음에 공포심을 품고 교만 방자함을 부리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약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여래가 멸도한 이후 보살과 대사 등이 이 경전을 사부대중에게 설하기 위해 여래의 옷을 착용하고 세존의 사자좌에 앉아 사부대중을 위해 이 경전 말씀을 전법하리라. 여래의 옷을 착용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예컨대 크게 인욕을 하여 유화(柔和)하여 편안함을 일으켜 여래의 옷을 입었다고 하리라. 즉성자여, 마땅히 이 옷을 입고 정진해야

하느니라.

세존의 사자좌에 앉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법이 공적(空寂)한 줄 이해하여 무상원(無想願)에 처함이 세존의 사자좌라 일컬나니, 또한 족성자여, 마땅히 이처럼 앉아 머물러야 하느니라.

이 경법은 비구·비구니·청신사·청신녀·하늘·룡신을 위해 널리 분별해 설하노니, 그 마음이 떨 듯이 기뻐 나약하지 않아 대도에 뜻을 두고서 사부대중을 개도(開道)하느니라.

족성자여, 만일 타방세계에 처하여 사람과 그 권속·비구·비구니·청신사·청신녀로 화해서 이 법을 반포하리니 가령 어느 누가 청법했음에도 즐기지 않는다면 나는 그로 하여금 이 법을 즐겨 애희(愛喜)하도록 하리라. 만일 광야에서 한가롭게 하늘·룡·건담화·아수륜·가류라·진타라·마휴륜이 있어 여래는 사람으로 화해서 경법을 설하리라. 비록 또한 타방 찰토에 있을지라도 마땅히 스스로 현현해서 증생으로 하여금 보게하리라. 만일 이 경전을 수지하더라도 구절의 뜻을 모르고 그 차서(次緒)를 잃는다 하여도 독송해 배우는 자로 하여금 그 위신력을 입어 뜻이나 차서를 알게 하리라.”

이어 세존께서는 곧 계승을 읊으셨다.

모두 나약함에 빠졌으며
 이 경전 청법해야 하리니
 이 법 만나기 어렵고
 믿는 이도 어렵노라.
 사람이 물을 얻기 위해
 고원에서 땅을 파내
 오랫동안 공을 들였건만
 겨우 마른 땅만 나올 뿐
 연후에 한층 공들이자
 젖은 흙 점점 나타나기에
 이에 마음속 의심 해소되어
 비로소 물에 가깝게 되듯.

이 경전 가르침 못 들어
 수행 닦지 못한 자
 그는 도로부터 멀어져
 부처 지혜에서 벗어나리.
 이 경전 깊고 깊어

성문의 일 결단 내고
 경전 중의 경전 말씀으로 듣고
 깊이 사유 거듭한다면
 대도에 가깝게 가리니
 지자(智者)는 성인 지혜 성취하리.
 마치 진흙을 보게 되어
 물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마땅히 여래의 방에 들어가
 여래의 옷 착용하고서
 성인의 자리에 앉은 채
 이 법 밝게 설하여
 자비심으로 여래의 방에 들어가
 인욕으로 부드럽게 옷 입어
 사자좌에서 공을 이해하여
 아무 두려움없이 설하리라.

설령 칼과 돌로 때리고
 말로 매도 당할지라도
 이 법을 설하는 까닭에

이런 일 인욕으로 감내해
 천억 국토 유력하리니
 내 몸은 견고하여
 불가사의의 해(孩) 겁 동안
 증생 위해 분별하리라.
 여래 멸도한 이후
 증생의 원한 풀어주고
 여러 사람 교화하고자
 이 경전 설법하리니
 비구와 비구니
 청신사와 청신녀가
 공양을 올리노니
 법회에 참석한 자가
 원한 품어 험담하리라.
 설사 이런 원흉 있더라도
 교화시켜 가르침 베풀리.
 가령 홀로 행하여
 독승하여 완습(翫習)해
 자비없는 말 들리지 않아
 질직(質直)하고 한가롭게 거하리니

그 사람 저 행에 있어서
 밤낮으로 여래는 그와 더불어 한 몸으로
 이 경전 설법하리라.

그 사람 변재 뛰어나
 아무 걸림이 없기에
 모든 법에 크게 밝아
 법에 수순하여
 백천억해 대중을 기쁘게 나니
 흡사 성인 부처님께서
 건립한 것과 같이
 가령 어느 누가
 이 법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곧 그를 이름하여
 보살역(菩薩逆)이라 일컬으리.
 배우는 이가 유행(遊行)하다가
 그 자리에 앉은 채
 저 강변 모래알처럼
 무수한 부처님 친견하리라.

11. 칠보탑품(七寶塔品)

그때 부처님 에 칠보탑이 땅으로부터 솟아올라 부처님 주위를 이만리나 둘러싼 채 초연히 허공에 저절로 우뚝하게 서 있었다. 탑은 특수한 색을 띄어 천기지로 변화(千變)하였고 다섯 지 꽃이 저 위로부터 비오듯 뿌려져 분분(紛紛)하게 눈처럼 쏟아졌으니 탑사와 강당이 장엄하게 장식되어 무수한 보배와 함께 합성되어 있었는데 백천 란순(欄楯)·창·처마가있어 헤아릴 수 없었고 온갖 번개(幡蓋)가 드리워졌고 보배 영락도 드리워졌으며 갖가지 명월주가 허공에 라렬(羅列)되어 있어 마치 온갖 별이 반짝이듯 했다. 향로와 보배 꽃병에 이름난 향이 가득했고 전단향이 삼천대천 불국토를 향음으로 진동시켰다. 금·은·류리·수정·산호·호박·차거·마노로 보배 덮개를 만들었으니 덮개 높이가 첫번째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도리천과 사천왕은 의화(意華)를 흠어 칠보탑에 공양을 올렸다.

이 칠보탑 가운데에서 자연히 소리가 흘러나와 다음 같이 찬탄했나니라.

“거룩하고 거룩하시도다. 세존께서 화락하게 안주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살펴보니 도와 덕이 현묘해 세속을 초절(超絶)해 그 짝을 찾아 견줄 수 없고 지혜가 지극히 평등해 흡사 허공과도 같

아 실체에 있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도다.”

이때 사부대증이 칠보탑을 올라다보니 저 허공 높은 곳에서 미묘하고 준엄하게 무량한 광명을 비취 밝게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어 그 밝음을 끌고루 나누어 주었기에, 사부대증은 떨 듯이 환희하여 합장한 채 서 있으면서 칠보탑을 계속해서 우러러 보았다.

바로 그때 대변(大辯)이라 불리는 보살이 있었는데 이 보살은 여러 하늘과 사람이 마음속으로 가우똥거리면서 혹 슬퍼하기도 하고, 혹 환희하며 어찌서 이런 상서로운 감응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고자 했기에, 그가 대신해 부처님께 말씀을 여쭙게 되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지금 무슨 연고로 칠보탑이 대성(大聖)앞에 현전하였으니 지극히 높고 넓어 바라보지 않은 자가 없사옵니다. 칠보탑에서 자연히 음성이 흘러나와 거룩하다고 찬탄도 했사오니 어떤 감응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서로움이 일어나게 되었나이까?”

이에 세존께서 대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칠보탑에는 여러의 몸이 들어있으니 일정하게 구비되어 조금도 흠결이 없나니라. 이곳으로부터 동방에 멀리 떨어진 곳에 불세계가 있는데 부처님의 명호는 다보(多寶)여래이고, 불국

도 명칭은 보정(寶淨)이니라. 다보여래께서 본래 도를 행하실 때 스스로 발원을 했으니 마땅히 이 정법화경에 입각해 닦아 성취하여 여러 보살로 하여금 청법하게 하겠다고, 그런 연후에 보제수(菩提樹)아래에 앉아 무상정진도를 이루게 되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뜻한 바와 같이 십방세계에서 이 경법을 강설하여 모든 중생을 깨우쳐 교화시켜 도를 얻게 하였느니라.

그때 저 부처님께서 멸도에 임하셔서 여러 하늘, 세간의 대중,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멸도한 뒤 여래의 몸 전체를 취해 받들어 일등으로 완비된 상태로 큰 탑을 세우라고 하셨느니라. 만일 그 탑을 보게 되는 중생들은 모두 공덕이 헤아릴 수 없으리라.

그때 그 부처님을 위해 이와 같이 무극(無極)으로 성화(聖化)된 탑이 건립되었으니, 십방세계에 이 법화경이 강설되면 다보여래의 칠보탑이 설법처에 응축음쳐서 그 전신사리가 칠보탑 안에서 거룩하다고 찬탄하리라.”

부처님께서 대변보살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이 칠보탑은 동방에 있어 아래에 처해 강변의 모래알처럼 무량한 불국토나 떨어져있으니 허공에 있을 뿐 출현하지 않았느니라.

이제 능인(能仁) 여래가 정각을 성취했으니 본행(本行)에 따라 도를 배우는 보살이었을 때 중생을 위해 신명을 아낌이 없었고

설새없이 정진을 거듭해 방편을 분별하고 포시(布施)·지계·인욕·정진·일심의 지혜를 닦았으니 어느 누가 머리를 원하면 머리를 주고 눈을 구하면 눈을 주고 코를 바라면 코를 주고 귀를 바라면 귀를 주고, 손·발·몸뚱이·처자·시종·찰보 수레·코끼리·말·옷 국읍(國邑)·취락을 원하는 사람에게 조금도 아낌이 없이 베풀어 스스로 부처가 되었느니라. 지금 여기에 와서 현현하여 능인(能仁)을 공경하고 능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소유한 사자좌의 금상(金床)에 앉아 정법화경을 강설해 모든 증생을 깨우쳐 교화시켜 그 은택을 입게 하였으니 능인 여래께서는 바야흐로 권유를 좇아 강당의 사자좌에 올라 정법화경의 말씀을 펼치셨느니라.”

이어 계송을 설하셨다.

가령 다보여래라는

그 명호를 들어 안다면

처음과 끝 두려움 없게 되고

다시는 고통 만나지 않으리니

만일 약왕사(藥王師)의

명호를 들어 기억한다면

온갖 병 자연히 치유되고
 숙명(宿命) 알게 되리라.
 모든 증생이 공양 바쳐
 법을 최상으로 받들리니
 공의 지혜 분별해서
 자연히 불도에 이르니
 법화경 가르침 선양해
 모르는 이에게 제시하여
 본래 삼승 없음 이해시켜
 위없는 일승의 진리에 수순케 하리라.

부처님께서 대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지극히 존귀하신 다보여래께서 여기의 탑사에 계시니 이 정법화경 설법을 듣기 위해 땅에서 솟아올라 기록하다고 찬탄 하셨느니라.”

이에 대변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을 올렸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지금 이 법회에 참여한 저희들은 다 보여래의 모습을 보고자 하오니 원컨대 자비의 은택으로 위신력을 나투시어 여기 참여한 대중으로 하여금 제각기 대도를 개발(開發)하게 하시옵소서.”

이에 부처님께서 대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다보여래께서는 또한 본디 스스로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우셨느니라.

나의 칠보탑이 도달한 곳에서 이 경전 설법을 들을 것이니, 가령 여래와 사부대중이 내 몸을 보고자 한다면 십방세계에서 원하는 곳에 따라 마땅히 볼 수 있게 하여 함께 이 화상(化像)에 공양 올리게 하리라. 또한 내 몸을 보고자 한다면 십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 감응하여 모든 세계의 화신여래로 이 법을 강설하는 부처님을 여기에 이르게 하리라.”

이때 대변보살이 또다시 부처님께 말씀을 아뢰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큰 은택을 내리시어 십방극토의 모든 부처님의 성스런 덕이 현현하게 하시옵소서.”

이에 부처님께서는 묵연히 허락하셨으니 즉시에 미간 사이의 흰 털에서 미묘한 광명을 놓으셔서 십방세계 각각의 오백 강변의 모래알처럼 천만억 불극토의 모든 세존이 제각기 나타나셨으니 그 불극토의 나무 아래 기기묘묘하게 장엄된 사자좌에 앉아 계셨는데 무양수 백천 보살들이 보배가 교차되어 장식된 뛰어난 좌구(座具)에 앉아 있었고 진귀하고 특이한 증개와 번개가 드리워져 모든 부처님의 자리를 사면으로 장식하고 있었다.

모든 증생을 위해 경법을 강설했으니 그 음성이 부드러워 이해 되지 않음이 없었고 백천보살들이 말씀을 받들어 수지했다. 동서남북·사우(四隅)·상하에 무수한 백천억해 헤아리기 어려운 불세계 또한 보이지 않음이 없었다.

그때 십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제각기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족성자들아, 그대들은 마땅히 감인세계를 찾아가서 능인 여래 지진(至眞)을 찾아뵈고 이와 아울러 다보 세존의 형상이 모셔진 탑사를 찾아보아라.”

바로 저때 이 감인세계의 공훈과 선덕(善德)이 있어 특수한 위력이 자연히 현현하여 칠보 나무들이 주위에 생겨나고 그 땅은 모두 변해 감색의 류리(琉璃)로 되었고 자마금(紫磨金)으로 긴 밧줄을 만들어 여덟 겹으로 도로를 교차하였고 그 땅은 평정해서 군국(郡國)·현읍(縣邑)·촌락·대해·강하(江河)·천류(川流)·천원(泉源)을 찾아볼 수 없었고 단지 자연히 하늘의 향로가 피어올라 온갖 향음이 진동하였고 하늘꽃이 비처럼 내렸다.

그때 이 불국토에 여러 하늘 대중이 다른 불국토로 옮겨갔고 법회대중은 그대로 현재 자리에 있고 칠보 휘장이 교차로 드리워졌는데 휘장은 지극히 장엄했으니 이 불국토에 가득해 헤아릴 수 없었다.

그때 저 십방세계에서 찾아온 부처님들은 제각기 시자를 거느렸고 또한 다시 이 감인세계를 찾아와서 제각각 보배나무 아래에 이르렀다. 이 보배나무는 높이가 이만 이천 리에 달하고 가지·잎사귀·꽃·열매는 각기 무성했는데 보배나무 아래에 사자좌가 준비되었으니 높이가 이만 리나 되었고 모두 기이한 보배로 법좌가 마련되었다. 여래가 윗자리에 앉으셨고 이와 같이 순서대로 앉으셨으니 여기 삼천대천 세계에 부처님이 가득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석가(釋迦)여래 지진등정각의 변현(變現)이 아니라 제각기 십방세계의 불국토로부터 여기에 온 것으로 대도무극(大道無極)의 덕을 나타내셨다.

이때 세존 석가문니(釋迦文尼)께서 여래가 화현한 형상을 변형시켜 팔방으로 각각 이만억 국토가 있게 되었으니 지옥·아귀·축생의 세계는 찾아볼 수 없었고 하늘·아수륜은 타방의 불세계로 옮겨져 이만억 불국토의 땅이 감색 류리로 도어 칠보로 된 나무로 가득하게 되었다. 보배나무는 그 높이가 만이천리나 되었고 가지·잎·꽃·열매가 각각 무성했다. 사자좌는 그 높이가 만 이천 리나 되었으니 여기의 불국토는 모두 평정하여 강·바다·하천·생물이 없었고 또한 목린산(木鄰山)·대목린산·수미산왕·철위산(鐵圍山)·대철위산도 없었으니 하나하나의 불국토는

그 땅이 평등하고 칠보로 합성되어 각각 장엄 되었다. 여러 보배가 교차되어 그 쾌락이 한량없었으니 온갖 꽃이 곳곳마다 뒤덮었고 갖가지 유명한 향이 타올랐다. 보배나무 아래의 부처님들은 제각기 사자상 위에 앉아 계셨다. 이와 같이 하여 또다시 이만 세계의 능인(能仁)여래가 제각기 곳곳에서 장엄한 채 청정함을 현시하여 모든 부처님께서 그 처소를 지으셨으니 이곳의 불국토에도 역시 지옥·아귀·축생·룡왕·귀신·아수륜이 없었고 또한 여러 하늘과 대중이 다른 불국토로 옮겨졌으며 이 불국토들은 그 땅이 감색류리로 되어있고 자마금으로 보배밭줄을 만들어 이어 여덟 겹으로 도로를 장식했다.

또한 저 나무들은 높고 크고 오묘해 역시 전과 같이 사자좌 주위를 장엄했고 그 땅은 평정해 산·강·바다가 없었으며 향·꽃·보배·진귀한 것이 곳곳에 드러나 있고 명월주가 드리워져 또한 전과 같았다. 행래진지(行來進止)하는 도로는 평등해 아무런 차별이 없었다.

이때 석가문불이 화현하신 여래좌 동방에서 무수히 많은 여래가 도교(道敎)를 선포하시다가 모두 다시 이곳에 도착하셨으니 십방세계 각각에서 삼천억 불정각(佛正覺)께서 모두 여기에 이르셨다. 모든 여래께서는 사자보상(師子寶床)에 앉으셔서 각각 보배 꽃을 취해 시자에게 주면서 말씀하셨다.

“족성자여, 그대들은 기사굴산의 능인부처님 처소를 찾아가서 나의 명자를 대고 지극히 경건하게 ‘성체(聖體)는 건강 하시옵고 기력도 여전하시어 모두 평안하시옵니까’ 라고 문안을 여쭙어라. 이 꽃들을 저 부처님과 보살 제자 위에 뿌리고 나의 말을 전하라.”

그러자 석가문(釋迦文) 여래지진(如來至眞)이 화현하신 부처님께서 제각기 사자좌에 앉아 계시고 시자들이 모두 운집해 꽃 공양을 올리는 것을 보셨으니 곧 바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에 머무르시자 사부대중이 모두 일어나 합장한 채로 서 있었다. 이어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칠보사의 강당 문을 여시자 공연(巨然)하게 마치 해가 나오듯 휘황하였으니 비유컨대 대국의 성문이 열리는 것처럼 관약(管籥)으로 그 관축(關軸)을 제지해 안팎으로 통해지는 듯했다.

석가문불께서는 손의 두 손가락으로 칠보사의 강당 문을 여셨으니 그 위덕(威德)이 헤아릴 수 없어 또한 이와 같았다. 여래께서 칠보사의 문을 여시자 다보여래 지진등정각의 몸이 곧바로 현현하셨으니 다보여래께서는 사자상에 앉으셔서 피부색은 생전의 그것처럼 또한 마르지 않았고 위엄스런 광명이 단정하게 빛났고 상호는 그린 듯했다.

다보여래께서는 입으로 거듭 선언하셨다.

“거룩하고 거룩하시옵니다. 석가문불이시여, 이 경전을 설하시오니 이 아니 기쁘겠습니까. 저는 이 경전 설법을 듣기 위해 이곳에 나투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부대중은 다보여래 지진등정각께서 멸도하시어 세상을 떠난 지 헤아릴 수 없는 백천억 겁이나 되었음을 알기에 거룩하다는 그 음성을 듣게 되자 크게 놀라 괴이해서 미증유라 여겼다. 이에 하늘 꽃을 석가문불과 다보여래께 공양으로 올렸다.

그러자 다보여래께서는 좌석의 반을 석가문불께 내주시고 칠보사 가운데에서 음성이 흘러나왔다.

“석가문불이시여, 원컨대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에 석가문불께서는 그 말씀대로 하셨으니 그래서 두 여래께서는 함께 한자리에 앉으셔서 허공에 계셨으니 칠보로 교차된 사자상에 앉아 계셨다.

그때 사부대중은 각각 이렇게 생각했다.

‘두 부처님 지진(至眞)께서는 도와 덕이 고원하여 미칠 수 없으며 외외(巍巍)해서 한계를 알 수 없다. 바라옵건대 여래시여, 말씀을 내리시어 위신력과 은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도 함께 허공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이에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속 생각을 읽으셔서 신족력(神足力)

을 현시하시어 사부대중을 자연히 위로 끌어올려 허공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어 석가문불께서 어느 누가 능히 이 경전을 설법할 수 있겠는가. 바로 지금이 그 시절인연이니라. 여래가 멸도에 들어간 이후에 마땅히 법을 수지하여 독송해야 하리라. 지금 여래의 몸은 다행하게도 들어가고자 하나니, 비구들이여 여래에게 공양 올리거나 받드는 일을 버려두고 이 경전의 가르침을 받들어 공경해야 하리라.”

계속해서 석가문불께서는 계송을 읊으셨다.

무극의 위대하신 성인
여기에 와서 이르셨으니
이로 인해 도사(導師) 현하시니라.
진귀하고 오묘한 탐사
비구들이 알기 위해
칭법하기를 원하니
누가 이를 알 수 있으랴.
정진 하지도 않고서
여래가 멸도하신 이래

무양수 겁 지났건만
 지금에서 비로소
 경전 말씀 청법하고자
 마음 내어 왔구나.
 인연 따라 가르침 펼쳐
 무극의 이치 득도(得度)해
 법의 뛰어난 이익 얻게 하리라.
 지난 세상에
 이런 서원을 세워
 도사로서 발원했으니
 바로 이 도에 말미암았노라.
 멀도한 이후로
 구원겁이 지나서
 이제야 다시금
 십방세계에 현현하여
 자재하게 여기서 벗어나
 유유자적하게 노니나니
 백천억수 무수한
 강변 모래알처럼 증생들
 경전 말씀 듣기 위해

이곳에 이르렀노니
 멸도하신 성장(聖將)
 스스로 현현하사와
 여러 국토 가운데에서
 제각기 노닐면서
 모든 생각을 모아
 성문의 행 즐겨
 이 정법을 지켜
 외호하려는 까닭에
 지금 어떤 인연으로
 이 경전 오래 존립할 수 있을까.
 부처님의 도가
 의부(依附)함에 말미암아
 무양수 불세계에서
 중생들을 취합해서
 이곳에 이르게 되었나니
 청정하게 닦아
 신족력 구족하고서
 제각기 스스로 말하나니

이와 같이 광대한 뜻
 무슨 인연으로 설할까.
 자비로운 법안(法眼) 초포
 부처님 여기에 머무르시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무수한 나무 밑
 도장(道場)에 자리하시니
 그 몸 자체가 진체(眞諦)
 외외(巍巍)한 천만억해
 여러 도사 대중들
 사자상에 자리하사
 청정하고 상정(常正)하여
 해처럼 밝게 빛나고
 불빛같이 반짝여
 온갖 어둠 몰아내고
 유연(柔軟)한 미향(美香)
 십방세계 훈습해
 공양으로 올리누나.
 세간 증생 가없이 여겨
 도탈(度脫)케 하니

모든 중생들에게
 그 은덕 류포(流布)되어
 이 세계에 항상 류통되는구나.

내가 멸도한 이후
 이 경전 수지한다면
 속히 수기 얻게 되리니
 눈으로 도사 친견하리라.
 부처님 멸도한 뒤
 그 다보 인현(仁賢)
 사자좌에서 청법하리니
 탑사가 있는 곳에
 내 몸 또한 있을 것이니
 천만억 대중 이곳에 오니
 이로 인해 뛰어난 인물
 이 경전 감당해 설하리라.

만일 이 법 들어
 마침내 수지한다면

정법을 받들어
 내 몸과 다보여래께
 귀명(歸命)하리니
 수순해 자재하게 받들어
 십방세계의 부처님
 지금 또다시 도래하셨노라.
 여러 도사 대중
 성체(聖體) 장중하게 장엄하니
 뛰어나 한량없어
 모두 공양으로 바쳐 올려
 무한하게 구족되어
 받들어 닦아 수지하리라.
 이 경전으로 말미암아
 일찍이 내가 강설한 바
 얻어 듣게 되고
 또한 다시금
 칠보탑의 세존과
 다른 무수한 도사 대중
 그 권속 백천억 무리
 이 국토에 오게 되었네.

생각해 보니 즉성자여
 중생들 가없이 여겨
 이곳은 만나기 어려우니
 강변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경권(經卷)
 도사들이 즐기는구나.
 부처님 저 경전 설하시나
 기특(奇特)하다 할 수 없고
 수미산을 재는 것은
 손으로도 할 수 있고
 천억 국토 건너뛰는 것은
 어렵다 할 수 없고
 설령 기이한 구절 백천개
 분별해 설법을 하여
 천억 불국토에서 듣게 함은
 족히 어렵지 않으리라.
 극상계(極上界)에 머물러
 하늘 사람 위해 강법해
 무량한 경전 선양함은

기이하다 할 수 없건만
 부처님 멸도하신 뒤
 말세에 능히 수지하여
 이 경전 말씀 반포함이야 말로
 비로소 기특(奇特)하다 하리라.

만일 한 손 주먹으로
 허공을 잡아들어
 무소지(無所至)에 이르름은
 족히 어렵지 않건만
 내가 멸도한 이후
 이와 같은 상(像)에 귀의하여
 미래에 이 경전 서사해야
 바야흐로 기특하다 할 것이다.

가령 십방의 땅을 취해
 손톱 위에 올려놓고
 높이 들고서 노닐다가
 범천 위에 내려놓음은
 어렵다 할 수 없어
 기이한 정진 아니고

예컨대 미래 세상에 당해
 잠시라도 이 경전 읽으면
 설령 겁동안 불탈지라도
 그는 불 속을 다니면서
 어깨에 풀을 매었어도 타지 앓음은
 족히 기이하지 않으리.

내가 멸도한 이후
 이 경전 수지하여
 어느 한 사람 위해
 설해야 기특하리라.
 가령 팔만 법장(法藏)
 수지하도록 이끌어
 그 말씀 반포하게 제시해
 저 세(世)에 비구가
 여러 성문 개화시켜
 신통에 머물게 하는 것은
 기이하다 할 수 없으리.

이 경전을 수지하여
 잘 믿고 소중히 여기면서
 자주 강설을 베풀어야
 비로수 기특하다 하리라.
 만일 무수한 천억
 무착(無着)의 탑 세우고
 륝신통(六神通) 지극한 성인
 강변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부처님 멸도하신 이후
 이 경전 수지한다면
 그 사람이 얻은 과보
 저 보다 훨씬 한량없으리.

백천의 여러 세계
 설법 헤아릴 수 없어
 지금 나 또한
 부처 지혜 선양하노니
 이 경전 살펴보건대
 모든 경전 중에서 존귀하니
 이 경전 수지하고 받든다면

곧 모든 부처님의 몸을 시봉하는 격이리.

지금 즉성자들을 위해

여래 앞에서 강설하니

후세에 이 경전 수지하는 사람은

현성(賢聖)이라야 감당할 수 있으리니

잠시라도 수지한다면

부처님 받들어 공경함과 같다네.

일체의 모든 도사(導師)

이 경전 만나기 어려우니

십방세계 모든 부처님

현현하사 찬탄하노니

용맹스런 위신력과

신통력 멀리 미쳐

명성과 덕망 널리 알려져

모든 여래 애락하시노라.

이 경전 수지한 까닭에

적정(寂靜)의 지위에 이르리니

도사가 멸도한 이후

하늘과 세간 증생 위해

그 안목(眼目)이 되어

이 경전 선포하므로

다가올 미래세에

잠시라도 이 경전 수지한다면

모든 증생이

머리 숙여 례(禮) 올리리라.

12. 권설품(勸說品)

그때 약왕(藥王)보살과 대변(大辯)보살이 이만 명 보살과 함께 세존 앞에서 말하였다.

“바라옵건대 대성이시여, 저희들이 스스로 선교(宣敎)하겠사오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지진께서 멸도하신 이후 저희들은 마땅히 함께 이 경전을 류포시켜 대중들에게 강설하겠나이다.

어느 증생은 서러워하여 그 성품이 순조롭지 못하고 박덕하고 복이 없어 과대망상을 품고 공양의 이익에만 탐닉할 뿐 선의 근본을 갖추지 못해 해탈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해 인욕의 힘 일으키시어, 저 세상에서 이 경전을 수지하여 서사하고 독송하고 공양을 올려 받들고 마음속에 품겠사오니 저희들을 다스려 이 경전의 가르침 반포하신다면 그 보답으로 은택에 안주하겠나이다.”

이어 범회에 참석한 배우고 있거나 아직 배우지 아니한 비구 오백 명이 부처님 앞에 나아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 경전을 감당해 널리 류포하겠나이다. 또한 대성이시여, 타방(他方)세계의 여러께서는 성문과 배우거나 배우지 아니한 이에게도 모두 수기를 내려 마땅히 무상정진

도(無上正眞道)를 성취하게 하시니 모두가 합장한 채 세존께 례(禮)를 올렸나이다.”

또한 팔천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스스로 편안히 계시옵고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멸도하신 이후 마땅히 널리 이 경전의 도를 해설해 전법하고 또한 타방세계에도 선포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여기 감인세계의 증생은 자주 교만을 부려 복덕이 얇고 마음은 마치 불난 독(毒)처럼 어지러워 삼계에 미혹해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이나다.”

그때 대경규(大敬逵)비구니가 륝천 비구니와 함께 세존의 존안을 설새 없이 계속해서 우러러보면서 부처님께 말씀을 아뢰었다.

“그 도와 덕이 지족하고 한량없이 외외(巍巍)하여 허공마저 초절(超絶)해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 구담미(瞿曇彌)여, 례(禮)를 올리며 슬픈 얼굴로 여래를 쳐다보지 말라. 여래에게 한탄스런 말을 하지도 말 것이니, 무상지진정각의 수기 내리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모든 증생이 평등해 화동(和同)하기에 비로소 법을 펼쳐 대중에게 수기를 내려 마땅히 미래에 무상정진지도에 이르러 한 맛으로 평등해 조금도 차이가 없으리라.

이 이래로 그대들은 마땅히 삼만팔천억 부처님을 친견해 공양을 올려 받들지니 마땅히 보살을 위해 항시 법사가 되리라. 여기 불학의 이치를 배우는 비구니 룝천은 여러 중생을 위해 보살 법사가 되어 차례대로 보살행을 구족하게 되리니 미래에 성불을 이루리라. 그 명호는 일체중생함경(一切衆生咸敬)여래·지진등정각이리라.

성불한 이후 대중들을 개화시켜 제각기 전전(展轉)하여 함께 수기를 얻어 미래에 성불하리니 헤아리기 어려운 무수한 중생을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때 라운(羅云)의 어머니인 비구니와 지명문(持名聞)이 제각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부처님께서서는 가엾게 생각하시지 않고 다만 정법이 유기(遺棄)될 것만 염려하시는지나.”

이에 대성께서 명문(名聞)비구니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원근의 대중에게 널리 고하노니 십만억 부처님 곁에서 도를 닦아 항상 법사를 위해 보살행을 받들고 구족하게 갖추면 성불할 것이니 그 명호는 구족백천광당번(具足百千光幢幡)여래·지진등정각·명행성·선서·세간해·무상사·도법어·천인사·불중우이고 그 세계 명칭은 인현(仁賢)이리라.”

그때 그 부처님께서는 광명과 위신력이 백천이나 되서 그 수명이 한량없었으니 이에 대경규와 라운의 어머니·비구니 등이 미증유를 얻어 환희심에 넘치게 되었다.

그래서 즉시 계송을 읊어 부처님을 찬탄하게 되었다.

세존께서는 가르침을 펴시어
 증생 이끄는 도사(導師)로서
 세계의 대중과 하늘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깨우쳐 교화시키오니
 지금 대중 인도하시는
 도사(導師)의 손길로 인해
 저희들은 기쁨으로 충만하나이다.

비구니들은 이 계송을 마친 뒤 세존께 말씀을 올렸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불법의 가르침을 즐겨 믿어 지니오며 독송하겠나이다. 또한 다른 타방세계의 증생에게까지 전법하겠나이다.”

그러자 세존께서 팔십억해 백천 대중을 되돌아보니, 총지에 이르게 되어 개사(開士)가 불퇴전의 법륜을 강설하였다. 그때 보살들은 부처님께서 광명으로 임하심을 보자 즉시 합장한 채 아

되었다.

“바라옵건대 대성이시여, 이 경전을 저희들에게 부족해 수지하게 하시어 이 경권(經卷)을 강설해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만을 생각해 여러 족성자들은 세존을 우러러 자기의 몸을 급혀 전생에 발원한 평등의 원으로 부처님 앞에서 사자후를 하나이다.

저희들은 여래께서 멸도하신 이후 이 경전을 십방세계에서 서사해 수지하고 독송하면서 그 뜻을 사유해 드러나게 하니 다른 사람 또한 이와 같이 깨우쳐 교화시켜 부처님의 뜻 받들게 하겠나이다. 저희들은 다른 국토에 처할지라도 대성의 은택을 입어 교화되어서 부처님의 도에 우뚝서게 될 것입니다.”

이어 여러 보살대사는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 앞에서 게송을 읊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묵연히 화락하시오니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
 진리 광명으로 법을 펼쳐
 그 이후 말세에 이르러

환난을 당하여
 마땅히 널리 법을
 분별해 설하겠나이다.

만일 험한 말로 매도하고
 돌로 때린다 하더라도
 대성께서는 지난 세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환난을 인욕하셨으니
 아침, 어리석음, 교만 등으로 괴롭힘을 당함이
 말로 다하기 어려웠나이다.
 연후에 깊은 산에 있으면서
 얻지 못했어도 얻었다고 말하고
 석굴에서 지혜를 익힘이 없으니
 어떤 과보로 응답하리요.

독행(獨行)하여 뜻에 끌려다녀
 악을 품어 인욕이 없으니
 탐욕과 사된 말로
 경법(經法)을 설하니
 강설해 결정함이

흡사 이 룩신통을 한것과 같아
 흥폭함에 가득한 사나운 마음은
 적행(寂行)에 이런 생각만 거듭해
 한가하게 홀로 머물면서
 매도의 말 상대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인욕이 없어
 이익에 탐닉할 뿐이기에
 이런 외도의 무리가
 설법 통해 베풀어진
 경전의 가르침대로 정진해도
 공양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대중 향해 설법해도
 그들의 명예를 선포한 것 뿐일세.

만일 국왕의 왕국에 이르러
 대신과 관료, 그 권속
 또한 범지와 장자(長者)
 다른 나머지 비구들이
 저희들의 허물 험구해

그 행 샷되다 할지라도
 저희는 인욕하여
 대성을 받들어 시봉하리.

그때 비록 우울하지라도
 인욕을 닦아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가르칠 것이오니
 겁란(劫亂)에 비구가 다투어
 크게 흉포해 두려워
 저희들을 매도할지라도
 귀신 같은 여러 비구
 세간에서 공경을 행하여
 고통을 인욕으로 지키리.
 수순하고 유연한 성품으로
 이 경전 설하오니
 저희들은 몸에 탐닉하지 않고
 또한 수명도 아낌없이
 이 경전 받들어 수지해
 불도에 뜻을 두었사오니

세존께서 구족하게 아시나이다.

예를 들어 흉포한 비구

미래의 말세에 이르러

가르침 열어 이해시키려 해도

기뻐하지 않고

자주 부당한 일 저지르고

유행(遊行)을 아무 때나 행하고

의복이 바르지 않으니

가령 지금 세간의 영웅

멸도한 말세에 이르러

대중 가운데 용맹한 인물

이 경전 설법하리라.

만일 입멸을

흠모해 구하는 바 있어

처하는 곳마다 포시(布施) 베풀고

부처 지혜로 타락하지 않으리니

세원(世原) 애락하여

인선(仁善)의 마음 닦아

욕심 줄여 절제를 행해
수승한 적멸경계에 이르러
모든 세간의 빛이 되니
십방의 증생 운집해
나는 마땅히 지극 정성으로
마음이 헛되지 않음 보았나이다.

정법화경(正法華經) 권 제7

13. 안행품(安行品)

그때 보수대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여기의 보살들은 공경하옵나이다. 그 청법의 희열은 구하기 어렵고 듣기 어렵사오니 어느 때 모든 대중을 위해 이 경전을 설하시겠사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보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먼저 두가지에 처해야 비로소 경전을 강설할 것이니 첫째는 위의(威儀)이고 둘째는 례절(禮節)이니라.

보살이 갖출 위의란 무엇을 말하는가. 가령 마음으로 인욕을 행해 조화롭고 부드럽게 지녀 그 생각이 두려워할 만하여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뜻은 마치 땅과 같아 사사롭게 사람을 보지 않음이니라. 사람을 보지 않고서 법을 행한다면 자연 그대로에 관해 모든 법이 본래 없음을 알게 되리니, 이와 같은 모든 법이 온갖 행의 법식이고 또한 아무런 상념 없음을 일컬어 위의(威儀)라 이름하니라.

보살이 갖출 례절(禮節)이란 무엇인가. 가령 보살이 왕·태자

· 대신 · 관리와 더불어 일에 종사하지 않고, 외도나 이학(異學)과 더불어 교류하지 않고 세간의 전적을 숭상하거나 음악을 찬탄하거나 습속에 끌려다니지도 않고, 불학(不學)을 탐착하지도 않고, 함께 도살하거나 고기를 잡지도 않고, 창이나 활로 닭이나 집오리를 잡아 원한 맺는 일에 종사하지도 않고, 함께 노래 부르면서 대증과 함께 놀지도 않고, 성문 · 비구 · 비구니 · 청신사 · 청신녀와 더불어 일에 종사하지도 않고 또한 친근하게 례(禮)를 행하거나 방문하지도 않고, 함께 머물지도 않고, 동지와 함께 경행하여 향을 사르거나 꽃을 흘거나 등을 켜지도 않는 것이니라. 법회 장소에 가서 함께 청법할 때에는 제외되느니라. 설령 법을 들었을지라도 또한 아무런 집착이 없어야 이를 보살이 갖춰야 할 례절(禮節)이라 일컬으리라.”

또한 부처님께서 보수대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대사는 집이나 종실(宗室), 친척을 사모하지 말고 은근히 내인(內人)이나 여자를 생각해 홀로 설법하지도 말고 또한 자주 번다하게 어린 남녀 아이들에게나 다른 이인(異人)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네지도 말고 강설하지도 말고 뜻을 정해 멋대로 경전을 설하지도 말고 함께 서 있지도 말고 더불어 무리를 짓지도 말고 또한 어느 한 비구니와 함께 홀로 방에 들지도 말 것이니, 생각을 다스려 여래처럼 정진을 거듭해야 하느니라. 설령 여인을 위

해 이 경전과의 인연을 설하게 될지라도 오염된 법 가운데 있지 말고 또한 수취(受取)하여 의리(義理)를 너무 넓게 해석하지도 말고 사미·비구니·동자(童子)·동녀(童女)와 함께 한 곳에 있지 말고 항상 연좌(宴坐)를 즐겨 심원한 이치를 즐겨 닦고 한가롭게 머물지 않아야 비로소 보살이 갖출 례절(禮節)이라 일컫느니라.”

또한 부처님께서 보수대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대사는 모든 법이 공무(空無)임을 관해야 하리니, 예컨대 머물러 선 바[所住立]는 이미 타락되어 전도된 것이고, 세워진 바른 진리[正諦]는 항상 여법(如法)하게 상주하니 오로지 몸과 마음을 잡고서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물러나지도 않아 점점 번뇌가 제거되어 멸진하게 되느니라. 불생불유(不生不有)·무유자연(無有自然)하여 무위·무소유함으로써 일체의 언사(言辭)를 소유하지 않게 되고 무위·무상(無想)·불상(不想)에도 머무르지 않아 모든 생각이 조복되느니라.

가령 보살로 하여금 세밀히 이 일체법을 관찰하게 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이것을 정성껏 닦게 함으로써 그 위익와 례절 두가지 일에 상주하게 되리라.”

세존께서는 이 뜻을 거듭 펴기 위해 계송을 읊어 찬탄하셨다.

만일 어느 보살이
 이 경전설법 즐겨 한다면
 미래세에
 용맹해 나약함이 없이
 위의를 레절에 수순해
 선명(善明)하게 청정한 행 닦아
 국왕이나 태자
 대신이나 관리
 외도 또는 이학(異學)
 도살이나 사냥하는 사된 무리등과
 그 교류를 억제하여
 함께 왕래하지 않고
 비구는 라한을 내쳐서
 법률로서 다스려
 함께 자리하지 않고
 범금자(犯禁者)를 멀리 할지니,
 비구와 비구니
 조롱이나 담화 삼가고
 청신녀를 멀리 하여

무익한 말 나누지 않고
 현재 법을 얻고자 하거든
 항상 허물을 짓지 않아
 멸도 경계에 즐겨 머무는 것을
 일컬어 위의(威儀)라 하노라.

머물기를 즐기지 않고
 도법(道法)에 자문(諮問)해
 이 법의 가르침 수지하여
 나약함이나 집착함 없나니
 중생에게 라병(癩病)있어
 친속(親屬) 종실(宗室)이든
 여러 종류 사람의 세색(細色)
 마땅히 버리고 떠나
 더불어 함께 하지 말고,
 덕의 근본을 심어
 마땅히 판매업에서 떠나고
 중생들이 교만심으로 공경 앎거든
 온갖 지위 저버려

자기 몸 해치지 않고
 여러 종류의 벌레나
 고기를 즐겨 먹지 않노니
 제비법(諸非法) 제거해
 성내거나 한탄하는 자 기쁘게 하여
 그 행이 바로 이와 같아
 또한 함께 담화하지 않고
 강안(強顔)을 구족함이 없이
 다른 자용(自用)의 성(性)으로
 이와 같이 행을 짓는 사람
 마땅히 모두 병제(屏除)하리라.

명자(明者)는 인연 있으면
 여인 위해 경전 설법하고
 홀로 유행(遊行)하지 않아
 유희하거나 희롱하지도 않나니
 가령 취락에 출입하여
 자주 음식을 구할 경우라도
 한 비구와 동반해서
 항상 부처님의 뜻을 생각하기에

부처님께서서는 위의를
 례절을 시현하시노라.
 이 경전 받들어 수지하여
 부지런히 행할지니
 상증하 하렬한 무리
 법을 행하지 않으면
 일체 지극 정성으로
 항상 공양 올려야 하리라.
 장부(丈夫)는 상념이 없이
 견고하고 용맹하게 행해
 모든 법을 알지도 못하고
 모든 보살들이 또한
 멸진함을 보지도 알아야
 이를 위의(威儀)라 일컬으리니
 항상 례절을 행하고
 또한 이 도리 살필지니라.

이 무위의 법
 강설하노니

이에 일체가 불흥(不興)하여
 또한 무소생(無所生)이니
 항상 뜻을 굳게 세워
 공의 이치를 관하여
 이처럼 밝게 알아
 례절을 행할지니.

생각하는 바가
 모두 전도몽상이니
 무(無)를 유(有)라 하고
 허(虛)를 실(實)로 생각하니
 비록 일어나는 바가 있는 것 같아도
 제법(諸法)은 무생(無生)이니
 허망한 망상으로
 제유(諸有)가 생하노라.
 마음은 항상 전일(專一)해
 삼매를 잘 닦아
 행을 건립하노니
 만일 수미의 정상에
 이와 같이 머물러

모든 법을 두루 관하면
 이 일체법은
 허공과도 같나니
 텅 비어 아무것도 없음은
 평등해 전고함도 없어
 취해서 이길 것도
 버릴 것도 없노라.
 모든 법의 처소는
 변함없는 이름[常名]없으니
 이와 같이 밝게 알아
 례절을 행하노라.
 내가 멸도한 이후
 만일 어느 비구가
 이와 같은 법칙(法則)
 능히 지켜 수호하여
 나약함이 조금도 없고
 마음에 생각을 일으킴 없이
 무수한 중생을 위해
 이 경전 설하리니

명철하게 밝은 인물
 때때로 생각하여
 만일 집이나 방에 들어가
 이처럼 행을 지어서
 모든 법이 두루 청정함을
 관찰하여 살펴서
 안락하게 그 뜻 설함에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국주(國主)와 제왕(帝王)
 그리고 태자(太子)가
 법을 듣고서
 모두 공양 올리리라.
 또한 다른 장자(長者)
 그리고 범지(梵志)
 여러 권속을 거느리고
 아무런 욕심 없으리라.

부처님께서 또한 보수대사에게 말씀하셨다.

“여래께서 멸도하신 이후에 이 경전을 설법하여 안온함에 머물고다 하자 이미 안온하을 얻게 되어 아침의 마음이나 현혹됨이

없이 경법(經法)을 설하여 자기 자신에 간직해 지니고 혹은 즉백(竹帛)에 실어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노니 또한 말을 많이 하지도 않고 또한 생(生)하는 바도 없으며[無所生] 또한 다른 비구를 경솔히 대하지도 않으며 법사가 되었다더라도 노래를 읊지도 않고 또한 혈뜬지도 않으며 생각이 다른 어느 비구가 성문이 되었을지라도 이름을 거명해 허물을 들춰 비방하지도 않으며 또한 원수를 맺어 상대를 대하지도 않으며 집에 머물러 행하는 자를 혈뜬지 않아 뜻을 두지도 않으며 저와 같은 행을 여기지도 않고 또한 아무생각도 없어 편안히 안주하여 행해서 그 요체를 세운채 기거동작(起居動作)하느니라.

만일 법회에 나아가더라도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하여 행함에 있어 잃는 바가 없이 경법을 설하리라. 어느 누가 청해 물을 지라도 기특(奇特)함이 없어 성문승으로부터 부처의 지혜를 발하여 깨닫게 하리라.”

계속해서 부처님께서 게송을 읊으셨다.

지자(智者) 항상 안락하게

부처의 도에 머물러

먼저 좌정하고 나서

이어 경전 설법하리니
 자리를 깔아
 유연(柔軟)함에 신경쓰고
 약간의 종구(種具)로
 기찬(綺燦)하게 장식하고
 몸에는 항상
 정결(淨潔)한 옷 걸쳐
 칠·칠일 동안
 경행을 익힌다면
 흡사 어두운 구름이
 저 허공에서
 운집해 모여들어
 공덕을 널리 뿌림과 같느니라.
 그 앉은 자리에
 협장(篋藏)을 구족해서
 책상다리가 견고하여
 평탄하고 혁혁하며
 무수한 좌구(坐具)
 첩욕(疊蓐) 원연(紈纒) 갖추고서
 엄연(儼然)히 머리 바로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자리에 올라
 높은 법좌에 앉아서
 널리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과 국주(國主)
 제왕 · 태자 · 대신
 그리고 여러 비구와
 비구니 대중들
 뜻 높은 청신사
 청신녀들이
 무량한 법문 잘 듣게 하고자 강설하니,
 무한한 밝은 지혜
 차례대로 드러내어
 다양하게 펼쳐 보여
 미묘한 그 뜻
 좇아 풀이한 연후에
 대중들이 그의 찾아 묻거든
 이 성철(聖哲)한 인물
 다시 해설을 베풀어

신족(神足)에 들게 하여
 유순한 법인(法忍) 얻게 하고
 청법해 듣는 자마다
 모두 불도 얻으리라.

지혜로운 이 인물
 게으르고 나태한 모든 중생을 위해
 나아가 깨우치게 하여
 항상 자비의 마음으로
 대증 위해 설법하여
 조금도 게으름 피움 없이
 밤낮으로 게송 읊고
 법훈(法訓) 내리어
 억천해 동안
 분별해 강설하시어
 두루 권면해 기쁘게 하시니
 법회 참석 대증은 마음으로
 생각을 일으켜
 감히 위해(危害) 가하고자 앎누나.

만일 공양이나
 음식물 얻고
 침구 편안하고
 의복이나 베개
 병 고치는 의약품 있어
 다른 것 구함이 없고
 중생을 좇아
 요행히 구함이 없으며
 애써 찾는 노력 제거하고자
 정사(精舍)에 머물면서
 대중들로 하여금
 모두 불도 이해하게 하니
 만약 모든 중생이
 와서 청법하면
 나는 기쁨으로 넘쳐
 마치 큰 안락함 얻은 듯하리라.

부처님 멸도한 이후
 어느 한 비구가

경법을 크게 선양하여
 아무런 바람도 없고
 나태함도 없이
 고통을 만나지도 앓은 채
 항상 정진 거듭해
 질병을 벗어나고
 저와 같은 원한이나
 두려운 일 짓지도 않고
 곤장의 고통 입지도 않고
 비방하려는 생각도 없고
 몸에는 피곤함도 없어
 아무런 걱정 없으리니
 그 사람은 법인에 머물러
 이와 같이 득력(得力)하리라.

지혜 밝은 인물
 안온하게 머물러
 존립(存立)해 세우는바
 마치 부처님 가르침 같다면
 설령 모든 중생이 이처럼 백억 공덕

찬탄 거듭하고

칭찬할지라도

마침내 밝혀내지 못하리라.

또한 부처님께서 보수대사에게 말씀하셨다.

“여래께서 멸도하신 이후 만일 어느 보살이 이 경권(經卷)의 가르침에 대해 의심을 품고 깨닫지도 못한 채 설법해 교화한다면 그 청법함이 견고하지 못하고 성품이 조화롭지 못하며 다른 보살이 대승법을 구하는 것을 보면 허망한 짓을 일삼는다 하리라. 만일 성문·연각·비구·비구니·청신사·청신녀가 보살을 만나게 되어도 마음으로 주저할 뿐 곧바로 나아가 만나지 않는다면 그 족성자는 무상정진지도(無上正眞之道)를 저버리게 되어 부처의 세계에 가깝게 가 하늘 중의 하늘에 처할 수 없으리니 마침내 복덕을 입지 못해 최정각(最正覺)을 성취할 수 없으리라.

보살이 삼승법을 얻음은 비유컨대 사자가 숲속에서 머뭇거릴 뿐이어서 자연히 멀어져 즐기는 바를 즐기지도 못하고 또한 즐기지 못할 바를 즐기지도 못하는 것이니 만일 중생이 자비력을 닦고 여래가 대부(大父)의 생각을 일으켜 여러 보살이 세존을 생각함을 보니 곳곳에서 아직 번뇌의 티끌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너그

럽고 평등하게 공경을 올려 공손히 례절(禮節)을 표하고 청정한 모든 법의 뜻에 아무런 의심과 결박이 없어 삼가 엄격하여 평등하게 흠순(欽順)해 경법(經法)에 집착하지 않고 즐기는 바가 지극하게 되어 이를 데 없었으니 밤낮으로 이 경전을 공경해 외호했느니라.

보수대사여, 이것이 삼법의 행[三法之行]이니라. 보살은 관(觀)하고 난 뒤 설법하여 안온한 행을 지어 번뇌에 휩싸이지 않고 또한 위해를 입지도 않느니라.

이 경법을 설하는 인물은 함께 배우는 자와 더불어 평등한 마음으로 도우(道友)가 되리라. 만일 이 경전을 청법해 듣고서 즐겨 믿고 독송하고 수지하며 죽백(竹帛)에 실어 공양 올려 받든다면 공덕이 헤아릴 수 없어 편안히 안주하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계송을 읊으셨다.

만일 질투(嫉妒)하여

계속해서 회의할지라도

자비로운 그 법사

마땅히 증오심을 일으키지 않으니

지혜 밝은 인물

탐착 일삼지 않으리라.

만일 정전(正典)의 가르침
 읽어 더듬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
 비방을 일삼지도 말고
 또한 의심이나 샅된 소견에
 떨어지지도 말 것이니
 마음이 항상 확연하여
 마음에 가라앉음이 없어
 일체를 가없이 여기는 까닭에
 이 선정을 얻어 안주해서
 또한 능히 인욕하리라.
 그 사람은 항상
 자공심이 광대하고
 자주 부처님 말씀
 강독하고 암송하니
 일찍이 이와 같이
 수지한 일 없었노라.

어느 보살

십방세계에 있어서

증생을 가없이 여겨

세간에서 행을 일으켜

수순하고 공경하게 받들고

성인의 지혜 배우려 하면

마땅히 우리의 세존

생각해야 할지니

유정(有情)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부처님을 사념하고

여러 보살들을 마치

부모처럼 생각할지니

도를 구하여

정욕(情欲)이 있지 않아

자기 자신에 대한 상념과

애착을 끊어야 하리라.

가령 이와 같은

상법(像法) 들어 살피는

지혜 밝은 대사들은

마땅히 삼가 조심하고

안온하게 행해서
 항시 조정(調定)을 얻어
 불법으로
 무수한 증생 구제하리라.

또한 부처님께서 보수대사에게 말씀하셨다.

“여래께서 멸도하신 이후 어느 보살 대사가 이 경전을 항시 받들어 행한다면 이 비구는 마땅히 자비를 행하여 백의(白衣)로 출가해 모든 증생에게 적멸을 지향하게 하고자 보살도를 행하리니 항상 과거세에 행한 대승법을 생각하여 방편을 잘 분별하여 진체(眞諦)의 가르침을 펼치리라.

만일 청법해 듣는 자 중 어떤 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기뻐 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살피지도 못한 채 돌이켜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마땅히 무상정진도에 이르러 최정각을 성취하리라’ 하여 위엄과 신통력을 구족하여 빨리 깨닫고자 하리라.

보수여 마땅히 알아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이후에 보살에게는 네 가지 설법[四事說法]이 있어 다투어 성내지 않느니라.

네 가지 설법이란 무엇인가. 비구·비구니·청신사·청신녀가

받들어 공경함이고 제왕·태자·대신·군료(群僚)·군국인민(郡國人民)이 공양올림이고 장자(長者)·범지(梵志)가 함께 받들어 수순함이고 허공신명(虛空神明), 무수한 천자가 경전 설법을 듣고 천룡귀신이 그 뒤를 지켜 외호함이니라. 바로 이것이 네 가지 설법이니라.

만일 현읍(縣邑)에 들어가 집으로 돌아가면 밤낮으로 찾아와 경법을 물으리니, 만일 분별해 해설한다면 귀의하여 환희하지 않음이 없으리라.

왜 그런가. 보수대사여, 부처님께서 건립하신 이 경전의 은택이 가피함이니 과거·미래·현재의 부처님이 이로부터 생했으며 삼세의 부처님이 이 경전을 수호함이니라.

만일 감인세계에서 정법화경 가르침을 듣고 그 경전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란 매우 어려우니라. 보수대사여, 비유컨대 대력(大力) 전륜성왕은 그 위덕(威德)이 지극하여 거느린 무리를 순화(順化)시키고 나머지 아직 조복되지 못한 다른 적국에 있어서는 감히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만일 전륜성왕이 군사를 일으킨다면 반드시 토벌함이 있으리니 불빈지신(不賓之臣)이 대방(大邦)을 거역하고자 하여도 용감한 장사(壯士)가 분연히 일어나서 다스리지 않음이 없어 전륜왕이 기뻐하여 공에 따라 상을 내려 성곽과 식읍(食邑), 토전(土田), 진

기한 칠보, 코끼리, 말, 수레, 남녀 노비를 하사했나니 원수(元首)로 그 공적이 뛰어난 인물을 위해 왕은 머리의 상투를 풀어 밝은 구슬을 내렸느니라. 왜 그런가. 신하가 마땅히 나라를 강하게 해야 상인들도 편안히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여래 정각(正覺)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대법왕(大法王)으로 무극(無極)의 도제(道帝)로 자기 마음을 조복시켜 법으로 교화를 베풀고 덕으로 재앙을 소멸시키고 지혜로서 전투를 벌여 여러 법왕과 무수한 대중을 다스리고 무량한 경전의 백천가지 요체를 모든 중생에게 조금도 남김없이 베풀어 평등의 성[平等城]을 가르쳐 그 신마(身魔)와 더불어 능히 싸우게 하고 현인과 성인의 법으로 음욕·성냄·어리석음을 공격해 그 권속을 다스림으로써 삼계의 고통이 다하게 되어 멸도에 이르게 하노니 이와 같이 번뇌를 이겨 크게 용맹을 떨친 이후에는 파괴되는 일이 없고 또한 실(實)도 없느니라. 제허(諸虛)로 말미암아 이 세간에 이르게 되었는데 온갖 색상의 모든 인연은 고금 이래 모든 세계에 두루하지만 이 정법화경 가르침을 믿어 설한 일은 없었느니라.

그런데 지금 설하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여래의 지혜에 통해 대자비에 이르렀기 때문이니 예컨대 대성제(大聖帝) 상투속의 밝은 구슬을 세존께서는 제일의 법요(法要)로 삼아 이에 인

연하여 행(行)에로 나아가게 되나니 여래께서는 증생으로 하여금 심오한 경전의 가르침을 듣게 하느니라.

고금왕래에 있어 제행(諸行)을 반선(班宣)함은 이 경전이 최상이나니 연기로 인한 온갖 고통을 제거하느니라. 비유천대 성제(聖帝)가 상투 속 밝은 구슬을 애지중지하다가 오랜만에야 비로소 상투 속에서 꺼내 공적이 혁혁한 인물에게 하사하는 것과 같느니라.

여래 또한 마찬가지로 지극히 오묘한 이 보배를 밤낮으로 보호하여 그 이래로 법의 정수리[法頂]를 지키다가 오늘에야 증생의 고통을 더 한층 연민하여 법을 보이게 된 것이니라.”

세존께서는 그 요체를 거듭 밝히고자 계승을 읊어 찬탄하셨다.

지금 여래가

자비의 힘 나투어

항시 증생을 가엾게 여기니

증생의 세계에서

지극히 존귀한 이 경전

편안히 찬탄하노라.

따라서 분별해

이 경전 설하니

최후의 세에 이르러
보살법에 뜻을 두게 하리라.

만일 출가를 한 인물이나
집에 머무는 인물이든
이 경전 가르침 듣고
자비심으로 전륜(戰慄)해
일체에 두루 현현하여
비방하지 못하게 하리라.

나는 본래 처음에
불도를 얻었으니
오늘 여래가
현재에 이르러
존귀한 이 경전 가르침
능히 듣게 하기 위해
곧 무수한 방편을
건립하게 되었나니,
비유컨대 강력한

저 전륜성왕이
 다른 여러 국왕과
 전투해 항복받고
 병사에게 코끼리나
 말·수레·협장(篋藏)을
 선물로 하사하고
 또한 식읍(食邑)과
 성곽이나 군토(郡土)를
 하사품으로 내리고
 수족(手足)의 보배
 그 미묘한 색의
 자마금의 보물
 진주의 야광(夜光)
 차거(車渠) 벽옥(碧玉)
 가지가지 수승한
 오묘한 재화와
 약간의 제물(諸物)
 각각에게 하사하니
 모든 증생으로 하여금
 떨 듯이 기뻐하게 하노라.

세운 공적을 보니
 미증유가 괴이하여
 마지막에 상투 풀어
 명월주 하사하노니

부처님 또한 이와 같이
 지금 법왕으로서
 인욕의 힘 발휘해
 무극(無極) 지혜의 음성으로
 항상 자비를 일으켜
 보호하는 마음을 내어
 모든 세간의 중생
 평등한 법으로 교화하노라.

중생을 살펴보니
 온갖 고통에 빠졌기에
 천 억가지 경전의
 가르침 베풀어
 중생이 알게 하나니
 마땅히 방편을 세워서

오늘의 증생의
근원을 다하게 하노라.

그때 법왕께서
무극(無極)의 대성으로
백천억해 경권을 분별하여
증생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용맹한 지혜를 내게하여
곧 이 경전 설법하나니.

머릿속 밝은 구슬처럼
정전(正典) 가르침 펼치니
일체의 모든 법이
그에 미치지 못해
이 경전 흠앙(欽仰)하지만
유미(幽微)한 그 뜻
강설하지 않았으나
지혜 밝은 인물 듣고자 하기에
내가 이제 이와 같은 법
펼쳐 현시하노라.

부처님 멸도하신 이후
 이 법에 의지해야 할지니
 이에 뜻을 두어
 불도 받드는 자리면
 마땅히 수기 받으리라.
 부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하는 인물은 조금도
 하자(瑕疵)나 욕심 없고
 질병도 있지 않고
 온갖 환난에서 벗어나
 말세에 처하고
 장래의 시기에 이르러
 곧 무상의 참된 지혜
 수승하고 뛰어난 지혜
 두루 구족하리라.

여러 사부대중
 또한 다시
 청법해 듣는다면

온갖 번뇌 제거되고
 그 무위 희유하기에
 모두 합장해 귀의하나니,
 그 몸은 빛으로 빛나
 광명으로 장엄되며
 받들어 봉행하리니
 이와 같이 정각을
 성취해서
 법륜을 굴릴지니
 광대한 존재 보고
 지극히 수승한 존재 보고
 꿈속에서 얻어 듣고
 백복으로 장엄된 상
 자마금색(紫磨金色) 보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설한 경전 듣고
 대중과 친족 위해
 설법을 널리 베풀어
 모두 구족하게 하고
 얻은바

모두를 내려놓으리니
 만일 꿈속에서
 이와 같이 보는바
 사리(捨離)해
 출가하여 떠난다면
 모두 부처님의 도장(道場)에
 이르러
 곧바로 사자좌에
 앉게 될지니
 이처럼 도를 구해
 뛰어난 뜻 얻게 되리라.
 이른바 칠보가
 모두 여기에 귀의하리니
 이처럼 닦는다면
 뛰어난 여래 받들어
 부처의 도 얻어
 포시(布施)를 널리 베풀어
 법륜을 굴리게 되리니
 조금도 번뇌가 남지 않아

사부대증을 위해
 경법을 설할지니
 불가사의한
 천억의 겁수 동안
 무루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강설해
 무수한 억해 증생에게
 교화를 베풀어
 꿈속에서 보는
 이와 같은 색상(色像)
 인연을 멸도시켜
 모두 생사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보수대사여, 마땅히 알지니
 항상 도에 뜻을 두는 자
 자주 교화를 펼쳐
 그 한량함 헤아릴 수 없노니
 최후의 말세에
 존귀한 이 법 구하여
 널리 분별하고 강설해

그 법에 안주하게 되리라.

14. 보살종지용출품(菩薩從地踊出品)

그때 타방세계에서 강변 모래의 여덟 배나 되는 보살대사가 각각 서로 다른 모습과 복장으로 부처님 처소를 찾아와 땅에 머리 숙여 례(禮)를 올리고 무릎 꿇고 합장하고서 세존께 아뢰었다.

“비루한 저희들은 여기 감인세계(堪忍世界)를 찾아와 이 경전 가르침을 듣고 수지하여 필사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정진해 공양 올려 받들고자 하옵나이다.

바라옵건대 대성이시여, 자비심을 내시어 저희들을 굽어 살피 주시옵소서. 여래께서 멸도하신 이후 이 정법화경 가르침에 따라 중생을 가없이 여겨 부족을 받들겠나이다.”

이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만두어라, 족성자여. 그대들은 그런 생각을 세우지 않아도 되느니라. 지금 여기 감인세계에 강변 모래의 여덟 배나 되는 대사들이 있고 대사 하나하나마다 각기 그 권속이 강변 모래 알의 륝십억 배나 되는 대사가 따르고 있느니라.

이들은 후세의 말세에 이르러 모두 마땅히 이 경전을 수지해 널리 반포할 것이니라.”

그때 이 불세계에 무수한 백천억해 보살 대증이 자연히 운집하였으니 그 얼굴과 용모가 수승하여 그 몸이 자마금색의 삼십이상

으로 장엄되었다. 보살대중은 땅속에서 십계를 섭수해 보호하여 대중의 도행(道行)이 이 감인세계에 의지하였는데 부처님께서 정법화경을 가르치시는 음성을 듣게 되자 땅속으로부터 솟아 나게 되었던 것이다.

보살 하나하나마다 강변 모래알의 륝십억 배나 되는 보살들이 함께 따르고 있었고 한마음, 한가지 행으로 좇았기에 조금도 차별이 없었다. 혹 강변 모래알의 반이 되는 백천 보살과 함께 오기도 했고, 혹은 강변 모래알의 사십분의 일이 되는 보살, 혹은 오십분의 일, 혹은 백분의 일, 혹은 오백분의 일, 혹은 백천분의 일, 혹은 백천억분의 일이 되는 보살들이 제각기 무리를 지어 따라오기도 하였다.

또한 무양수(無央數) 백천억 보살 권속과 함께 오기도 했고, 혹은 이백 명이 동행해 보살도를 닦기도 했고, 혹은 각각 백천 권속, 혹은 일천 권속, 혹은 오백 권속, 혹은 사백 권속, 혹은 삼백 권속, 혹은 이백 권속, 혹은 일백 권속, 혹은 오십 권속, 혹은 사십 권속, 혹은 삼십 권속, 혹은 이십 권속, 혹은 일십 권속, 혹은 다섯 권속, 혹은 네 권속, 혹은 세 권속, 혹은 두 권속, 혹은 한 권속, 때로는 혼자서 오기도 했으니 헤아릴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땅에서 솟아오른 보살 대중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

을 정도였으니 상하로부터 때로는 사방으로부터 와서 감인세계에 이르러 모두 허공 속에 머물면서 멸도하신 다보여래와 능인(能仁) 세존을 뵈옵고 제각기 칠보 나무아래 사자좌에 자리하였으니, 두 분 여래 지진등정각께 머리숙여 례(禮)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한쪽으로 물러났다.

보살 대중은 약간의 기묘한 뜻으로 두 분 세존을 찬탄하고 두 분 부처님을 기렸으니 처음 보살부터 마지막 보살에 이르기까지 구족하게 차례대로 찬탄하였으며 오십 중겁(中劫)에 걸쳐서도 다 하지 못하였다.

능인 세존께서는 실재 없이 고행을 닦으셨으니 부처님을 찾아 온 보살 대중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사부대중은 평등해 아무런 차별이 없이 묵연히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즉시에 이와 같은 색상을 그 신족(神足)으로 나타내 보이시어 사부대중으로 하여금 두루 보게 하였고 또한 그를 통해 이 가인세계를 알게 하였다.

허공에 머물고 있는 보살 대중은 제각기 백천 불국토를 섭호(攝護)하였으니 백천 불국토를 보살들이 구족하게 가들 채웠다.

또한 이 대중들은 네 보살을 우두머리[元首]로 하고 있었으니 첫째 종종행(種種行)보살, 둘째 무량행(無量行)보살, 셋째 청정행(淸淨行)보살, 넷째 건립행(建立行)보살이 그들이었다. 셀 수없

이 많은 한량없는 미진수 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네명의 보살이 으뜸이었다.

그때 네명의 보살대사가 제각기 불가사의하게 무수한 대중과 함께 서 있다가 세존께 합장하고 나서 말씀을 아뢰었다.

“대성(大聖)이시여, 존체(尊體)께서 기거하시는데 건강하시옵고 병도 없으시고 안락하시옵니까? 또한 증생은 제각기 가르침에 따라 행을 닦아 근심없는 청량한 경계에 처하여 있습니까? 이 무리들은 장차 험곡(嶮谷)에 추락하지는 않겠나이까?

이어 네 보살대사는 게송으로 찬탄하였다.

세간의 영웅 광명을 발하시니
 존체는 건강하나이까.
 현재의 증생 구하시고자
 온갖 행에 환난 없으시니
 이로 인해 증생은
 수기 받아 청정하게 되어
 게으르거나 피곤함 내지 않고
 사자후 설법 수지 할 것입니다.

이에 세존께서 법회에 참석한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족성자여, 여래는 그 행이 안락하여 아무런 병이나 근심이 없고, 증생은 제각기 수지해 행을 닦아 도교(道敎)를 잘 익혀 나태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장엄한 청정경계에 이르느니라.

왜 그런가. 이 증생들은 지난날 평등한 깨달음을 얻고자 각기 행을 지었기 때문이니라.

이 성문들은 여래의 가르침을 즐겨 믿어 부처의 지혜에 들어갔고 또한 제각기 삼승의 학을 배우는 인물은 성문승에 머물렀지만 여래는 모두 위대한 부처의 지혜에 뜻을 두게 했느니라.”

이에 보살들은 게송을 읊어 찬탄했다.

위대하옵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권조(勸助) 입었사오니

증생 하나하나로 하여금

오묘한 법에 따라 교화시켜

대성(大聖)의 가르침 듣게 하여

심오한 뜻에 따르게 함으로써

환희하며 즐겨 믿게 하여

법공양에 듣게 하겠나이다.

그러자 세존께서 법회에 모인 보살들을 찬탄했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족성자여. 그대들이 말한 바와 같이
여래가 가르치는 것은 각기 방편에 따랐을 뿐 본래의 뜻에 어긋
나지 않느니라.”

이때 미륵대사가 강변 모래알의 팔억 배나 되는 보살과 함께
입을 모아 찬탄하였다.

오랜 옛적부터
일찍이 들은 일 없었기에
이제 뛰어난 법문 듣게 되자
무수한 보살 대중
땅속에서 솟아나와
세존 앞에 머물면서
받들어 귀명하였으니
이 무리들은
어디서 온 것이옵니까.

미륵보살은 강변 모래알의 팔억 배나 되는 보살의 마음속 생각
을 아시고 즉시에 합장한 채 게송 형식을 빌어 읊었다.

무양수 백천의 무리
 몇억 년이나 계산해도
 그 한량함 알 길 없는
 일찍이 본 적 없는 보살대중
 량족존(兩足尊)을 찾아오니
 대체 어떤 인연으로
 오게 된 것입니까.
 거대한 상(像)에
 강건한 뜻 갖춰
 굳센 뜻을 지니고
 용맹하게 대성을 찾아
 단정히 공경 표하오니
 이제 여기에 찾아와서
 세존을 일일이 친견하옵나이다.
 강변 모래알처럼 무수하고
 그 숫자가 모래알을 초과하는
 지혜로운 보살들과
 무양수의 권속이
 구족하게 불법을 갖췄나이다.

여러 보살의 권속들
 정각의 도 이루었으니
 이와 같이 뛰어난 무리
 운집해 대성께 례(禮)올리니
 백천 강변 모래알의
 륝십 배나 되고
 그 숫자 저보다 초과해
 권속은 아무 생각없어
 오백 강변의 모래알
 혹은 사백, 또는 삼백
 또는 이백 강변의 모래알
 이와 같은 무리들이 좃아와
 그 한량함 또한 이와는 다르게
 혹은 다섯, 또는 열 배
 하나하나 권속들이
 세존의 성스런 제자이오니
 이처럼 많은 대중
 어떤 인연으로
 도사의 처소에 이르게 되었나이까.

혹은 넷, 셋, 또는 두 배
 혹은 강변 모래알의 한 배
 무수한 대증이 각각
 반려와 함께 법을 잘 익혔사오니
 매우 무수해 한량없나이다.
 허공 속에 머무는 자 제외해도
 백천억 겁 동안
 강변 모래알의 반, 삼분의 일
 혹은 십분, 이십분의 일도
 가히 함해 헤아릴 수 없사오니
 온갖 행 구족히 갖추
 명철(明哲)한 보살 대증
 허공에 함께 머무르니
 한계를 헤아릴 수 없나이다.

평등한 법 나타내 보여
 억겁 동안 청정해 닦고
 또한 무량한 다른 부류와
 헤아리기 어려운 권속
 억(億) 억, 또 억을 넘고

혹은 억의 반 되기도 하고
 또는 십이나 이십
 다섯, 넷, 셋 또는 둘
 이들 모두 영웅을 좇으니
 그 범주를 알 수 없나이다.
 제각기 수행을 닦아
 적막(寂寞)하게 평등의 도 즐겨
 허공처럼 담담하오니
 따로 찾아온 자 무한해
 마치 강변의 겁처럼
 계산을 할 수 없나이다.
 정사(精舍)의 적실(寂室)에서
 모든 대신성(大神聖)
 각기 그 방향을 좇아와서
 존귀함에 이르게 되었으니
 용맹한 보살 대증
 어째서 여기에 나타나게 되었나이까.
 어느 누가 저 들을 위해
 경전을 설법하오며

뉘라서 불도 세울 수 있나이까.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현현하옵고

어떤 부처님의 행[佛行] 건립하옵니까.

공손하게 공경하고자

널리 사방에서 찾아왔으니

밝은 눈과 신족(神足)으로 인해

위대한 지혜 홀연히 나타내 보이시니

리광(羸曠)의 세계에

능인께서 총만하게 갖추고 있으며

착하고 어진 여러 보살

무리지어 자연히 이르렀나이다.

일찍이 태어난 이래

이런 변모 보지 못했사오니

원컨대 그 극토에서 설해

대성께서 자비 베푸옵소서.

십방에서 찾아온 대중

각각 십팔법(十八法) 품었사오니

저는 이와 같은 보살들

일찍이 본 일 없사옵니다.

저는 뛰어난 불자이옵건만
 이런 일 못 들었사오니
 지금 이러한 대중들에게
 능인께서 말씀 내리옵소서.
 무수한 천만억 보살
 백해(百骸) 한계 알 수 없고
 무량한 천만억 대중
 본래 어디에 있었하옵니까.
 보살들은 용맹하고
 뜻을 헤아릴 수 없사오니
 이와 같은 부류에 대해
 대응(大雄)께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때 타방세계의 무양수 백천억해 여래 지진등정각께서 널리
 십방으로부터 능인 여래를 찾아와 설법을 권했으니 제각기 철보
 나무 아래 사자상 위에 앉아 계셨다.

이 여래들의 시자들은 무량한 보살 대중이 변화를 부러 땅으로
 부터 솟아나와 있음을 보고서 제각각 서서 각자의 부처님께 말씀

을 여쭙었다.

“여기 보살 대사들은 어디로부터 왔사옵니까? 보살 대증의 숫자를 알 수 없사옵니다.”

그러자 부처님들께서 각각의 시자에게 말씀하셨다.

“족성자여, 잠시 기다려라. 미륵보살이 능인 여래의 수기를 받아 미래에 무상정진도의 최정각을 성취할 것인데 그가 이미 능인 여래께 그대들이 괴이하게 생각하는 바를 물었으니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밝히실 것이니 모두 마음을 조용히 하여 귀 기울여 들어라.”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대사에게 말씀하셨다.

“착하도다, 아일다여. 그대가 물은 바는 지극히 미묘하여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렵나니 또한 귀 기울이고 귀 기울이거라. 이제 내가 말하겠노라.

모든 보살과 법회에 참석하는 대증은 마땅히 글건하고 강건하게 뜻을 지녀야 하리니 여래는 무저(無底)의 지혜, 위대한 성인의 무량한 경계, 선정과 지혜를 자자(自恣)하게 즐겨 그 뜻을 선양해 세세히 설하리니 방편으로 교화함은 한량없느니라.”

이어 부처님께서 계송을 읊으셨다.

여러 족성자들이여

이제 내가 설법하리니.
 모두 불도를 청법하여라.
 부처 지혜 유화(柔和)하니
 만일 밝게 이룬 인물이라면
 아름답고 향기 넘친다 하리라.
 여래의 저 지혜
 불가사의하니
 모두 뜻을 강하고
 굳건하게 지녀서
 제각기 뜻을 세워
 일심으로 평등해야 하리니
 대성은 만나 뵈기 어려우나
 세간 증생 가없이 여겨
 이제 마땅히 청법하게 하여
 미증유의 가르침
 건립하노니
 그대들 여러 무리
 일체에 여우 같은 의심 없어
 그 지혜 평등하고

안온해 특별함 없어
 도사가 가르침 내려
 차이 없음 밝히노니
 가르친 바에 안온하리니
 깊고 심오한 그 법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고
 한량함 지을 수도 없노니
 이제 마땅히 강설하여
 무극(無極)의 인연법
 함께 청해 들어서
 무슨 뜻인지 살펴야 하리라.

세존께서는 이처럼 찬탄을 마치시고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을 고하리니, 아일다여. 여기에 운집한 보살대가 대중이 불가사의하게 제각기 땅으로부터 솟아나와 지난날에는 보지 못했으니 지금 감인세계에 운집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무상정진도를 얻어 최정각을 성취했을 때 이들은 크게 환희하여 물러나지 않았기에 이들로 하여금 대도를 성취하게 하기 위해 수기를 내리고 교화하였느니라.

즉성자여, 개사(開士)와 대사(大士)의 무리는 하방(下方)가운데

처해 구호사업을 벌려 이 경전을 독송하고 서사하여 사유와 선정을 닦아 오로지 그 귀의처를 살폈으니 혼연하게 무위행(無爲行)을 즐겼느니라.

즉성자여, 담담함에 뜻을 두어 원근을 가림 없이 천상 인간이 있을 때에도 오로지 항상 수행에 전념해 법륜을 굴러 무위(無爲), 무회(無會)하여 심오한 신통을 즐겼고 법락을 그 기쁨으로 삼아 정진을 거듭해 부처의 지혜를 구했느니라.”

이어서 세존께서는 게송을 읊어 찬탄하셨다.

지금 여기 무수한
 여러 보살 대중
 불가사의하여
 한량을 알 길 없고
 무수한 행을 지으니
 겁수 헤아릴 수 없고
 신족(神足)을 심고
 널리 듣고 지혜 갖췄으니
 내가 모두 권유하여
 대성의 도에 이르게 하여

이제 부처님께서
 모두 수기를 내리나니
 여기의 모든 보살
 부처님의 아들로
 여기에 머무르노라.
 감인세계에서
 훈습해 익혀 놓은
 모두를 벗어 놓고
 모든 곳에서
 한가롭게 득도(得度)하니
 여기의 불자들은
 무위를 익히고
 정밀하게 배워
 무상의 도 받들었노라.

여기의 명철한 인물
 하방에 있다가
 오늘 오게 되었으니
 국토를 섭호(攝護)해
 밤낮으로 정진하여

조금도 방일함이 없이
 덕행을 거듭 쌓고서
 불도를 밝게 알아
 항상 부지런해 닦아
 지혜의 힘 세웠노라.
 모든 뜻 견고하여
 그 한량 알 길 없고
 생각은 항상 용맹하게
 법전의 이치 사유하니
 이들은 모두
 나의 청정한 법자이니라.

내가 처음
 불도 성취했을 때
 저 성 가운데
 무착(無着)의 이치 심기 위해
 곧 최상의 법륜
 강연하여 베풀어
 그 뜻 권립(勸立)하여

불도 받들게 했노라.

지금 여래의 말하는바
 지극 정성한 무루이기에
 여래의 찬탄 말씀듣고
 마땅히 모두 믿어
 마음이 열려 발하니
 여기 뛰어난 인물
 오랜 옛날 이래로
 바른 도 받들었노라.

그때 미륵대사는 부처님께서 백천억해 헤아리기 어려운 저 보살 대중에 대해하신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놀라 그 미증유가 희유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찌된 영문이옵니까, 대성이시여. 여래께서는 가유라(迦維羅) 성의 석씨 궁전에서 태자 신분이셨을 때 나라의 귀중한 지위, 여러 궁녀의 오락을 버려두고 출가하셔서 나무아래 좌정하시어 무상정진도를 얻어 최정각을 성취하신 이래 근 사십여 년 동안 한량없는 증생에게 교화를 베푸셔서 부처 경계에 나아가게 하시어 자주 이익을 주기 위해 방편의 지혜를 건립하시니 불가사의

하나이다.

지금 운집한 보살 대중은 모두 여래의 개도(開導)를 받았으니 무리 지어 찾아온 대중이 한량없사옵니다. 보살들은 오랫동안 범행을 닦아 온갖 덕의 근본을 심었고 무수한 백천 부처님께 공양 올렸사오니 가령 그 성취한 것을 계산하여도 그 겁수가 무한하옵나이다.”

미륵대사가 계속 말씀을 여쭙었다.

“비유하면, 스물다섯 살 먹은 사대부는 머리카락이 미려하고 검으며 자태가 아리따웠는데 찬려(璨麗)한 옷을 입고서 단정하게 있는데 그는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은 채 백세 된 사람을 아들로 여겼으니,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족성자가 왔으니 그대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옵나이다. 백세 된 사람은 스물다섯 살 된 사대부를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옵고 아버지는 이를 살피 스스로 내 아들이라고 말하옵나이다.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세속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믿기 어렵사오니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야 하나이다.

부처님 또한 이와 같이 성불하신 지 오래지 않으셨건만 이제 백천억 보살이 자주하게 범행을 닦아 장야(長夜)로 불법을 받들어 도와 지혜를 닦고 현재의 무량한 대중을 권면하며, 깨달아 좌

정하여 방편을 세워 대신통과 총명함 지혜를 성취해 부처 경계에 머물러 여래의 지혜를 익혔으니 세간에서 희유한 존재로 대성의 힘을 건립했나이다.

또한 세존께서는 지난날 이 품류들을 교화시켜 보살 경계로 이끌어 무상정진도를 성취하게 하여 정각에 이르도록 하셨사오며 방편을 행하셨으니 그 지은 바가 이미 밝혀졌나이다.

지금 저는 진실로 믿어 진체(眞諦)를 받아들여 이미 이 이치를 탐구하여 펼칠 수 있게 되었나이다.

바라옵건대 여래시여, 그러나 새로 배우기 시작한 보살은 마음 속으로 여전히 머뭇거릴 뿐이어서 제대로 알지 못하나니 여래께서 멸도하신 이후 이 경전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때 중생들은 마침내 믿지 못해 의심만 거듭할 뿐 이 법을 받들지 못할 것이니 또한 권면해도 즐기지 않아 마땅히 허물만 얻게 될 것이옵니다.

위대하신 세존이시여, 지금 이 뜻을 펼치시어 미래의 말세에 대승법을 배우는자들 가운데 이 경전에 대해 여유 같은 의심을 지닌 자가 설령 이 가르침을 얻어듣게 되더라도 물러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어 미륵대사는 세존 앞에서 게송을 읊어 찬탄하셨다.

비유컨대 어느 누가

로자(老子)로 현생하여
 능인(能仁) 지성(至聖)이 되기 위해
 나라의 왕위 저버린 채
 성 가운데에서
 부처의 도를 얻어
 도사(導師)가 된 지 불과 얼마 안 됐고
 교화한 지 더욱 짧거늘
 지금 여기 있는
 불퇴전의 제자들은
 무수억 겁에 걸쳐
 대승법과 신족력을
 구하여 행하기 위해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고
 지혜를 글세게 익혀
 들어가지 앎음이 없었사오니
 오늘 이곳에 찾아와
 개통(開通)함은
 수련(水蓮)이 피는 것처럼
 아무런 집착이 없어

위신력은 두터웁고
 뜻은 세간을 너머
 공손하고 엄숙하게 서서
 모두 함장하고 있사오니
 이 보살 대증의
 이와 같은 색상(色像)은
 어찌된 영문이옵니까.
 어느 누가 이를 믿사오리까.

바라옵건대 대성이시여
 자비심을 베푸시어
 세밀히 밝히시어
 진체(眞諦)를 드러내시옵소서.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사대부로서
 나이가 연소하여
 머리카락이 곱고 검으며
 그 사람의 연령이
 스물다섯 살에 불과하나
 능히 백 살 먹은 남자를

길러 양육하여
수시로 옷과 음식 공급하니
그는 내 아버지로
뛰어난다고 일컬으니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아들 낳았다니
모든 세간 중생 가운데
누구도 믿지 못하나이다.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저희들 무양수
무수한 보살들이
여기 와서 운집했사오니
그 마음이 굳세고
지혜 갖춰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
무수억 겁에 걸쳐
진체를 살펴 배워
뜻은 명철하게 품고
눈은 모든 것에 통달해

위신력이 뛰어나
 상서로움을 나타내고
 생각을 용맹하게 지녀
 법률(法律)에 밝아
 영웅 도사 되었으니
 보는 자마다 찬탄하나이다.

산 속 바위 아래서
 조용히 무위행을 닦아
 마치 허공계처럼
 아무런 집착이 없어
 선정과 정진을 거듭해
 안주하게 되어
 마음으로 이 불도를
 뜻을 두고 구했사오니
 대관절 어느 누가
 이 말씀 믿사오리까.

만일 도사께옵서
 멸도하신 이후에도

저희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의심치 않사옵니다만
부처님 눈앞에 있는
보살들은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되매
초학자는 망연자실하여
장차 보살을 찾을 수 없어
악도로 떨어지게 되리니
어떻게 해서든 권발(勸發)하시어
이 무리를 교화하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세존께옵서는
자세히 법을 가르쳐 주소서.

15. 여래현수품(如來現壽品)

그때 세존께서 세 번 소리를 듣고 널리 보살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족성자들아, 마땅히 부처님의 지고한 가르침을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자 법회 대중 가운데 미륵대사가 다른 대중과 함께 합장한 채 세존께 아뢰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분별하여 설하옵소서. 저희들은 모두 여래의 가르침을 믿어 받들겠나이다.”

보살들은 또한 세 번이나 반복해 사뢰었다. 이에 세존께서는 보살들이 세 번이나 권조를 청해 부처님 설법을 듣고자 하는 것을 보시고 보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기울여 잘 들어라. 신중하게 사념하기를 바라노라.”

모든 대중이 가르침을 받겠다고 말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족성자들아, 여래는 이와 같은 색상과 무극의 힘을 건립하였나니, 하늘·룡신·아수륜·세간 사람이 제각기 생각하기를 ‘능인 세존께서 석씨 가문에서 태어나 나라와 왕위를 버린 채 강변에 나아가 나무 아래에 앉아 무상정진도를 얻어 최정각을 성취했

다’ 고 하느니라.

그러나 여래는 무수억 백천 나솔해겁(那術垓劫) 이래로 이미 지진등정각을 성취했느니라.

비유컨대 무수한 오백천억 불세계의 극도에 가득 찬 먼지가 있으니 어느 사부(士夫)가 한 티끌을 취해서 동방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백천억해 불극도를 지날 때마다 티끌 하나를 떨어뜨려 이렇게 그만쯤의 극도를 지날 때마다 또다시 한 티끌을 떨어뜨리고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무수한 오백천억 불세계의 극도에 있는 모든 티끌을 취해서 티끌 하나하나를 그만쯤의 불극도에 떨어뜨려 모든 티끌이 다하게 된다면, 족성자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 하는가. 이렇게 지나간 불극도를 계산해서 헤아린다면 알 수 있 겠느냐.”

그러자 미륵대사를 비롯한 보살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천중천(天中天)이시여, 계산할 수 없겠나이다. 왜냐하면 불 세계는 지극히 많아 불가사의 하옵기에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사 옻니다. 가령 모든 성문과 연각이 성인의 지혜에 이르러 헤아릴 지라도 그 숫자를 알 수 없사옵나이다. 오로지 세존의 성스러운 지혜만이 알 수 있고 다른 나머지로써는 미칠 수 없나이다. 바로 저희들은 불퇴지의 지위에 오른 보살이지만 여전히 알 수 없사옻

니다. 이 불세계는 한량이 없기에 그 끝을 알 수 없나이다.”

이에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여러 족성자에게 밝히겠노라. 저 사부(士夫)가 무수한 오백천억 불국토 중의 티끌을 취해 동방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백천억해 불국토를 지날 때마다 한 티끌씩 떨어뜨려 이와 같은 식으로 그만쯤의 불국토를 지날 때마다 또다시 한 티끌씩 떨어뜨리고, 또한 이와 같이 하여 무양수 오백천억 불국토 중의 모든 티끌을 취해 티끌 하나하나 그만쯤의 불국토를 지날 때마다 떨어뜨려 티끌들을 다하게 하나니, 내가 무상정진도를 얻어 최정각을 성취한 이래 지난 겁수는 미진수겁보다 훨씬 오래이니라.

여러 족성자들아, 내가 여기 감인세계에서 강법하고 또한 타바의 백천억해 불세계에 몸을 나투었나니 모두 나를 일컬어 정광(錠光) 여래 지진등정각이라 불렀고 멸도를 나타내 보이기도 했느니라.

족성자들아, 내가 수승한 방편으로 경전 가르침을 강설하여 무양수 갖가지 상서로운 감응을 현현하기도 했느니라. 또한 여래는 모든 증생이 근원을 중심으로 왕래진지(往來進止)하는 바를 꿰뚫어 그 마음을 살피고 그에 맞게 각각의 명호를 지니고 모습을 나투시어 불생불멸과 니원(涅槃)을 설법하고 또한 증생의 허물과 선악에 알맞게 갖가지 법을 설하느니라.

족성자들아, 무수한 중생들의 심성이 각각 달라 그 행이 같지 않고 덕이 천박하니 본래의 성품이 파괴되었기에 즐겨 믿지 않느니라. 그래서 설법을 통해 교화하는 것이니라.

여러 비구에게 고하노니, 처음과 끝을 헤아려 보건대 방금 출가하여 평등각을 성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로소 무상정진도를 얻어 최정각을 성취하게 되었느니라.

또한 여래는 성불한 지 심히 오래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래가 성불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경전을 설하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모든 중생을 위하는 까닭에 강법한 바에 따라 스스로 그 몸을 현현하여 행을 지어 나타내 보이느니라. 모든 하늘과 사람이 죄나 복을 짓는 까닭에 여래는 갖가지로 강법하나니 모든 실(實)한 가르침을 지극정성으로 밝힌 것으로 허망하지 않느니라.

여래는 모든 삼계를 모두 보아 그 화현(化現)에 따를 뿐이어서 또한 행한 바도 없고 또한 생하지도 않고 또한 주선(周旋)하지도 않고 또한 멸도하지도 않아 불실불유(不實不有)하고 또한 본무(本無)도 아니고 불지불이(不知不爾)하고 또한 허(虛)도 실(實)도 아니고 또한 삼계 여래의 소행은 삼처(三處)를 보지 않음이 없느니라.

여래는 모든 법을 두루 보아 어느 곳에서든 잃는 바가 없어 그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정성이어서 헛되지 않느니라.

증생의 고뇌는 한계를 알 길 없나니 그 행은 뜻과 성품에 따라 각각 달라 생각 역시 각각 차이가 나느니라. 여래는 증생으로 하여금 온갖 덕의 근본을 알게 하기 위해 약간의 법을 분별해 설 하느니라.

또한 여래는 마땅히 할 일을 다 해서 여래의 몸을 현신해 성불케 하느니라. 평등각을 성취한 뒤 수명이 오래되어 그 수량이 무량하여 상주하기에 멸도하지 않느니라.

또한 여래는 처음 설한 바와 반드시 같지 않나니 지난 과거세에 보살법을 행할 때 수명의 성취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바 있느니라.

또한 여래가 성불한 이후 또다시 이전의 비유보다 배나 되게 백천억해라 했느니라. 그런 연후에 니원(泥洹)과 반니원(般泥洹)을 말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증생을 위해 교화하기 위함이니 이에 구원겁 이래 현행(現行)한 것이니라. 증생들은 덕이 없어 복으로부터 유리되고 빈곤한 행을 지어 애육에 걸려들고 소견의 그물에 얽혀 스스로 뒤집어쓰고 이리저리 치달릴 뿐이기에, 그래서 여래는 현현하여 증생들로 하여금 번뇌를 떠나게 하고 나래한 마음이나 불도를 얻기 어렵다

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래는 뛰어난 방편으로 여러 비구에게 고하나니 설새 없이 행을 닦아야 비로소 불도를 얻을 수 있으니 진체(眞諦)는 실로 헛되지 않느니라.

여러 증생들은 무양수 백천억해 동안 여래를 친견하였으니 그들이 문득 문득 짓는 행이 온당하지 않고 급급(汲汲)할 뿐이어서 평온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법을 만나기 어렵고 여래를 친견하기 어려워 가르침을 얻어 듣기 어렵다고 말하여 이에 그 희유함으로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부처님 친견이 희유한 줄 알아 곧 마음을 발하게 되어 한거(閑居)를 즐겨 정진을 거듭하나 부처님을 친견하지 못하게 되자 마음속으로 갈망하여 마침내 여래를 만나뵈게 되면 환희해서 머리 숙여 례(禮)를 표하고 덕의 근본을 짓게 하고 그 불멸도자(不滅度者)를 가르쳐 멸도하게 하여 대중을 깨우쳐 교화시키고 여래 출현의 인연으로 이 경전을 설해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나니 실로 진체(眞諦)는 헛되지 않느니라.

비유컨대 어느 사부(士夫)가 의술을 익혀 지혜가 총명하고 의술이 뛰어나 방약(方藥)에 밝아 병의 경증에 따라 알맞게 치료하였느니라. 그에게는 아이들이 많았으니 열에서 백 명이나 되었

는데 그가 멀리 집을 떠나게 되자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의술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약을 식별하지 못했기에 병이 들어 지치게 되자 독초인 쥘 알지 못하고 약으로 복용하여 독약의 기운이 온몸에 번져 어지럽게 되어 옆치락뒤치락하게 되었느니라.

아버지가 멀리서 돌아와서 집에 있는 아이들이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병든 쥘 알아보았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돌아온 것을 보게 되자 모두 환희하여 스스로 말하였다.

“아버지가 돌아오셨으니 편안하게 될 것이다. 저희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독약을 먹었습니다. 바라옵건대 대인께서 저희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는 아이들이 고통에 쫓겨 바닥에서 전전반측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시켜 대약(大藥)을 가져오게 했으니 대약은 색이 뛰어나고 맛과 향기가 좋았다. 아버지는 여러 약과 화합시킨뒤 아이들에게 말했느니라.

“맛과 향기가 뛰어난 최고의 양약을 준비했으니 속히 복용하라. 너희들이 이 약을 복용하면 독 기운이 소멸되어 병이 제거되리니 신체는 안온하여 기력이 다시 강장해지리라.”

아이들 가운데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 정신이 몽롱하지 않은 아이는 약의 향취를 보고 그 맛을 알아 곧바로 복용하니 병이 나아 독약의 기운이 소멸되었느니라.

그러나 아이들 중 성품이 어그러진 아이들은 약을 먹지 않았느니라. 독약의 기운이 제거된 아이들은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희들은 약을 먹고 병이 제거되어 안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된 생각에 걸린 아이들은 약을 복용하지 않았으니 약을 보고 향과 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의사인 아버지는 생각했느니라.

“지금 이 아이들은 생각이 어지러워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생각이 전도되어 약을 먹지 않는구나. 약으로 병을 낫게 하지 않으면 죽게 될지도 모르니 차라리 방편을 시설해 아이들이 약을 먹게 해야 하리니 곧 방편을 통해 속히 먹게 해야지.”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지금 나는 늙어서 기력이 쇠약해져 곧 죽게 되리니 그대들은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라.

만일 내 수명이 다하면 가히 이 약으로 그대들의 병을 치료할 수 없을 것이니 약을 절도있게 복용해야 하리라.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야 하리니 병을 낫고자 하며 안온함을 얻으려거든 마땅히 이 약을 복용해야 하리라.”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뒤 곧 다른 나라로 가서

임종한 척했느니라. 아이들은 아버지가 서거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슬픔에 스스로 가눌 수 없었느니라. 자신들의 아버지는 지혜가 뛰어났건만 자기들이 약을 먹지 않아 죽게 되신 것이라고 생각한 형제들은 외로움에 아버지를 은근히 사모하여 스스로 자책해서 말씀에 순응하지 않은 것을 탓하고 곧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받들어 갖가지 약의 형태·색·향기·맛을 살펴보고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 경솔히 약으로 장난하지 않고 곧바로 약을 복용한 우 깊이 심호흡을 했더니 병이 곧 날게 되었느니라.

그때 아버지는 아이들이 약을 먹거 꽤유한 것을 알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느니라.”

부처님께서 즉성자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뛰어난 의사는 방편을 써서 아이들을 쾌차되게 하였으니 저 의사의 행위를 비방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자 보살들이 부처님께 말씀을 올렸다.

“아니옵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했나이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여래는 헤아리기 어려운 무수한 백천억 겁에 걸쳐 무상정진도의 뜻을 발해 설새 없이 무량한 고행을 닦고 매번 방편을 행사

해 교화를 베풀어 중생에게 도의 마음을 발하게 했느니라.

예컨대 그 아버지 의사는 여래에 해당하고 여러 아이들은 오도(五道) 생사에 허덕이는 중생이고 아버지가 다른 곳에 가서 부재 중인 것은 여래께서 세간에 출현하지 않음이고 아이들이 집에서 독약을 먹고 었치락뒤치락함은 삼계에서 중생들이 삼독에 결박을 당해 오도 세계에 얽매여 스스로 벗어나지 못함이다.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옴은 여래가 대자비심으로 삼계 중생을 보니 중생이 오취(五趣) 세계에서 유전해 벗어나지 못하자 세간에 현신해 경법을 널리 강설해 개화시킴에 해당하느니라.

아이들이 약을 복용해 병에서 쾌유됨은 무상정진도의 마음을 발해 불퇴전의 뜻을 세워 소종생(所從生)이 없게 되는 것이니 혹 성문이나 연각승이 되기도 하여 구경에 이르지 못함에 해당된다.

약의 형태·색·향기·맛을 보고 복용하지 않음은 특심이전으로 샅된 소전에 걸려 있음이니라. 아버지가 연로해서 약을 남겨둔 채 아이들을 남겨두고 떠남은 대중들이 도교(道敎)를 얻어 들었음에도 의심만 거듭하자 여래가 멸도를 나타내 보이시고 경법 가르침만 남겨두어 후세 중생을 가르치고자 하심이니 사부대중 제자들이 독송하고 배우고 부처님 공덕을 생각해 대도(大道)의 뜻을 발하여 혹 라한이나 연각이 되기도 하느니라. 부처님도 이

와 같이 다시 세상을 벗어나니 모든 증생은 모두 내 자녀이니라.
여러 족성자들아, 여러의 방편행은 결코 헛되지 않느니라.”

이어 세존께서는 그 뜻을 거듭 현양하기 위해 계송을 읊으셨다.

불가사의하게도

백천억 겁에 걸친 고행

그 한량함을 알고자 해도

알 수 없으리니

성불한 이래로

지존(至尊) 대도

항상 경전을 강설해

모든 증생들이

조금도 게으름 피움 없이

권조(勸助) 발기(發起)했노니

무수한 보살들은

부처님의 도와 덕을

곧게 건립했노라.

무수한 억겁 동안

불가사의한 천억해

증생을 개도(開道)시켜

몸소 시현하여
 멸도를 보여
 그 뜻으로 교화 펼쳐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뛰어난 방편을 써서
 멸도를 나타내었으니.

그래서 중생 위해
 이 경전의 말씀을 펼치니
 내가 이미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고자
 중생들에게
 저 뜻 분별하였으나
 그 마음 전도되어
 깨닫지 못하기에
 이와 같은 무리를 깨닫게 하고자
 부처님 설법 펼치시네.
 설령 여래 친견해서
 멸도한 이후에

약간의 공양물로
공양 바쳐 올리나니
또한 내가 입멸하자
크게 슬퍼하다가도
다시 여래 친견하매
떨 듯이 환희하누나.
가령 진실되고 바르게
지극 정성으로 설법하매
모든 증생이
장차 집착을 버린
연후에 여래가
능히 증생을 운집시켜
위대한 불도를 나타내 보이시어
현양하노니
후세에 이르러
이 말씀 밝히리라.
나는 여기 있어
멸도하지 않노니
비구여, 여래의
방편법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 감인세계에서
 세간에 수명 나타내어
 다른 사람과
 모든 보살과 그 권속들에게 둘러싸였으니
 이로 인해 존귀한
 불도를 선양하여
 여러 현인이 듣게 되노라.

여래의 세간 출현 어렵나니
 또한 도사께서
 다른 곳에서 멸도하여
 중생의 근심 걱정을
 관찰하여 살피
 창졸간에 나타나지 않다가
 중생들이 부처님의 몸과 상호를
 친견하고자 하염없이 마음으로
 갈망하므로
 비로소 몸을 나타내시어
 경전 말씀에 전하노니

불가사의한
 백천억 겁에 걸쳐
 내가 항상
 이와 같은 뜻을 세웠노라.

부처님께서 영축산에
 직접 내려오셔서
 무량한 해(亥) 동안
 자연히 법상에 앉으셨으니
 설사 증생이
 이 세계가 큰 불의
 재난 속에 있음을 보고
 천지가 겁화(劫火)에
 불타는 때를 당하더라도
 나는 이 불국토에서
 구족하고 미묘하게
 부드럽고 단아하게
 춤추고 미소지으면서
 크게 안온하리니.

강당이나 정사(精舍)
 루각(樓閣) 또는 저택
 모두 칠보로 장엄하게 꾸미니
 약초 혹은 나무
 무성한 꽃이나 열매가
 자연히 비처럼 쏟아져
 온갖 색의 꽃은
 부처님과 제자들의
 주위에 흩날리고
 사람들은 앉은 채
 관실(館室)에서 천둥소리를
 또한 즐기면서
 도의 마음을 발하리니.

증생의 극토가
 항상 불 타올라
 모든 증생은
 겁화에 타오르는 세계를 보고
 두려워하나

본래 방편을 활용해
 이런 변화를 나타내 보일 뿐
 여래는 자차(諮嗟)하시니
 무양수 억
 부처님 법의 존귀함
 그 위용 이와 같노라.

증생의 품류(品類)는
 즐겨 청법하지 않아
 번뇌의 불길에 휩싸여
 재앙과 허물을 짓노니.
 만일 대증이
 유연하고 중화(中和)로워지면
 그때 부처님이
 인간세에 출현하셔서
 세존을 친견하게 되고
 경법 말씀을 듣고
 청정한 뜻과 이치
 높이 현양하리니
 여래는 증생 위해 와서

계율 가르침을 분별해
 이와 같이 설하고
 왕반(往返)의 일 전하니
 무릇 여래께서
 오랜만에 현현하신
 연후에야 비로소
 이 경전을 강법하시니
 나는 성달광명(聖達光明)의 지혜력으로
 이와 같이 보나니
 지난 생에 지은 행은
 한량없느니라.

무량한 겁수에
 자비의 마음으로
 평탄하여 구함이 없어
 지혜 밝은 사람은
 여우 같은 의심 내지 않고
 머뭇거림도 없어
 번뇌에 결박됨도 없이

마땅히 따로 드러내
반선(班宣)할 것도 없으리라.

여래는 지금 고하나니
또한 다른 뜻도 없이
의사가 한 것과 같이
뛰어난 방편을 활용해
열어 밝게 천명하고
그대들에게 방술을 나타내어
쇠약함과 죽음을 보이지만
그 몸은 계속 존립되나니
신변음성(神變音聲)은
처음도 끝도 없어
여러 벗과 더불어
자유자재하여
사자후의 말씀으로
중생의 병을 치료해
어리석음 열어나가
우매함을 벗어나게 하고자
니원(泥洹涅槃)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멸도 아님 보이노라.

무슨 연고로 은근하게
 살아있는 부처를 보고자 하는가.
 사람은 항시 어리석어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해도
 방일함으로 말미암아
 삼처(三處)에 떨어지누나.
 그들 마음으로 떨 듯이 기뻐해
 깨닫게 하기 위해
 여래는 말씀을 통해
 항시 그 때에 알맞게
 중생을 위하여
 지혜를 행하노니
 어떤 방편으로
 도법(道法)을 받을 것이며
 무엇으로
 불경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까.

세존께서 이와 같이 여러의 수명에 대해 설하실 때 무양수 불
가사의한 증생이 이익을 얻어 해탈하여 도에 이르게 되었다.

정법화경(正法華經) 권 제8

16. 어복사품(御福事品)

그때 세존께서 미륵대사에게 말씀하셨다.

“아일다여, 지금 부처님이 여래의 수명과 경전에 대해 설할 때 강변 모래알의 룡십팔억 나술(那術)의 백천 배나 되는 보살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법인(法忍)을 증득했느니라. 강변 모래알의 이천 배나 되는 보살들은 모두 총지(總持=타라니)를 증득했느니라. 또한 한 불세계의 미진수 보살들은 불퇴전의 총지를 얻게 되었느니라.

또한 다시 천 불세계의 미진수 보살대사는 이 경전의 말씀을 듣게 되자 불퇴전의 법륜을 굴렀고 또 중천(中千) 불세계의 미진수 보살들은 무구대성분별(無垢大聖分別)을 얻어 법륜을 굴렀느니라. 또한 소천(小千) 불세계의 미진수 보살들은 이 경전의 말씀을 듣자 여덟 생 만에 무상정진도를 얻었고 또 사천하(四天下)의 미진수 보살대사는 이 법을 듣자 일생보처(一生補處)를 얻어 정각을 성취했느니라.

또한 여덟 불세계의 미진수 증생들은 이 경전의 설법을 듣고

모두 무상정진도를 발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말씀하실 때 이 보살대사들은 곧 이와 같이 도를 건립하였고, 그때 허공에서는 꽃이 비처럼 내렸다. 의화(意華)·대의화(大意華)가 눈처럼 뿌려져 무수한 백천 세계의 백천억해 불세존 주위를 장엄했느니라. 칠보 나무아래 사자좌 주위에 꽃이 쏟아졌고 또한 능인 대성(能仁大聖) 위에도 무양수의 꽃이 뿌려져 한량을 알 수 없었느니라. 또한 이미 멸도하신 부처님과 다보 여래 주위에도 장식되었느니라.

땅은 크게 진동하였고 모든 보살 주위에도 비처럼 꽃들이 뿌려졌고 또한 네가지 전단향·잡향(雜香)·밀향(蜜香), 모든 향이 비오듯 허공으로부터 쏟아져 내렸으니 허공 가운데에서 뇌성이 크게 일어나 깊고 부드러운 메아리가 저절로 오묘하게 울렸느니라. 천만 가지 영락, 약간의 진기한 것, 명월보주(明月寶珠), 여의주, 제주영락(諸珠瓔珞)이 모두 허공에서 번개처럼 아래로 드리워졌고 무수한 향로가 혈(穴) 중에서 자연히 향음을 내었고 또한 무수한 백천 가지 번개가 저절로 드리워졌으며 하나하나 보배 번개가 각각 부처님 한 분 위를 덮어 위로 범천까지 이르렀느니라. 보살대중은 허공에 있으면서 번개를 잡고서 백천억해 여래의 좌우에서 시봉하였느니라.”

그때 미륵보살이 계승을 읊어 찬탄했다.

미증유의 법

이제 안주하여 듣고

본래 보지 못하던

밝은 이 광명을 보니

멀리 태극에 이르러

한량을 알 길 없사오니

눈으로 보는 바를

능히 사랑할 수 없나이다.

오늘 저희들은

경전의 가르침을 들어

안주함을 얻게 되고

밝은 설법을 나타내 보이시어

백천억 수 중생을

제도하시오니

대성 도사께옵서는

세간에서 뛰어나

불퇴전 법륜을 둘러

불도에 머무시나이다.

때로는 득립(得立)하여

은밀한 뜻을 지니고

혹 득처(得處)에서는

무한한 뜻을 나타내 보이시니

백천억 수

총지의 요체

그 한량 알기 위해

사유하고자

건립(建立)한 바 있나이다.

아울러 생을 너머

또한 두 번의 생

또한 여덟 번의 생에

반드시 불도를 얻으리니

제도받은 중생은 무한하나이다.

혹은 배우는 이가

네 번의 생을 초월해

때로는 세 번의 생에 이르고

후 두 번의 생애 있어서
 도사 인연을 좇아
 이 경전의 설법을 듣고
 마침내 불도를 얻으리니
 제일의 뜻이 현시되나이다.

후는 일생보처 동안에
 온갖 지혜에 통하여
 제유(諸有)에서 소요하면서
 대성의 말씀하신 바
 청법해 들어
 깨달음을 이루어
 모든 번뇌가 있지 않으니
 마치 여덟 분의 부처님
 미진수 국토
 그 숫자를 알고자 해도
 한량없음이 이와 같으리라.
 무수억 대중들이
 이 경전을 청법해

듣고 수승한 도로
 마음을 발하여
 무극의 대선(大仙)
 이와 같이 덕을 지었사오니
 분별해 설법하시어
 진체(眞諦)의 땅에
 무량한 몸 세우시니
 한계를 알 수 없습니다.
 비유컨대 허공은
 한계가 없는 것과 같나이다.

하늘에서 무수억 꽃
 비오듯 쏟아지니
 천억 천자(天子)
 강변 모래알처럼 무수한
 제석천, 범천
 모두 이곳에 이르고
 무수 억천
 잡향(雜香) 묘향(妙香)으로
 편안히 공양 올리고

밀향(蜜香) 상향(上香)을
 부처님 주위에 뿌리니
 오로지 향을 지어
 마치 나는 새처럼
 모두 와서 공양 바치매
 여래께서 안주하신
 허공 상공에
 자연히 뇌성 울리고
 유연한 음성으로
 오묘한 법이 창달하니
 백천억 하늘이
 모두 찬탄하여 노래 부르나이다.

명월보주(明月寶珠)
 자연히 하강하여
 온갖 향 저절로
 향음으로 퍼지고
 칠보 보배 꽃병
 백천억 해

마치 기러기 비행하듯
 허공에 라렬(羅列)된 채
 위신력 높으신
 세존께 공양으로 올리고
 한량없는 억해(億垓)
 온갖 번개
 광대하게 드리워진 채
 칠보로 장엄되었나이다.

총명한 지혜 갖춘
 여러 보살 대중
 몸은 크고 장대해
 위로 범천까지 이르고
 미묘하고 수승하게
 위광(威光) 뛰어나
 화려한 당번은
 부처님 주위를 장엄하니
 온갖 성인 자차(諮嗟)하나이다.
 천만억 계승을 듣고
 마음은 떨 듯 기뻐

공경하는 마음으로 안주하며
향하(向下)의 소재(所在)에서
세존께서는 미증유의
갓가지를 보여주시고
다른 여러 도사
수명의 한량함을
널리 나타내 보이시니,

지금 여기의 증생
모두 환희심이 넘쳐
그 광대한 뜻 널리
십방 세계까지 이르느니
도사의 음성은
도달되지 않음이 없어
백천억 수
증생은 만족하게 되어
도의 뜻 깨달아
구족하게 장엄하나이다.

이때 세존께서 미륵대사에게 말씀하셨다.

“여래가 나타내 보이신 수명에 대한 설법을 듣고 환희심에 넘쳐 두렵게 믿는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한량없느니라.

비유컨대 족성자와 족성녀가 무성정진도를 얻고자 한다면 포시·지계·인욕·정진을 일심으로 하여 오도무극(五道無極)을 팔억 백천 겁 동안 봉행한다 할지라도 족성자와 족성녀여, 다음과 같지 못하느니라. 여래의 한량한 수명에 대한 설법을 듣고 환희심을 일으켜 즐겨 믿고 여유 같은 의심을 내지 않아 하나의 도에 귀일함과 같지 못하느니라. 이 공덕을 살펴본다면 팔억백천 겁 동안 오도무극을 행함보다 수승하니 백 배, 천 배, 만 배, 억억 배, 거억만(巨億萬) 배나 되어 복덕은 어느 것에도 비유할 수 없고 어디에도 전줄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아일이여, 족성자와 족성녀가 이 경법의 말씀을 듣고서 한번 마음을 발해 환희심으로 넘쳐 믿는다면 무상정진도에 전고하게 머물러 최정각을 성취하게 되리라.”

이어 부처님께서 게송을 읊으셨다.

만일 일체를 준수하여

오도무극을 행해서

이 지혜에 뜻을 두어
 불도에 나아간다면
 가령 천억 겁 동안
 팔전겁(八前劫) 구족하게
 부처님께 포시(布施)함이니
 자주 성문이나
 연각에게 공양 올려
 천억해 보살게
 온갖 음식을 헌상하고
 의복과 침구 구족해
 탐석(榻蓆)과 옥실(屋室)
 전단향으로 장식하고
 정원에 평등족(平等足)
 경행처(經行處)를 설치하여
 이와 같이 포시(布施)하리라.

무수히 많은 중생들
 백억 겁 동안에
 존귀한 불도를 구하고

또한 계율을 지켜
 머리 숙여 부처님을 받들어
 아무것도 범하지 않아
 부처 지혜를 얻게 되리라.
 또한 인욕에 수순해
 선정 경계에 머물러
 생각은 아무런 걸림 없고
 무수한 매도 인욕하나니
 설령 난폭한 자 만나
 교만심 부릴지라도
 마음으로 인욕을 행해서
 불도를 구하기 위해
 항상 은근히 정진하고
 마음을 너그럽고 확고하게 하며
 뜻에는 다른 생각없이
 억만 불국토를 소요하나니
 만일 한가로울 때에
 수면욕을 극복하고자 하면
 그 사람은 억겁 동안
 항시 경행(經行)을 익히리니

이에 견줄 자 없으리라.

천억 겁 동안 선정 익혀
 다시 팔천억에 걸쳐
 오로지 일심으로 행하여
 위없는 불도를 지향해
 온갖 지혜 통하기 위해
 무극의 이치 구족해
 일심 선정으로 적연하면
 그가 지은 복덕
 함께 모여 쌓이리니
 백천억 겁 가운데
 예전같이 자차(諮嗟)하노라.

만일 남녀 어느 누구든
 여래 수명 듣고서
 일시에 환희해 믿는다면
 이 덕은 최상일지니
 마땅히 머뭇거림이라든가

생각에 집착함 없이
 대법(大法)을 즐겨 믿으면
 그 복덕은 이와 같으리라.
 보살이 도를 구해
 억겁 동안 받들었거나 받들지 못했거나
 여래의 한량없는 수명의 말씀 들으면
 마땅히 머리 숙이리니
 이와 같은 인물은
 미래세에
 무수억 동안 생사에서 벗어나리라.

능인 세존
 나무 아래 앉아
 사자후 펼치리니
 나는 지금부터
 증생의 공경 받고서
 부처님 도장(道場)에 처해
 수명 설법 하리니
 뜻은 모두 구족해
 모든 사람이 널리 듣고 수지하니

설법 통해 교화된 사람

여우 같은 의심 없으리라.

부처님께서 다시 아일에게 말씀하셨다.

“여래의 수량 말씀을 듣고 수지하여 밝게 이해한다면 그의 복덕은 한량없으리니 곧 저보다 넘치리라. 만일 억겁 동안 오도무극(五道無極)을 받들어 위로 부처 지혜에 이르면 마땅히 시현(示現)하여 봉행하리라.

또한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 필사하여 죽백(竹帛)에 실어 받들어 공양 올려 소향(燒香)·도향(搗香)·잡향(雜香), 증채(繒綵)·당번(幢幡), 마유등향(麻油燈香)·유등(油燈)·제호등(醍醐燈)을 올리면 그 복덕은 저보다 뛰어나 무수하리니, 반드시 여래의 지혜에 이르게 되리라.

예컨대 아일이시여, 저 즉성자가 가령 여래의 수량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진실되고 곧아 환희심을 일으켜 믿는다면 그 성정(性情)으로 반드시 이런 상(相)을 보아 곧 알게 되리니 여래가 영축산에서 이 경전을 설법하실 때 여러 보살과 그 권속, 그리고 성문대중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 이 불국토는 삼천대천세계 중에 평등심으로 인욕하고 그 땅은 감색 류리(琉璃)

의 자마금색으로 길은 여덟 겹으로 교차되어 있고 칠보나무가 심어져 있느니라. 억 가지 저택 가운데에 보살들이 머물고 있느니라.

아일이여,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진실되고 곧아 기쁘게 믿어리니 이와 같은 색상(色像)으로 그의 상행(相行)을 아느니라. 또한 그는 일찍이 여래 세존을 친견한 바 있으니 저 사람이 마음으로 불법을 즐겨 믿었음을 볼 수 있느니라.

여래가 입멸한 이후 이 즉성자와 즉성녀는 이 경권의 가르침을 듣고 비방함이 없이 환희심을 일으켜 수지하리니 여래가 그 모습을 보고 옹호하리라.

그 즉성자는 흥기하여 여래의 탑묘를 세우고 정사와 강당을 건립하고 병든 비구를 보게 되면 의약과 공양물은 공급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런 즉성자들은 구족하게 탑묘를 세우고 칠보사(七寶寺)가 위로 범천까지 이르러 모든 사리에 공양을 올리기 때문이니라.

그 여래의 탑사는 크기가 무한해서 널리 땅 끝까지 온갖 보령(寶鈴)이 드리워졌고 무상지장(無上之藏)의 여러 사리묘(舍利廟)에 화향(華香) · 잡향(雜香) · 도향(搗香) · 번개 · 당번 · 풍악 · 가송(歌頌), 약간의 향, 천상과 세간의 진귀한 것, 하늘꽃 · 하늘의 향 · 하늘 음악을 공양으로 올렸으니 공중에서 뇌성이 울려 커다란

음이 퍼졌으며 약간의 종(鍾)·북·공후·악기·피리·거문고·대쟁(大箏)·발(鉞)이 유연하고 애잔하게 음악을 연주하자 조화가 지극하게 이루어져 무수한 백천억 겁 동안 공양해 받들었나니 이에 오도무극(五道無極)은 지극히 총만하게 되었느니라.

부처님이 멸도한 이후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서 수지 독송해 필사하여 밝게 설한다면 그 복덕이 무량하리니 자비심을 닦아 널리 수지하여 강당과 정사를 지어 책상과 비단 침구를 갖춰 비구들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게 하고서 정원에 꽃·열매·명월주보(明月珠寶)를 갖추고 경행처(經行處)·좌구(坐具), 음식 공양물, 병 치료하는 의약품등 일체를 보시하여 구족하게 갖추리라. 그 책상 다리는 약간의 보배로 장엄되어 미묘하게도 위로 범천까지 이르러 번개로 장식되니 그 복덕이 권조되는 까닭에 점차 구족되어 죄업이 소멸되어 찬란하게 빛나지 않음이 없으리라. 오체(五體)로 정진하여 한거(閑居)해서 공덕이 쌓이리니 무수한 백천억 겁 중에 그 이름이 칭송되어 모두가 장엄되어 위신력이 뛰어나 두루 가득하게 되리라.”

이어 세존께서 계송을 읊으셨다.

만일 칠보사를 건립해

위로 범천까지 이르러
 화향(華香) · 기악(伎樂)
 번개로 공양 올리고
 여러 침구들과
 음식 · 세공찬(細供饌)
 병 치료하는 의약품
 약간의 보배 책상
 미묘하고도 장엄하게
 위로 범천까지 이르러
 불국토를 널리 장엄해
 권조하여 갖춰
 오사(五事)로 한거(閑居)해
 위신력으로 많은 일 일으켜
 모든 사람이 즐기는 바대로
 미묘하게 포시(布施)를 베풀어
 구족하게 공양 올리고
 청정하고 화려한 당번
 이것으로 의복 삼고서
 자주 뇌성이 울려
 온갖 유연한 풍악을

사리에 공양으로 바치고
 향유로 등을 태워
 주위를 널리 밝히나니,

이 경전 수지인은
 난세에
 구족하게 설하나니
 여기 약간의 공양
 무수한 저택을
 전단향으로 건립하고
 강당은 삼십이(三十二)
 지극히 높아 한계없고
 곳곳에 좌구(坐具) 갖춰
 원하는 음식 취하니
 이와 같이 백천억
 희귀한 음식을 공양 올리노라.

정원과 경행처(經行處)
 땅에 화려한 천 깔고

무량한 번개 구족하고
 약간의 상(像) 채색해
 사문들께 공양 올리누나.

이 경법 수지인
 목전(目前)에서 변설하리니
 여래 멸도한 이후
 독송하고 필사하여
 환희심으로 믿는다면
 그 복덕 무량해서
 다른 복보다 뛰어나리.
 그 사람은 경전 사경하여
 청정하게 안온하리니
 마땅히 경원에 공양 올려
 화향(華香) 널리 훈습하여
 항시 등불을 밝히고
 향유(香油)로 제기 연료 삼으매
 크게 환희심으로 넘쳐
 자주 꽃 공양을 올리니
 그는 경원을 받들어

이와 같이 공양하리니
 얻는 복덕 광대하여
 그 한량 알 수 없으리
 비유컨대 허공계
 한계 알 길 없어
 십방세계의 무량함에
 그 복 견주리라.
 하물며 또한 안온한 데다가
 항시 포시(布施)를 베풀고
 계율을 지켜 선정 닦아
 연좌(宴坐)의 행 실천하고
 성내거나 험구하지 않은 채
 공손하게 생각 세움에 있어서라.

비구니는 항시 겸손해
 스스로를 과대하지 않고
 지혜는 밝은 달 같아
 그에게 어려움 없이 물으매
 차례대로 분별하여

부처님 만날 생각 품으리니
 가령 이와 같은 상(像)으로
 뛰어난 경전을 ㄹ 수지한다면
 그 사람의 공덕은
 한량을 알 길 없으리니
 설사 어느 누가
 이러한 법사(法師)를 보게 되면
 마땅히 이 경권 수지하여
 받들고 공양 올리리라.

가령 어느 누가
 하늘의 꽃과 향
 천상의 보배 덩개로
 온통 주위를 뒤덮으며
 머리를 숙여
 그의 발에 례(禮)를 표하고
 여래의 뛰어난 모습
 항상 생각 거듭하여
 한때 직접 친견한 자
 생각하기를

나무 밑 법왕 주위에서
 반드시 깨달아 성불 이루어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하늘과 세간의 중생
 이익되게 하리라고
 무릇 주립(住立)하여
 만일 안좌(安坐)하거나
 경행(經行)을 한다면
 그 덕은 이와 같으리라.

법상에 자리하여
 법복을 착용한 채
 여래의 이 경전
 항상 강연을 베푸리라.
 그때 사부(士夫)가
 이 경권에 있어서
 갖가지 미묘한 뜻
 현발(顯發)시켜 밝히리니
 세존 도사는

지극 정성으로 설법해
무수한 보배로
공양 받게 되리니
내가 감탄한 바와 같이
어느 곳이든 간에
부처님께서 함께 하리니
저 법사가 경행할 때
여래는 그와 같이 있어
위에 앉은 것처럼
그가 유거(遊居)하는 곳에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되리라.

17. 권조품(勸助品)

그때 미륵대사가 부처님께 말씀을 아뢰었다.

“이 경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복이 얼마나 됩니까?”

이어 미륵 대사는 계송을 읊었다.

대웅(大雄) 멸도하신 이후
 이 경전 말씀 듣고서
 그 뜻 살피 권조한다면
 얻는 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에 세존께서 미륵대사에게 말씀하셨다.

“여래가 입멸한 이후 이 경전의 설법을 듣는다면 비구·비구니·청신사·청신녀, 또는 남자·여인·대소 권속에 관계없이 설법을 들어 권조입고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증생을 위해 설법하리라.

만일 집 안이든 밖이든, 군국현읍(郡國縣邑)에서 한거(閑居)하든 마땅히 이 경전 말씀을 듣고서 수지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리라. 부모와 친척은 대사의 설법을 듣고 감탄하여 크게 환

희하고 전해들은 바가 계속 전수되리니 법사의 위용과 용모를 직접 보지 않더라도 대신 전한 인물이 권조하리라. 이 인연으로 방편을 써서 오도인(五道人)으로 하여금 오개자(五蓋者)와 서로 통해 각각 들은 대로 더욱 권화(勸化)하여 나의 설법을 들어 권조의 복이 있게 되고 법사가 경전을 설법한 공덕도 있게 되리라.

즉성자와 즉성녀는 무수한 천재(千載) 동안 사역천하(四域天下)에서 룡취의 증생이 라망(羅網)을 미진하니 유색(有色)·무색(無色)·유상(有想)·무상(無想)·불유상(不有想)·불무상(不無想)·유족(有足)·무족(無足)·량족(兩足)·사족(四足)·다족(多足)등 하늘과 대중은 어떤 사람이 공덕을 구하려 하자 이 증생이 즐기는 바에 따라 지극히 아끼는 미묘한 공양물을 염부리(閻浮利)에 가득 채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광대하게 포시(布施)하고 그 바라는 바에 맞게 집·금·은·수정·류리·산호·호박·차거·마노·코끼리·말·수레·소·온갖 보배를 합해 나누어 주고 무양수 년 동안 그 구하는 바대로 충족하게 갖추어 놓고 음식 공양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니라.

‘니아가 년로(年老)하고 힘이 노쇠하여 마음마저 피폐하나 어찌 가히 여래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증생을 교화하지 않으리요.’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래의 법륜로 도에 맞지 않는 가르침을 점검하여 대중을 일시에 도의 자취를 밝게 해서 왕래불환(往來不還)하여 아무런 집착없이 증득하게 하고 온갖 번뇌가 다하여 선정이 구족하고 위신력이 뛰어나 여덟 해탈문을 증득하여 일심이 어지럽지 않게 하리라.

아일이여, 바로 저때 사부(士夫)가 세운 복의 포시(布施)를 사랑(思量)하여 그 한량(限量)을 알 수 있겠느냐.”

이에 미륵대사가 답하였다.

“매우 광대해 헤아릴 수 없사옵니다. 그는 무량한 증생을 안위(安慰)하여 그 결핍된 바를 보태줌으로써 다시금 뜻을 세우게 했사오니 아무런 집착 없이 증득하게 했나이다.”

이에 부처님께서 아일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그대에게 고하고 사부대중에게 선포하나니 저 사부(士夫)는 광대한 포시(布施)를 베풀어 무수한 사역(四域)의 증생에게 공급하여 아무런 집착이 없는 증득을 이루게 했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이 경전의 한 구절, 한 계송을 듣고서 권조하여 기뻐한다면 그 복덕은 저 사람이 포시한 것보다 수승하리니 한 구절이나 계송 하나를 권조한 공덕은 한량없어 백 배, 천 배, 만 배, 억 배,

거억만배(巨億萬倍), 백천 겁 한계를 알 길 없어 어디에도 비유할 수조차 없으리라.

하물며 눈으로 이 경전을 직접보고 귀로 듣고서 기뻐한다면 그 공덕은 헤아리기 어려우리라. 만일 어느 누가 이 경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정사(精舍)에 들어가거나 현읍(縣邑)에 들어가 머물거나 앉거나 하여 일시에 이 경법을 듣거나 두 번 거듭 들어 오로지 정진하면 현재 있는 곳에서 복덕을 얻고 항상 저절로 무수한 보배를 얻게 되리니, 중전·정사에 상榻(床榻)과 좌구(坐具), 코끼리·말·수레가 무량하고 경전을 설하거나 머물거나 앉아 있거나 마음의 천왕(天王)을 쉬어서 옹호를 받아 죄업을 만나게 되지 않으리라. 석범사천(釋梵四天)이 좌우에서 외호하고 전륜성왕이 사자좌 가까이에 있으리라.

가령 즉성자가 입을 열어 정법화경이 있다고 하면 참으로 가히 받들어 함께 청법해 수지하여 다시금 명을 청하리라. 진흙 비가 내리고 나태하여 행하지 않을 때 만약 잠시라도 청법하는 자 언는다면 죄와 복, 선악의 보응이 풀어져 곧 덕의 근본을 얻어 총지 타라리를 얻으리니 여러 보살과 더불어 세세생생 서로 따르고 태어날 때마다 총명해 지혜가 밝으리라. 백천억 세(卅) 동안 몸에서는 항상 향내나고 청결하여 악취 세상에 떨어지지 않고, 해를 입지도 않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샷된 마음이 없으며 얼골색

은 광택이 나고 착한 집안에 태어나며, 보는 사람마다 환희하여 악을 짓는 일이 없으며, 맹인·롱아·언청이·편려(偏戾)로 태어나지 않으며, 또한 막힘도 병어리도 대머리도 절음발이도 치질도 고질도 없게 태어나고 어리석음도 키가 작지도 크지도 않으며 너무 유(柔)하지도 강(剛)하지도 않고 희지도 검지도 않으며 얼굴은 얼굴은 위축되어 누렇지도 않고 몸은 완전히 구비되고 자태와 얼굴은 단정하고 색은 복숭아 꽃과 같아 주위 사람의 사랑과 공경을 받고 마음은 어질고 현명하며 말재주는 뛰어나고 지혜를 갖추어 속히 선정과 여러의 법교(法敎)에 이르게 되어 여러를 친견하고자 하여 발원대로 세존 정각을 만나 반드시 이 경전을 배우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아일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또한 그 덕을 살펴보건대 어느 누가 한 번 그의 이름을 들어 권조하여 환희한다면 이에 이 복덕을 얻으리니, 하물며 또 다른 사람이 오로지 정밀하게 청법해 수지하고 공양을 올리고 깊이 사유하고 또다시 남을 위해 구족하게 설함에 있어서라.”

그때 세존께서 게송을 읊어 찬탄하셨다.

만일 최후에

이 경권 접하여
 한 게송이라도
 얻어 듣게 되어
 그 뜻을 알게 되어
 마음으로 크게 환희한다면
 그 사람의 공덕
 한량이 없으리라.

가령 어느 누가
 홀로 포시를 베풀어
 항상 천억해 수
 부처님과 같이
 비유를 현시하여
 무수겁에 이를 때까지
 포만케 하리라.

그대에 사부(士夫)가
 얼굴이 변색되고
 머리털이 하얗게 되고
 이빨이 흔들려

년로(年老)해 늙게 되매
 여기 군생(群生) 부류
 장차 죽음 없게 하고자
 내가 교화 베풀어
 도법(道法)에 들게 하여
 그 사람 최후에
 법교(法敎)의 비유로
 무위의 그 경계
 분별해 펼치니
 일체 오도(五道)
 흡사 파초와도 같아
 속히 얻게 하고자
 멸도의 일에 있어
 모든 증생으로 하여금
 경전을 청법, 수지케 하여
 사부(士夫)로부터
 친근히 말씀 들어
 그 마음 다스려
 무루하게 함으로써

한순간에

집착없는 증득 얻게 되리.

만일 한 계승 들어

권조를 입는다면

이로 인해 얻는 공덕

저보다 훨씬 무량하여

각기 포시 베풀어

하나하나 분별하니

한 계승에 담긴 덕

헤아리기 어려워라.

창졸간에 얻어 듣고서

한 계승 강설하면

그 한량 알 수 없어

훈습이 한계 없으리

그 사람이 얻는 복덕

이와 같이 무수하거늘

하물며 현재에

스스로 수지함에 있어서라.

가령 어느 누가
 법회에 참여해
 한 번 경전의 설법을 듣는다면
 떨 듯이 환희하리니
 백천억으로부터
 여래 해(垓)의 겁수라도
 이 법 만나기 어렵고
 또한 깨닫기도 어려울세라.

만일 지금 어느 누가
 저 사부를 찾아가
 잠시라도 설법 듣고
 이 경권을
 마땅히 청법한다면
 얻게 되는 과보
 태어나는 곳마다
 큰 병 없게 되고
 세세생생 계속해서
 허에 아무런 병 없고

어금니는 견고하여
조금도 쇠락함이 없고
애초에 흉한 일 없고
온갖 위태함 제거되고
삿된 일 소멸되고
부모는 어질어서
뛰어난 방편 세워지고
수명은 항상 길고
맹인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눈 또한 어둡지 않고
귀와 이 뛰어나
조금도 흠결 없고
입과 입술 오묘해
항상 청결하여
늘 대중으로부터
사랑과 공경 받고
입에서는 향내 나서
구취를 풍기지 않고
형체는 항시 향기로워
푸른 연꽃과도 같이

훈향이 널리 퍼져
미치지 앎이 없으리라.

예컨대 당실(堂室)에 거하든
정사에 이르든지 간에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이 경전 청법하여
잠시 한 순간이라도
들은 바 이해하여
크게 떨 듯이 기뻐해서
한쪽에서 수지하면
그의 이런 의례로 인해
안온함 얻게 되고
수승한 수레와 말로
환영을 받으리니
다시 뛰어난 코끼리
또는 수레를 타고서
유람 다니게 되리라.

약간의 갖가지 보배
지극히 오묘한 영락
또한 항시 얻고
수백천 사람이
모두 함께 뜻을 내어
그곳에 머무르면서
법의 과보 설하니
이와 같이 청정한
가르침 강법하노라.
청정한 법인 까닭에
선명하게 건립하여
천제(天帝)로 득위해서
법천의 법좌에 앉아
속히 전륜성왕의
지위에 이르게 되어
오랫동안 대증을 위해
경전의 뜻 펼쳐 보이리라.

18. 탄법사품(歎法師品)

그때 세존께서 상응시(常應時) 보살대사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족성자 또는 족성녀가 이 경전을 수지하여 독송하고 필사한다면, 마땅히 열가지 눈의 공덕과 팔백의 명칭, 천이백 이근(耳根), 천이백 비근(鼻根), 천이백 설근(舌根), 천이백 신행(身行), 천이백 의정(義淨)의 공덕 얻으리니 이와 같이 무수한 백천 품덕(品德)을 얻어 능히 륙근의 공덕이 장엄하여 청정하게 되리라.

저 사람이 만일 안근이 청정하다면 육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어 삼천대천에 가득한 온갖 제미석밀총수(諸味石蜜叢樹)에서부터 아래로 무가대지옥(無可大地獄)에 이르기까지 보게 되리니 그래서 육안(肉眼)이라 일컫는 것이니라. 만일 어느 중생이든 그 안에 태어난다면 모두 보게 되어 그 죄업과 복덕 여하도 알게 되리라.”

이어 세존께서 게송을 읊어 찬탄하셨다.

이 경권 수지한다면

용맹하게 대증향해

나약함 없이 설법하리니
 단지 경전 이름 듣기만 해도
 팔백 가지 명칭의
 청정한 눈 공덕 얻으리라.
 온갖 허물 벗어나
 그 눈으로 두루 지각하니
 저 사람은 부모로부터
 받은 육안으로
 불세계(佛世界)를 널리 보고
 신선이 사는 수미산
 또한 두루 보고
 철위산(鐵圍山)도 보고
 온갖 언덕이나 구름
 광대한 바다도 보고
 말없이 한 곳에 머물러
 보지 않은 바가 없어
 아래로 무가지옥(無可地獄)까지 이르노니
 육안으로 이같이 보니
 아직 천안(天眼) 못 얻었으나
 역시 모르는 바가 없어

육안의 경계로

또한 경쾌하게 지각하노라.

부처님께서 계속 상응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족성자 또는 족성녀가 이 경전을 설하여 이류(異類) 성문승을 위해 말한다면 곧 천이백 이근 공덕을 얻게 되어 삼천대천 세계의 소리를 두루 듣게 되고 아래로 무가대지옥까지, 위로 삼십삼천까지 이르러 신선 세계도 넘어 서리라.

이른바 듣는 바는 코끼리 소리 · 말 소리 · 소 소리 · 음악소리 · 수레소리 · 곡하는 소리 · 한탄하는 소리 · 북소리 · 종소리 · 노래 소리 · 춤추는 소리 · 웃는 소리 · 남자소리 · 여자(女子)소리 · 남자아이 소리 · 여자아이 소리 · 바람소리 · 기묘한 소리 · 정법의 소리 · 법이 아닌 소리[非法聲] · 즐거운 소리 · 고통어린 소리 · 힘찬 소리 · 지성(志性)의 소리 · 부드러운 소리 · 사슴의 소리 · 하늘의 소리 · 룡의 소리 · 귀신 · 건담화 · 아수륜 · 가류라 · 진타라 · 마휴륜의 소리, 불의 소리 · 물의 소리 · 땅 속의 소리 · 비구의 소리 · 성문의 소리 · 보살의 소리 · 여래의 소리 등 삼천대천 세계에서 나는 온갖 소리를 내외가 통철(通徹)하고 일체가 청정하여 육신의 이근으로 중생이 내는 모든 소리를 들으리라.

아직 천이(天耳)는 얻지 못했으나 맹류(萌類)의 온갖 소리를
 밝게 들어 사유·관찰하지 않더라도 증생의 본말소유(本末所由)
 를 귀로 듣고 아느니라. 모든 음성을 구해 찾지 않을지라도 뛰
 어나게 이와 같이 귀에 순일 하느니라. 상응시 보살대사는 아직
 천이를 못 얻었지만 육안의 귀로 듣는 바가 이와 같느니라.”

부처님께서서는 이 뜻을 거듭 펴기 위해 계속해서 계송을 읊으셨
 다.

약간의 품류(品類)

칭결하게 총섭(總攝)하여

칭정한 귀

천이백 가지 공덕으로

이 세계에 있어서

그 음성을 들어

남음이 조금도 없으리니

육정(六情) 있는 자가

내는 소리 모두 들으리라.

소가 끄는 수레

코끼리나 말의 음성

박수 치거나 북 울리는 소리

슬프거나 기쁜 음성
 징, 동발이 내는 음향
 또한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기악(伎樂)
 그 음색 뛰어나니
 비록 저 가운데 있지만
 조금도 오염되지 않아
 무수한 사람소리 듣고서
 강설을 베푸노니
 저 사람은
 마땅히 분별을 하니
 여러 하늘은
 천이(天耳)로 듣기 위해
 항상 아래로 강복하니라.

감미롭고 부드러운
 남자와 여자가
 갖가지 곡하는 소리
 어린 남녀 아이들이

일으키는 애란(哀鸞)한 음성

붉은 큰 부리 까마귀

푸른 백로와 원앙새

그리고 앵무새

깊은 산림 속에

머물면서 내는 소리

모두 듣나니

이런 부류의 음성

또 지옥 가운데에서

고통에 짓눌려

신음하면서 일으키는

혹독한 고통소리

먹을 음식 생각해서

구해 찾기 위해

일으키는 음성.

여러 아수륜 무리

바다 속에 머물러

지어내는 음향

각각 상이한데

그때 법사가
 거기에 머물러
 그 음향 찾으며
 모두 얻어 듣나니라.
 축생과 아귀
 굼주림과 기갈에 쫓겨
 제각기 소리내어
 울부짖거나 소리 토해낼 때
 법사는
 말없이 여기에 서서
 모두 얻어 듣노라.

약간의 음성
 범천에까지 이르매
 거기에 있는 여러 하늘
 광음천상(光音天上)
 선구경천(善究竟天)
 다른 소리 날 때
 각기 상이한 음성이지만

법사는 두루 얻어
이 음향 모두 들으리라.

집에 안주하거나
또는 집 떠나 출가한
여러 비구 대중
경전 독송 행하고
분별해 설법하는 모습
다른 사람의 성품
법사는 모두 아느니라.
여러 경전 설법하는
보살 대중들
이 경계에 처해
독송하여 외위서
다른 사람 위해 설법함으로써
여래의 뜻 결집해서
경전으로 편찬하는
약간 종류의 음성
모두 얻어 듣나니라.

그 불세존

사람 위해 법을 설하고

또한 중생을 위해서

무수한 경전 설하나니

홀로 나무 아래에서

모두 얻어 듣나니라.

그 보살로 말미암아

이 경전 수지하여

모든 삼천대천

불국토에 사는

무수한 중생들이

일으켜 내는 음성

방 안에 있거나

혹은 밖에 처하든지

주고받는 미세한 소리

널리 채취해서

모든 중생이

내는 소리 모두 듣나니

모든 음성이 있어서

또한 아무런 집착없어
 곳곳의 일 꿰뚫고
 다른 사람의 표리(表裏)
 그 귀가 청정하여
 이처럼 밝게 꿰뚫노라.
 이 사람은 아직까지
 천이(天耳)의 광명 얻지 못해
 그때 그때 인연 살피
 곧바로 얻어 들으리라.
 이때 이 법사의
 공덕 이와 같으니
 이 경전 배워서
 명망 이처럼 밝으리.

부처님께서 계속 상응시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족성자 또는 족성녀가 이 경권을 분별해서 설하고 또한
 독송하고 죽백에 필사한다면 팔백 공덕을 얻어 제근(諸根)이 견
 고해지고 비근(鼻根)이 청정해지리라.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에서 나는 온갖 향음을 두루 맡으리니 부
 드러운 향 · 수만향(須曼香) · 생향(生香) · 부식수향(傅飾鬚香) · 사

이화향(思夷華香) · 청련(靑蓮) · 홍련(紅蓮) · 황련(黃蓮) · 백련(白蓮), 수목과실훈륙향(樹木果實薰陸香) · 소합향(蘇合香) · 화향(華香) · 전단향(梅檀香) · 목밀향(木檻香), 청목밀향(靑木檻香), 갖가지 온갖 향, 백천 가지 곳곳에서 생겨나는 것, 제질박향(諸質朴香) · 인소후향(人所嗅香), 남자 · 여자 · 동남(童男) · 동녀(童女)의 향을 모두 맡고 자기 몸의 향음도 맡으리라.

코끼리 · 말 · 육축(六畜) · 비치주수향(飛走狩香), 온갖 나무의 목향(木香), 나무 숲 사이의 함혈품류향(含血品類香), 여러 요매(妖魅)의 향, 지성향(至誠香), 천상향(天上香), 비타미향(比陀美香), 주도수향(晝度樹香), 의향(意香), 대의향(大意香), 유연향(柔軟香), 제천향(諸天香), 천궁향(天宮香), 제석신향(帝釋身香) 등 모두 맡게 되리라.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강당 안에 풍악과 노래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마땅히 재 범락을 닦아 도리천을 비롯한 여러 하늘을 위해 설법하자, 땅에서 솟아올라 자연히 생겨난 자가 춤추고 노래하며 천옥녀향(天玉女香) · 동남 동녀향이 퍼지리라.

이런 인연으로 임시로 범천의 여러 천자들이 생하여 대천자의 대범신향(大梵身香)이 제각기 몸으로부터 유출되니 하늘의 잡향(雜香)이 무수하여 그 명칭이 각기 상이하리라.

성문·연각·보살대사는 여래가 유거(遊居)하여 퍼지는 향음 가운데 노니는데 그 법사는 이 세간에 있기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앞에 이르지도 못하고 또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찾아가 말지는 못하지만, 저 향음을 모두 맡으리니 애착함도 없고 구함도 없고 생각함도 없고 향음을 일으키지도 않고 냄새 맡아 기(氣)를 알고섯 일심으로 머물게 되리라.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이와 같은 갖가지 향음을 밝게 설하리니 마음은 또한 아무런 집착이 없어 어느것도 구함이 없으리라.”

계속해서 세존께서 찬탄하는 계승을 읊으셨다.

그 사람의 비근(鼻根)
 이와 같이 청정하여
 가지가지 향음을
 모두 맡아 알리니
 이 세계에
 태어난 일체의 것
 향기가 지극히 뛰어나고
 또한 모양 있는 존재
 화려한 냄새 나는 향기
 갖가지 전단향

종종이품(種種異品)
 여러 화려한 열매
 각각의 이류(異類)
 미묘하게 뛰어난 훈향
 온갖 나무의 향기
 남자와 여자(女子)
 동남(童男) · 동녀(童女)
 문득 멈춘 곳에
 각각의 이품(異品)
 인간이 품어내는
 온갖 향취 삼차(參差)
 곳곳에 무성하게 자라
 창창(蒼蒼)히 뒤섞이리라.

또한 대국의
 전륜성왕을 알아
 유인(柔仁)하게 머물러
 자유롭고 강건하며
 저 소유에 있어서

잡류(雜縷)한 명자(名字)

온갖 다양한 향

모두 밝게 알리니

재물과 진귀한 보배

지극히 많아

모두 수거해서

어떤 곳에 심으니

옥녀(玉女)의 보배

나머지 진귀한 것

그때 저 보살

향음 맡아 알리라.

그 몸에 착용한

영락(瓔珞)

장엄한 주환(珠環)

의복 단정히 입고서

어떤 때엔 자리에 앉고

또는 침상에 누워

향음으로 몸을 칠하니

보살은 모두 아느니라.

노래 불러 유흥 즐기고
 일체의 신족(神足)
 명철해 지혜있는 자
 코의 힘으로 냄새 맡으리라.
 이 경전의 뛰어난 가르침
 만일 받들고 수지하여
 지극히 오묘한 향
 그리고 마유향(麻油香)
 약간의 종류
 또 화실향(華實香)
 있는 곳에서 안주하여
 모두 냄새로 알리라.

그 어느 모처에서
 이 향내 나더라도
 모두 밝게 분별하리니
 약간의 향취
 깊은 산 바위
 중간에 있는

무양수 종류의
 전단화향(梅檀華香)
 또한 사람들이
 소유한 여러 향기
 저곳에 멈출지라도
 모두 밝게 알리라.

어느 전륜성왕이
 즐겨 애착해서
 혹 어느 곳에 숨겨
 바다 속 깊은 곳이든
 땅 속 깊숙한 구멍이든
 그곳에 사는 온갖 벌레
 이런 무리가 뽑는 냄새
 지혜 밝은 이는 가려내리라.
 또한 아수륜이라든가
 비후(妃后)와 자녀
 그의 신하와 백성의
 냄새 분별하리라.
 또한 아수륜왕

노래해 웃음 즐기니
 이와 같은 과보
 그 코로 냄새 맡으리라.

만일 광야에서
 사교(四繳)의 길 가운데
 사자 · 호랑이 · 이리
 룡 · 코끼리 · 물소와 그 권속
 온갖 종류의
 특우(特牛)와 암소
 모두 냄새로 알리라.

만일 어느 녀인(女人)이
 그 즐기는 바에 따라
 동자(童子) · 동녀(童女)의 무리로 하여금
 육신을 기대니
 지극히 피폐한 신체
 그 향음으로 분별하리라.

뱃속에 있는 태아의 성별
 또한 스스로 알고
 몸의 소종래(所從來)
 역시 밝게 꿰뚫고
 의법과률(誼法科律)
 그 사람의 안온함과 고락
 세밀히 관찰하고
 동남(童男)의 힘과 세(勢)에
 감응해 얻는 복덕
 남자의 소원(所願)
 온갖 것 모두 알아
 냄새 맡아 분별하고
 소원이 실린 향음
 이미 스스로 그 뜻 알리라.
 이와 같이 무진하게
 또한 체취로 분별하리라.

몸이 적연(寂然)한 자
 스스로 처한 곳의
 땅속에 저장한

재물이나 진귀한 보배

금 · 은 · 잡색(雜色)

유연한 산호

모양이 자금(紫金)같은 것

그가 멈춘 곳에서

냄새 통해 모두 알리라.

제관영락(諸貫瓔珞)

명월주보(明月珠寶)

세간에서 존재하는 것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것

코로 냄새 맡아 알고

그 호추(好醜)도 꿰뚫고

행래진지(行來進止)에 있어

그 선악도 구별하리라.

여러 천상이라든가

허공 가운데

의화(意華)를 비롯한 온갖 꽃

유연음화(柔軟音華)

대중 속에 함께
 있는 갖가지 꽃
 코의 능력을 빌어
 모두 냄새로 알고
 여러 천상이나 인간계에
 갖춰져 있는 궁전
 상묘(上妙) 또는 하극(下極)
 그리고 증간의 궁전
 갖가지 종류
 이와 같은 색상(色像)
 이에 주립(住立)해서
 코를 통해 냄새 맡으리라.

또한 다시 분별하여
 유관(遊觀)하는 정원
 여러 하늘의 법
 역시 밝게 알고
 위엄있고 미묘한 궁전의
 여러 천자들이
 유희하는 곳이 건립되었으니

천향(天香) 냄새 맡아
 향음 분별하리라.
 여러 천자의 무리
 어떤 법에 머물고
 어떤 행 일으키는가
 유거(遊居)하는 곳에서
 그 향취 맡으리라.
 여러 하늘의 옥녀(玉女)가
 기른 꽃과 과실
 온갖 보배 영락으로
 주선(周旋)해 즐기는
 그때 보살은
 향취 맡아 알리라.

삼십삼천에서
 제일천에 이르기까지
 제범(諸梵)과 대범(大梵)이
 유람하는 궁전
 저 보살은 코를 통해

냄새 맡아 모두 알지니
 머물거나 머물지 않거나
 모두 밝게 꿰뚫으리라.
 가깝거나 먼 곳마다
 도달하지 앎이 없고
 죽거나 태어나든지
 전생의 숙명
 코로 냄새 맡으리니
 이처럼 본말을 알리라.

그 보살이
 이 경전 수지해서
 만일 어느 비구가
 가르침에 수순하여
 항상 정진 거듭하고
 조용히 경행하고
 지극정성을 다해
 독송하고 해설할 적에
 저 보살은
 모두 꿰뚫어 알리라.

또한 다른 성문과
지극히 뛰어난 인물
항상 나무 아래에서
홀로 한곳에 처해
지혜 밝게 된다면
냄새 맡아 보게 되리라.

어느 비구가
한곳에 자리함도
능히 분별하리라.

어느 보살
소재한 곳에서
선정을 굳게 닦고
항상 스스로
독송하고 강설하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법을 해설하리니
그때 그 보살은

향취 맡아 알리라.

대인(大人) 안주하여
 있는 곳에서 유력해
 자비의 마음 행하여
 분별해 설법하매
 제자들이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니
 향음 통해 법왕의
 소재를 알게 되리라.
 가령 증생들이
 경법의 가르침 들어
 이미 품수받아 수지하매
 떨 듯이 환희할새
 그때 보살은
 이에 안주해 모두 보게 되리라.

안주하고 있는
 대중들의 소재
 보살의 세력

이와 같은 색상(色像)
 아직 하늘 사람의 코는
 얻지 못했어도
 자연히 본연대로의
 상서로운 감응 얻으리니
 하늘의 코는
 어떤 허물도 없으리.

부처님께서 즉성자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어느 누가 이 경전 수지하여 독송하고 서사한다면 마땅히
 기이하게도 설근(舌根) 천이백 공덕을 얻으리라.

설근이 구족되어 온갖 맛을 구별하리니 만일 감미(甘美)를
 얻으면 변해 천상의 자연음식(自然飲食)으로 되고, 또한
 초삽함고(酢澀鹹苦)의 맛은 변해 천찬(天饌)으로 변해 맛이
 무량하리라.

만일 법회 대중에게 법요를 강법해 내린다면 대중들이 흔연히
 전칙(典則)을 받들게 되리라. 만일 시비를 가림에 있어서는
 덕음(德音)이 유연하여 이치를 담론하고 지혜를 밝힘이
 청백(清白)하고 절도 있으며 자비심이 통철(通徹)하기에 사람

마다 기뻐하게 되어 모든 맛에 메아리가 있으리라. 그로부터 경전 설법을 들으며 그 말씀이 미묘하여 하늘 사람이 찾아오며 석범사왕(釋梵四王) · 청정천신(淸淨天臣) · 제천옥녀(諸天玉女)가 찾아오리라.

천자 룡신과 그 후비, 아수룬과 그 후비, 가류라와 그 후비, 진타라와 그 후비, 마휴룩과 그 후비, 건담화와 그 후비, 열차귀신부녀(閼叉鬼神婦女), 비야반족귀신부녀(比耶反足鬼神婦女)가 모두 와서 머리 숙여 례(禮)를 올리고 경전 말씀을 청법하고 질문을 올리고 마땅히 돌아가게 되리라.

비구 · 비구니 · 청신사 · 청신녀 · 국왕 · 태자 · 대신 · 군료(群僚) · 대력호세(大力豪勢) · 전륜성제(轉輪聖帝)가 존중해서 뛰어나게 칠보를 구족하고 태자 권속 · 옥녀(玉女) · 채녀(采女), 또한 다른 범지 · 군자 · 거사가 주성군국현읍(州城郡國縣邑)으로부터 모두 찾아와서 보게 되리니 육신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머리 숙여 귀명하고 공양 올리고 받들어 경법을 듣게 되고 말씀과 가르침은 화숙(和淑)하여 세존 여래의 찬탄을 받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에 이르러 심오한 요체를 얻어 이와 같이 깨달아 자연히 듣게 되고 또한 세존께서 설법할 때를 알게 되리라.”

계속해서 세존께서 계승을 읊어 찬탄하셨다.

그 사람의 설근
 지극히 유연해서
 온갖 맛 분별하여
 호추(好醜) 간별하니
 자연의 감미(甘美)
 하늘의 음식처럼
 약간 종류의 맛
 차례대로 이르고
 미묘한 음성
 화아(和雅)한 언어
 기이한 법 청수해서
 환희심 넘치리니
 법회에 참여한 자
 받들지 앎음이 없느니라.

또한 마땅히 연출해서
 심오한 그 음향으로
 설법하는 경법
 청해 들으며

그 보음 살피리니
 청정한 천억 대중
 곧 환희심 일으켜
 세존 말씀 깨달아
 경권에 공양 올리리라.
 헤아릴 수 없는
 여러 하늘과 룡신
 교아수륜(蛟阿須倫)
 항상 공경의 마음 품어
 직접 만나고자 하리니
 공손하고 정숙하게
 경전의 뜻 여쭙리라.
 그 사람의 명망
 이와 같이 되리니
 이 세계에 있어서
 뜻을 발할 때에
 모두 음성으로
 널리 알리리라.
 그 음향 부드러워
 미묘하고 뛰어나

깊고 우아하여
 절도가 있으며
 여러 하늘의 호걸
 전륜성제(轉輪聖帝)
 공양 올리기 위해
 모두 그곳을 찾으리라.
 황후와 옥녀(玉女)
 함께 합장한 채
 항상 주의깊게
 경전 말씀 청수하고
 곳곳의 귀신들
 함께 와서 받들리니
 하늘의 건담화와
 그의 여러 시종
 반족녀귀(反足女鬼)
 그리고 여러 남녀
 모두 공경 표하고
 받들어 모시리라.
 자재하고 존귀한

범천(梵天)의 왕
 대신묘천(大神妙天)
 또 여러 천자
 천제와 범존(梵尊)
 천자의 지당(枝黨)
 무수한 옥녀(玉女)
 모두 그곳 찾으리라.

세간에 부처님 있으니
 성명도사(聖冥導師)
 여러 성문 제자
 오묘한 메아리 모두 들어
 그 소리 나는 곳 보고서
 그를 보호하리니
 강연하는 법 살피
 혼연하게 여기리라.

부처님께서 계속 족성자와 보살대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전 설법을 듣고 수지해 독송하고 사경하는 사람은
 몸으로 팔백 공덕을 얻게 되리니 피부색은 지극히 윤기 있고

광택이 나서 마치 청정한 류리(琉璃)가 티끌 없는 듯해서 행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본받고 행동거지는 모범이 되서 진퇴가
지극하리니 저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없는 사람이기에 삼천대천
세계의 증생이 머리 숙여 례(禮)를 표하리라.

널리 불국토에 있어서 군맹(群萌)들의 호추(好醜)·선색(鮮色)
·악색(惡色)이 선악의 세계에 태어나든가, 철위산·대철위산·
소산(小山)·대산(大山) 등 사람이 머무는 곳 또는 아래로
무가(無可)대지옥, 위로는 삼십삼천에 이르기까지 스스로의
위덕(威德)으로 두루 보게 되리라.

이 세계에 있어서 성문·연각·보살·여래가 유거(遊居)하는
곳에서 경법을 강설할 때 자신의 위광(威光)으로 모두 보게
되리라. 왜냐하면 신행(身行)이 청정하기 때문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계속 계송을 읊으셨다.

저 사람은 자기 몸으로
청정하게 행하니
비유컨대 류리(琉璃)에
아무 티끌 없는 듯하나니
이에 모든 증생이

받들어 공경하리라.
 미묘한 이 경권
 수지하여 몸에 지님은
 흡사 밝은 거울처럼
 사물의 모든 면을 비춰주고
 세간의 형상 보여주니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그 본말을 보고
 다른 사람의 본말도 보게 되리라.

그 몸은 청정하여
 마치 수미산같아
 이 세계의
 모든 증생들
 여러 하늘과 대중
 교아수륜(蛟阿須倫)
 지옥과 아귀
 그리고 축생 세계의
 그 신체와
 얼굴과 용모 보고

하늘세계에 있는
 궁전이나 관실(館室)
 토산(土山)이나 석산(石山)
 그리고 철위산
 설산 혹은 수미산
 또한 여러 대산(大山)
 모두 얻어 보리라.

그 소재처에서
 큰 위력 갖춘 성인
 여러 부처님
 모든 성문
 그리고 불제자 보리라.

어느 보살이
 홀로 처해서
 설하는 경전 설법
 모두 꿰뚫어 알리라.
 그 몸은 청정하여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세간에 있어서
 속인의 몸 모두 보리니
 이와 같이 깨달았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성인의 도 얻지는 못했느니라.

부처님께서 또한 족성자에게 말씀하셨다.

“보살 대사가 여래가 멸도한 이후 만일 이 경전을 수지하여
 독송하고 해설한다면 천이백 공덕의 청정한 의근(意根)을
 얻으리라.

그 사람은 청정한 의근으로 꾀뚫치 앎음이 없으리니 하나의
 계승을 들으면 궁극한 바가 광대하여 크게 깨달은 바 있으리니
 곧 능히 한 달 동안 경법을 강설하고 또한 네 달, 일 년 동안
 계속하여도 기억해서 잊지 않으리라.

무릇 속인들이 판매하면서 내는 음성을 법에 따라 차례대로
 분별하여 그 단서를 잃지 않으리라. 삼천대천 세계의 륝취
 (六趣) 가운데 태어나는 존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선악이
 감응하는지 않는지 알고 도중에 사문이 되어 성인이 되거나
 성인이 되지 않는 자를 널리 보게 되리라.

의지가 청정해서 다시 사유하지 않는지 알고 도중에 사문이

되어 성인이 되거나 성인이 되지 않는 자를 널리 보게 되리라.

의지가 청정해서 다시 사유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설법을 뜻에 맞게 하고 그 말이 지극정성이어서 그 강법을 들은 자 또한 가르침에 순응하여 여러의 설법을 이해하여 지난날의 최고로 수승한 경전을 알게 되리라.”

이어서 세존께서 게송을 읊어 찬탄하셨다.

그 사람의 의근

청정하고 순결하며

마음 광명이 선명해

중생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 꺾었으니

이런 일로 말미암아

허물 있어서 비천하거나

호악(好惡)의 중간

약간의 법 깨달으리라.

한 게송 얻어 듣자

받들어 수지하는 인물

능히 무양수의
 명철한 뜻 이해하리라.
 한 달, 또는 네 달
 내지 일 년 동안
 선악을 말하여
 지극정성을 다하나니
 이 세계에 있어서
 중간에 포함된 증생
 갖가지의 품류(品類)
 여러 하늘과 대증
 그리고 아수륜
 지신(枝神) 이류(異類)
 또한 여러 축생
 륜도(六道) 가운데 있는 증생
 이들의 사상이나
 약간의 생각 등
 이 경전 수지한 사람은
 그들의 각각 상이한 상념을
 일순간 사이에
 모두 꿰뚫으리라.

대성(大聖) 부처님
 백 가지 복덕을 갖추고서
 모든 중생을 위해
 세간에서 설법하기에
 두루 청법하니
 그 말씀 청정하여
 즉시 수지해 독송하나니
 전생에 두루
 경권을 익혀서
 오랫동안 강법한 바 있어
 마땅히 이해하리라.
 항상 법을 펼쳐
 경전 가르침의 요체
 아무런 기탄이 없이
 대중들이 얻노니
 경전을 수지하여
 부분적으로 광양(光陽)해
 온갖 생각의 허물
 마침내 만나지 못하리라.

지당(枝黨) 군종(群從)
 모두 량현(良賢)이 되어
 의근이 명달(明達)하기에
 또한 이와 같느니라.

보살이 머무는 곳은
 결코 땅이 아니지만
 널리 증생을 위해
 경전을 밝게 드러내니
 능히 수지해서
 정법에 안주하여
 뛰어나게 그 뜻에 맞는다면
 감응한 바 있으리라.

정법화경(正法華經) 권 제9

19. 상피경만품(常被輕慢品)

그때 부처님께서 덕대세(德大勢)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되나니, 어느 비구·비구니·청신살 청신녀가 이 경전 수지할 때 사부대중이 매도하고 비방해 거칠고 모질게 제지하려 한다면 그 죄는 한량이 없으리라.

또한 어느 누가 이 경전 말씀을 듣고 수지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널리 그 뜻을 해설한다면 최상의 미묘한 복을 얻게 되리라.

이와 같은 인물들은 부처님께서 찬탄하리니 눈·귀·코·입·몸·생각이 청정하여 아무런 장애가 없으리라.”

부처님께서 또한 덕대세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지난 과거 구원한 세월 이전, 한량이 없어 헤아리기 어려운 불가사의 겁에 부처님 한 분이 계셨으니 그 명호는 적취음왕(寂趣音王)여래·지진등정각·명행성·선서·세간해·무상사·도법어·천인사·불증우이리라. 그 겁의 명칭은 리대재(離大財), 세계 명칭은 대주(大柱)이니라.

적취음왕여래는 널리 하늘 세계에서 경전을 강법해 대중을 교화했으니, 성문승에게는 사성체(四聖諦)를 가르쳐 로병사(老病死)를 제도하여 니원(泥洹=넬반)에 가까이 가도록 했고 십이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바를 이해하도록 했느니라. 여러 보살을 위해 륙도무극(六度無極)의 이치를 강설해 무상정진도에 이르도록 해서 여래의 지혜를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네 강변의 모래알 만큼의 백천억해 겁이고 부처님 멸도하신 이후 정법유지는 한 염부제의 백천억해 미진수 겁이고 상법유지는 사천하(四天下) 백천억해 미진수겁이니라.”

계속 부처님께서 덕대세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 부처님 멸도하신 이후 상법도 사라지면 또한 다시 부처님이 계속 현신하시리니 그 명호는 적취음왕이니 전전상승(展轉相承)해서 이십억천 여래 지진등정각·명행성·선서·세간해·무상사·도법어·천인사이니라.

그때 이 부처님들께서는 차례대로 멸도하시고 정법도 사라지고 이어서 상법도 사라지리니 바로 저때 어느 비구가 있어 스스로 교만하지 않아 법의 가르침을 위배하지 않았느니라. 그 비구의 이름은 상피경만(常被輕慢)이니라.

이 비구는 보살법을 배웠는데 어떤 연고로 상피경만이라 불리게 되었는가. 이 개사(開士)는 비구·비구니·청신사·청신녀를

만나게 되면 매번 다음과 같이 말했느니라.

‘여러 현인은 교만하지 않아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현인은 뜻을 마땅히 보살 여래 지진등정각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방편으로 인연된 바에 수순하여 여러 비구를 위해 보살행을 가르쳤으나 다른 이들은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고 경전 독송도 하지 않았느니라.

저 멀리 사부대중이 눈에 보이기만 해도 곧 다음과 같이 말했느니라.

‘내 몸이 다할 때까지 모든 현인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현인들께서는 널리 보살의 고귀한 행을 익혀 여래지진등정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득대세보살이여, 이런 말을 들은 사부대중은 모두 화를 내며 다음과 같이 그를 매도했느니라.

‘어리석은 이 비구야,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사람 마음을 보지도 않은채 도리어 스스로 자만심만 높아서 우리에게 수기를 내려 미래에 무상지진등정각을 성취한다고 말하니 사람들은 비상(非常)한 일을 원하지도 않건만 것처럼 사람을 향해 설법하는구나.’

또한 득대세보살에게 말하노니, 그 비구가 큰 비를 만났는데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덮개를 덮어 몸이 빗물에 젖지 않게 되었느니라. 비록 매도를 당해도 마음으로 성내지 않고 안색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런 말을 듣고 기쁘지 않았음에도 돌이나 기와를 던지더라도 계속 소리내어 다음과 같이 가르쳤느니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인욕심을 닦아 보살심을 발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때의 비구·비구니·청신사·청신녀는 자만심이 높아 자주 그를 보게 되었는데 그는 마음을 항상 겸손히 하여 여러 사람들을 가볍게 대하지 않고 비록 매도 당할지라도 인욕하여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느니라. 저들 사부대중은 이로 인해 그를 상피경만이라 일컫게 되었느니라.

저 대사가 임종할 즈음에서 적취음왕여래께서 정법화경 이십계승의 미묘한 뜻과 백천 가지 일을 강설하시는 말씀이 들려왔느니라. 대사가 임종하자 허공에서 광대한 소리가 울려퍼져 이 경전을 찬탄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느니라.

‘그대는 마땅히 경전을 수지하고 또한 예전처럼 청정한 눈을 얻게 되고 귀·코·입·몸·생각 또한 청정하게 되리라.’

이와 같은 청정함을 얻게 되자 다시 수명이 늘어나 이십억해나 되었고 생각이 고요하게 되매 대중을 위해 다시 경전을 가르치게

되었느니라.

예전의 사부대중이 그 가르침을 듣고 폄하하였기에 이 대사를 상피경만이라 일컬었는데 이처럼 스스로 교만한 무리는 이 대사의 미묘한 신통력, 변재, 지혜력, 뛰어난 방편, 도력을 보게 되자 모두 그에게 귀의해 받들었고 경법을 듣게 되었나니 이런 무리들은 헤아릴 수 없어 무수 억이나 되어 곧 무상정진도의 마음을 내게 되었느니라.

그때 저 대사는 임종한 이후 이십백억 여래 정진(正眞)을 친견하게 되었는데 이 세존들께서는 모두 정법화경을 강설하셨고 점점 더 나아가 이 덕의 근본으로 인해 다시 이십억 백천여래를 친견하게 되었으니 모두 동일한 명호, 퇴명음왕(雷鳴音王)이었는데 이와 같은 경전의 가르침을 들었느니라. 또다시 이십억 백천여래를 만나게 되었으니 모두 동일하게 퇴음왕여래였고 역시 정법화경 가르침을 받아 수지 독송했고 사부대중을 위해 설했느니라.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자연스럽게 청정한 눈·청정한 귀·청정한 코·청정한 입·청정한 몸·청정한 생각을 얻게 되어 보고 듣는 것이 동철(洞徹)했고 코는 통했고 입에는 말재주가 있었고 몸은 가벼웠고 생각으로는 중생의 마음을 깨꿨으니 널리 사부대중을 위해 이 경전을 설법하여 그 뜻을 두루 밝혔느니라.”

부처님께서 득대세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상피경만대사는 백천억 여래께 공양을 올려 받들었고 또한 무수억 백천 여래를 친견해 역시 정법화경을 수지하였느니라. 이 덕의 근본으로 인해 스스로 무상정진도를 얻어 최정각을 성취하게 되었느니라.

득대세보살이여, 상피경만대사를 알고자 하느냐. 대사는 적취 음왕여래 재세시에 사부대중을 위해 설법하지 않았는가. 내가 바로 그이니라.

가령 그때 정법화경을 수지하지 않고 독송하지도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법하지도 않았다면 속히 무상정진도를 얻어 최정각을 성취하지도 못했을 것이니라.

지난날 여러 불세존으로부터 이 경전 설법을 듣고서 수지 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법하여 최정각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그때의 비구·비구니·청신사·청신녀는 그 대사가 설법하기를 항상 그대들을 공경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니 반드시 여래 정각도덕의 지혜를 얻으리라는 말을 들은 바 있으나 사부대중은 저대사를 매도해 비웃을 뿐 참회하지 않았기에 이십억천 겁 동안 태어나는 곳에서 항상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고 경전 설법도 듣지 못했느니라.

또 만겁 동안 무가대지옥에 떨어져 불래워지는 고통을 당해 말

로 형언할 수 없었으니 죄가 다해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자 더 대사의 교화를 입어 무상정진도의 마음을 발해 신통을 얻게 되었고 지혜는 아무런 걸림이 없어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셨다.

“덕대세여, 그때 저 대사를 헐뜯고 폄하하고 비웃은 사부대중을 알고자 하는가. 여기 대중가운데 발타화(毘陀和) 등 오백 보살, 사자월(師子月) 등 오백 비구와 비구니이니라.

지금 부처님 앞에 오백 청신사·오백 청신녀 등은 모두 불퇴전 이어서 반드시 무상정진지도를 성취하리라.”

부처님께서 득대세대사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이 정법화경은 그 뜻이 광대하여 위신력이 무량하기에 모든 보살 대사가 마땅히 받들었나니 여래가 멸도한 이후 이 경전을 수지해 독송하면 복덕이 이와 같아 무상정진도에 이르게 되리라.”

계속해서 부처님께서 게송을 읊으셨다.

지금 내가 아노니

지나간 과거에

적취음왕 부처님이 계셨으니
 위신력 무량하기에
 하늘 사람이 받들었고
 여러 증생과 대증을 위해
 강법을 베풀었노라.

수승하신 그 부처님
 멀도하신 이후에
 그 정법은
 최후의 세에 이르러
 어느 한 비구가
 보살행을 실천하니
 이에 그 명칭은
 상피경만보살
 즉시에 찾아가서
 비구와 비구니 대증
 전도된 모습보고
 다만 권화(勸化) 베풀어
 불도에 뜻 두게 하고
 나의 마음 선언해

교만심 없게 했으니
 매도하거나 경멸하고
 비웃는 모습 볼 때에도
 항시 이런 말씀 듣게 했고
 무릇 이 경법을
 또한 다시 주립(住立)해서
 널리 베풀었느니라.

그때 지혜 밝은 인물
 림종(臨終)을 당해
 이 정법화경 가르침
 설법해 밝히자
 즉시에 감응 있어
 그 수명 증익되고
 그 몸이 변현하여
 자재함 얻게 되자
 허공에 처하여서
 경전을 강설하여
 모든 증생 교화해

도의 지혜 발하게 했노라.

그때 대사는

림종(臨終)한 이후

여러 부처님

백천억해 친견해

점차적으로

법에 개화(開化)되 들어가

분별해 설법하리라.

이 경권 수지함에 있어서

여러 뛰어난 불자

성불을 이루리니

곧 지금의 나

능인 여래이노니

여러 비구들이

입으로 비방하고

여러 비구니들

그리고 청신사

그 당시 있었던

여러 청신녀

저처럼 가르침 입어
 경전 통해 지혜 열려
 마땅히 항시 무수억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니
 지금의 발타화
 오백 명이
 그때의 비구 비구니
 청신사와 청신녀이니
 지금 여래 앞에 현현하니
 나는 이때 모두
 세존의 법 듣게 하여
 개화(開化)시켜
 깨닫게 하리라.
 지금 부처님 몸
 멸도한 이후에
 자주 이 경권 수지해
 무수 억억(億億) 동안
 마땅히 사유하리니
 이와 같은 법의 가르침

얻어 들은 적 없으리라.

무릇 어느 부처님

백천억 수

항시 이러한 경전의

강법 듣는 까닭에

따라서 이와 같은 상전(像典)

가르침도 듣나니

자재하신 성존(聖尊)

이 경전 찬탄하시누나.

내가 멸도한 이후

만일 이 경전을

자주 설법한다면

반드시 정법화경 가르침

수지하게 되리라.

20. 여래신족행품(如來神足行品)

그때 땅에서 솟아오른 저 삼천세계의 미진수 백천억해 보살들 모두가 세존 앞에 나아가 공손히 합장한 채 말씀을 아뢰었다.

“여래께서 멸도하신 이후 경전을 불국토에 두루 류포(流布)해 세존께서 입멸한 곳까지 이르게 하겠나이다.

저곳에서 이 경전을 강설하여 많은 이익을 얻게 하겠나이다. 만일 이 묘한 경전의 요체를 수지하여 강독(講讀)하고 서사(書寫)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그 덕이 무량할 것입니다.”

그때 보수대사는 감인세계에 처해서 무수한 백천억해 보살, 그리고 비구·비구니·청신사·청신녀, 여러 하늘·룡신·건답화·아수륜·가류라·진타라·마휴륜·사람인 듯 아닌듯한 존재와 함께 있었다.

이에 여래께서는 신족 변화를 일으키셨고 여래 지진등정각께서 또한 상서로운 감응을 일으키시자 모두 유순(柔順)한 법인을 얻게 되어 정법화경을 서사(書寫)하였으며, 다른 세계의 백천억 보살들을 교화시켜 각각 보배 나무 아래 사자좌 위에 앉아 있었다.

그때 능인 세존과 여기 계신 모든 여래 정각께서는 신족을 나투셔서 구족하게 증만하여 백천세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백천세에

걸쳐 공덕이 스스로 그러했으며 대광명으로 어두운 구름이 제거 되어 손가락을 튕기는 사이에 저절로 소리가 나서 도달하지 않음이 없었고 십방세계 불국토의 모든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을 일으키자 온갖 하늘·룡신·아수룬·가류라·진타라·마휴룩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어 제각기 머무른 곳을 좇아 무양수 불세계가 두루 여기 감인불국토를 보게 되었다. 또한 십방세계의 백천억해 무수한 세계의 모든 여래께서 제각기 보배나무아래 사자좌 위에 앉아 계셨고 능인 여래와 다보 세존께서는 저 칠보탑사(七寶塔寺)의 강당 가운데 사자좌에 자연스레 위엄있고 청정하게 앉아 계셨는데 그 위용이 밝게 빛났으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백천억해 보살 대사와 사부대중이 이 변화를 보게 되자 마음 깊이 경악하고 환희심이 무량하여 미증유를 얻게 되었다.

그때 공중에서 소리가 나와 읊어졌다.

“인자(仁者), 불가사의하게 무한한 백천억해 불세계를 지나면 인토(忍土)라 불리는 불세계가 있으니 저곳의 부처님 명호는 능인 여래이노라. 여러 보살 대사를 위해 정법화경 방등전조(方等典詔)를 강설하리니 모든 부처님께서 두루 이 경전을 보호하고 보살 대사를 구제하시느니라. 제현(諸賢)은 마음이 질직하고 청정하기에 머리 숙여 귀명하고 찬탄해 받들 것이니 저 능인 정각께 공양 올려야 하리라.”

그때 중생들은 공중에서 저절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자 마땅히 합장한 채 갖가지 향·의복·당번·잡향(雜香)을 손에 들고서 감인세계를 향해 뿌리고 영락·진주·주기(珠璣)·보배 여의주를 공양 올렸으며 그 꽃·향·번개·영락·주기·보배 명월주가 저절로 감인세계에 들어왔고 바로 그때 합해져 화려한 보배번개가 허공에서 여러 부처님과 보살 주위를 덮었다.

그때 저 세존께서는 여러 이행(異行)과 부처님 앞에 머무른 보살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여래 정각의 공덕과 위신력은 불가사의하나니라, 족성자여.

무수억 나술(那術) 백천해 겁에 걸쳐 이 경전의 뜻을 밝히더라도 가히 구경에 다할 수 없느니라. 비록 무양수 종류의 경으로 말하더라도 미칠 수도 없고 다할 수도 없느니라. 피안으로 건너고자 해도 변제(邊際)를 얻을 수 없느니라.

여러 족성자여, 그 요체를 말하건데 가령 어느 누가 이 경전의 요체를 얻고자 하면 모든 부처님의 위신력, 모든 불법, 여러 불세계에서 부처님께서 정진하는 법, 부처님께서 한거(閑居)하면서 발휘하는 여래의 오묘한 힘이 이 경전에 현시되어있느니라.

그러므로 족성자여, 부처님이 멸도한 이후 반드시 은근히 이 경전을 구해서 수지해 필사하고 정진하여 받들고 공양도 올리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야 하리라.

설사 어느 누구든 이 경전에 재를 올리고 강법해 찬양하고 서사하고 사유하고 받들어 즉백에 써야 하리니 만일 이 경전이 정사(精舍)든 재당(齋堂)이든 자택이든 큰 숲속이든 물가이든 있는 곳에는 마땅히 탐묘를 세워야 하리라.

왜냐하면 이 경전이 있는 곳이 바로 여래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니라. 그 도장(道場)에 여래가 나무 아래 앉았음을 마땅히 관찰해야 하나니, 모든 여래 정각이 노닐던 곳이고 군성세웅(群聖世雄)이 법륜을 굴리던 곳이고 십방세계 부처님이 멸도한 곳이니 평등해 아무런 차별이 없느니라.”

이어 세존께서 게송을 읊으셨다.

세간 가없게 여겨

불가사의하게도

항시 신통력으로

지혜를 건립하고

또한 다시 평등하게

밝은 눈 나타내 보이니

이에 모든 증생이

모두 환희심에 넘치누나.

신묘한 그 설근
 그 소리 범천까지 이르고
 분연히 광명을 떨쳐
 백천억해 제군맹류(諸群萌類)
 여래의 신족 보게 되자
 그 미증유 괴이하여
 대도에 들어가게 되니라.
 또한 성스런 도사
 하나의 대광명 일으키시매
 손가락 통기는 사이
 광대한 음성 흘러나와
 즉시 두루 말씀하시니
 모든 불국토
 십방세계에 널리
 대성께서 현현시킴
 이와 같은 상서로운 감응에
 그대에 여래는
 이와 같은 변화 일으켜

감동하게 하였어라.

부처님 멸도한 이후

이 경권 받들어

이 법에 안주해 선양하고

불가사의한

무양수 겁에 걸쳐

이 경전 수지한다면

한량없는 저 복덕

도사(導師)께서 찬탄하시리라.

끝을 알 길 없고

그 한계 알고자 해도

변재를 알 수 없으니

마치 허공이 그러하듯

다할 수 없으리라.

그 명칭과 공덕

능히 사유할 수 없노니

이 경전 수지자

칭정한 덕 항상 그러해

부처님과 대성도사

친견하게 되리라.
그리고 우리 세에
대통여래 멸도하시니
여기 있는 모든
보살과 사부대중
이 경지 만나게 되면
곧 여래를 친견하게 되리라.

금일의 범회 대중
부처님 멸도한 이후
또한 여기에서
그리고 저 십방세계의
여러 불세계에서
이 경권을 능히
수지해 지닌다면
곧 과거의 부처님
그리고 십방에
현재 나투신 부처님을
직접 눈으로 존안 친견해

공양 올려 시봉해서
크게 환희하게 되리라.

부처님 도장(道場)에 있어서
가히 사유하여
이 경전을 마땅히
속히 수지하매
자연히 그 변재
아무런 걸림 없으리.

설사 본종(本種)의 명(命)
능히 길지 못해도
이 경전에 담긴 뜻
능히 분별해 깨달아
마땅히 수지하리라.
이처럼 존귀한 경전
그 뜻을 깨달아
차례대로 귀의하리니
대성 세존
멸도하신 이후
어느 누가

지성으로 이 경전
 분별해 이치가
 귀일하는 바 밝힌다면
 경전에 담긴 뜻
 세밀히 강설하게 되리라.

그 사람 광명으로
 깨달은 바 분별하여
 비유컨대 해와 달이
 널리 원근을 비추듯
 천하를 유력하여
 이르는 곳마다
 증생 권화(勸化)시켜
 무수한 보살의 뜻 내게 하므로
 지혜있는 보살대중
 이와 같이 전줄 바 없는 경전 들으리라.
 내가 멸도한 이후
 이 경전 받들리니
 그 사람은 여러의 도에

조금도 의심함이 없으리라.

21. 약왕보살품(藥王菩薩品)

그때 숙왕화(宿王華)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말씀을 아뢰었다.

“어떤 까닭으로 약왕보살은 여기 감인세계를 유력하면서 무수히 곤란함을 감당하게 되었나이까.

위대하시나이다, 세존이시여. 십방세계 불국토의 보살과 성문이 여기에 구름처럼 운집했사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약왕보살은 도(道)에로 마음을 발해 지난 생의 행으로 공熏을 쌓은 바 있습니다. 지금 법회 대중과 후세의 증생을 위해 약왕보살이 법문을 들어 수지하고 익혀 구경(究竟)에 이르게 된 말씀을 내려주소서. 하늘·사람·룡왕·귀신 등은 모두 말씀을 들으면 환희에 넘쳐 도(道)의 마음을 내어 스스로 정각에 이르러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될것이니이다.”

그때 세존께서 숙왕화보살이 지성으로 발심하여 모든 증생을 위해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기특하도다. 미래의 여러 보살을 위해 법을 베풀고자 하고 후학으로 하여금 도의 지혜에 이르게 하니 귀 기울여 잘 듣고 깊이깊이 숙고할지니라.”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말씀들을 듣고자 하나이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난 과거 강변 모래알처럼 무수한 겁 이전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셨으니 그 명호는 리구일월광수(離垢日月光首) 여래 지진등정각께서 세간에 출현하셨느니라. 그 수명이 사만 이천 세이셨으니 고통으로부터 증생을 제도하셨느니라.

그때 십방의 보살 대중과 팔십억 성문 대중이 강변 모래알의 칠십이 배나 되었고 또한 그 불국토에 여인이나 삼악취가 없었고 아수륜이나 팔난(八難)이 없었느니라. 그 땅은 평정해서 검색류리(琉璃)빛이었는데 온갖 보배로 장엄되어 청정했고 보배나무가 곳곳에서 심어져 있었고 진귀한 것들이 교차되어 널리 덮고 있었으며 당번들이 늘어져 있었으며 보배 꽃병, 향로에 온갖 이름난 향이 타고 있었느니라.

모든 나무 아래에 보배 책상이 설치되어 좌구(坐具)가 장엄하게 준비되어 해야될 수 없이 많았느니라. 온갖 좌구 위에는 오천억 개 천좌(天坐)가 갖추어졌고 갖가지 풍악이 울려 부처님의 공덕을 노래하여 공양으로 올렸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서는 여러 보살과 성문 대중을 위해 정법화경 가르침을 강설하셨는데 그때 증생희전(衆生喜見)보살이 있었으니 이 보살은 부처님의 강법을 듣고서 그 뜻과 요체를 이해하여 곧

바로 불법을 받들어 고행을 익혔고 밤낮으로 정진을 거듭해 만이천 년 동안이나 계속했고 경행(經行)하여 앉지 앉은 채 만이천 세를 마쳐 곧바로 보현삼매(普現三昧)를 얻었느니라.

이 선정에 이르러 거듭 다음과 같이 사유했느니라.

‘내가 이 보현삼매에 이르러 곧 이 정법화경의 가르침을 만나 선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보살은 떨 듯이 기뻐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했느니라.

‘나는 마땅히 리구일월광수 여래지진(如來至眞)께 공양 올리고 정법화경을 받들리라.’

이 보살은 곧 그 상(像)과 같이 삼매 정수(正受)에 들어가 허공에 처하여 하늘 꽃·잡향(雜香)·전단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때 비처럼 내린 온갖 꽃과 잡향이 널리 십방의 불세계를 훈습했으니 이 향음을 맡은 사람은 모두 법인(法忍)을 얻었고 증생무리는 기쁜 마음으로 증생희전보살을 향했느니라.

이 보살은 선정에서 나와 마음을 내어 거듭 사유했느니라.

‘비록 잡다한 물품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는 했지만 능히 여래 지진의 덕을 펼쳐 보일 수는 없었다. 이제 내 몸을 무상의 어르신께 공양을 올려야지.’

보살은 이렇게 생각해서 오곡 음식과 갖가지 향을 쫓았고 갖가

지 향과 꽃으로 즙을 내어 마시고 온몸 안팎을 향으로 발랐고 이처럼 향을 십이년 간이나 마시고 계속해서 온갖 향으로 몸을 바르고 향유(香油)로 옷을 적시고서 서원을 세웠으니 몸으로 등불이 되어 모든 것을 밝히고자 했느니라.

곧 자기 몸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으니 지극한 정성으로 인해 그 광명이 강변 모래알의 팔십 배나 되는 불세계에 미쳐 빛나게 되었느니라.

그때 부처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찬탄하셨느니라.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족성자여. 것처럼 정진하니 세간에서 참으로 희유하구나. 이야말로 참된 정진으로 여래의 경전에 공양 올림이니 증생을 위해 고통을 인욕해 내는구나. 하늘이나 사람의 모든 행을 초월했고 나라의 재물이나 처자 포시(布施)도 이에 미치지 못하리니 공양 중의 최상의 공양이니라. 가장 지극하고 장대하기에 어느 것도 필적하지 못하나니 몸 포시(布施)로 법포시(法布施)가 이룩되느니라.’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찬탄하신 뒤 곧 침묵을 지키셨느니라.

그때 보살의 몸은 자연히 불타 올라 천이백년 동안이나 불길이 꺼지지 않았느니라. 자기 마음으로 태웠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았고 그런 뒤에 불길이 꺼졌느니라. 부지런히 정진

했고 법 공양을 올린 까닭에 목숨이 다한 뒤 리구일월광수 여래 지진을 그 불국토에서 친견하기 위해 리구시국(離垢施國)의 왕국에 환생하게 되었으니 자연히 결가부좌 자세로 태어나 부모님을 위해 다음의 계송을 읊으셨느니라.

존귀한 왕이시여,
 저의 본행(本行)을 아시옵소서.
 굳건하고 부지런히
 힘껏 정진을 거듭해
 소중한 저 자신의 몸
 포시(布施)로 사용하여
 이 위대한 삼매에
 머물게 되었나이다.

이 계송을 마치고 부모님께 말씀 올렸느니라.

‘리구일월광수 여래지진께서는 지금도 현전해 계십니다. 저는 지난날 저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렸사오니 이 인연으로 모든 말을 이해하는 총지법요(總持法要)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위없는 경전 정법화경 증의 요체와, 경전에 본래 갖춰진 팔십

해 백천억 나솔해 계승을 일심으로 사유하여 무언가로 불상의 모습
 습을 건립하여 항상 마음속에 성냄도 없고 이 정법화경 속의 보
 살행을 닦았으니 저는 본래 지난 세에 천억 백천해 계승을 익혀
 저 여래로부터 청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리구시왕(離垢施王)이 왕자를 찬탄해 말했느니라.

‘뛰어나고 뛰어나도다. 몸소 성존(聖尊)을 찾아가서 마땅히
 공양을 올리는구나.’

이렇게 말을 마치고 부왕과 함께 공중으로 솟아올라 땅으로부
 터 칠 인(刃) 떨어진 허공에서 경행을 하였으니 그 다리로 땅을
 밟지 않았느니라. 몸으로 정좌하여 칠보 교락(琮珞)으로 장식하
 고서 부처님 처소를 찾아가 합장한 채 례(禮)를 올리고 계승을
 읊었느니라.

인증지존(人中之尊)

티끌없는 존안과 자태

그 광명은 외외(巍巍)해

십방세계 비추옵나이다.

제가 본래

무극성존께 공양 올렸사오니

이제 다시 직접 찾아 뵈옵고

존안 받드옵나이다.

이때 증생희전보살대사는 이 계송을 마치고 리구일월광수 여래 지진께 말씀을 올렸느니라.

‘세존께옵서 십방세계의 증생을 가엾게 여기시어 은택을 내리 셔서 다시금 현재의 모든 증생에게 가르침을 내려 증생을 도탈(度脫)케 하여 의지처를 얻게 하시옵소서.’

그때 리구일월광수 여래께서 증생희전보살께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나는 멸도에 들고자 하노니 이 법교(法敎)를 부촉하고자 하노라.’

이때 부처님께서서는 가르친 바가 두루하게 되었으나 세간 증생의 욕심이 어지러우므로 자리를 펴고 멸도에 들어가려 하면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경전을 존중해 부촉하니 널리 십방세계에 류포(流布)하도록 하여 모든 증생으로 하여금 복덕을 얻도록 하라.’

그러자 증생희전보살이 말했다.

‘가르치신 바대로 하겠나이다.’

그 부처님께서서는 밤중에 곧 멸도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때 증생희전보살은 부처님의 멸도를 보고 전단향과 기이하고 묘한 향

으로 부처님의 몸을 태워 그 사리를 취해 향으로 즙을 내어 닦았으니 모두 슬픔이 사무쳐 비처럼 눈물을 흘렸느니라. 보배 꽃병을 팔만 사천 개 만들고 칠보탑을 범천에 이르도록 건립하고 번개로 장엄하고 보배 방울을 매달고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했느니라.

‘우리가 세존의 사리에 공양 올렸으니 지난번보다 훌륭하리라.’

보살과 성문 대중에게 증생희전보살이 다음과 같이 말했느니라.

‘여러 하늘 · 룡신 · 대중 · 족성자들은 모두 생각하여 세존의 사리에 함께 공양을 올리리라.’ ”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속왕화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증생희전보살이 대중을 이끌고 사리를 수습, 팔만 사천 개 탑을 건립했고 탑사 앞에 백복을 갖춘 형상도 세웠느니라. 또 무수한 등, 향을 피우고 꽃을 뿌려 광명으로 도법(道法)을 밝게 현시했느니라. 칠만 이천 년 동안 받들어 공양을 올렸으니 공양을 마친 뒤 한자리 모인 무수한 성문 대중을 교화했고 보살들을 개화시켜 보현삼매를 얻게 하여 여러 보살이 선정에 이르렀음을 보고 스스로의 몸에 육근이 결루(缺漏)했음을 보이기도 했느니라. 보살 대중, 여러 제자 · 하늘 · 룡 · 귀신들은 비처럼 눈물을 흘렸느니라.

그때 증생희전보살이 말했느니라.

‘여러 보살·대제자 그리고 하늘과 룡신이며, 나는 지극정성으로 서원을 세우고자 하노니 내 말은 법에 수순해서 헛되지 않느니라.’

나의 이 팔은 자금(紫金)으로 되어있는데 내 팔이 다시 정상대로 회복되리라. 땅은 크게 진동되고 허공에서 온갖 꽃과 향이 비오듯 내리리라.’

이 말을 마치자마자 땅은 크게 진동했고 하늘에서는 온갖 꽃이 비오듯 내렸고 곧이어 팔이 정상대로 회복되었느니라.

증생희전보살은 모든 증생을 제도하기 위해 이 지혜력을 나타내 보이시어 복덕과 공훈이 증생에게 이르게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속왕화보살께 말씀하셨다.

“그때의 증생희전보살 대사를 알고자 하느냐. 지금의 약왕보살이 바로 그이니라. 또한 족성자여, 보살은 설새 없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었으니 몸을 던지거나 목숨을 버린 일이 한량 없었느니라. 항상 대승의 무상도(無上道)에 뜻을 두어 대공무극지덕(大功無極之德)을 건립했느니라.

여래 앞에 손가락 하나를 태웠는데 그 공덕을 헤아리기 어려웠으니 하물며 자기 몸으로, 또는 승시(勝施) 국토의 처자 혈육을

로 공양 올림에 있어서라. 가령 진귀한 보배를 불세계에 가득 채운 채 여러 부처님께 포시(布施) 올리거나 공양 올린다면 복덕이 비록 많기는 하지만 저기에 미치지 못하리라.

왜 그런가. 이 복덕의 과보는 다함이 있기에 증생에게 무익하기 때문이니라. 만일 어느 족성자 또는 족성녀가 정법화경의 하나의 사구계를 수지하여 분별해 받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한 복덕과 비교한다면 만분의 일도 되지 않으리니 마치 바다에 갓가지 강물이 귀일되는 것처럼 이 경전도 이와 같이 모든 법 가운데 원수(元首)이느니라. 흡사 수미산이 산 가운데 제일 높고 보름달이 달 가운데 가장 밝은 것과 같이 광대한 지혜 광명은 삼계를 비추어 모든 법 가운데 으뜸이어서 무상왕(無上王)이니라. 마치 해가 떠서 널리 비추매 천하의 온갖 어둠이 일소되듯 이 경전도 마찬가지로 모든 증생의 어리석음을 제거하여 누구나 밝은 도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마치 제석천이 도리천상에서 하늘 가운데 우두머리이듯 이 경전도 마찬가지로 모든 법에 있어서 온갖 경전 가운데 으뜸이니 십방세계를 굽어 보면서 모든 증생을 도탈케 하느니라.

흡사 범천왕(梵天王)이 제철궁에 처해서 여러 하늘을 다스려 명을 받들게 하는 것처럼 이 경전도 마찬가지로 널리 증생 가운데 학(學)과 불학(不學)을 구제하고 삼승을 교도(教導)해 군부업

(君父業)을 행하게 하느니라. 마치 사도(四道)에서 연각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부학(凡夫學)을 초월하듯 정법화경 또한 이와 같이 모든 상증하의 승(承)을 벗어나 증생의 근기에 맞추어 교화를 베풀느니라.

흠사 보살행이 고원(高遠)해서 성문이나 연각의 업보다 낮고 삼세를 덮어 보호하듯 이 경전도 그와 같이 모든 법을 다스려 무상정진(無上正眞)을 성취하게 하느니라. 마치 세존이 삼계의 법왕으로 도복(道服)을 입고 삼십이상으로 어리석은 증생을 이끌듯 이 경전도 마찬가지로 보살학으로부터 여래에 이르기까지 성문과 연각을 개도(開導)하여 무상정진에 나아가게 하느니라.

여러 족성자여, 이 경전은 삼계를 보호하고 액난에 빠진 증생을 벗어나게 하고 허기진 증생에게 포만케하고 추운 증생을 따듯하게, 열이나는 증생을 청량하게, 벌거벗은 사람은 옷을 입게 함으로써 이처럼 증생을 개도시켜 누구나 도에 들게 하느니라.

마치 도사가 여러 상인을 보호하듯 보살도 이와 같이 자애로운 어머니 처럼 증생을 양육하느니라. 비유컨대 배의 선장이 사람으로 하여금 물을 건너게 하듯 보살도 이와 같이 삼계를 주선(周旋)하여 모든 증생을 벗어나게 하여 온갖 어둠을 소멸시키느니라.

마치 큰 불이 갖가지 어둠을 몰아내 생로사(生老死)에 빠진 증

생을 교화하고 전륜성왕이 사역(四域)을 다스리듯, 이 경전도 마찬가지로 성인의 도로 삼계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마치 광대한 밝음이 천하의 어둠을 소멸시키듯 이 경전도 마찬가지로 불퇴전의 지위에 이르게 하여 무생인(無生忍)으로부터 불도에 이르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속왕화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전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여 온갖 허물이나 삼독의 질병을 뿌리뽑아 생사라든가 지옥에 매인 고통을 구제하리라. 이 경전 말씀을 듣고 즉시에 이해하여 능히 필사한다면 그 공덕과 복은 한량없으리니 하물며 수지하여 몸에 지닌 채 독송하고 꽃이나 향·잡향·택향(澤香)·연등(然燈)·당번을 공양으로 올림에 있어서라.

만일 약왕보살 왕고학품(往古學品)을 듣고 수지해 사유한다면 그 복덕이 저와 같이 온갖 공양물 올리는 것보다 수승해 헤아리기 어려우리라. 만약 어느 여인이 경전 설법을 듣자마자 수지한다면 곧 이 세(世)에 여인의 몸과 수명이 다한 뒤 남자의 몸을 얻게 되리라.

어느 여인이 오락악세의 최후의 시기에 이 경전의 설법을 듣고서 능히 봉행한다면 그 수명이 다한 뒤 안양국(安養國)에 태어나 무량수불을 친견하게 되고 여러 보살과 권속에 둘러싸인 채 보배

련화(蓮華)로 장엄된 사자좌에 태어나게 되리니 음욕·성냄·어리석음이 없어 온갖 번뇌 결박이 제거되고 또한 탐욕이나 질투 혹은 회한(懷恨)도 없으리라. 그 극도에 태어나 오신통을 얻어 불퇴전의 지위에 이르러 법인(法忍)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와 같이 법인에 도달하여 자주 강물 모래알의 칠십이억조 배나 되는 여래 대중을 친견하게 되리라. 여러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며 안근(眼根)이 청정하게 되고 안근이 이미 청정하니 십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멀리서 보고서 찬탄하게 되리라.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족성자여. 능인 부처님께서 나타나신 시대를 만나 부처님으로부터 정법화경 말씀을 듣고서 수지해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법한다면 이 사람의 공덕과 복은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잠기지도 않고 도적·원가(怨家)·현관(縣官)이 침범하지도 않으리니 천분의 부처님께서 찬탄할지라도 마침내 다하지 못하리라. 그가 얻는 공덕은 한량이 없어 외외(巍巍)하리니 이 공덕으로 온갖 마구니가 항복하고 원적(怨敵)이 달아나게 되고 생사고해를 건너게 되고 온갖 환난으로부터 주선(周旋)하게 되리라.

또한 족성자여, 이 경법으로 온갖 악역(惡逆)을 조복받아 부처님 천분이 건립한 것을 보게 되어 그대의 몸은 보호를 받으리니

천상이나 세간에 견줄 바가 없으리라. 스스로 여래를 저버리고
성문이나 보살이 된 일은 없나니 그 공덕·복덕·지혜·선정이
같지 않으리라.’ ”

부처님께서 속왕화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학인이 이 경전을 수지하여 성명(聖明)에 이르면 그 세
력과 위덕(威德)이 이처럼 뛰어나게 되리라.

그러므로 인자(仁者)여, 만일 이 약왕품을 강설하여 찬탄한다
면 후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입에서 자연히 우담발화 향내가 풍기
고 몸에는 전단향 내음이 나게 되리라. 이 경전 말씀을 듣고 찬
미한다면 그사람의 현재 공덕이 멀리 퍼지리니 부처님께서 그의
공훈을 미리 찬탄하리라.”

부처님께서 계속 속왕화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대들에게 이 경전의 증생희견(衆生喜見)왕고법품(往
古法品)을 부촉하노니 최후의 말세 오락악세에 천하의 염부리(閻
浮利)안에 류포(流布)하여 도중에 파괴되지 않게 하고 마왕 파순
(波旬)이 넘보지 못하게 하고 마관(魔官) 권속·삿된 귀신·귀매
(鬼魅)가 헤치지 못하게 하고 하늘·룡·라찰·구원염귀(鳩洹厭
鬼)가 감당하지 못하게 하라.

또한 속왕화여, 이 약왕품은 위덕이 갖춰져 있으니 류포된 곳
에 질병이 있다면 이 경법을 들으면 병이 곧 소멸되어 고통이 없

어지리라. 이 공덕으로 이후에 정진(正眞)에 이르러 로병사(老病死)가 없어지리라.

만일 어느 비구가 최후의 말세에 손이 푸른 련꽃을 잡고 잡향을 가득 준비해 법사에게 공양 올려 뿌리면서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이다.

‘어느 누가 보살승을 구해서 이 도장(道場)에 이른다면 내가 이 꽃을 주고 플로 된 자리를 마련하고 나무 아래에서 온갖 마구니의 항복을 받으리니 법고(法鼓)가 구족하게 울리고 법의 소리가 나리라. 이로 인연하여 생사고해를 건너게 되리라.’

만일 대승법을 배우는 비구가 이 경전을 수지하는 모습을 보거든 그 사람의 공덕이 이와 같은 줄 알아야 하리라.

부처님께서 약왕보살왕고품을 설하실 때 팔만 사천 보살이 즉시 모든 증생의 말을 이해하는 방편과 총지를 얻게 되었느니라.

그때 칠보탑 속의 여래께서도 찬탄하셨느니라.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속왕화보살이여.

그대는 불가사의한 경전의 가르침을 여쭙었나니 이에 여래께서 강설하게 되셨으니 이 아니 기쁜 일이겠느냐.’ ”

22. 묘후보살품(妙吼菩薩品)

그때 세존 능인 여래께서 즉시 미간 정수리의 대인(大人)의 상으로부터 백천광명을 놓아 동방 강변 모래알의 팔천 백만억 배나 되는 불국토를 두루 비추지 않음이 없었다.

이 불세계를 지나 한 세계가 있으니 그 명칭이 장엄조명(莊嚴照明)이었고 이 불국토에 리구자금숙화왕(離垢紫金宿華王) 여래 지진등정각이 계셨는데 무양수 보살 대종과 그 권속에 둘러싸인 채 법을 선포해 교화시키고 계셨다. 능인 여래께서 놓으신 광명이 두루 저 국토를 비추었다.

또한 그 불국토에 묘음(妙音)이라 불리는 한 보살이 있었는데 지난날 부처님 주위에서 온갖 덕의 근본을 심었고 무수한 백천조해(百千兆垓) 불정각께 공양을 올려 매번 부처님을 친견하여 경전 가르침을 받아 성인의 지혜에 이르게 되어 존중(尊重)삼매 · 정법화(定法華)삼매 · 시리구(施離垢)삼매 · 락숙왕(樂宿王)삼매 · 무착광(無著光)삼매 · 혜인(慧印)삼매 · 보효제음(普曉諸音)삼매 · 등집중덕(等集衆德)삼매 · 희신정(喜信淨)삼매 · 신족희락(神足戲樂)삼매 · 혜광(慧光)삼매 · 엄정왕(嚴淨王)삼매 · 리구광(離垢光)삼매 · 리구장(離垢藏)삼매 · 무연(無緣)삼매 · 일전(日轉)삼매를 증득하였다. 그 요체를 말하자면 두루 강변 모래알의 백천억 배나

되는 삼매 선정에 이른 것이다.

부처님의 광명이 곳곳에 이르러 묘음보살을 비추게 되자 묘음보살은 부처님의 성스런 광명을 입으로 인해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 세존께 말씀을 아뢰었다.

“저는 이제 감인세계에 나아가 능인 부처님을 찾아뵙고 머리 숙여례를 올린뒤 경전 가르침을 청하고 이어서 문수사리·약왕보살·묘용(妙勇)보살·속왕화보살·존의행(尊意行)보살·정왕(淨王)보살·초약(超藥)보살도 찾아뵙고 경전의 뜻을 청하여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모든 증생으로 하여금 도를 지향하는 마음을 내게 하였나이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족성자여, 저 극토에 가더라도 다른 생각을 내지 말고 그 극토 증생이 게으르다거나 하천하다는 생각을 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족성자여 저 감인세계는 대륙의 땅이 흑산(黑山)이어서 잡유(雜糲)하고 온갖 때[垢]·돌·모래·오물로 가득하고 계곡·산이 다른 곳과는 상이하니라. 그 극토의 부처님 몸은 비소해 륜장(六丈)에 불과하고 보살의 신장도 칠·팔척(七八尺)에 불과하니라.

그대의 몸 높이는 사만 이천 유순, 내 몸은 팔만 사천 유순이

어서 단정하고 색상이 뛰어나고 위용이 뛰어나 상호와 존안은 무엇에 전줄 수도 없으니 백천가지 덕을 쌓았기에 누구나 환희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또한 그대가 저 극토에 가서 그곳 증생을 보게 되더라도 신증해야지 생각을 움직여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리니 여래와 보살의 불국토와는 같지 않느니라.

왜 그런가. 불국토는 본래 공하기에 증생의 죄와 복은 같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러자 묘음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의 위신력과 여래의 성력(聖力)을 이어 도와 덕이 출증해서 저 스스로 즐기는 마음으로 감인세계에 찾아가겠사오니 여래의 도와 지혜, 청정한 업에 수순해 법을 어기지도 않고 생각을 일으키지도 않겠나이다.”

이때 묘음보살은 생각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그 자세 그대로 감인세계의 령취산에 이르러 마땅히 여래의 법좌 중간에 도달해서 팔만 사천억 보배 연꽃을 화생하게 하여 자금색의 즐기·백은(白銀)의 잎사귀로 된 연꽃으로 장엄하게 장식하고 뛰어나게 청정하게 해서 그 뛰어난 광명으로 인해 그곳 대중을 비추게 하리라.’

이런 그의 생각이 즉시에 실현되었으니, 이에 문수사리가 능인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게 되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지금 화현한 팔만사천 보배연꽃은 자금의 즐기·백은의 잎이 지극히 청정하고 장엄하오니 이는 어느 누구의 상서로운 감응으로 이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사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묘음이라 일컫는 보살이 자금리구속화왕(紫金離垢宿華王) 부처님의 불국토로부터 팔만 천 보살과 함께 여기 감인세계에 이르렀으니 나를 친견해 머리 숙여례를 올리고 질문을 여쭙고 정법 화경 가르침을 청법하기 위해 먼저 이런 상서로움을 보이게 된 것이니라.”

이에 문수사리가 또다시 부처님께 말씀을 여쭙었다.

“그 보살은 속세에 어떤 공덕을 쌓아 오묘한 행을 지었기에 지금 여기에 이르러 기특(奇特)한 감응을 일으키게 되었사오며 어떤 삼매에 머물러 행을 짓게 되었나이까. 원컨대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그가 행한 삼매와 신족변화를 알고자 하나이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마땅히 받들어 봉행하고자 하나이다. 그 보살의 얼굴과 색상도 보고 싶사오니 어떤 인물이나이까. 어떤 행동거지로 증생을 이익되게 했나이까.”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상서로운 감응을 나타내시어 보살들로 하여금 이곳에 이르게 하시어 대중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러자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마땅히 증보(衆寶)여래께 청해서 상서로운 감응을 나타내게 하여 보살들이 모두 이곳에 이르러 각기 모습을 나타내어 모든 대중이 함께 볼 수 있게 하라.”

이에 문수사리는 그 말씀을 존중해 이미 멸도하신 증보여래께 말씀을 올려 상서로운 감응을 나타내 보이시게 하였다.

그때 묘음보살은 본토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 팔만 사천 보살과 함께 불국토를 움직여 보배 연꽃을 비오듯 뿌리게 했고 동시에 백천억 풍악이 울려 퍼지면서 보살들이 제각기 모습을 나타내었다. 보살의 눈은 뛰어나게 맑아 마치 감색빛이 도는 듯했고 안색은 보름달처럼 총만했으며 몸은 자금광이었으니 무양수 백천억 공덕으로 그 몸이 장엄되어 위신력은 출중했고 지혜광명은 빛을 뿜었으며 기이한 상호가 광명 넘치는 얼굴을 장식했고 몸의 힘은 무극했다.

묘음보살의 몸은 칠보 교락(交絡)에 처해서 허공 가운데 땅으로부터 사장(四丈) 구척(九尺)이나 떨어졌고 여러 보살과 권속에 둘러싸인 채 감인세계의 령취산에 도착해서 칠보 교락에서 내려

와 손에는 백천이나 값나가는 보영(寶英)을 지니고서 능인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 숙여 부처님 발 아래에 례(禮)를 표하고 손에 지닌 것을 능인 여래께 올린 뒤 이어 부처님께 말씀을 올렸다.

“자금리구속화왕(紫金離垢宿華王)여래께옵서 문안인사를 드리라 하였사옵니다.

‘몸은 가볍고 걸음걸이는 편안하신지요.’

또한 다음 인사를 전하라 하셨나이다.

‘세존의 설법은 예전과 같사옵니다. 중생들은 모든 가르침을 수용하여 전보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우 같은 의심은 제거되고 법의 가르침에 수순하옵니까. 장차 음욕·성냄·어리석음·증오·질투를 품지는 않겠습니까. 능히 공경하여 부모님께 효도해 순응하고 도법을 청수해서 받들겟나니까. 샳된 소견에 떨어지고 재물을 애착해 근기가 부정(不定)하옵니까. 마구니와 그 권속의 행복을 받겠습니까. 또한 여러 중생이 이미 멸도하신 증보여래를 만나 받들고자 하옵니까.’

지금 여러 보살들이 여기에 이르렀는데 본토의 여래께서 보냈사오니 칠보탐사에 이미 멸도하신 증보여래를 만나 받들고자 하옵니다. 증보여래께 문안드리오니 성체(聖體)는 평안하오며 설법은 어떠하십니까. 중생들이 법의 가르침을 수용해 실행하나이

까. 증보여래께서는 오랫동안 이곳에 머무셨으니 이에 저희들은 여기에 찾아와서 증보여래의 형상을 친견하고자 하오나 원컨대 모습을 나타주소서.”

그러자 능인 부처님께서 증보여래께 말씀하셨다.

“지금 묘음보살과 그권속이 세존의 성체 형상을 뵈고자 하옵니다.”

이에 증보여래께서 즉시 찬탄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즉성자여, 그대가 이곳에 직접 찾아와서 능인 부처님을 친견해 머리 숙여 례(禮)를 표하고 정법화경을 수지하고 또한 문수사리를 만나고자 하는구나.”

그때 련화수(蓮華首)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묘음보살은 지난날 어떤 덕의 근본을 쌓았기에 이와 같은 무극의 신성(神聖)에 이르게 되었나이까?”

이에 능인 부처님께서 련화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지난 구원 겁 이전에 운뢰음왕(雲雷音王)여래 지진등정각이 계셨으니 경전을 강설해 륝도무극(六度無極)과 보살의 법장(法藏)을 말씀하시매 천상이나 천하에 그 은택을 입어 평안하지 않음이 없었느니라.

그때 묘음보살이 그 말씀을 듣고 혼연히 이해하였기에 백천 가지 음악을 울려 그 부처님을 즐겁게 했고 사천 가지 보배로 장엄

된 그릇을 지존께 올렸느니라.

이와 같이 정진하여 여래께 이천년 동안이나 공양을 올렸느니라.

또한 족성자여, 묘음보살은 지난날 윤희음왕여래께서 재세하실 때 무상법(無上法)을 닦아 이 공덕을 심었으니 조금도 나태하지 않았느니라. 여래의 법을 전해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하고 지진(至眞)을 모르는 대중으로 하여금 즐겨 믿게 했느니라.

그때의 묘음보살을 알고자 하느냐. 지금의 묘음보살이 바로 그이니라. 그는 저 당시에 보배 그릇과 온갖 음악을 포시했느니라. 또한 무수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천억 부처님 처소에서 온갖 덕의 근본을 심고 갖가지 행을 닦았나니 지난 생에는 강변 모래알의 백천억해 배나 되는 무수한 부처님을 친견했느니라.

지금 련화수보살은 묘음보살의 행을 보나니 묘음보살은 무수한 몸을 지녀 한량이 없느니라. 그는 중생을 위해 정법화경을 강법해 교화를 베푸나니 혹 범천의 형상을 나타내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천제(天帝), 혹은 존귀한 부호의 모습으로, 때로는 장군의 형상을 나타내 병사들을 교화하기도 하고 또는 식의천왕(息意天王), 전륜성왕, 여러 소왕(小王), 존자(尊者), 장자(長者), 또는 온갖 장대한 모습, 사문, 범지의 형상과 모습으로 정법화경을 설하

기도 했고, 때로는 비구·비구니·청신사·청신녀의 모습으로 ,
 궁인·채녀·장자·부인·비천한 녀인의 모습으로, 남녀 대소의
 형상으로 인도해 정법화경을 설하기도 했느니라. 때로는 아수륜
 의 모습, 가류라·진타라·마휴룩·사람인 듯 아닌듯한 형상과
 모습으로 인도해서 정법화경을 설하기도 했느니라.

혹은 지옥·아귀·축생·팔난(八難)에 직접 들어가 증생을 옹
 호하면서 구제하기도 했으며, 상사(上士)·중사(中士)·하사(下
 士)의 전진후퇴에 있어서 그 형체와 남녀의 상에 따라 개화시켜
 정법화경을 설하기도 했느니라. 때로는 궁궐에 들어가 황후의
 모습으로 화현해 널리 귀인(貴人)들을 제도하기도 했느니라. 련
 화수여, 마땅히 알아야 하리니 묘음보살은 장차 감인세계의 모든
 증생을 보호하게되리라.

또한 즉성자여, 묘음보살은 무수한 변화 방편력으로 감인 불국
 토로 증생을 인도해서 정법화경을 펼칠 것이니라. 그 신즉과 위
 덕(威德)은 조금도 감소됨이 없어 오히려 증익되리니 성스런 지
 혜와 도(道) 역시 마찬가지니라.

또한 즉성자여, 묘음보살은 그 광명과 공훈과 지혜가 뛰어나
 십방세계에 두루해 수시로 증생을 개화(開化)시키나니 룬전무제
 (輪轉無際)해서 모두 률(律)에 들어가게 하여 상증하의 발원이
 제각기 성취되리라. 감인세계에서 소요하다가 다시금 타방의 강

변 모래알처럼 무수한 불국토에 이르러 보살의 몸을 나투어 설법 하리라.

또한 성문이나 연각의 모습으로 화현해 증생을 개화시키기 위해 본행(本行)으로 배운 바를 나타내 보이시자 설법을 증연(倏然)히 들어 제각기 뜻을 성취하게 하고 본래의 서원을 어기지도 않게 되리라.

만일 어느 증생이 여래의 룰(律)을 받든다면 부처님의 색상을 본받아 그 도룰(道律)에 따라 모습을 나타내 보여 대도무상정진(大道無上正眞)을 드러내고 니원(泥洹=넬반)을 추구하게 하고자 멸도를 보이리라. 이로 인해 룰의(律儀)를 나타내 보여 도의 지혜를 개화시키리라.

묘음보살은 그 세력과 성스런 지혜를 헤아릴 수 없나니 초절(超絶)하고 뛰어나 그 공덕이 이와 같아 어디에도 비할 수 없으리라.”

그때 련화수보살이 부처님께 말씀을 아뢰었다.

“묘음보살은 쌓은 공덕이 당당하나이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어떤 삼매에 머물러 헤아리기 어려운 증생을 개화(開化)시킬 수 있었나이까?”

이에 능인 여래께서 련화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즉성자여, 귀 기울여 들어라. 현입증상(現入衆像)삼매를 지니고서 대증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느니라.

묘음보살은 이 삼매에 머물러 증생을 개화시켜 이익되게 했나니 이로 인해 무한 증생이 도에 들어가게 되었느니라.

부처님께서 묘음보살 장구품(章句品)을 설하실 때 묘음 개사를 비롯한 여러 보살은 마음을 발해 찾아왔으니 즉시에 현입증상삼매 정정(正定)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그의 행이 수승해서 감인세계에서 보살 경지를 초월해 선정을 닦았으니 현입증상삼매에 이르러 곧 총지 타라니를 얻게 되어 삼세(三世)를 손에 쥐어 증생들이 은택을 입지 않음이 없었느니라.”

그때 묘음보살이 능인 여래지진께 공양을 올리고 증보(衆寶)여래와 탑사의 사리를 구족하게 받든 뒤 본토로 돌아가기 위해 능인 여래께 머리 숙여 례(禮)를 표하고 스스로 물러나 대증과 헤어지자 여러 불국토가 진동했고 연꽃이 비오듯 쏟아졌으며 북이 울림과 동시에 백천억해 품격있는 계승과 풍악이 울려 퍼졌으니 팔만 사천 보살들과 함께 본토로 되돌아가서 묘자금리구속화왕(妙紫金離垢宿華王)여래께 머리숙여 례를 표했다.

묘음보살은 감인세계에 찾아가소 증생을 이롭게 했고 또한 증보여래의 칠보탑과 사리를 보았으며 문수사리와 약왕보살이 정진

을 통해 도달한 무극의 도력도 보았고 묘용보살도 만나 팔만 사천 보살로 하여금 모두 정행(正行) 현입중상삼매를 얻게 하였다. 저 세간에 이르러 함께 도로 나아갔고 사만 이천 천자가 정법화경 설법을 들어 모두 무생법인을 얻게 되었으며 련화수보살은 정법화 선정에 이르게 되었다.”

정법화경(正法華經) 권 제10

23. 광세음보문품(光世音普門品)

그때 무진의(無盡義)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팔뚝[臂]을 드러내고 장궤차수(長跪叉手)한 채 부처님께 말씀을 아뢰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광세음(光世音)보살은 어째서 그런 명호를 지니게 되었으며 그 뜻이 어떠하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무진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죽성자여, 어느 중생이 백천억해 액운과 환난에 빠져 고통이 무량할 때 광세음보살명호를 듣는다면 그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아무런 고통이 없게 되므로 광세음이라 일컫게 되었느니라.

만일 이 명호를 지너 마음에 품는다면 설령 큰 불이 일어나 산이나 들을 태워 온갖 풀, 총림, 집을 태우고 몸이 불더미 속에 떨어졌을 때 광세음의 명호를 부른다면 불길이 즉시에 소멸되리라.

만일 큰 불이나 강물에 휩쓸려 마음이 공포심에 떨게 됐을 때 광세음보살 명호를 일심으로 칭송해 귀의하면 그 위신력의 보호를 받아 빠지지 않게 되어 안온하게 되리라.

만약 부귀하거나 빈천한 중생이 백천억해의 깊은 바다에 들어

가 무저지원(無底之源)에 처해 금·은·잡주(雜株)·명월(明月)·보배·여의주·수정·류리·차거·마노·산호·호박을 채취해 배에 가득 보물을 싣고서 돌아올 때 홀연히 바람이 불어 배가 흑산(黑山)에 표류하게 되어 만일 귀계(鬼界)를 지나다가 마갈어(魔竭魚)를 만나게 된다면 대중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혼자서 마음속으로 광세음보살의 공덕과 위신력을 생각해 그 명호를 부른다면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함께 동반한 대중도 구제를 받아 마귀나 사된 귀신의 액난을 만나지 않게 되리라. 그래서 광세음이라 일컬어지게 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족성자여, 만약 원수나 적이 찾아와서 위해를 가할 때 즉시 광세음보살의 명호를 불러 귀명한다면 적이 들고있던 칼이나 나무가 곧 조각조각 부러져 다시 손에 들 수 없게 되어 자연히 마음이 편해지리라.

족성자여, 가령 여기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귀신들과 온갖 사된 역매(逆魅)가 와서 괴롭힐 때 일심으로 광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른다면 자연히 조복받아 일을 저지르지 못해 나쁜 마음이 생겨나지 않아 사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나쁜 관리에 의해 기록되어 몸이

속박당하고 수갑이 채워지고 몸에 가쇄(枷鎖)가 채워져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할 때 일심으로 귀의하여 광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른다면 속히 질곡에서 벗어나 옥문이 열려 엷매임에서 풀려나게 되리라. 그러므로 광세음이라 일컬어지게 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족성자여, 광세음보살의 경계는 그 위신력과 공덕이 한량이 없나니 광명이 이와 같이 넘치기에 광세음이라 일컬어지게 되었느니라.”

부처님께서 무진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족성자여, 여기 삼천대천 세계에 도적이나 원수가 우글거려 막대기나 칼, 창으로 사람들을 해치려 할 때 상인 무리가 독자적으로 길을 가다가 귀중한 보물을 지니고 있기에 길 안내자가 두려워 ‘여기에는 도적이 많으니 우리를 해쳐 재물을 빼앗지 못하게 마땅히 방편을 마련해 이 액난에서 벗어나 해침을 당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느니라.

그래서 상인들은 두려운 마음 없이 평등하게 한마음으로 소리를 내어 광세음보살을 칭해 그 위신력을 힘입어 보호를 받아 두려움지 않게 되었으니 마음으로 귀의해서 액난으로부터 벗어나 해침을 당하지 않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상인들은 모두 가르침을 받아들여 함께 한 목소리로 광

세음보살을 칭하게 되었으니 신명으로 귀의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느니라.

광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자 마자 도적이 곧바로 물러나 범하지 못하게 되어 상인들은 두려움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게 되었느니라. 광세음보살의 위엄과 덕있는 경계는 뛰어나서 이와 같은 까닭에 광세음이라 일컬게 되었느니라.”

부처님께서 또다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느 학인이 음욕·성냄·어리석음이 무성해서 광세음보살에게 머리 숙여 귀명한다면 음욕·성냄·어리석음이 그치게 되리니 무상(無常)·고(苦)·공(空)·비신(非身)을 관해서 일심으로 선정을 얻게 되리라.

자녀가 없는 사람이 남자나 여자아이를 낳기 위해 광세음보살에게 귀명한다면 남자나 여자아이를 얻으리니 일심으로 정진하여 스스로 귀명하는 자는 세세생생 단정하고 용모가 전줄 바가 없어 보는 사람마다 찬탄하게 되리니 그로부터 낳은 자녀도 위엄있는 모습을 갖추어 주위사람의 사랑을 받고 즐겨 만나보고자 하리라. 또 온갖 덕의 근본을 심고 죄업을 짓지 않게 되리라.

광세음보살의 위신력과 공덕, 지혜 경계는 뛰어나서 이와 같으니 그 명호를 부른다면 그곳마다 결코 헛되지 않아 샅된 해침을

받지 않고 위없는 도덕의 과실을 얻게 되어 항상 부처님·진인(眞人)·보살·고덕(高德)·정사(正士)를 만나게 되고 역인(逆人)과 함께 하지 않아 다시 만나지 않으리라.

만일 그 명호를 수지하여 마음에 품는다면 공덕이 무량하여 헤아릴 수 없으리라. 강변 모래알의 룩십이억 배나 되는 보살들에게 공양을 올렸으니 이 보살들은 모두 그로 하여금 현재에 평등하게 자비심을 행하게 하느니라.

족성자와 족성녀여, 이 보살들이 육신의 수명이 다할 때 옷·음식·침구·병을 고치는 약을 공양하여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한다면 그 복이 많겠느냐?”

이에 무진의보살이 답했다.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한량이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보살들이 무양수 억이나 되어 어디에 전줄 수도 없기 때문이나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무한한 보살들에게 공양을 올렸을지라도, 예컨대 한 번 광세음보살에게 머리숙여 례(禮)를 올리고 그 명호를 수지한다면 복덕이 저보다 뛰어나리니 하물며 공양올림에 있어서라. 비록 또 다시 강변 모래알의 룩십이억 배나 되는 보살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명호를 수지한다면 이 두가지 복을 헤아리건대 백천억 겁

동안이라도 다할 수 없어 마침내 어디에도 견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광세음보살이라 일컬어지는 것이니라.”

그때 무진의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들을 아뢰었다.

“광세음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감인세계를 소요하게 되었사옵
니까? 광세음보살은 어떤 설법을 했사옵니까? 광세음보살은
어떤 발원을 했나이까? 광세음보살이 행한 법, 사용한 방편, 경
계는 어떠하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족성자여, 광세음보살은 이 세계를 유력하면서 때로는 부처
님 몸을 나타내 법을 류포(流布)하기도 했고 때로는 보살의 형상
과 모습으로 경전을 설해 개화시키기도했고 혹은 연각이나 성문
의 모습을 나타내기도했고 때로는 범천제(梵天帝)의 모습을 나타내
경전에 실린 도를 설하기도 했느니라.

때로는 건담화의 형상으로 귀신을 제도하기 위해 귀신의 모습
을 나타내기도 했고 호존(豪尊)을 구제하기 위해 호존의 모습을 나
타내 보이기도 했느니라.

또한 때때로 대신묘천(大神妙天)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
고 혹은 전륜성왕의 모습으로 사역(四域)의 증생을 교화하기도
했고 때로는 특수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느니라.

혹은 다시 반족라찰(反足羅刹)의 형상을 나타기도 했고 때로는 장군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금강신(金剛神)·은사(隱士)·독처선인(獨處仙人)·동유(僮儒)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느니라.

광세음보살은 여러 불국토를 유력하면서 갖가지 형상을 나타내 보여 변화를 나타내 모든 증생을 개도(開度)하느니라.

그러므로 즉성자여, 모두 마땅히 광세음보살에게 공양 올려야 하나니 그즉성자가 주선(周旋)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을 경우 두려움이 없게 되고 널리 안온하게 되어 저절로 혼연하게 되리라. 그래서 광세음보살은 감인세계를 유력하는 것이니라.”

그때 무진의보살이 즉시에 자기 몸에서 백천가지 보배 영락을 풀어 광세음보살에게 공양을 올린 뒤 말했다.

“바라옵건대 정사(正士)이시여, 저의 몸에 있는 진귀한 보배 영락을 법 공양으로 받아 주소서.”

그러나 광세음보살이 받지 않자 무진의보살이 다시 광세음보살에게 말했다.

“바라옵건대 가엾이 여겨 이것을 받아 주시어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광세음보살은 속마음으로 이 보배를 받지 말자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진의보살이 말했다.

“ 거듭 하늘 · 룡신 · 건담화 · 아수륜 · 가류라 · 진타라 · 마휴륜 · 사람인 듯 아닌듯한 존재를 가없이 여기소서.”

그래서 광세음보살은 그 보배 영락을 받아 들로 나누어 한쪽은 능인 여래께, 다른 한쪽은 증보여래 지진등정각의 칠보탑에 헌상하였다. 그 족성자는 널리 모든 증생을 위하는 까닭에 감인세계에서 신족으로 변화를 일으켜 구제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때 지지(持地)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말씀 올렸다.

“만약 어느 누가 광세음보살이 행한 덕의 근본을 듣는다면 종내에 허망하지 않아 세세생생 안온하여 무극의 지혜에 이르게 될 것이옵니다.

광세음보살은 신족의 변화로 널리 도문(道門)에 이르러 위신력을 나타내 보이시매 다함이 없을 것이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도품을 설하실 때 범회에 참석한 팔만 사천 명이 어디에도 전줄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 즉시 무상정진도의 마음을 발하였느니라.

24. 총지품(總持品)

그때 약왕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장궤차수(長跪叉手)한 채 부처님께 사죄했다.

“만일 족성자나 족성녀가 정법화경 설법을 듣고 수지해서 마음에 품어 이 경전을 서사(書寫)한다면 얻는 복이 어떠하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족성자 혹은 족성녀가 이 경전을 수지해서 독송하여 마음에 품고 경전을 필사하면 복덕이 헤아릴 수조차 없어 어디에도 비유할 수 없으리라.

어느 족성자가 강변 모래알의 팔십억 백천해 여래 대중께 공양 올리고 또다시 정법화경을 수지해 마음에 품고 서사하고 강설한다면 그 복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심으로 이 경전을 받들어 수지하거나 또는 옷이나 음식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복이 어떠하겠느냐.”

이에 약왕보살이 부처님께 사죄했다.

“만일 족성자 또는 족성녀가 정법화경의 요체를 수지해 하나의 사구계를 서사(書寫)하고 강설하고 독송하고 또다시 받든다면 구족하게 성취하게 되어 그 복이 지극히 많사오니 강변 모래알처럼

럼 무수한 보살에게 공양 올리는 것보다 뛰어나나이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기특하도다, 법 공양이 가장 뛰어나니라.”

그래서 약왕보살이 다시금 부처님께 사죄었다.

“제가 마땅히 이와 같은 인물들을 옹호하겠나이다. 족성자와
족성녀가 이 경전을 수지하거나 이 법사들을 의(義)로서 지켜 길
이 아무런 근심이 없게 하기 위해 총지 구절을 외우겠나이다.”

곧 약왕보살이 주문을 외웠다.

기이 소사 의념 무의 영구 소행봉수 적연
奇異₁ 所思₂ 意念₃ 無意₄ 永久₅ 所行奉修₆ 寂然₇

담박 지묵 해탈 제도 평등 무사 안화 보평
澹泊₈ 志默₉ 解脫₁₀ 濟渡₁₁ 平等₁₂ 無邪₁₃ 安和₁₄ 普平₁

멸지 무진 막승 현묵 담연 총지 관찰 광
滅盡₅ 無盡₁₆ 莫勝₁₇ 玄默₁₈ 澹然₁₉ 總持₂₁ 觀察₂₂ 光

요 유소의의 시호어내 구경청정 무유갱감 역
耀₂₃ 有所依倚 恃怙於內₂₄ 究竟清淨₂₅ 無有坑坎₂₆ 亦

무고하 무유회선 소주선처 기목청정 등무소
無高下₂₇ 無有迴旋₂₈ 所周旋處₂₉ 其目清淨₃₀ 等無所

등 각이월도 이찰어법 합중 무음 소설해명
等₃₁ 覺已越度₃₂ 而察於法₃₃ 合衆₃₄ 無音₃₅ 所說解明₃₆

이회지족 지제절한 선창음향 효료중성 이료
而懷止足₃₇ 盡除節限₃₈ 宣暢音響₃₉ 曉了衆聲₄₀ 而了

문자 文字⁴¹ 무유궁진 無有窮盡⁴² 영무력세 永無力勢 무소사념 無所思念⁴³

이어 약왕보살이 말씀을 올렸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이 총지는 강변 모래알의 룩십이 배나 되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옵니다. 만약 이 타라니를 외우는 인물을 범하고 또한 다시 이런 법사를 훼손한다면 불세존의 도교(道敎)를 훼손하는 격이나이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약왕보살을 찬탄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즉성자가 총지(總持=타라니=주문)를 설해 증생을 위하고자 하여 가엾게 여겨 보호해서 안온하게 하는구나.”

그때 묘용(妙勇)보살이 부처님 앞에서 말씀을 사뢰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증생을 위해 길이 안온하게 하고자 하옵나이다. 만일 이 경전을 받들어 수지하는 인물이 있다면 총지를 주어 장차이 법사를 보호하게 하여 그를 엿보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귀신·제매(諸魅)·혼축(溷廁)·중귀(衆鬼)·돌귀(突鬼)·염귀(厭鬼)·아귀(餓鬼)·반족(反足)이 그를 태우려 할지라도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묘용보살은 이처럼 마음을 다해 사유해 다음의 총지를 외웠다.

황요 대명 염광 연휘 순래 부장 열희 흥연
 晃耀₁ 大明₂ 炎光₃ 演暉₄ 順來₅ 富章₆ 悅喜₇ 欣然₈

주차 립제 영작 무합 무집
 住此₉ 立制₁₀ 永作₁₁ 無合₁₂ 無集₁₃

묘용보살이 계속해서 말했다.

“이 총지는 강변 모래알처럼 무수한 부처님께서 설하셔서 함께 권조(勸助)하신 것이나이다. 만일 여래의 이와 같은 법사의 가르침을 어긴다면 곧 스스로 위태로울 뿐이옵니다.”

그때 비사문(毘沙門) 천왕(天王) 부처님 앞에서 말했다.

“저도 역시 이 총지를 펼쳐 자비심을 더하여 중생을 위하고 법사를 옹호하겠나이다.

부유 조희 무희 무량 무부 하부
 富有₁ 調戲₂ 無戲₃ 無量₄ 無富₅ 何富₆

이 총지로 법사를 옹호하여 백 유순 안에 범하지 못하게 하여 지키겠나이다. 즉성자가 이와 같은 법사의 가르침을 익혀 수지한다면 이 신주로 옹호해서 항상 이롭게 지키겠나이다.”

그때 순원(順怨) 천왕이 저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여러 향음

(香音) 억백천해 귀신 권속에 둘러싸인 채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 말씀을 사뢰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 또한 총지를 류포하겠나이다.

무수 유수 요흑 지향 흥주 대체 우기 순술
無數₁ 有數₂ 曜黑₃ 持香₄ 凶咒₅ 大體₆ 于器順述₇

폭언 지유
暴言₈ 至有₉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이 총지는 사십이억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옵니다. 이 총지로 경전 배우는 사람을 옹호하고 공양 올려 그를 해치는 일이 없게 하겠나이다.”

그때 결박(結縛)이라고 하는 한 도깨비[魅]가 있었으니, 리결(離結) · 시적(施積) · 시화(施華) · 시흑(施黑) · 피발(被髮) · 무착(無著) · 지화(持華) · 하소(何所) · 취일체정(取一切精)이라고도 하는데,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 귀자모(鬼子母), 그 아이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부처님께 말씀을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마땅히 이와 같은 법사를 항상 옹호하고 길상(吉祥)을 베풀어 법사의 단점을 엿보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이어 제매(諸魅)들은 한 목소리로 이 총지를 읊어 법사에 수순

하고자했다.

어시 어사 어이 어씨 극심 무아 무오 무신
 於是₁ 於斯₂ 於爾₃ 於氏₄ 極甚₅ 無我₆ 無吾₇ 無身₈

무소 구동 이흥 인생 이성 이주 이립 역주
 無所₉ 俱同₁₀ 已興₁₁ 已生₁₂ 已成₁₃ 而住₁₄ 而立₁₅ 亦住

차란역비 소두대질 무득가해
₁₆ 嗟歎亦非₁₇ 消頭大疾₁₈ 無得加害₁₉

“이런 부류들은 우리의 권속이니 아무도 범하지 못하게 하여
 법사를 옹호하겠사오니 귀신·제매(諸魅)·아귀·혼신(溷神)·돌
 귀(突鬼)·고도(蠱道)·부주(符咒)·치광전귀(癡狂顛鬼)의 모습으
 로 오거나 또는 귀신의 형상이나 사람 아닌 형상으로 이일·삼일
 내지 사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열병을 앓기도 하고 또한 밤중
 에 악몽을 꾸어 남녀대소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오니 저희들은
 법사를 옹호해서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나이다.”

이어서 제매들이 함께 부처님 앞에서 계송을 읊었다.

머리를 일곱 갈래로 쪼개어

화채(華菜)를 쪼개 듯한 일 범하면

어머니 살해되는 죄를 당하고

아버지도 해를 당하게 되나니
 이러한 법 범한 사람은
 반드시 이런 벌 얻사오니
 세세생생 불안하게 되어
 부처님과 만나지 못하고
 불사(佛寺) 파괴한 죄
 성증(聖衆) 훼손하나이다.

비유컨대 온갖 마유(麻油)를
 한곳에 모아 놓고서
 불을 질러 태워
 남김없이 소멸시키듯
 그 법사 범한다면
 이처럼 죄가 무겁나이다.

여러 귀신과 군두(軍頭)등이 부처님 앞에서 말씀을 사죄었다.

“저희들은 모두 이와 같이 법사들을 외호하여 항상 안온하게 하여 원적(怨敵)을 제거하고 언제든지 보호하여 해침을 입지 않게 하겠나이다. 만일 독을 법사에게 먹이려 할지라도 독약이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제매가 읊은 주문을 찬탄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그대들이 법사를 외호하고자 하는구나. 만일 이 경전 설법을 듣고서 마땅히 명칭을 수지한다면 덕이 한량없거늘 하물며 구족하게 수시로 설법하고 이 경전을 서사함에 있어서라.

만약 꽃·당번·번개·잡향(雜香)·도향(搗香)을 공양 올리고 연등을 켜고 증채(繪綵)를 드리운다면 크게 기뻐하게 되리라. 푸른 연꽃·붉은 연꽃·노란 연꽃·흰 연꽃으로 장엄하고 유소(油蘇)를 써서 연등을 켜 이 경전에 공양으로 올리고 설새 없이 수양을 닦는다면 복이 백천억 배나 되어 한량없으리라.”

부처님께서 이처럼 총지품으 설하실 때 룡만 팔천 명이 무생법인을 얻게 되었다.

25. 정부정왕품(淨復淨王品)

부처님께서 즉성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지난 과거 무양수 겁 이전 불가사의하게 오래고 멀어 헤아리기 어려운 때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그 명호는 총수뢰음숙화혜왕(總水雷音宿華慧王)여래 지진등정각·명행성·선서·세간해·무상사·도범어·천인사·불세존이니라. 세계 명칭은 조명엄식(照明嚴飾), 겁의 명칭은 애견(愛見)이니라.

즉성자여, 그 부처님께서 세간에 머무실 때 정부정왕(淨復淨王)이 있었으니 왕에게 한 명의 정후(正后)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리구시(離垢施)이었느니라. 그 정후(正后)에게는 두 명의 아들 리구장(離垢藏)과 리구목(離垢目)이 있었는데 또한 두 아들은 신족을 얻어 가볍게 날아다니고 지혜가 구족했고 공덕이 갖추어져 아주 훌륭했고 보살업을 행해 밤낮으로 정진을 거듭했으니 조금도 내려하지 않아 설새 없이 룡도무극의 도리를 닦아 네 가지 방편이 뛰어나 그 구제함이 무한했으며 삼십칠 도품(道品)에 통달해 널리 도의 뜻을 선양했나니 주선(周旋)하는 바가 리구(離垢)삼매 선정에 이르렀느니라.

도숙일광(度宿日光)삼매·리구현요(離垢顯曜)삼매·정장엄(淨莊嚴)삼매·대위장(大威藏)삼매에 통달했으니 이 삼매 선정으로 무

극에 도달했느니라.

그 당시 사부대중·석범(釋梵) 사천왕·여러 하늘과 대중들이 정법화경 설법을 듣고자 했으니 이에 부처님께서 모든 증생을 가엾게 여기고 국왕을 어여삐 여겨 모두 교화시켜 도에 들게 하고자 했느니라.

또한 족성자여, 두 태자는 어머니 처소를 찾아가서 합장한 채 말쑤를 올렸느니라.

‘바라옵건대 저희의 뜻을 굽어 살피시어 자비심을 베푸소서. 저희들은 오로지 몸과 마음을 전일(專一)하게 하기 위해 부처님을 찾아가서 친견하고자 하옵나이다. 또한 머리 숙여 귀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래께서 천상천하의 모든 증생을 위해 널리 정법화경 가르침을 류포하고자 화오니 마땅히 부처님을 받들어 정법화경을 청법하고자 하나이다.’

그러자 리구시 정후가 두 태자에게 말했다.

‘너희들의 부왕은 외도에 뜻을 두어 사되게 범지의 가르침을 즐겨 믿어 성내거나 한을 품고 있으므로 찾아가기 어렵겠구나.’

이에 두 태자는 한마음으로 합장한 채 다시금 어머니께 말했다.

‘저희들은 박덕해서 사된 소견, 의롭지 못한 집안에 태어나게 되었사옵니다. 저희들은 본시 법왕자이어서 마땅히 경전에 실린

도(道)로써 혼탁한 세속을 정화시켜 거짓을 되돌려 참으로 지향시켜야 하는 불자이옵니다.’

그러자 리구시 정후가 두 태자에게 말했느니라.

‘훌륭하구나, 그대들이야말로 참으로 효자이니 부모를 위해 자비심으로 제각기 신족을 나타내어 아버지가 혼연하게 보아 마음이 열리게 해라.’

이에 두 태자는 함께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 머리 숙여례를 올리고 수업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두 태자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몸을 솟구쳐 허공에 머물렀으니 땅으로부터 칠인(七仞) 떨어졌느니라. 부모를 연민하게 여겨 각자 위엄있는 변화를 보여 허공에서 들이 함께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경행하기도 하고 또 몸위로 불이 나오고 아래로는 물이 나오기도 하다가 위로 물이 나오고 아래로 불이 나오기도 했느니라. 대광명을 놓아 멀리까지 비추기도 했고 장대한 몸을 나투었다가 다시 작게 되기도 했고 허공으로부터 내려와 땅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느니라.

두태자는 물 속으로 들어가 땅으로부터 솟아나기도 했고 허공에 처했으면서도 마치 땅을 밟듯 했느니라. 두 태자가 이처럼 변화를 일으켜 신족을 나투었기에 부모님을 개화시키게 되었느니라.

그때 부왕은 두 태자가 이와 같이 신족 변화와 위덕(威德)을

나타내자 마음으로 크게 기뻐해서 착한 마음이 생겨나서 몸소 두 태자를 향해 합장한 채 말했느니라.

‘그대들은 어느 스승으로부터 배웠느냐.’

그러자 두 태자가 부왕에게 말씀을 사뢰었느니라.

‘대왕께서 저희의 스승을 알고자 하시오니 총수뢰음속화혜왕 여래지진이 저희의 스승이오니 지금 보배 나무 아래 법좌에 자리 하셔서 사부대중과 여러 하늘, 대중을 위해 널리 정법화경의 가르침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 부처님이 저희의 스승이십니다.’

그러자 왕이 두 태자에게 말했느니라.

‘내가 그대들의 스승을 찾아가서 대성의 정진무상(正眞無上)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니라.’

이에 두 태자는 허공으로부터 내려와 어머니 처소에 이르러 합장한 채 말씀을 아뢰었느니라.

‘위덕 갖추신 어머니시여, 부왕을 교화시켜 마음에 무상정진의 도를 내게 했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도교(道敎)와 성존(聖尊)의 업 성취하게 되었나이다. 바라옵건대 저희들은 부처님께 출가해서 사문이 되고자 합니다.’

이어 두 태자는 어머니를 위해 계송을 읊었느니라.

어머니, 저희들이 청하옵나니
 출가해서 사문이 되고자 하나이다.
 여래는 만나뵈기 어렵사오니
 반드시 정밀하게 배우려 하옵니다.
 신령한 서화(瑞華) 피는 것처럼
 만나 친견하기 어려워
 서화 피기보다 어렵사오니
 찾아뵈울 수 없사옵니다.

이에 리구시 왕후가 계송을 통해 말했느니라.

내가 그대들의 청 들었으니
 훌륭한구나, 곧 떠날지니
 성인 친견하기 어렵기에
 내 또한 출가하리라.

그때 두 태자는 이 법을 칭송하고 찬탄해서 부모님께 보답했으니
 거듭 부왕과 어머니께 말씀을 사퇴했느니라.

‘바라옵건대 두 어른이시여, 함께 한마음으로 총수뢰음속화해
 왕 처소를 찾아가셔서 마음을 급혀 일시에 세존을 찾아뵈고 머리

속여 귀명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두 분께서는 부처님 만나뵙기 어려운 줄 알고 있사오니 마치 신령한 서화(瑞華)가 피는 것과 흡사하옵니다. 또한 여의최상명주(如意最上明珠)와 같이 부처님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만나옵기 어렵사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극도에 찾아와서 태어나게 되었사오니 마음으로 출가하는 공덕이 제일이나이다. 이런 까닭에 마땅히 어려움 없이 허락해 주옵소서.

곧 가히 서로 허락을 구하고자 답해서 말하되 훌륭합니다. 출가하여 배우고 깨달아 애욕을 버리고 세속의 업을 버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래의 복덕은 무량하여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세간에 출현하신 부처님 만나뵙기 어렵고 팔난(八難)에서 벗어나 한가하고 조용한 시간을 얻기도 어려워 마치 죽었다가 다시 갱생하는 것과 같사옵니다.’

그러자 부왕과 왕후가 태자에게 허락했노니 때를 적절하게 하라고 말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족성자여, 그때 정부정왕의 왕궁 안에 팔만사천 중인과 채녀(婬女)가 있었으니 숙명(宿命)에 본덕(本德)을 심어 모두 정법화

경을 수지했는데 본래 도기(道器)였느니라.

리구목(離垢目) 태자는 숙명에 본래 공덕을 쌓아 종래에 한량
이없었느니라.

리구장(離垢藏) 태자는 무양수 백천억해 겁에 걸친 지난날에
불법을 받들어 봉행해서 증생으로 하여금 모든 악취(惡趣)를 저
버리고 삼매 정정(正定)을 닦게 했느니라.

증생이 모든 악취를 저버리고 삼매 정정을 닦음이란 무엇을 뜻
하는가.

그 왕의 정후(正后) 두 태자의 어머니 리구시(離垢施)는 십방
세계 부처님의 도, 심오한 경장(經藏), 무극의 도와 지혜를 깨달
아 방편으로 너자의 몸으로 나타내게 되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즉성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정부정왕은 두 태자가 보여준 신족을 보고 여래지진(如
來至眞)의 법에 교화되어 세속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해탈하게
되었나니 모든 맹명(盲冥)이 도의 밝음에 들어가 마음을 곧 발하
게 하였느니라.

리구시 정후는 궁인·채녀·군신(群臣)·백관(百官) 등 권속
사만 이천 명의 무리와 더불어 두 태자를 따라 일시에 함께 부처
님 처소에 찾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한곳에 물러나 앉았으
니 본래의 상위(常位)였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정부정왕이 무수한 권속과 함께 스스로 귀명함을 보시고 그 본행(本行)에 의한 지난날의 인연을 보시고 설법하셔서 그 병에 맞게 약을 주시매 각기 마음이 열리게 되어 혼연히 떨 듯이 기뻐 착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국왕, 정후 리구시, 두 태자, 궁인, 채녀, 모든 권속은 나라와 왕위를 저버리고 사문이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사문이 되어 팔만 사천 년 동안 도업(道業)을 닦아 정법화경의 요체를 사유 관찰했고 독송해 받들었으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조금도 어김이 없었느니라.

그때 정부정왕은 삼가 정법화경을 부지런히 받들어 닦아 그 권속과 함께 팔만사천 년 동안이나 지속해서 온갖 덕의 근본과 청정한 삼매 정정(正定)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이 정정에 이르게 되매 그 몸이 즉시 허공으로 솟아올라 땅으로부터 사장(四丈) 구척(九尺) 떨어진 채 허공에 머물러 저 멀리 총수뢰음숙화혜왕(總水雷音宿華慧王) 여래지진께 말씀을 올렸느니라.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두 태자는 저의 성사(聖師)로서 저희 집안을 교도(教導)하여 그 은덕을 입었사오며 신족을 나투어 변화를 보여 주었기에 이 인연으로 마음이 열려 세속에서 벗어나도에 들어가게 되었사옵니다. 불법의 가르침을 받들어 온갖 액

난을 다스리고 불법의 룰(律)에 수순해 무극의 이치에 굳게 머물게 되었나이다.

여래를 받들어 경법을 수지하여 지성무개선사(至聖無蓋善師)가 되었으니 두 태자는 아들의 모습을 나투어 저의 집에 태어난 것일 뿐 지난 생에 본래의 덕을 밝게 알아 부처님의 인자함을 이은 것이기에 범부가 가히 헤아릴 일이 아니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셨다.

‘그와 같고 그와 같노라, 대왕이여. 대왕이 말한 바와 같이 두 태자는 지난날 덕을 심은 까닭에 시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인해 왕과 그 권속, 모든 증생을 개화시키고자 했노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느니라.

“족성자와 족성녀가 이 경전을 배워 태어난 곳에서 시종일관 주선(周旋)해서 쉽게 선사(善師)를 얻어 세존의 가르침을 나타내 보여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를 건립하여 모든 증생을 개화시켜 해탈케 하리니 이는 미묘한 무극의 업으로 점차 가르침이 전수되어 점점 성취되어 지극한 성체무극지처(聖諦無極之處)를 얻게 되고 불도 법왕을 만나게 되며 이로 인해 선사(善師)를 만나 여래의 경법을 얻게 되리라. 권조(勸助)의 은택으로 인해 이제 왕은 두 태자를 만나게 되었느니라.

족성자들이여, 전생에 이미 강변 모래알의 룩십오억 백천조해

무수한 여래 지진을 받들어 공양 올렸고 또한 정법화경을 수지하여 중생을 가없이 여겼으니 중생이 샅된 소견 구십륙 가지에 빠져서 스스로 구제하지 못하는 까닭에 깨우쳐 교화시켜 정견(正見)에 머물게 하여 수행을 닦아 불도를 구하게 했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 정부정왕은 저 세에 온갖 공덕을 찬탄해 허공에서 열 손가락을 합장한 채 부처님께 아뢰었느니라.

‘바라옵건대 부처님이시여, 말씀해 주소서. 여래지진께서는 본래 지난 생에 어떤 공덕을 쌓았기에 성인의 지혜가 뛰어나나니까. 미간 사이에서 대광명을 나투어 무한한 극토를 비취 눈으로 밝게 십방세계를 보시었고, 그 미간 사이의 백호는 눈처럼 희고 유연하고 가늘고 뛰어나서 광택이 평정(平政)해 비치지 않음이 없사오니 세존의 존안은 햇빛처럼 총만했고 편안한 도목(道目)은 초생달처럼 빛나 모든 것을 깨뜨려 싫어하는 일이 없었사옵니다.’

이어 국왕은 다음의 계송을 읊었느니라.

그 훌륭한 공훈

백천억해에 걸쳐

허공마저도 비유할 수 없어
그 지혜 한량없나이다.

부처님께서도 계송으로 답하셨느니라.

전생의 행 증정(中正)해
평등하게 포시(布施) 베풀었기에
미간 사이에서 광명 나투어
무한하게 비추었나니.

눈의 밝음
해와 달같고
그 눈 초생달 같아
십방극토 꿰뚫어 보리라.

그때 찬탄을 마친 극왕은 합장한 채 부처님께 아뢰었느니라.

‘미증유에 이르러 여래지진(如來至眞)의 가르침은 자비가 지극해 불가사의한 공덕이 구족되어 도의(道義)가 펼쳐지고 법금(法禁)이 시설되어 아무런 죄나 재앙이 없게 되오니 기나긴 삶의 여정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되나이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마음이 방일하지 않아 자재함을 얻어 샅된 길에 떨어지지 않고 자만심을 버리고 허위(虛僞)를 따르지 않고 또한 성냄이나 한도 없사오며 샅된 마음, 무익한 업을 일으키지도 않나이다.

저희 나라에는 일이 많으나 출가해서 다시 궁궐로 돌아가지 않겠사오며 거듭 귀의해서 공양 올리겠나이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매우 훌륭합니다.’

이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 숙여 부처님 발에 례(禮)를 표했느니라. 왕의 정후 리구시는 몸에 걸친 백천가지 보배 영락을 풀어 부처님 주위에 뿌렸느니라.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칠보 장막을 화성(化成)시켰고 진기하고 오묘한 장막을 화성시켜 자연히 상(床)이 마련되어 진기한 좌구(坐具)가 무수하게 준비되었는데 여래께서는 윗자리에 앉으셨느니라. 그때 국왕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느니라.

‘미증유에 이르러 세존께서 장막 안에 계시는 구나. 여래를 보니 지극히 단정하셔서 위신력이 출증하여 광명으로 장엄된 얼굴 빛이 뛰어나고 용모가 총만해 청정하기 이를 데 없구나. 원컨대 모든 중생이 이 복을 받았으면…….’

그러자 세존께서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대들은 정부정왕을 보고 있는가. 일심으로 합장한 채 부처님 앞에 머물러 있구나.’

‘모두 그러하옵니다’ 라고 답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비구들이여, 왕은 지금 생에 비구의 모습을 나타냈으니 장래에는 성불할 것이다. 그 명호는 종제왕(種帝王)여래 지진등정각 · 명행성 · 선서 · 세간해 · 무상사 · 도법어 · 천인사 · 불세존이리라. 그 불국토는 광보(廣普), 겁의 명칭은 초왕(超王)이리라.

그때 그 부처님은 보살 대중이 무수해 한량없고 성문 대중도 무양수이리라. 그 불세계는 손바닥처럼 평등해 조금도 경사가 없고 모래 · 자갈 · 돌이 없으리라. 성불하실 때 위신력이 출증해 광대무극하여 그 광명의 밝기가 이와같느니라.”

그때 능인 여래께서 족성자에게 말씀하셨다.

“그 당시 도의 마음을 발한 정부정왕이 어찌 다른 이일까 보나. 이런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바로 지금의 련화수보살이 바로 그이니라. 그 당시 리구시 왕후를 알고자 하는가. 광조엄식(光照嚴飾)보살이 그이니, 항시 보살들은 중생들을 가없이 여기는 까닭에 저 국토에 태어나 중생을 깨우쳐 교화시켜 제도하고자 했느니라.

그 당시 두 태자를 알고자 하는가. 지금의 약왕보살과 초약

(超藥)보살이 그이니라.

또한 즉성자여, 약왕보살과 초약보살은 공덕이 뛰어나 이와 같이 무한하나니 무양수 백천억해 여래의 주위에서 온갖 덕의 근본을 심었기에 두 정사(正士)의 도와 덕은 구족하게 갖추어져 불가사의하느니라.

만일 두 정사의 명호를 듣고 수지해 마음에 품는다면 모든 대중이 공경할 것이니, 이와 같은 학사(學士)에게 천상과 세간의 사람이 모두 귀의하리라.”

부처님께서 지난날의 숙세에 본행(本行)을 설하실 때 팔만사천 명이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청정한 법안(法眼)을 얻게 되었다.

26. 락보현품(樂普賢品)

그때 보현보살이 동방으로 강변 모래알처럼 무수한 불국토를 지나 여러 보살들과 함께 왔는데 불국토가 진동했고 갖가지 보배 연꽃이 비처럼 쏟아졌고 백천억해 풍악이 울렸고 노래로 여래의 공덕을 찬탄했고 개사(開士)를 이어받아 그 광대한 신족이 지극한 변화를 일으켰다. 그 보살의 몸은 위신력이 뛰어났으며 성인의 가르침은 미묘해서 널리 십방세계를 비추었다.

여러 하늘 · 룡신 · 건타라 · 아수륜 · 가류라 · 진타라 · 마휴륜 · 사람인 듯 아닌듯한 존재와 함께 왔는데 각기 그 권속을 거느렸고 각기 불가사의한 신력을 나타내 보였으니 령취산(靈鷲山)에 이르러 부처님 처소를 찾아가서 머리 숙여 부처님 발 아래 례(禮)를 표하고 부처님 주위를 일곱 번 돌고 나서 부처님께 말씀을 아뢰었다.

“저는 보초위왕(寶超威王)여래의 불국토로부터 왔사오니 지금 세존께서 정법화경 설법하심을 알게 되어 감인세계를 찾아와 청법하게 되었나이다. 또한 무수한 백천 보살과 함께 도의(道義)를 즐겨 듣고자 하옵니다.

훌륭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자비를 내리셔서 정법화경 가르침을 내려 주소서. 녀인(女人)은 어떻게 수행해야

이 경전을 받들 수 있겠나이까?”

이에 부처님께서 즉시에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족성자여, 너인(女人)은 네 가지 법을 구족해야 이 경전을 얻을 수 있느니라.

네 가지 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항상 부처님의 생각을 보호해야 하고, 둘째 공덕을 쌓아 게으름 피우지 말아야 하고, 셋째 능히 분별해서 중요한 요체를 중구해야 하고, 넷째 널리 중생을 보호해서 마음을 내지 않은 이를 마음 내게 해야 하니라.

바로 이것이 네가지 법으로 이와 같아야 경권을 얻을 수 있느니라.”

그러자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최후의 말세 오락악세에 어느 비구가 이 경전 수지하여 오랫동안 옹호한다면 길상(吉祥)을 얻게 되고 광폭한 일이 제거되고 독약 또한 듣지 않아 해칠 기회를 얻을 수 없으리니 이와 같이 수지한다면 누구나 보호를 받아 마왕 파순이 난리를 피우지 못하리이다.

여러 관속(官屬) · 귀신 · 룡 · 구변혼귀(溝邊溷鬼) · 고도(蠱道) · 부주(符咒)가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리니 항상 일심으로 법사를 옹호하여 안온케 하나이다.

만일 어느 비구가 이 경전을 배워 앉거나 일어서거나 경행하거나
나 항시 정진을 닦고 코끼리·말 수레를 타고 이 경전을 보호하
는 곳에 가서 보살과 그 권속과 함께 둘러싸인 채 법사 비구에게
나아가나이다.

이 경전을 수지해서 사유한다면 정법화경 한 구절의 뜻도 망실
하지 않게 되리니, 이 학사(學士)있는 곳에 수레를 타고 가서 눈
으로 직접 보게 되어 이 경전을 듣고서 크게 환희하여 부지런히
배우리니 마땅히 법사를 옹호해서 삼매를 얻게 되나이다. 만일
회전(回轉) 총지를 얻고 마땅히 백천억 주선(周旋) 총지를 성취
한다면 일체제음(一切諸音) 총지를 깨닫게 되나이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최후의 말세 오락악세에 나머지 오십
년 동안 비구·비구니·청신사·청신녀가 이 경전을 수지해서 동
학(同學)에게 보이고 서사하고 흠모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
게 되나이다.

최후의 말세 나머지 오십 년에 능히 정법화경을 수지한다면 마
음으로 그 뜻을 이해하여 정진을 거듭해서 이십일일 동안 제행
(諸行)을 갖춰 이루게 되리니 이십일일 동안 부지런히 마음을 법
에 둔다면 저절로 뛰어난 덕이 현시되어 륝통(六通)을 타게 되리
니 여러 대소 권속이 서로 따르게 되어 법사를 찾아가서 법사를
권조(勸助)하게 되리니, 이십일일 동안 이 법을 닦아 마음이 열

러 총지(總持=타라니=주문)에 이르게 되나이다.

만일 법사가 증생을 교화하지 못한다면 권조를 입지 못해 능히 깨우쳐 교화하지 못하여 사람도 얻지 못하리니 법사가 옹호를 받지도 못하여 안온하지도 못하나이다.

그러므로 배우는 이는 항시 정진해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계승해 법사를 지켜야 하리니 법사가 부처님의 정법을 수지해 부지런해 정진해 총지 법문을 듣고자 하나이다.

주문을 다음과 같나이다.

무아 제아 인아방편 빈인화제 심유연 유약
無我₁ 除我₂ 因我方便₃ 賓仁和除₄ 甚柔軟₅ 柔弱₆

구견 제불인 제총지 행증제설 개회전 지집회
句見₇ 諸佛因₈ 諸總持₉ 行衆諸說₁₀ 蓋迴轉₁₁ 盡集會₁

제중취 무앙수 제제구 삼세수등 월유위
₂ 除衆趣₁₃ 無央數₁₄ 計諸句₁₅ 三世數等₁₆ 越有爲₁₇

거제법 효증생음 사자오락
舉諸法₁₈ 曉衆生音₁₉ 師子娛樂₂₀

세존이시여, 이것을 총지라 일컫습니다. 어느 보살이 이근(耳根)으로 이 총지를 듣는다면 귀로 들리는 바가 보현보살이 건립한 바임을 곧바로 알게 되나이다.

정법화경이 천하에 류포(流布)되어 염부리(閻浮利)에서 이 경전을 만나게 되면 보현보살의 위신력으로 우리들이 이 경전과 마주치게 되었음을 생각해야 하고 보현보살이 신족을 행해서 이 대중들이 오묘한 경전을 얻게 된 것을 유념해야 하나이다.

이런 증생들은 무수한 부처님 주위에서 온갖 덕을 쌓았기에 여래지진께서 손으로 그 머리를 어루만지나이다.

만일 필사해서 손에 수지한다면 부처님 몸을 받드는 격이니 도법(道法)을 존중해 이 경전을 받들어 서사하고 사경한 다음 뜻에 맞게 이해해야 하리니 여기서 수명이 다하면 두술천(兜術天=도리천)에 태어나게 되어 천상에 태어나자마자 팔만 사천 하늘 사람과 옥녀(玉女)가 그 앞에 나아가 공양 올리고 북과 거문고를 울리며 노래 부르리니 천자의 자리에 앉아 옥녀들과 함께 오락을 즐기나이다.

즉성자가 단지 사경한 공덕이 이와 같을진대 하물며 독송해 그 뜻에 맞게 사유함에 있어서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일심으로 정법화경을 부지런히 익혀 이 경권을 사경하고 항시 숙고해서 일체를 잊지 않는다면 마땅히 이 사람에게 레(禮)를 표해야 하리니 이 경전을 서사한 인연으로 천 분의 부처님께서 손을 내밀 것입니다. 임종할 때도 천 분 부처님을 보게 되고 평안하게 유력하게 되어 악취(惡趣)에 떨어지

지 않나이다.

수명이 다한 이후 두술천(兜術天)에 태어나리니 천상에 태어나 자마자 팔만 사천 옥녀 대중이 그 앞에 나아가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 불러 그 덕을 칭송하고 여러 옥녀와 함께 법을 주고받으면서 즐기게 되나이다.

족성자여, 이 경전을 사경한 공덕이 이와 같거늘 하물며 독송해 그 뜻을 사유함에 있어서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부지런히 정법화경을 사경하고 류포하고 숙고해 받들어야 구족하게 되나니 정밀하게 일심으로 사유해 뜻을 어지럽게 하지 않아야 천 분 부처님께서 손을 내밀게 되고 임종할 때 그 앞에 천 분 부처님이 나투셔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나이다.

수명이 다하면 두술천에 태어나게 되어 미륵 부처님 곁에서 보살의 몸을 성취하리니 삼십이상으로 그 몸을 장엄하고 천억 옥녀와 그 권속이 주위를 에워싸나이다.

그러므로 지혜있는 사람이라면 항시 이 경전을 부지런히 사경하고 그 뜻을 숙고해야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권을 사경하고 독송한다면 공덕이 무량해 한량이 없사옵니다. 이와 같이 뛰어난 까닭에 이 경전을 서사해 수지하여 마땅히 공덕을 얻게 되옵니다. 저는 이런 까닭에 이

경전을 건립해서 큰 뜻을 써서 도법을 설새 없이 생각하고 천하의 염부리(閻浮利) 안에 류포(流布)하나이다.”

이에 능인 여래지진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그대가 발심해 자비의 마음을 내고 부지런히 정진해 장래의 보살을 보호하고 생각이 미치지 않는 이들에게 이 법을 권도(勸導)해 그 마음으로 무극의 자비를 품고서 발심한 이후 무량한 행을 섭수하고 각기 경권을 손에 들고 옹호하는구나.

보현보살의 명호를 수지해 널리 류포한다면 마땅히 능인 여래를 만나게 되리니 일찍이 이와 같은 법을 들었기에 능인 부처님께 공양 올려 받들고 경도(經道)를 선포하고 강설하고 찬탄하니 훌륭하구나.

여래가 그 머리를 쓰다듬고 마땅히 보현이라 일컬으리니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건립된 바로 부처님께서 의복으로 덮어 주리라. 여래의 가르침을 수용해 세속 일을 즐기지 않고 유희도 즐기지 않고 가무(歌舞)도 즐기지 않고 밖으로 나다니지도 않고 도살장, 돼지·닭·집오리를 키우는 곳에 들어가지도 않으며 녀인(女人)과 무익한 일을 하지도 않느니라.

이 경전 설법을 들으면 서사해 청법하고 수지 독송하고 설해 전해주어 이와 같은 일을 즐기니 자연의 법을 사유해 받들고 인

연 따라 전일(專一)하게 저절로 복력을 일으키니 모든 증생이 바라보고서 공경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만일 어느 비구가 이 경전을 수지하여 음욕·성냄·어리석음에 얽매이지 않고, 탐욕·질투·자만심에 얽히지도 않고, 교만심·강강(剛強)함·자용(自用)·강량(彊梁)함·삿된 소견을 품지도 않으면 자신의 이익에 지족(止足)하게 되리라.

어느 법사가 수행을 닦아 현명함에 이르러 최후의 말세에 남은 오십 세 동안 오락으로 들든 속세 가운데 어느 비구가 이 경전을 수지한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사유하여 이해하게 되리라.

모름지기 모든 족성자들은 도장(道場)에 이르러 마구니 권속을 조복시켜 법륜을 굴러 법고(法鼓)를 울리고 대법라(大法螺)를 불어 수시로 법우(法雨)를 내리리라.

사자좌의 법좌에 처해 최후의 말세에 이 경전을 수지하면 공덕이 이와 같으리라. 또한 비구는 리양(利養)에 기대지 않고 의발을 탐하지도 않으리니 이런 법사는 뜻이 질직(質直)하여 아첨하지 않고 어리석음에 떨어지지도 않으리라.

어느 비구가 세세생생하도록 총명하고 지혜로워 귀머거리나 맹인으로 태어남이 없고 현재에 아무런 근심이 없으리니 그 사람은 현재 이와 같으리라. 만일 이 경전을 훼손하고 수지(受持)한 사

람을 꾸짖고 또한 다시 비방한다면 그 사람은 현재의 몸에 라병(癩病)이 걸리리라. 이 경전 서사한 것을 보고 불가하다고 비난해 조롱한다면 태어난 곳에 그 몸이 결루(缺漏)되고 불에 타기도 하고 항시 소송을 받게되고 코는 들려지고 손과 발은 이지러지고 눈과 입은 바르지 않고 몸에는 냄새가 나고 육신에는 등창이 생겨 의약품으로 치료되지 않아 그 고통을 말로 하지 어려우리라.

설령 이 경전을 설해 듣는 자 있더라도 불가하다고 여기면, 악이나 불선(不善)만 증장되고 말한 바가 정성스럽지 못하고 말이 참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러 중죄를 범하는 까닭에 무량한 재앙을 얻게 되어 있는 곳이 평안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보현이여, 어느 비구가 이 경전을 수지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공경해 받든다면 마치 여래를 봉양함과 같느니라.

지금 현재 부처님께 귀명하지 않음이 없으니 저 법사에 귀의함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 이에 부처님 가르침에 응하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이 락보현품을 설하실 때 강변 모래알의 백천억해 배나 되는 보살들이 모두 총지를 얻었다.

27. 축루품(囑累品)

그때 능인 세존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니 보살들이 그 색상(色像)과 같이 신족을 나타내 보이시어 범회 대중을 들어 오른쪽 손바닥에 두고서 찬탄하셨다.

“여러 족성자여, 부처님은 불가사의하게 무수한 백천만억 겁 동안 공덕을 쌓고 행을 지어 무상정진지도를 성취해 무극을 얻었으니 제현(諸賢)을 취해 오른쪽 손바닥에 두고서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으니 마땅히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여 대중을 위해 분별하여 설하여 증생으로 하여금 널리 보고 듣게 하여라.

또한 족성자여, 마음에 아무런 집착이 없어 아무것도 감추지 않아 정법화경에 뜻을 두어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면 부처 지혜, 여래의 지혜, 자재한 지혜가 갖추어져 무상(無上)·무극(無極)의 법포시를 베풀고 마땅히 여래의 행을 배워 아무런 애석함, 시기, 질투, 애증함이 없으리니 널리 이러한 여래 지혜를 나타내 보이거라.

마땅히 두루해서 이르지 못한 바에 이르고 가지 못한 곳에 이르러 이 경전 가르침을 삼가 청수(聽受)하여 믿지 않는 자를 마땅히 믿게하고 증생을 권면해서 세존의 법에 듣게 하여라.

여러 족성자여, 이와 같이 한다면 여래께서 건립한 바를 알게 되리라.”

그때 보살들은 능인 세존께서 이처럼 찬탄하심을 보고서 떨 듯이 기뻐 공경하여 몸을 굽히고 머리 숙여 합장한 채 스스로 능인 부처님께 귀의하여 한 목소리로 아뢰었다.

“바라옵건대 세존께서 가르치신 바대로 조금도 어김없이 받들어 행하여 부처님 말씀에 구족하게 순종하겠습니다오니 심려 놓으소서.”

보살들은 이와 같이 세 번 반복하고 도달한 그곳에서 십방으로 주선(周旋)하여 성인의 가르침을 반포하였다.

그때 능인 정각께서는 모든 것을 발유(發遺)하였으니 십방세계에서 찾아온 부처님들은 제각기 편의에 따라 편안함을 취했다.

그때 십방의 부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다.

“여래 또한 마땅히 편안함을 따랐으니 여래 정각·다보세존·칠보 강당·부처님의 탑묘는 즉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또한 여래께서는 편안함에 따르십시오.”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설하실 때 십방의 무량한 불세계에서 찾아온 대성께서는 나무아래 사자좌에 자리하셨다. 다보여래와 대사들, 그리고 제여학행(諸餘學行)등은 부처님 앞에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하고 무량하였다. 또한 땅속에서 솟아나온 보살, 여러

성문, 사부대중, 하늘 · 룡신 · 아수륜 · 건담화 · 세간의 대중은 부
처님 말씀을 듣고 환희하지 않음이 없었다.

28. 범지품(梵志品)

이때 능인불(能仁佛)께서 대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우리는 헤아리기 어려운 지나간 겁 동안에 범화경을 조금도 나태함이 없이 구하였느니라. 어느 때 국왕이 되어 대법륙도무극(大法六度無極)의 이치를 받들어 닦았고 금·은·수정·류리·호박·산호·주옥·차거·마노와 머리·눈·피부·손·발·지체(支體), 처자(妻子)·남·녀·코끼리·말·수레를 포시(布施)하여 신명(身命)을 아끼지 않았느니라.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수명을 헤아리기 어려웠으니 나는 법을 구하기 위해 국가와 왕위를 버리며 태자에게 말기고 대전(大典)을 얻고자 북을 치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나를 위해 대전의 가르침을 연설하면, 내가 마땅히 노비가 되어 생활용품을 공급하고 시키는대로 하겠다고 선포하였더니, 그때 어느 범지(梵志)가 기한에 알려되, 나에게 대전(大典)인 정법화경(正法華經)이 있으니 만약에 능히 노비가 되어 나의 지혜를 마땅히 판가름해보라했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명에 따라서 범지를 받들고 모시며 물·음료·음식등 생활필수품을 얻었고 소쇄응대(掃灑

應對)라든가 채취한 과일을 받아서 공급하였으며, 양식을 저축함에 있어서도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으며 천년 동안이나 받들어 모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게 했느니라.

부처님께서 게송을 읊으셨다.

북을 울리고 목탁을 쳐
 원근에 두루 선포하노니
 대전(大典) 정법화경(正法華經)
 구하고자 하니
 만일 이 경전 내려준다면
 내가 마땅히 노복이 되어
 집안일을 맡아서
 생활용품 공급할지니
 기쁜 마음으로 그 법문
 들어 게으름 피움이 없이
 공양을 바쳐 올려
 몸과 힘을 아끼지 않으리.
 정법화경의 가르침
 듣고 수지하여

십방세계까지 미치고도
 남음이 있었느니라.
 그 왕은 정진 거듭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옷, 음식, 목숨까지 바쳐
 비단옷 구함이 없이
 증생을 가없이 여겨
 구제받지 못한 자
 찾는 그 즉시
 정법화경 얻게 했네.

이어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당시의 국왕이 바로 나 자신이고 범지는 바로 조달(調達)이니라.

이제 나는 륝도무극(六度無極)의 대자대비를 구족하게 갖췄으니, 사등심(四等心), 삼십이상 팔십종호(八十種好), 자마금색(紫磨金色), 십종력(十種力), 사무소외(四無所畏), 사사불호(四事不護), 십팔불공(十八不共), 위신존중(威神尊重), 도탈십방(度脫十方)이 모두 조달(調達) 은덕의 힘이었느니라.

조달은 이후 무앙수 겁을 지난 뒤 성불하리니, 그 명호는 천왕

(天王)여래 · 지진등정각(至眞等正覺) · 명행성(明行成) · 선서(善逝) · 세간해(世間解) · 무상사(無上士) · 도법어(道法御) · 천인사(天人師) · 불증우(佛衆祐)이리라. 세계 명칭은 천구(天衢)이리라.

그때 천왕여래는 널리 경법을 설법하여 강변 모래알처럼 무수한 중생들이 아무런 집착 없이 법을 증득했으니 무수히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의 뜻은 연각에 있었고 중생들 모두 무상정진도의 마음을 일으켜 불퇴전의 지위에 오르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이십중겁이고 멸도하신 이후 정법의 유지는 이십중겁으로 육신의 뼈를 흩어버리지 않고 사리와 함께 모아 칠보탑을 세우리니 그 높이는 육십(六十)리, 둘레는 팔십(八十)리리라. 널리 천하 사람들이 칠보탑을 찾아와서 향,꽃,풍악,노래로 공양 올려 그 공덕을 찬양하고 머리숙여 탑에 례(禮)를 올렸으니 무수한 중생들이 아무런 집착없이 법을 증득하고 무양수 대종의 뜻이 연각승에 있고 무량한 하늘 사람이 불가사의하게 무상정진도의 마음을 일으켜 불퇴전의 뜻을 세우리라.

족성자와 족성녀는 이 정법화경의 가르침을 듣는다면 마음이 확연해져 의심이 소멸되고 지옥 · 아귀 · 축생에 떨어지지 않아 곧 십방세계의 부처님으로부터 정법을 수지하게 되리라. 천상이나 세간의 부귀한 중생을 태어나거나 부처님 앞에 자연히 화생해 칠

보련꽃으로 피어나리라.”

그때 다보세존을 좇아 하방(下方)에서 온 지적(智積)보살이 부처님께 본토(本土)로 돌아가겠다고 말씀을 올리자, 이에 능인불(能仁佛)께서 지적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보수동진보살이 있으니 기다렸다가 서로 만나 보고 함께 경전의 가르침을 간략하게 주고받은 뒤 본토로 돌아가도록 하라.”

그때 보수보살이 칠보련화대에 앉아 천 가지 잎사귀로 된 대여거륜(大如車輪)을 타고 있었고 여러 보살들이 함께 보배련화대에 앉은 채 대해의 룡궁으로부터 솟아올랐다. 보수동진은 권속과 함께 련화대에서 내려 두 부처님께 례(禮)를 올린 뒤 지적보살과 함께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지적보살이 보수보살에게 물었다.

“지내오신 바닷속에서 교화받은 대중은 얼마나 되나이까?”

“그 수가 무량해 헤아릴 수 없어 입으로 말할 수 없고 마음으로도 셀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머지않아 저절로 감응함이 있을지니 소설(所說)이 아직 끝나지 않아 련화대를 타고 바다로부터 솟아나와 허공 가운데 머무르고 그 련화대 위에 앉아있는 무수한 보살들은 여기 보수가 바닷속에서 교화를 시켜 큰 뜻을 발하게 하였으니 무상정진도의 마음을 발하게 하여 널리 허공 속

에서 대승의 일을 강설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성문의 뜻을 발한 자는 허공에서 제자의 행을 설하자 대승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보수보살이 곧이어 지적보살에게 말했다.

“바닷속에서 교화시킨 보살들을 이와 같이 현현시켰습니다.”

이에 지적보살이 게송을 읊어 물었다.

지인(至仁)의 지혜 무량하여

바닷속 대중들 교화해

성인의 뜻 드러내어

그 가르침 펼치셨나이다.

그러자 보수보살이 답했다.

“바닷속에서 단지 정법화경 가르침을 부연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지적보살이 또 물었다.

“그 법은 지극히 깊고 오묘해 헤아리기 어렵거늘 어떻게 해서 성불할 수 있었습니까?”

이에 보수보살이 답했다.

“룡왕에게 여덟 살 난 여자아이가 있었으니 지혜가 뛰어나 다

른 증생과 크게 달라 대승의 뜻을 일으켜 광대한 발원을 세웠으며 성품이 화기로우며 허등거림이 없이 곧바로 성불을 이루었습니다.”

지적보살이 물었다.

“제가 능인(能仁)을 살펴보건대 능인대사가 불도를 구하는 보살이셨을 때 공과 덕을 쌓고 조금도 쉽 없이 정진을 거듭해 헤아리기 어려운 겁을 지나서야 비로소 불도를 얻게 되었으니, 이 여자아이가 곧 바로 정각을 성취했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룡녀가 돌연 현현해 머리 숙여 례(禮)를 올리고 부처님 주위를 세 번 돌고 나서 한쪽으로 물러나 찬탄을 했다.

공훈과 복이 흘륭하시어

삼십이상 나투시니

모든 하늘들이 공경하여 받들고

신룡(神龍)이 우러르고

모든 증생들이

받들지 앎음이 없나이다.

저는 성불하여

설법 통해 증생구제하오리이다.

그때 사리불이 룡녀에게 말했다.

“그때 사리불이 룡녀에게 말했다.

“그대는 비록 무극의 지혜를 발하고자 하지만 성불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대의 몸은 여러 겁에 걸쳐 정진해 공적이 현저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성불하지는 못하리라.

왜냐하면 여인의 몸으로는 다섯가지 지위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니 첫째 천제(天帝), 둘째 범천(梵天), 셋째 천마(天魔), 넷째 전륜성왕(轉輪聖王), 다섯째 대사(大士)이니라.”

그러자 룡녀는 즉시 그 가치가 당시의 세(世)에 해당되는 여의주 하나를 부처님께 공양 올리자 부처님께서 곧 받으셨다. 룡녀는 사리불과 지적보살에게 말했다.

“제가 이 여의주를 세존께 공양 올렸을 때 부처님께서 빨리 받지 않았습니까.”

이에 둘이 함께 빨리 받았다고 답하자 룡녀가 다시 말했다.

“지금 제가 무상정진도를 취해 최정각(最正覺)을 성취하는 것이 이보다 빠를 것입니다.”

곧바로 룡녀는 남자 보살로 변하여 성불하여 삼십이상호를 구족하였고 국토의 명칭은 증생개견(衆生皆見)이었으니 참으로 괴

이한 일로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다.

그래서 무양수의 사람·하늘·룡·귀신이 모두 무상정진도의 뜻을 발하게 되었으니 삼천세계가 여섯가지로 진동하였고 삼만도적(三萬道迹)이 불퇴전의 지위를 얻어 무상정진도를 얻게 되었다. 그러자 사리불과 지적보살은 묵연히 말이 없었다.

관보현보살행법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느니라.

한때 부처님께서 비사리국(毗舍利國) 대림정사(大林精舍) 중각(重閣) 강당(講堂)에 계시사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되,

“3개월이 지난 후에 나는 마땅히 녀반(涅槃)에 드리라.”

존자 아난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바로잡고 두 손을 맞잡아 합장하고 부처님을 세 번 돌고 부처님께 례배(禮拜)한 뒤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되 눈도 깜박이지 아니함 이라.

장로(長老) 마가가섭(摩訶迦葉)과 미륵보살마가살(彌勒菩薩摩訶薩)이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장하여 례배(禮拜)하고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봄이라. 이때 삼대사(三大師)는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멸도하신 후 어떻게 해야 중생들이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며, 대승의 방등(方等) 경전을 닦고 행하며, 올바른 생각으로 일실(一實)의 경계를 생각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무상보제심(無上菩提心)을 잃지 않겠나이까.

또한 어떻게 하면 번뇌가 끊이지 않고 5욕(欲)에서 떠나지 못하

였을지라도 모든 근기를 맑게 하고 모든 죄를 멸하여 없앨 수 있으며, 부모에게서 받은 청정한 눈으로 5욕을 끊지 않고도 능히 모든 장애가 없는 청정한 일을 볼 수 있사오리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잘 듣고 자세히 들어서 이를 잘 생각하라.

여래가 옛적에 기사굴산과 다른 곳에서 이미 널리 일실(一實)의 도(道)를 분별하였으나,

지금 이 곳에서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이 대승의 무상법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과 보현행(普賢行)을 배우고 보현행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지금 마땅히 그 생각할 법을 설하리라.

만일 보현을 보거나 또는 보지 못한 사람과 죄를 소멸하고자 하는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마땅히 널리 분별하리라.

아난아, 보현보살은 곧 동방의 정묘(淨妙)국토에서 낳느니라. 그 국토의 상(相)은 잡화경(雜華經) 가운데서 이미 널리 분별하였거늘 내가 지금 이 경에서 간략히 해설하리라.

아난아, 만일 비구 비구니 우파새 우파이 하늘 룡 팔부(八部) 일체중생 들로서 대승(大乘)을 외우는 자, 대승을 닦는 자, 대승의 뜻을 일으키는 자, 보현보살의 색신(色身) 보기를 즐겨 원하는 자, 다보불(多寶佛)의 탑을 즐거이 만나보고자 하는 자, 석가모니 불과 분신의 모든 부처님 보기를 즐겨 원하는 자, 6근이 청정함

을 얻고자 원하는 자는 마땅히 이러한 관(觀)을 배울지니라.

이 관의 공덕은 모든 장애를 없애고 상묘(上妙)의 색(色)을 보리니, 삼매(三昧)에 들지 못하였을지라도 오직 외우고 가지는 까닭에 마음을 한결같이 닦고 익혀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잇달아 대승에서 떠나지 않음이 하루 내지 삼칠일에 이르면 보현을 보게 되리라.

무거운 장애가 있는 자는 칠칠(七七)일이 다한 후에야 보게 되며, 더 무거운 자는 일생에 보게 되며, 더 무거운 자는 2생에 보게 되며, 더 무거운 자는 3생에 보게 되나니, 이와 같이 가지가지로 업보가 같지 아니함이니, 이러한 까닭으로 다르게 설하느니라.

보현보살은 신량(身量)이 가이없으며 음성도 가이없으며 색상(色像)도 가이없으나, 이 나라에 오고자 하여 자재한 신통에 들어 몸을 줄여서 작게 함이라.

사파세계(娑婆世界)의 사람은 세 가지의 장애가 무거운 까닭에 지혜의 힘으로 화해서 흰 코끼리를 타느니라.

그 코끼리는 여섯 개의 어금니가 있고 일곱 개의 다리로 땅을 받치며 그 일곱 개의 다리 밑에는 일곱 개의 연꽃이 남이라.

코끼리의 빛은 아름다운 흰 빛이며 흰 빛 중에서도 으뜸이라.

파리의 설산(雪山)도 비할 바가 아니니라.

코끼리 몸의 길이는 4백 50유순이요, 높이는 4백 유순이며, 여섯 개의 어금니 끝에는 여섯 개의 목욕하는 못이 있고 하나 하나의 목욕하는 못 가운데에는 14개의 연꽃이 났으되 못과 같이 방정하고, 그 꽃이 활짝 피어 하늘의 수왕(樹王)과 같음이라.

하나 하나의 꽃 위에는 한 옥녀(玉女)가 있으니 얼굴 빛은 다홍과 같으며 천녀(天女)보다도 더욱 빛나며 손에는 다섯 개의 피리가 저절로 화(化)해 있음이라.

하나 하나의 피리에는 5백가지의 악기로 권속을 삼고, 5백의 새가 있으되 물오리, 기러기, 원앙새들이 다 여러 가지 보배의 빛을 하고 꽃과 잎 사이에 있음이라.

코끼리 코에 꽃이 있으되 그 즐기는 비유하면 붉은 진주 빛과 같으며, 그 꽃은 금빛이며 아직 피지않은 봉오리라.

이 일을 보고 또 다시 참회하며 지심(至心)으로 밝게 관하고 대승을 생각하되 마음에서 놓지 않고 쉬지 아니하면, 곧 꽃이 피는 것을 보되 금빛으로 빛남이라.

그 연화대(蓮華臺)의 꽃바탕은 견속가보(甄叔迦寶)와 묘범마니(妙梵摩尼)로 되어있고, 꽃술은 금강(金剛)의 보배로 되어있고, 화(化)하신 부처님이 연화대(蓮華臺)에 앉아 계심을 보며, 많은 보살이 연꽃술에 앉아있고 화(化)하신 부처님의 미간에서는 또한 금빛 광명이 나와서 코끼리 코로 들어가며 코끼리 코에서 나와

코끼리의 눈으로 들어가고 코끼리의 눈에서 나와서는 코끼리의 귀로 들어가고 코끼리 귀에서 나와서는 코끼리의 이마 위를 비치고 화(化)하여 금대(金臺)가 됨이라.

코끼리의 머리 위에는 세 사람의 화인(化人)이 있으되, 한 사람은 금륜(金輪)을 휘어잡고, 한 사람은 마니주(摩尼珠)를 가졌으며, 한 사람은 금강저(金剛杵)를 들었음이라.

저(杵)를 들어 코끼리를 어르지만 해도 코끼리는 곧 능히 걸어가되 발로 땅을 밟지 아니하고 허공을 밟아 놀되, 땅에서 일곱 자(七尺)를 떠 있으나 땅에는 발자국이 남아 있음이라.

발자국 속에는 1천 가지의 등근 바퀴 무늬가 다 구족하여 있음이라. 하나 하나의 바퀴 속에서는 큰 연꽃이 솟아나오며, 이 연꽃 위에는 한 코끼리가 화하여 나오되 또한 일곱 개의 발이 있어 큰 코끼리를 따라 감이라.

발들 들고 내림에 7천의 코끼리가 나와 권속이 되어서 큰 코끼리를 따라 쫓음이라.

코끼리의 코는 붉은 연꽃 빛이며, 위에 계신 화불(化佛)께서는 미간(眉間)의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은 금빛이라.

먼저와 같이 코끼리의 코로 들어가고, 코끼리의 코에서 나와 코끼리의 눈으로 들어가며, 코끼리의 눈에서 나와 다시 코끼리의

귀로 들어가며, 꼬끼리의 귀에서 나와서는 꼬끼리의 목 위에 이르러 점차로 꼬끼리의 등 위로 올라가 화(化)하여 일곱 가지의 보배를 갖춘 금안장(金鞍)이 되고 안장의 4면에는 일곱 가지 보배의 기둥이 서고 여러 가지 보배로 꾸며서 보배의 바탕을 이루고 바탕 가운데는 일곱 가지로 된 연꽃을 틀어 올렸음이라.

그 틀어 올린 연꽃 꽃술은 백 가지 보배로 이루어졌으며, 그 연화대(蓮華臺)는 큰 마니주(摩尼珠)라.

한 보살이 가부좌를 맺고 제시니 이름이 보현이라.

몸은 백옥색(白玉色)이고 그 광명은 50가지의 색이 나고 이것이 정광(頂光)이 됨이라.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는 금빛이 흘러나오고 그 금빛 끝에는 한량 없는 화(化)한 부처님이 계시고 모든 화(化)한 보살이 권속(眷屬)이 됨이라.

고요하게 서서히 걸고 큰 보배의 꽃을 비오듯이 내리면서 행자(行者) 앞에 이르러 그 꼬끼리가 입을 여니 꼬끼리 어금니 위에 있는 모든 못에서 옥녀(玉女)가 북과 거문고와 풍악을 울리고 노래 부르니 그 소리가 미묘하여 대승의 일실(一實)의 도(道)를 찬탄함이라.”

행자(行者)는 이를 친견(親見)하고 환희해서 경례하고 또 다시 심히 깊은 경전을 읽고 외우며 두루 십방의 한량없는 모든 부처

님께 례배(禮拜)하고 다보 부처님의 탑과 석가모니불을 례배(禮拜)하여 아울러 보현과 모든 큰 보살에게 례배(禮拜)하고 이 같은 서원의 말을하되,

“만일 내가 속세(宿世)에 복(福)이 있었으면 마땅히 보현을 친견하게 되리라. 원컨대 존자께서는 두루 널리 저에게 색신(色身)을 보이소서.”

이와 같은 원을 하고 주야 6시(時)에 십방 부처님께 례배(禮拜)하고 참회의 법을 행하며 대승경(大乘經)을 읽고, 대승경을 외우며, 대승의 뜻을 생각하고 대승의 일을 염(念)하며 대승 가진 자를 공경하고 공양하고,

일체의 모든 사람을 보되 마치 부처님을 생각하듯이 하고, 모든 중생을 부모를 생각하듯이 하니라.

이와 같이 생각하고 나자 보현보살이 곧 미간에서 대인상(大人相) 백호(白毫)의 광명을 놓으시니라.

이 광명이 나타날 때 보현보살의 신상(身相)이 단엄(端嚴)하여 자금산(紫金山)과 같고 단정 미묘해서 32상(相)을 다 갖추었음이라.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 큰 광명을 놓으사 그 큰 꼬끼리를 비추시니 그 꼬끼리도 금빛이 되고 일체의 화(化)한 꼬끼리도 또한 금

빛을 이루었다.

모든 화(化)한 보살도 또한 금빛이 됨이라.

그 금빛 광명이 동방의 한량없는 세계를 비추니 다 같은 금빛이라.

남서북방과 4유(維) 상하(上下)도 또한 이와 같음이라.

그 때 십방 하나 하나의 방위(方位)마다 한 보살이 있으되 여섯 개의 어금니를 가진 흰 코끼리 왕을 뵈으니 또한 보현과 같아서 다름이 없음이라.

이와 같이 십방의 한량없고 가이없이 가득히 화(化)한 코끼리도 보현보살의 신통력으로 경(經)을 가진 자들이 다 보게 함이라.

이때 행자(行者)는 모든 보살을 친견하고 몸과 마음이 환희해서 그에게 례배(禮拜)하고 말씀하되,

“대자대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나를 위하여 법을 설하시옵소서.”

이와 같이 말할 때에 모든 보살들이 같은 음성으로 각각 청정(淸淨)한 대승경(大乘經)의 법을 설하시고 모든 계승을 지으사 행자(行者)를 찬탄함이라.

이것을 이룸하여 보현보살을 관(觀)하여 최초의 경계(境界)라 하느니라.

그때 행자는 이 일을 보고 마음으로 대승을 주야(晝夜)로 생각하

면, 잠든 가운데 꿈에도 보현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함을 보리니 깨었을 때와 다름이 없으리라.

그의 마음을 안위하사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되,

“네가 외워서 가진 이 구절과 이 계송을 잊었느니라.”

그때 행자(行者)는 보현보살의 설함을 듣고 그 의취(義趣)를 깊이 해석하여 생각해 가지고 잊어버리지 아니함이니, 나날이 이와 같이 하여 그 마음이 점차로 슬기로워지리라.

보현보살이 그로 하여금 십방의 모든 부처님을忆념(憶念)케 하니 보현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을 하여 점차 심안(心眼)으로 동방의 부처님을 친견(親見)하게 되니 몸이 황금 빛이며 단엄(端嚴)하고도 미묘하심이라.

한 부처님을 친견하고는 또 다시 한 부처님을 친견함이라.

이와 같이 하여 점차로 두루 동방 일체의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며 마음에 환희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하시되,

“대승으로 인해서 큰 보살을 친견하고 큰 보살의 힘으로 인하여 모든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었음이라.

비록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였으나 아직 밝게 친견치 못하였으니 눈을 감은즉 보이고 눈을 뜨면 보이지 않음이라.”

이 말을 하고 5체(體)를 땅에 던져 십방 부처님께 두루 례배(禮

拜)하고 모든 부처님께 례배(禮拜)를 마치고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이와 같이 말함이라.

“모든 부처님 세존은 십력(十力) 무외(無畏) 18불공법(不共法) 대자대비(大慈大悲) 삼념처(三念處)에 계시되 항상 세간 색중(色中)에서 으뜸이시라. 저는 무슨 죄가 있어 친견하지 못하나이까.”

이런 말을 하고 또 다시 참회하며, 참회하여 청정해지면 보현보살이 또 다시 앞에 나타나되 가고 머물고 앉고 누움에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지는 꿈 가운데서도 항상 법을 설하리니 그 사람이 깨닫고 법희(法喜)의 락(樂)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하여 주야(晝夜) 삼칠일(三七日)을 지난 연후에 곧 선 타라니(旋陀羅尼)를 얻으리라.

타라니를 얻은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설한 묘법을 기억하여 가지고 잃지 아니하며,

또한 항상 꿈에 과거의 일곱 부처님을 친견하되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시고, 이 모든 세존께서는 각각 대승경전을 칭찬하시리라.

그때 행자는 또 다시 참회하고 두루 십방 부처님께 례배(禮拜)하리라.

십방의 부처님을 례배(禮拜)하여 마치면 보현보살이 그 사람 앞

에 머물러서 속세(宿世)의 일체 업연(業緣)을 가르치고 어둡고 악한 일체 죄업의 일을 발로(發露)하게 함이라.

모든 세존을 향하여 입으로 스스로 발로하라. 발로가 끝나면 이때 곧 모든 부처님의 현전삼매(現前三昧)를 얻으리라.

이 삼매를 얻으면 동방의 아축불(阿閼佛)과 묘희국(妙喜國)을 보되 명확하고 분명하며, 이와 같이 십방의 부처님과 가장 묘한 국토를 보되 명확하고 분명하리라.

십방의 부처님을 이미 친견하고 나면 꿈을 꾸되 코끼리 머리 위에 한 사람의 금강인(金剛人)이 있어 금강저(金剛杵)로 6근을 두루 헤아리고, 6근을 헤아리길 마치면 보현보살이 행자(行者)를 위하여 6근의 청정 참회법(懺悔法)을 설하리라.

이와 같이 참회하되 하루로부터 7일에 이르며 모든 부처님의 현전삼매의 힘과 보현보살의 설법이 장엄(莊嚴)한 까닭으로 귀로서는 점점 그 장애(障礙)의 바깥의 소리를 들으며, 눈으로는 점점 그 장애 바깥에 일을 보고, 코로는 점점 장애의 바깥의 향기를 맡으며 널리 설하는 일이 묘법화경과 같으리라.

이 6근이 청정함을 얻고는 몸과 마음이 환희하고 모든 악한 생각이 없으리라.

마음이 이 법으로 맑아져서 법과 서로 응하며 또 다시 백천만억

의 선타라니를 얻고 또 다시 널리 백천만억의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리라.

이 모든 세존께서 각각 오른손을 내미사 행자의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되,

“착하고 착하다, 대승을 행하는 자며 대장엄의 마음을 일으키는 자며 대승을 념(念)하는 자라, 우리들이 지난날에 보제심(菩提心)을 일으켰을 때도 또한 모두 이와 같았노라.

너는 부지런히 하여 잃지 말라.

우리들이 전세(前世)에서 대승을 행한 까닭으로 지금 청정한 정편지(正遍知)의 몸을 이룩하였노라.

너도 지금 또한 마땅히 부지런히 닦아 게을리하지 말라. 이 대승경전은 모든 부처님의 보장(寶藏)이며 십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안목(眼目)이며 3세의 모든 여래가 출생하는 종자(種子)이니 이 경(經)을 가지는 자는 곧 부처님의 일을 행함이니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곧 모든 부처님의 사도(使徒)라.

모든 부처님 세존의 옷으로 덮어주며, 모든 부처님 여래의 진실한 법의 아들이라.

네가 대승을 행하여 법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너는 지금 동방의 모든 부처님을 관(觀)하여 잘 살펴 받들라.”

이 말씀을 설하실 때 행자는 곧 동방(東方) 일체의 한량없는 세

계를 봄이니, 땅이 손바닥같이 평정(平正)하고 모든 구렁텅이와 언덕과 가시덤불이 없으며, 유리로 땅이 되고 황금으로 간격이 됨이라.

십방세계도 또한 이와 같음이라.

이 땅을 보고 곧 보배나무를 봄이니 보배나무는 묘하고도 높이가 5천 유순(由旬)이라.

그 나무에서는 항상 황금과 백은이 나오며 칠보로 장엄되어 있음이라. 나무 아래 자연히 보배의 사자자리가 있으되 그 사자자리는 높이가 2천 유순(由旬)이며 그 자리 위에서 또한 1백의 보배 광명을 냄이라.

이와 같이 모든 나무와 보배 자리 하나 하나에는 다 자연으로 5백의 흰 코끼리가 있고 코끼리 위에는 다 보현보살이 계심이라.

그때 행자는 모든 보현에게 례배(禮拜)하고 이런 말을 하시되,

“나는 무슨 죄가 있어 다만 보배로 된 땅과 보배의 자리와 보배 나무만이 보이고 모든 부처님을 뵈옵지 못하나이까.”

이 말을 마치자 하나 하나의 자리 위에 단엄하고 미묘하신 세존이 한 분씩 보배자리에 앉아 계시니라.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고 마음에 크게 환희하여 또 다시 대승경전을 외우고 익히니 대승의 힘으로 허공에서 찬탄하는 소리가 있으

되,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네가 대승을 행하는 공덕과 인연으로 능히 모든 부처님을 친견함이라.

이제 비록 모든 부처님 세존을 친견하였으나, 석가모니 부처님과 분신의 모든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의 탑을 능히 친견치 못함이라.”

허공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다시 부지런히 대승경전을 외우고 익히니라. 대승 방등경(方等經)을 외우고 익히는 까닭으로 곧 꿈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대승과 함께 기사굴산에 계시사 법화경을 설하시어 일실(一實)의 뜻을 설하심을 봄이라.

가르치심이 끝나면 참회(懺悔)하고 갈앙(渴仰)하는 마음으로 친견하고자 하여 기사굴산을 향해서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이런 말을 하되,

“여래 세움께서는 항상 세간에 계시오니 나를 불쌍히 생각하시어 저를 위하여 몸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을 마치고 기사굴산을 보니 칠보(七寶)로 장엄되고 수없는 비구와 성문 대승들이 있고 보배나무가 열을 지었으며 보배로 땅이 되어 평정(平正)함이라.

또 묘한 보배로 된 사자자리에 앉으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간(眉間)의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이 십방세계를 두루 비추고 다

시 십방의 한량없는 세계를 지나감이라.

이 광명이 이르는 곳에 십방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이 한 때에 구름같이 모이사 널리 묘법을 설하심이 묘법화경과 같음이라.

하나 하나의 분신불(分身佛)은 몸이 자금색(紫金色)이요, 몸의 크기는 가이없으시며 사자자리에 앉으심이니, 백억의 한량없는 모든 큰 보살을 권속으로 삼으심이라.

하나 하나의 보살이 보현과 같이 행함이라.

이와 같이 십방의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도 보살 권속도 또한 이와 같음이라.

대중(大衆)이 구름같이 모여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하면 몸의 털구멍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하나 하나의 광명 가운데에 백억의 화불(化佛)이 계심이라.

모든 분신불(分身佛)도 미간(眉間) 백호(白毫) 대인상(大人相)의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마에 흘러 들어옴이라.

이 상(相)을 볼 때에 분신의 모든 부처님께서 일체의 털구멍에서 금빛 광명을 내시니, 하나 하나의 광명가운데 또 항하사(恒河沙) 미진수(微塵數)의 화불(化佛)이 계심이라.

그때 보현보살이 또 미간 대인상의 광명을 놓으니 행자(行者)의

마음에 들어감이라.

이미 마음에 들어가자 행자는 스스로 과거 수없는 백천의 부처님
처소에서 대승경전을 받아 가져 읽고 외웠음을 기억하고 스스로
지나간 몸을 보되 명확 분명하리라.

숙명통(宿命通)과 다름이 없어 활연(豁然)히 크게 깨쳐서 선타라
니(旋陀羅尼)와 백천만억의 모든 타라니문(陀羅尼門)을 얻으리라.
삼매에서 일어나 눈 앞에 분신불(分身佛)이 보배나무 아래 사자
자리에 앉아계심을 친견하며, 또 유리로 된 땅에 연꽃의 무더기
가 아래쪽 공중에서 솟아남을 보리라.

하나 하나의 꽃 사이에 미진수(微塵數)의 보살이 가부좌를 맺고
앉아 있으되 또한 보현보살의 분신이 그 대중가운데서 대승을 찬
탄하여 설하는 것도 보리라.

이때 모든 보살이 같은 음성으로 행자를 가르쳐서 6근을 청정하
게 하리라.

“혹은 설하여 말씀하되 너는 마땅히 부처님을 생각할지니라.

혹은 설하여 말씀하되 너는 마땅히 법을 생각할지니라.

혹은 설하여 말씀하되 너는 마땅히 승가를 생각할지니라.

혹은 설하여 말씀하되 너는 마땅히 계(戒)를 생각할지니라.

혹은 설하여 말씀하되 너는 마땅히 포시(布施)를 생각할지니라.

혹은 설하여 말씀하되 너는 마땅히 진리를 생각할지니라.

이와 같은 6가지의 법은 이것이 보제심(菩提心)이며 보살을 낳는 법이니라.

너는 지금 응당 모든 부처님 앞에서 이전의 죄를 드러내어 말하고 지성으로 참회할지니라.

한량없는 세상에서 안근(眼根)의 인연으로 모든 색(色)을 탐착하였음이라.

색(色)에 탐착한 까닭에 모든 티끌을 탐내고 사랑하였음이라.

티끌을 사랑한 까닭에 녀인(女人)의 몸을 받아 세세(世世)에 나는 곳마다 모든 색(色)에 현혹되고 착(著)함이라.

색(色)이 너의 눈을 멀게 하여 은혜와 사랑의 노예가 됨이라.

색(色)이 너를 부려서 3계를 두루 지나게 함이라.

이렇게 모질게 부려서 눈이 멀어 보이는 바가 없었음이라.

지금 대승의 방등경전(方等經典)을 외우니, 이 경(經)가운데서 십방의 모든 부처님의 색신(色身)은 멀하지 아니한다고 설함이라.

너는 이제 보았으니 진실을 잘 살폈느뇨. 안근(眼根)이 착하지 못하여 너를 많이 해쳤느니라. 나의 말에 순히 따라 모든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歸依)하고 향해서 너의 안근(眼根)이 지은 죄를 말하라.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혜명(慧明)과 법의 물로 씻어 없애 원컨대

나로 하여금 청정케 하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십방 부처님께 두루 례배(禮拜)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대승경전을 향해서 또 이런 말을 설하되,

“제가 지금 참회하는 안근(眼根)의 무거운 죄는 막히고 가리고 더럽고 흐림으로 눈멀어 보는 바가 없나이다.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대자비로 애민히 여기서 두루 보호하시옵소서.

보현보살이 큰 법의 배를 태우사 널리 일체 십방의 한량없는 모든 보살을 함께 건너도록 하시니, 오직 원컨대 애민(哀愍)히 여기서 저의 안근의 착하지 못함과 악한 업장(業障)을 회개하옵는 법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고 5체를 땅에 던지고 대승을 바로 생각하여 마음에서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말지니라.

이것이 안근의 죄를 참회하는 법이니라.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향을 피우고 꽃을 흘리고 대승의 뜻을 일으키고 비단 번개(幡蓋)를 달고, 눈의 허물과 환난을 말하며 죄를 참회하면, 이 사람은 현세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하고 아승기겁(阿僧祇劫)을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함은 대승의 힘이며, 대승을 원하기 때문이니 항상 일체의 타라니 보살과 함께 권속이 되리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을 정념(正念)이라 하며, 만일 달리 생각

하는 것을 사념(邪念)이라 하느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안근(眼根)의 처음 경계의 상(相)이라 하느니라.

안근을 맑게 하고는 또다시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고 주야(晝夜) 6시(時)에 무릎을 꿇어 참회하고 이와 같이 말하되,

“저는 지금 어찌하여 다만 석가모니 부처님과 분신부처님만을 친견하지 못하나이까. 다보 부처님의 탑은 항상 계시사 멸(滅)하지 아니하거늘 저의 눈이 흐리고 악한 까닭에 친견하지 못하옵니다.”

이와 같이 말하고 나서 또 다시 참회하라. 7일이 지나면 다보 부처님의 탑이 땅에서 솟아나리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곧 오른손으로 그 탑의 문을 여시면 다보 부처님께서 보현색신삼매(普賢色身三昧)에 드심을 친견하리라.

하나 하나의 털구멍에서 항하사(恒河沙) 미진수(微塵數)의 광명이 흘러 나오고, 하나 하나의 광명에 백천만억의 화불(化佛)이 계심이라. 이 상(相)이 나타났을 때 행자(行者)는 환희하여 찬탄의 게송을 부르며 탑을 7번 돌면 다보여래께서 큰 음성으로 찬탄하여 말씀하시되,

“법의 아들이여, 너는 지금 진실로 능히 대승(大乘)을 행(行)하고 보현(普賢)을 순히 좇아 안근(眼根)을 참회함이라. 이 인연으

로 내가 네게 이르러 너를 위하여 증명하리라.”

이 말씀을 설하시고 찬탄하여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능히 큰 법을 설하고 큰 법의 비를 내려서 흐리고 악한 모든 증생들을 성취시켜 주심이라.”

이때 행자는 다보불탑(多寶佛塔)을 친견하고는 다시 보현보살처소에 이르러 합장하여 례배(禮拜)하고 말씀하되,

“큰 스승이시여, 저에게 허물 뉘우침을 가르쳐 주옵소서.”

보현보살이 또 말씀하되,

“너는 많은 겁을 두고 이근(耳根)의 인연으로 바깥소리에 이끌려서 묘음(妙音)을 들을 때는 마음이 미혹에 착(著)하고 악한소리를 들을 때는 108가지의 번뇌(煩惱)의 도둑이 해침을 일으킴이라.

이와 같이 악한 귀의 보(報)로 악한 일을 얻고 항상 악한 소리를 듣고 모든 인연을 만들어서 전도(顛倒)되게 들은 까닭으로 마땅히 악도(惡道)와 사견(邪見)이 가득차고 법을 들을 수 없는 변두리 땅에 떨어지리라.

너는 오늘 대승의 바다와 같은 공덕(功德)의 장(藏)을 외워서 가졌노라. 이 인연으로 십방의 부처님을 친견하고 다보불(多寶佛)의 탑이 나타나 너를 증명하심이라. 너는 마땅히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말하여 모든 죄를 참회할지니라.”

이때 행자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다시 합장하여 5체를 땅에 던지고 이렇게 말하라.

“정편지(正遍知) 세존이시여, 나타나시여 저를 위하여 증명하십시오. 방등경전(方等經典)은 자비(慈悲)의 주인이 되심이옵니다. 오직 원컨대 저를 굽어보시고 제가 설하는 바를 들어 주십시오.

저는 다겁(多劫) 전부터 이 몸에 이르기까지 이근(耳根)의 인연으로 음성을 듣고 미혹에 착(著)함이 풀잎이 아교에 붙는 것과 같아, 모든 악한 소리를 들을 때는 번뇌의 독(毒)을 일으키고 곳 곳마다 미혹에 착(著)해서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옵니다.

이 번거로운 소리가 저의 식신(識神)을 헛되이 괴롭히고 마침내 3악도에 떨어지게 함이니, 지금 비로소 알아 깨닫고 모든 세존께 향해서 드러내어 참회하나이다.”

참회를 마치고 나면 다보불의 큰 광명 놓으심을 친견하리라. 그 광명은 금빛이며 동방과 십방세계의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두루 비추시니 몸이 진금빛이라.

동방 허공에서 이같이 크게 불러 말씀하되,

“이 곳의 부처님 세존은 이름이 선덕(善德)이시라. 또한 수없

는 분신불(分身佛)이 계시되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리 위에 가부좌를 맺고 앉아 계시니라.”

이 모든 세존께서는 다 보현색신삼매(普賢色身三昧)에 드시고 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찬탄하시되,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네가 지금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느냐. 네가 외우는 바는 부처님의 경계이니라.”

이 말씀이 끝나면 보현보살이 또 다시 참회의 법을 설하리라.

“너는 전생(前生) 한량없는 겁에 향기를 탐낸 까닭으로 모든 식(識)을 분별해서 곳곳마다 탐착(貪著)하여 생사(生死)에 떨어짐이러. 너는 지금 응당 대승의 인(因)을 관할지니, 대승(大乘)의 인(因)이라는 것은 모든 법의 실상(實相)이니라.”

이 말씀을 다 듣고는 5체를 땅에 던져 또다시 참회하라. 참회(懺悔)가 끝나거든 이와 같이 말하라.

“남무 석가모니불(南無 釋迦牟尼佛). 남무 다보불탑(南無 多寶佛塔). 남무 십방석가모니분신제불(南無 十方釋迦牟尼分身諸佛).” 이라 할지니라.

이 말을 다하고는 십방 부처님께 두루 례배(禮拜)하고 “남무 동방선덕불(南無 東方善德佛)과 그리고 분신제불(分身諸佛)” 이라 할지니라.

눈으로 친견하는 바와 같이 하나 하나 마음으로 례배(禮拜)하고

향과 꽃을 공양하라.

공양이 끝나면 무릎 꿇고 합장하고 가지가지의 계송으로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라.

찬탄이 끝나거든 10가지의 악업(惡業)을 설하여 모든 죄를 참회하라. 참회가 끝나거든 이와 같이 말하라.

“제가 전생 한량없는 겁을 두고 향기와 맛과 촉(觸)을 탐내어 여러가지 악(惡)을 지었나이다. 이 인연으로 한량없는 내세에 항상 지옥(地獄) 아귀(餓鬼) 축생(畜生) 번두리땅에 사견(邪見)의 모든 좋지 못한 몸을 받았나이다.

이와 같은 악업(惡業)을 오늘 드러내어 말하고, 모든 부처님 정법의 왕게 귀의하옵고 향하여 죄를 아뢰옵고 참회하옵나이다.”

참회를 마치고 몸과 마음을 게을리하지 말고 또 다시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라. 대승의 힘이 있는 고로 허공에서 소리가 있어 일러 말씀하대,

“법의 아들이여, 너는 지금 마땅히 십방의 부처님을 향해서 대승의 법을 찬탄하여 아뢰고 모든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설하라.

모든 부처님 여래는 너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

너는 마땅히 스스로 설근(舌根)이 지은 착하지 못한 악업(惡業)

을 말할지니라.

이 설근(舌根)은 악업(惡業)의 생각에 움직이게 되어, 허망된 말, 거짓으로 꾸민 말, 악한 말, 이간질, 험뜯고 망녕된 말을 하고, 사견의 말을 찬탄하며 이로움이 없는 말을 설함이라.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모든 악업으로 싸우고 파괴하고 어지럽게 하며 옳은 법을 설한다 하면서 옳지 않은 법을 설함이라.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죄를 지금 다 참회하나이다.”

모든 세웅(世雄)앞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는 5체를 땅에 던져 십방 부처님께 두루 례배(禮拜)하고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라.

“이 혀의 허물과 환난은 한량이없고 가이없나이다. 모든 악업의 가시는 설근(舌根)에서 부터 나왔나이다.

바른 법륜을 끊는 것도 이 혀로부터 일어남이니,

이와 같이 악한 혀는 공덕(功德)의 종자를 끊으며 옳지않은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바르다고 굳세게 설하며 사견(邪見)을 찬탄함이 불에 땔나무를 넣어서 더욱 맹렬히 불타게 함과 같으며,

중생들을 상(傷)하고 해(害)롭게 한것이 독약을 먹은 사람이 부스럼이나 혹이 없어도 죽는 것과 같음이라.

이와 같은 죄보는 악하고 샷되고 착하지 못하여 마땅히 백겁 천 겁을 악도에 떨어지리다.

망녕된 말을 한 까닭으로 큰 지옥에 떨어지리니, 저는 지금 남방의 모든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향하여 어두운 죄악을 드러내어 아뢰나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허공에서 소리가 있으되,

“남방에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전단덕(梅檀德)이시라. 저 부처님에게도 또한 한량없는 분신(分身)이 계심이라. 일체의 모든 부처님께서 다 대승을 설하시어 죄와 악을 제하고 멸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은 모든 죄를 지금 십방의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 대비(大悲)의 세존을 향하여 어두운 죄악을 드러내고 성심으로 참회하라.”

이 말을 끝내고 5체를 땅에 던져 다시 모든 부처님께 례배(禮拜)할지니라.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또 광명을 놓으사 행자의 몸을 비추어 그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자연히 환희케 하시고 큰 자비를 일으키어 널리 일체를 생각하게 하심이라.

그때 모든 부처님께서 행자(行者)를 위하여 널리 큰 자비(慈悲)와 희사(喜捨)의 법을 설하시며, 또한 부드럽고 인자하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6가지의 화합하고 공경하는 법을 닦게하시리라.

그때 행자는 이 교칙(教勅)을 듣고 마음이 크게 환희해서 또다시

외우고 익히되 마침내 게으름과 쉬는 일이 없음이라. 허공에서 다시 미묘한 음성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되,

“너는 지금 마땅히 몸과 마음을 참회하라.

몸은 살생, 도둑질, 음란한 행동을 하며, 마음은 모든 착하지 못한 일을 생각하여 10가지의 악업(惡業)과 5가지의 무간지옥(無間地獄)을 지어서, 마치 원승이가 이리 저리 옮겨 뛰듯 하며, 또한 아교와 같이 곳곳마다 탐착해서 두루 일체의 6정근(情根) 가운데 이름이라.

이 6근(根)의 업(業)이 가지가 되고 꽃이 되고 잎이 되어 다 3계(界)의 25유(有) 일체가 나는 곳에 가득참이라.

또한 능히 무명(無明) 로(老) 사(死) 등 12인연(因緣)의 괴로운 일을 더욱 늘여서 8가지의 삿됨과 8가지의 환난을 거치지 아니함이 없음이라.

너는 지금 마땅히 이와 같은 악(惡)과 착하지 못한 죄업(罪業)을 참회(懺悔)할지니라.”

그때 행자는 이 말씀을 듣고 허공 소리 나는 곳을 향하여 묻되,

“저는 지금 어느 곳에서 참회의 법을 행(行)하오리까.”

이때 허공에서 소리가 있으되 이와 같은 말을 설하리라.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을 비로자나 편일체처(毘盧遮那 遍一切處)라고 이름하느니라.

그 부처님이 머무른 곳을 상적광(常寂光)이라 하느니라.

상파라밀(常波羅蜜)의 섭성(攝成)되어 있는 곳, 아파라밀(我波羅蜜)의 안립(安立)되어 있는 곳, 정파라밀(淨波羅蜜)의 유상(有相)을 멸하는 곳, 락파라밀(樂波羅蜜)의 몸과 마음의 상(相)이 머무르지 않는 곳,

유(有)와 무(無)의 모든 법의 상(相)을 보지 못하는 곳과 그리고 적멸(寂滅)과 같은 해탈(解脫)과 곧 반야파라밀(般若波羅蜜)에 이를 것이니라.

이 색(色)은 상주(常住)의 법인 까닭으로 이와 같이 응당 십방의 부처님을 권할지니라.”

이때 십방의 부처님께서 각각 오른손을 내미사 행자의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네가 지금 대승경을 읽고 외우는 까닭으로 십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참회의 법을 설하시느니라.

보살의 행할 바는 결사(結使-번뇌를 말함)를 끊지 아니하고 사해(使海-많은 번뇌 망상)에 머무르지 않음이라.

마음을 관(觀)함에 마음이 없으니 전도(顛倒)의 생각에서 일어남이라. 이와 같이 생각하는 마음은 망상으로부터 일어남이라.

허공의 바람이 의지 할 곳이 없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법의 상

(相)도 나지도 않고 멸(滅)하지도 아니함이라.

어떠한 것이 죄(罪)이며, 어떠한 것이 복(福)이뇨. 나의 마음이 스스로 공(空)하면 죄도 복도 주인이 없음이라. 일체의 법이 이와 같아서 머무르지도 않고 허물이 되지도 않느니라.

이와 같은 참회(懺悔)를 하면 마음을 관(觀)함에 마음이 없고 법도 법 가운데에 머무르지 아니함이라.

모든 법은 해탈(解脫)이며 멸체(滅諦)며 적정(寂靜)이라. 이와 같은 상(想)을 이름하여 대참회라 하며,

또는 이름하여 장엄(莊嚴)참회라 하며,

또는 이름하여 파괴심식(破壞心識)이라 하느니라.

이러한 참회를 행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청정(淸淨)하여 법 가운데에 머물지 아니함이 오히려 흐르는 물과 같음이니, 순간 순간 사이에도 보현보살과 십방의 부처님을 친견하리라.”

이때 모든 세존께서 대비의 광명으로써 행자를 위하여 상(相)이 없는 법을 설하시리라. 행자는 가장 높고 진실한 뜻의 공을 설하심을 들으리니, 행자는 듣고서 마음에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때에 응하여 보살의 정위(正位)에 드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이와 같이 행함을 이름하여 참회라고 하느니라. 이 참회는 십방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큰 보살이 행하신 참회법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 부처님의 모든 제자가 만일 악하고 착하지 못한 업장이 있어 참회하려거든 다만 대승경전을 읽고 외을지니라.

이 방등경(方等經)은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안목이니, 모든 부처님은 이것으로 인하여 5가지의 안목(眼目)을 갖추셨느니라.

부처님의 3종신(種身)은 방등(方等)에서 나옴이라.

이는 대법인(大法印)이니 열반해(涅槃海)에 깊이 새겨져 있음이니라.

이와 같은 해중(海中)에서 능히 3종(種)의 청정한 부처님의 몸이 나왔거늘, 이 3종신(種身)은 인간과 하늘의 복전(福田)이니 응공(應供)증의 가장 으뜸이니라.

그 대승(大乘) 방등경전(方等經典)을 읽고 외우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모든 악을 영원히 떨하고 부처님의 지혜로부터 남이라.”

그때 세존께서 계송으로 말씀하시되,

만일 안근(眼根)의 악(惡)이 있어

눈이 업장(業障)으로 막지 않거든

마땅히 다만 대승(大乘)을 외우고

가장 높은 뜻을 생각하고 념(念)할지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안근의 참회라고 하며

모든 착하지 못한 업장을 다 없애는 것이라 하느니라.

이근(耳根)은 어지러운 소리를 듣고

화합의 뜻을 무너뜨리고 어지롭게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광란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니

마치 어리석은 원숭이와 같음이라.

마땅히 다만 대승을 외우고

법이 공(空)하여 상(相)이 없음을 관(觀)하며

영원히 일체의 악(惡)을 다 여의고

천이(天耳)로 십방의 소리를 들으라.

비근(鼻根)은 모든 향기에 착(著)해서

모든 것에 물들어 갖가지 감정을 일으키나니

이와 같이 어지럽고 미혹된 코는

모든 것에 물들어 갖가지 티끌을 나게 함이라.

만일 대승경을 외우고

법과 같이 진실함을 관(觀)하면

영원히 모든 악업을 여의고

후세에 다시 나지 아니하리라.

설근(舌根)은 5가지 악한 말과

착하지 못한 업장을 일으키나니
 만일 스스로 조복(調伏)하여 바르게 하고자 하면
 응당히 부지런히 자비의 마음을 닦아서
 법의 참된 적멸의 뜻을 생각하여
 갖가지 분별하는 상(相)을 없이 할지니라.
 심근(心根)은 어리석은 원숭이와 같아서
 잠시도 쉬는 때가 없나니
 만일 조복(調伏)코자 하면
 응당 부지런히 대승을 외우고
 부처님의 대각신(大覺身) 력(力)
 무외(無畏)로 성취하시는 바를 념(念)할지니라.
 몸은 이 기관(機關)의 주인이라.
 티끌이 바람을 따라 굴림과 같음이라.
 6가지의 적(賊) 가운데서 유희(遊戲)하되
 자재하여 걸림이 없음이라.
 만일 이 악(惡)을 멸(滅)하고
 영원히 모든 번거로운 티끌을 떠나
 항상 널반성(涅槃城)에 처해서
 안락하여 마음이 담박(澹泊)하고자 하면

마땅히 대승경을 외워서

모든 보살의 근본(母)을 념(念)할지니라.

한량없는 크고 글썽 방편(方便)은

실상(實相)을 생각하는 데서 얻느니라.

이와 같은 6가지 법을 이름하여

6정근(情根)이라 하느니라.

일체 바다와 같은 업장(業障)은

다 망상(妄想)에서 남이라.

만일 참회하고자 하면

단정히 앉아서 실상(實相)을 생각하라.

여러 가지 죄는 서리나 이슬과 같아서

지혜의 태양으로 능히 소멸하고 제거할 것 이니라.

이런 고로 응당 지심으로 6정근(情根)을 참회할지니라.

이 계승을 설해 마치시고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너는 지금 이 6근을 참회하고 보현보살을 관하는 법을 가지고
 널리 십방의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널리 분별하여
 설하라.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 부처님의 모든 제자가 방등경전(方等經典)

을 받아 가져 읽고 외우고 해설하며, 또는 고요한 곳 혹은 무덤

사이 혹은 나무 밑이나 조용한 곳에서 방등(方等)을 읽고 외우고

대승(大乘)의 뜻을 생각할지니라.

생각하는 힘이 굳센 까닭으로 나의 몸과 다보불(多寶佛)의 탑과 십방의 한량없는 모든 분신불(分身佛)과 보현보살 문수사리보살 약왕보살 약상보살을 친견하게 되리라.

법을 공경하는 까닭에 모든 묘한 꽃을 가지고 허공에 머물러 서서 법을 행하여 가지는 사람을 찬탄하고 공경하리라. 다만 대승의 방등경(方等經)을 외우는 까닭에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주야(晝夜)로 이 법가지는 사람을 공양하시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나와 현겁(賢劫)의 모든 보살과 십방의 부처님이 대승의 진실한 뜻을 생각하는 인연으로 백만억겁 아승기(阿僧祇)수(數)나 되는 생사(生死)의 죄를 없애게 되었느니라. 이 가장 묘한 참회법으로 말미암아 지금 십방에서 각각 성불하였느니라.

만일 속히 아녹다라삼막삼보제(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성취하고자 하거나 현세의 몸으로 십방의 부처님과 보현보살을 친견하고자 하면,

마땅히 깨끗이 목욕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여러가지의 좋은 향을 피우고 공한(空閑)한 곳에서 응당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고 대승의 뜻을 생각할지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만일 증생이 보현보살을 관(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이 관(觀)하는 것을 정관(正觀)이라 하고, 혹 달리 관하는 것을 이름하여 사관(邪觀)이라 할지니라.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 부처님의 모든 제자가 부처님 말씀에 순히 쫓아서 참회를 행하려거든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보현의 행(行)을 행(行)하는 것이니라. 보현의 행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상(相)과 악한 업보(業報)를 보지 않으리라.

그 증생이 주야(晝夜) 6시(時)에 십방 부처님께 례배(禮拜)하고 대승경을 외우며 가장 높은 뜻의 심히 깊은 공(空)의 법을 생각하면, 손가락을 한번 튕길 사이에 백만억아승기겁(百萬億阿僧祇劫)에 지은 생사(生死)의 죄를 제거하고 물리치느니라.

이 행(行)을 행(行)하는 사람은 참된 부처님의 아들이니라.

모든 부처님에게서 났으니 십방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그를 위하여 화상(和尚)이 되며, 이는 보살계(菩薩戒)를 구족(具足)한 사람이라고 하느니라.

갈마(羯磨)를 하지 않아도 자연히 성취되어 일체의 사람과 하늘에게서 공양을 받을지니라.”

그때 행자(行者)가 만일 보살계(菩薩戒)를 구족(具足)하고자 하면 응당 합장하고 공한(空閑)한 곳에서 십방 부처님께 두루 례배(禮

拜)하고 모든 죄를 참회하고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말한 연후에
고요한 곳에서 십방 부처님께 말씀하되 이와 같이 말하라.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항상 세상에 머물러 계심이나 저의 업장
(業障)으로 말미암아 비록 방등(方等)을 믿사오나 부처님을 뵈옵
고 깨달지를 못하나이다.

지금 부처님께 귀의하옵나니 오직 원컨대 석가모니부처님 정편지
(正遍知) 세존께서는 저의 화상이 되시옵소서.

대혜(大慧)를 구족(具足)하신 문수사리시여,
원하옵나니 지혜(智慧)로 저에게 청정한 모든 보살의 법을 주옵
소서.

가장 크고도 해와 같이 자비하신 미륵보살이시여, 저를 붙잡히
생각하사 제가 보살의 법을 받는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십방의 모든 부처님께서서는 나타나시어 저를 위하여 증명해 주옵
소서.

모든 대보살은 각각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거룩하신 대보살께
서는 증생들을 널리 지키시고 저를 도우사 지켜 주옵소서.

오늘 방등경전(方等經典)을 받아 가지나이다. 지금부터 목숨을
잃을지라도, 설령 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苦)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모든 부처님의 정법(正法)을 헐어 비방하지 아니하오리다.

이 인연과 공덕의 힘으로 지금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께서는 저를 위하여 화상이 되시옵소서.

문수사리께서는 저의 아사리(阿闍梨)가 되시옵소서.

당래(當來)의 미륵께서는 원컨대 저에게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십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원컨대 저를 증명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덕의 모든 보살께서는 원컨대 저의 도반(道伴)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대승경전(大乘經典)의 심히 깊고도 묘한 뜻에 의지하여 부처님께 귀의하나이다.

법에 귀의하나이다.

승가에 귀의하나이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할지니라.

삼보께 귀의함을 마치고 다음에 마땅히 스스로 맹세하여 6중(重)의 법을 받을지니라. 6중(重)의 법을 받고 다음에 마땅히 부지런히 닦아 행을 맑게 하여 거리낌이 없이하라.

널리 중생들을 건지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8중(重)의 법을 받을지니라.

이 맹세를 세우고 공한한 곳에서 여러 가지의 좋은 향을 피우고 꽃을 흠어서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대승 방등(方等)

을 받들어 공양하고 또 이와 같이 말하라.

“저는 오늘 보제심(菩提心)을 일으키오니 이 공덕으로 널리 일체를 제도하오리다.”

이 말을 하고 또 다시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에게 머리를 조아려서 례배(禮拜)하고 방등(方等)의 뜻을 생각하라.

하루 내지 삼칠일(三七日) 동안 출가든 재가든 화상(和尚)을 모시지 않고 모든 스승을 받아들이지 않고 갈마(羯磨)를 말하지 않더라도, 대승경전을 받아 가져 읽고 외우는 힘에 의해 보현보살의 행(行)을 일으켜 힘쓰는 까닭이니라.

이는 십방 모든 부처님의 정법(正法)의 안목(眼目)이니라. 이 법으로 인(因)해서 자연히 오분법신(五分法身)인 계(戒) 정(定) 혜(慧) 해탈(解脫) 해탈지견(解脫知見)을 성취함이라.

모든 부처님 여래는 이 법에서 나왔으며, 대승경(大乘經)을 얻어서 수기의 기별(記莖)을 받았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지혜있는 사람 혹은 성문(聲聞)이 삼귀의(三歸依)와 5계(戒) 8계(戒) 비구계(比丘戒) 비구니계(比丘尼戒) 사미계(沙彌戒) 사미니계(沙彌尼戒) 식차마니계(式叉摩尼戒)와 모든 위의를(威儀)를 헐어 파(破)하고 어리석고 착하지 못하여 마음이 악하고 샷되어 모든 계(戒)와 위의를(威儀)의 법을 많이 범하였더라

도, 허물과 환난을 없애고 멸하여 다시 비구(比丘)가 되어 사문(沙門)의 법을 갖추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부지런히 닦고 방등경전(方等經典)을 읽어 가장 높은 뜻과 심히 깊은 공(空)의 법을 생각하고 이 공(空)의 지혜(智慧)로 하여금 마음이 실상(相)과 더불어 서로 응(應)하게 할지니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순간 순간에 일체의 무거운 죄의 때를 영원히 다 없애고 남음이 없음이라.

이는 사문(沙門)의 법과 계(戒)를 주족(具足)하여 모든 위의(威儀)를 갖추었다고 함이니 응당 인간과 천상 일체의 공양을 받을지니라.

만일 우파새(優婆塞)가 모든 위의(威儀)를 범(犯)하면 착하지 못한 일을 지음이라.

착하지 못한 일이라 함은 소위(所謂) 불법(佛法)에 허물과 악(惡)이 있다고 말하며, 4중(四衆)의 범(犯)한 악한 일을 퍼드려 설하고, 도둑질, 음란한 짓, 질투를 하면서도 참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이라.

만일 참회하여 모든 죄를 멸(滅)하고자 하면 마땅히 부지런히 방등경전(方等經典)을 읽고 외우고 가장 높은 진실의 뜻을 생각할지니라.

혹은 왕이거나 대신(大臣) 파라문(婆羅門) 거사(居士) 장자(長者)

재관(宰官)의 사람들이 탐내어 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5역(逆)의 죄를 짓고 방등경(方等經)을 비방하면 10가지의 악업(惡業)을 고루 지으면 큰 악(惡)의 과보(報)로 응당 악도(惡道)에 떨어지되 지나가는 폭우(暴雨)가 내리듯 반드시 아비지옥(阿鼻地獄)에 떨어지리라.

만일 이 업장(業障)을 제(除)하여 멸(滅)하고자 하면 마땅히 뉘우치고 부끄러워하고 모든 죄를 참회하여 고칠지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어떻게 하는 것을 찰리거사(刹利居士)의 참회법이라 하시고.

참회하는 법이라 함은 다만 마땅히 올바른 마음으로 삼보를 비방하지 말 것이며, 출가하는 사람을 막지 말 것이며,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나쁘거나 어려운데 머물게 하지 말 것이며, 마땅히 끊임없는 생각으로 6념(念)의 법을 닦을지니라.

또한 마땅히 대승을 가진 사람에게 공급(供給)하고 공양(供養)하며 반드시 례배(禮拜)할지니라.

마땅히 심히 깊은 경(經) 이법의 첫째가는 뜻과 공(空)을 생각하여 기억할지니라.

이 법을 생각하는 사람, 이를 찰리거사가 제일의 참회를 닦는 것이라하느니라.

둘째의 참회라 함은 부모에게 효양(孝養)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는 것, 이것을 둘째 참회법을 닦는다고 하느니라.

셋째의 참회라 함은 정법(正法)으로 나라를 다스려서 인민(人民)들을 샅되거나 원통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셋째 참회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넷째의 참회라 함은 6재일(齋日)에 모든 경내(境內)에 칙(勅)을 내려서 힘이 미치는 곳에서 살생을 못하도록 하는 것, 이와 같이 법을 닦는 것을 넷째 참회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다섯째의 참회라 함은 마땅히 인과(因果)를 깊이 믿을 것이며, 일실(一實)의 도(道)를 믿어서 부처님이 멸(滅)하지 아니함을 아는 것, 이것을 다섯째 참회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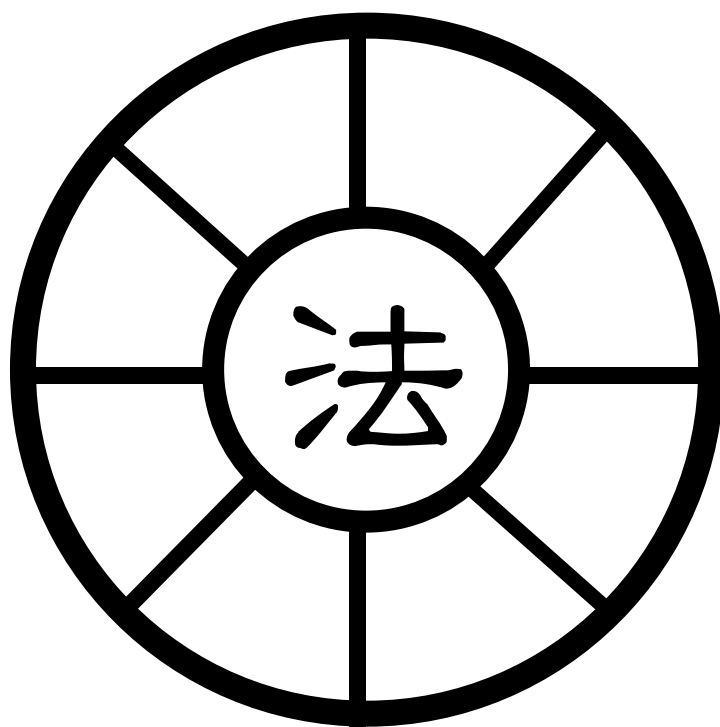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미래세(未來世)에 만일 이와 같은 참회법(懺悔法)을 닦고 익히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참회와 부끄러움의 옷을 입고 모든 부처님의 가호와 도움을 받아서 오래지 않아 마땅히 아녹다라삼막삼보제(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성취하리라.”

이 말씀을 설하실 때 십천(十千)의 천자(天子)는 법안정(法眼淨)을 얻고 미륵보살 등의 모든 대보살과 아난은 부처님의 설하신 바를 듣고 환희하여 받들어 행함이라.

관보현보살행법경 종

신입생 모집 요강



21세기 佛敎 최고 지도자 양성기관

法華經敎育院

00 학년도 전·후기 전문학부 신입생모집요강

1. 접수기간

- ① 전기 1월 5일 - 2월 20일
- ② 후기 7월 5일 - 8월 20일

2. 모집인원

- ① 통신반(전국) ○○명
- ② 인터넷반

3. 입학자격

- ① 대졸이상의 학력자
- ②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 ③ 불교정법을 공부하고자 하는자(특별전형)

4. 구비서류

- ① 입학원서 1통(본원 소정양식)
-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사진(5x4) 3매

5. 수강회비

① 한 학기당 100만원(교재대 포함)

6. 교육기간

① 4년(8학기) 통신반, 인터넷반 동일

7. 교육방법

① 통신반-매주 교재와 강의테이프 2개씩 우송

② 인터넷반-매주 음성 e-mail 로 강의 발송

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기간내
에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수강회비는
아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 :

농협 643105-52-069287 (진제)

※ 우편 : 513-832

전남 영광군 불갑면 자비리 268

법화경교육원 교무처

전공 및 졸업후 특전

1. 전공과목

- ①무량의경(漢文本)②묘법연화경(漢文本) ③관·보현보살행법경(漢文本) ④ 특강을 통한 모든 경전 비교연구
- ⑤정법화경(漢文本)은 연구반 과정으로 현재 진행

2. 졸업후 혜택

- ①수학(졸업)증서 수여 ②오종법사 자격증 수여(심사합격자)
- ③강원(포교원) 개원시 지원

3. 문의전화

① 평생전화 (0502) 353-9121 ② 교수직통 010-2042-3733

21세기 佛敎 최고 지도자 양성기관

法華經敎育院

책임교수 석보 진제(釋寶 眞濟) 合掌

우 : 57057

전남 영광군 묘량면 황량로 369-12

영광 교육원 : (0502) 353-9121

홈페이지 <http://www.saddharma.info>

e-mail : saddharma@gmail.com

수 강 신 청 서

1. 주 소 :

2. 성 명 :

3. 나 이 : 세

4. 남. 여

5. 주민등록번호 :

6. 전 화 : H)

O)

H.P)

7. 주요학력 및 경력

1) 년 월 일 :

2) 년 월 일 :

3) 년 월 일 :

4) 년 월 일 :

5) 년 월 일 :

위 본인은 귀 법화경교육원(대학원과정)에 수강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법 화 경 교 육 원 장 법 하